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국책연구기관, KINU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23-74-02  
북한 주민의 생활세계(life-world)(2/3년차)

KINU 연구총서 23-21

# 북한 주민의 학교 생활: ‘인민’의 재생산과 학교 일상의 수행성

조정아 | 박민주 | 조현정 | 황진태

#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북한 주민의 생활세계(life-world)”**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23-74-01	북한 주민의 직장 생활	통일연구원
23-74-02	북한 주민의 학교 생활: '인민'의 재생산과 학교 일상의 수행성	통일연구원
23-74-03	북한 주민의 가정 생활: 국가의 기획과 국가로부터 독립	통일연구원

2. 참여연구진

구분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23-74-01	주관 연구기관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연구위원	정은미 연구위원 김화순 연구교수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23-74-02	주관 연구기관	통일연구원	조정아 선임연구위원	박민주 연구초빙교수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조현정 대표 (이음연구소) 황진태 교수 (동국대학교)
23-74-03	주관 연구기관	통일연구원	박영자 선임연구위원	이지순 연구위원 이운진 선임연구위원 (육야정책연구소) 김 란 객원연구위원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 북한 주민의 학교 생활:

## ‘인민’의 재생산과 학교 일상의 수행성

### 연구책임자

조정아(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박민주(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연구초빙교수)

조현정(이음연구소 대표)

황진태(동국대학교 교수)

### 연구지원

홍예선(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KINU

## 북한 주민의 학교 생활: '인민'의 재생산과 학교 일상의 수행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23-74-02

북한 주민의 생활세계(life-world)(2/3년차)

KINU 연구총서 23-21

---

발행일	2023년 12월 30일
저자	조정아, 박민주, 조현정, 황진태
발행인	김천식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북한연구실장
등록	제2-02361호 (97.4.23)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페이지	<a href="https://www.kinu.or.kr">https://www.kinu.or.kr</a>
기획·디자인	(주)디자인여백플러스(02-2672-1535)
인쇄처	(주)계문사(02-725-5216)
I S B N	979-11-6589-159-6 93340
가격	13,500원

---

© 통일연구원, 2023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 북한 주민의 학교 생활:

‘인민’의 재생산과 학교 일상의 수행성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 Contents 차례

요약	9
----	---

## Chapter I

서론	15
1. 연구 목적 및 내용	17
2. 연구 방법	22
3. 김정은 시대 북한 교육 제도 및 정책 개관	30

## Chapter II

학교 안 일상의 시공간과 장소경험	43
1. 중등학교의 공식 일과시간과 학생들의 일과	46
2. 학교 공간의 구성요소와 학생들이 기억하는 학교 공간	61
3. 장소경험과 장소감	92
4. 소결	109



*Chapter III*

**교육과정의 실행과 학생들의 학습경험** ————— 113

1. 교육과정의 실행과 변형 ————— 115
2. 학교 교육행정 체계의 틈새와 학부모의 영향력 ————— 146
3. 학생들의 학습경험 ————— 165
4. 소결 ————— 201

*Chapter IV*

**학교 규율과 학생문화** ————— 205

1. 규율 권력의 통제와 학생의 수행성 ————— 208
2. 또래관계와 학생문화 ————— 248
3. 소결 ————— 283

*Chapter V*

**결 론: 평가와 전망** ————— 289

**참고문헌** ————— 302

**최근 발간자료 안내** ————— 307

〈표 Ⅰ-1〉 심층면담 대상자 인적사항 .....	23
〈표 Ⅰ-2〉 심층면담 대상자 유형별 분포 .....	24
〈표 Ⅰ-3〉 심층면담 대상자 성별 분포 .....	24
〈표 Ⅰ-4〉 심층면담 대상자 거주지역별 분포 .....	24
〈표 Ⅰ-5〉 심층면담 대상자 탈북 연도별 분포 .....	24
〈표 Ⅰ-6〉 학생용 질문지 .....	25
〈표 Ⅰ-7〉 교사/교직원용 질문지 .....	26
〈표 Ⅰ-8〉 학부모용 질문지 .....	27
〈표 Ⅰ-9〉 연간 교육과정 운영 .....	34
〈표 Ⅰ-10〉 고급중학교 교과목 및 수업시수 .....	35
〈표 Ⅱ-1〉 북한 중등학교 공식 일과시간 .....	47
〈표 Ⅲ-1〉 북한 중등학교 총취학률 .....	146
〈표 Ⅲ-2〉 북한 중등학교 출석률 .....	147

〈그림 I-1〉 북한의 학제 .....	31
〈그림 II-1〉 사례 16의 심상지도 .....	64
〈그림 II-2〉 사례 7의 심상지도(평양시 고급중학교) .....	67
〈그림 II-3〉 사례 8의 심상지도(평안남도 도시의 고급중학교) .....	68
〈그림 II-4〉 사례 17의 심상지도(함경북도 도시 외곽의 병설학교) .....	69
〈그림 II-5〉 사례 9의 심상지도(양강도 농촌지역 본보기학교) .....	71
〈그림 II-6〉 사례 4의 학교 공간 심상지도(양강도 농촌지역 병설학교) .....	72
〈그림 II-7〉 사례 14의 심상지도(양강도 농촌지역 병설학교) .....	72
〈그림 II-8〉 사례 19의 학교 공간 심상지도(양강도 도시지역 고급중학교) .....	76
〈그림 II-9〉 사례 7의 교실 그림(평양의 고급중학교) .....	77
〈그림 II-10〉 사례 19의 교실 그림(양강도 도시 외곽지역 고급중학교) .....	83
〈그림 II-11〉 사례 23의 심상지도 .....	95
〈그림 II-12〉 사례 22의 심상지도 .....	99
〈그림 II-13〉 사례 18의 심상지도 .....	103
〈그림 II-14〉 사례 13(교사)의 심상지도 .....	106





## 북한 주민의 학교 생활: ‘인민’의 재생산과 학교 일상의 수행성

이 연구에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중등학교 일상의 변화 양상과 특징을 교육의 시공간, 교육과정, 규율과 학생문화라는 세 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북한의 학교 일상에서는 근대적 학교의 특성과 북한식 사회주의의 특성이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기본적인 학교 공간 구성과 교육과정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학교 교육환경과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학교의 지리적, 정치적, 교육적 위치성에 따른 변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교육 정보화 시설 등 교육환경과 시설 측면에서 도농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의 교육정책, 공식적 교육과정, 학교 규율은 학교 일상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수행을 통해 변형되고 재구성된다.

연구 결과, 김정은 집권기 북한 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단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학교교육은 학생들에게 통치 이데올로기와 신념체계를 체화시키고 이들을 당과 수령에 충실한 인민으로 재생산하는 기능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감소하고 있다. 둘째, 북한당국이 우려하고 있는 바와 같이, 평양과 지방, 대도시와 촌락, 도시 중심부와 주변부 학교 간의 교육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농촌학교에서 보편적 교육의 질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하는 문제에서 북한당국은 정책적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제1중학교와

일반중학교, 대도시 중심학교와 주변부 학교의 서열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사회적 선발 장치로서 중등교육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넷째, 시장화 이후 학교의 공간과 시설, 교육과정 운영, 교육행정, 학생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시장경제의 영향력이 공교육에 침투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현재 북한의 중등교육은 사회주의적 평등을 강화하는 방향보다는 교육의 수월성과 선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추동하는 힘은 시장경제관계가 확대된 가운데 사회 구조와 제도의 제약 하에서 개인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행위자들이 구성하는 교육일상의 수행성이다.

**주제어:** 북한교육, 교육일상, 교육 공간, 교육과정, 학교 규율, 학생문화, 수행성, 심상지도



# School Life in North Korea: Reproduction of the ‘People’ and the Performativity of School Routines

*Cho, Jeong-ah et al.*

This study examines the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changes in the daily life of North Korean secondary schools after Kim, Jong-un came to power. The focus was on three aspects: the spatiotemporal aspects of education, the curriculum, and discipline and student culture. In the daily life at North Korean schools, both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schools and those of North Korean socialism were evident. While the basic spatial organization and curriculum were generally applied uniformly across most schools, variations occurred regarding the geographical, political, and educational positioning of schools in terms of the school's educational environment and the operation of the curriculum. Particularly, significant disparities were observed in educational environments and facilities, such as information technology facilities, indicating notable gap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The nation's education policies,

official curriculum, and school discipline undergo transformation and reconstruction through the interactions and performances of various actors including students, teachers, and parents in the daily life at school.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e following can be diagnosed regarding the state of education in North Korea during Kim, Jong-un's leadership: First, North Korean school education still performs the function of instilling governance ideology and belief systems in students, reproducing them as faithful members of the party and the leader, but its effect is waning. Second, as the authorities in North Korea are concerned about, significant educational disparities are evident between Pyongyang and the provinces, major cities and rural areas, and between schools in urban city centers and those on the outskirt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ppears to be facing challenges in achieving policy success in managing the quality of universal education in rural schools to a certain level. Third, while the 1st middle school, general middle schools, schools in urban city centers and on the outskirts are being ranked, the function of secondary education is being strengthened as a social selection mechanism. Fourth, the influence of the market economy is penetrating public education in various aspects such as school spaces and facilities, the operation of the curriculum,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student culture. This trend has been further reinforced since Kim, Jong-un came to power, and it is anticipated to persist in the future.



In conclusion, the current direction of secondary education in North Korea is moving towards strengthening the excellence and selection functions of education rather than reinforcing socialist equality. The driving force behind this movement is the performativity of educational daily life, shaped by individual pursuits of self-interest under the constraints of societal structures and institutions, amid the expansion of the market economy.

**Keywords:** North Korean education, School routines, Educational space, Curriculum, School discipline, Student culture, Performativity, Mental map



---

# I. 서론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서론

---

## 1. 연구 목적 및 내용

이 연구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학교 일상의 변화 양상과 특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대국가의 등장과 더불어 발달된 공교육제도는, 기능주의 관점에서 보면 보편적 사회화를 통하여 한 사회의 공통적 감성과 신념, 즉 집합의식을 후속세대에게 내면화시키는 기제이며(김신일 2003, 130), 갈등이론 관점에서는 사회체제 유지와 재생산에 필요한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재생산하는 핵심기제이다. 근대국가의 구성원인 개인에게 학교교육은 사회와 국가의 정규 구성원의 기본 자질인 지식, 기술, 신념체계를 갖추으로써 사회적 주체로 인정받고 해당 사회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주요한 통로이다. 또한, 학교는 미시권력의 작동을 통해 사회구조가 재생산되는 공간인 동시에, 주체의 수행과 미시저항을 통해 구조를 변화시키는 미시적 조건이 만들어지는 일상의 공간이기도 하다. 국가가 공교육을 독점하고 있는 북한에서 학교교육은 ‘공화국 인민’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체제를 재생산하는 강력한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학교교육에 대한 연구는 북한 체제의 특성과 주민들의 생활세계를 탐색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 시장경제 확산, 경제적 계층화 심화, 지역별 격차 확대, 외부문화·정보 유입 확대 및 사회 내부의 정보화 진전 등의 사회적 변화가 진행되었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교육정책과 교육공간 내 행위주체들의 일상에도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공교육 체계의 근간이 되는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 사회문화적 변동과 교육정책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학교교육 일상의 양상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학교교육의 시공간, 교육과정, 규율과 학생문화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학교교육 일상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드러나는 김정은 시대 북한 학교 일상의 특징과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II장에서는 학교의 행위주체들의 일상생활과 상호작용의 물리적 기반이 되는 학교교육의 시공간에 대해 살펴보았다. 시간과 공간은 학생과 교사 등 학교 내 다양한 행위자들의 일상이 펼쳐지고 이들의 행위가 전개되는 기본적인 존재양식이다. 시간과 공간이 교차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경험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은 자신에게 의미있는 '장소'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나간다. 이에, II장에서는 중등학교 학생들의 일과를 중심으로 이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하루의 시간을 살펴보았다. 특히, 대도시와 촌락, 일반학교와 수재학교 학생들의 일상의 시간 차이에 대해 주목하였다.

II장에서는 또한, 국가가 규정하는 학교 공간의 구성과 학교 공간에 대한 학생들의 기억을 다루었다. 북한당국은 법과 교육 관련 규정을 통해 학교의 기본적인 공간과 시설물의 기능 및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학교 운영에서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모든 학교가 갖추어야 하는 규정이지만, 실제로는 현실적인 여건의 제약으로 인해 지역별, 학교별로 공간과 시설 면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II장에서는 학교 구성원들의 심상지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다양한 학교의 공간과 시설의 스펙트럼을 재구성한다. 또한, 학교 공간에 관한 행위자들의 기억은 학교 공간을 점유하는 이들의 장소경험과 장소감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는 인간이 일상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장소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장소에 대한 감정인 ‘장소감(sence of place)’에 주목한다. 학생과 교사들의 학교 공간에 대한 심상지도와 구술을 바탕으로, 학교 공간을 일상적으로 전유<sup>1/</sup>하는 행위자들이 어떻게 학교 공간을 인식하고 경험하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III장에서는 중등학교 교육과정과 교육행정이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며 그 과정에서 의도된 교육과정이 행위자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어떻게 작동하고 변형되는지를 파악하였다.<sup>2/</sup> 교육행정과 교육과정이 실행되는 과정은 북한에서 교육을 주도하는 주요 행위자인 국가와 당의 의도를 구현하는 과정이며, 당과 국가의 미시권력이 행위자들에게 작동하는 과정이지만, 현실에서 교육과정은 국가와 당이 의도한 바 그대로 구현되지 못한다. 국가와 당이 교육과정을 통해 실현

1/ ‘전유(appropriation)’는 일상성과 관련된 앙리 르페브르의 개념으로, 남의 것이나 공동의 것 또는 원래 자기 것이었어도 빼앗겨 남의 것이 된 것을 다시 자기 것으로 소유한다는 의미이다. 즉, 자신의 육체·욕망·시간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스스로 장악하고 주체적으로 관리한다는 의미다.(앙리 르페브르 저·박정자 역 2005, 36, 39)

2/ 교육과정이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된 교육내용과 학습활동을 체계적으로 편성·조직한 계획”을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갖게 되는 학습내용이나 생활경험의 조직을 의미한다. 교육과정은 ‘의도된 교육과정’, ‘전개된 교육과정’, ‘실현된 교육과정’으로 구분되는데, 교사와 학습자 등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은 이 세 수준의 교육과정의 상호 불일치를 양산한다. ‘의도된 교육과정’은 목표로서의 교육과정이며, 법령으로 공표된 교육과정, ‘전개된 교육과정’은 수업 속에 반영된 교육과정으로, 교사의 실지 수업행위를 의미하고, ‘실현된 교육과정’은 학습성과로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로 배운 교육과정을 의미한다.(김호권·이돈희·이홍우 1977, 110-117) 기존 북한 교육 연구는 주로 교과교육 등 공식적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교과서 등 ‘의도된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 연구에서는 ‘전개된 교육과정’과 ‘실현된 교육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하려는 바는 교육과 관계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역동에 의해 변형되고 타협된 모습으로 구현된다(조정아 2008, 239). 이에, III장에서는 북한의 교육구조와 교육당국, 학교 운영자, 교사, 학부모 등 행위자들의 역학관계 속에서 교육과정과 행정체계가 실제로 전개되고 작동하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또한, 학교에서 교육과정이 전개되는 공간은 학생들의 시간과 공간, 신체에 대한 미시권력이 작동하는 공간인 동시에, 교육일상의 관성과 행위자가 창출하는 전유, 의도되지 않은 학습경험이 공존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학습자인 학생들의 관점에서 이들이 학교 교육과정을 어떻게 경험하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배우지 않았는지, 자신의 학습경험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의미화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북한 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을 고찰하였다.

IV장에서는 학교에서 규율을 통한 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학생들은 자신에게 부과되는 규율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규율'을 "규칙 또는 공식적 수업에서 명시하는 교육목표뿐만 아니라 교과지식의 암묵적 메시지, 지식의 조직 방식, 교육조직의 특성이나 교육 내의 행위자들간의 관계와 같은 '잠재적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개인을 특정한 방식으로 인식하고 실천하는 주체로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조정아 2003, 122). 북한에서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평생에 걸쳐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생활총화와 정치학습의 공간은 한편으로는 북한의 인민으로서의 의식이 주조되는 장소이다. 다른 한편으로, 학생들은 형식적인 생활총화나 시간때우기 식의 수업참여를 통해 규율의 시공간을 자신만의 의미있는 시공간으로 전환시키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수행성<sup>3/</sup>

3/ '수행성' 개념은 주디스 버틀러(J. Butler)의 '젠더 수행성' 개념을 원용한 것이다.



에 주목하여 북한 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규율을 통한 통제와 전유의 과정을 탐색하였다.

또한, IV장에서는 학교의 문화 역시 학생들을 특정한 방식의 인식과 실천의 주체로 만들어내는 규율화의 메커니즘이라는 관점에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또래관계 등의 인간관계와 학생문화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경제난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된 시장화, 계층화, 외부문화 유입 확대, 정보화 등의 사회변화 속에서 집단주의를 표방하는 국가규율을 대신하여 돈, 또래관계, 외부문화 등이 학생들의 일상에서 중요한 규율 권력으로 등장하였다(조정아 외 2013, 286). 이 연구에서는 특히 학생들 간의 구별짓기와 위계의 외적 잣대가 되는 경제적, 문화적 기표인 옷차림과 소지품, 휴대전화와 컴퓨터와 같은 전자기기 등의 사물이 학교 내의 인간관계와 학생문화를 어떻게 매개하는지에 주목하였다.

V장에서는 학교교육의 시공간, 교육과정, 규율과 학생문화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살펴본 북한 학교 일상에 대한 탐색을 바탕으로,

---

버틀러는 젠더를 양식화된 행위의 반복을 통해서 시간 속에서 희미하게 구성되고, 외부공간에 제도화되는 어떤 정체성이라고 본다. 즉, 젠더의 실체는 지속된 사회적 수행들을 통해 창조되었다고 보는 것이다.(J. Butler 저·조현준 역 2008, 349-350) 여기서 수행성이란 주체의 의도를 초과하고 그것으로 환원되지 않는 행위과정의 효과다. 행위와 주체성은 행위와의 관계에서 인과적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과정과 결과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취되는 수행적 구성물이다(김현준 2021, 18). 알렉세이 유르차(A. Yurchak)은 ‘수행성’ 개념을 바탕으로 소련의 마지막 세대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후기 사회주의 기간 소련 학교에서는 콤포물 조직의 판에 박힌 활동을 구성하는 권위적 담론과 의례화된 행위들 - 회합, 연설, 투표, 보고서 등 - 의 수행적 차원이 매우 중요해졌는데, 이런 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행위자를 시스템 내에서 ‘정상적인’ 소비에트인으로 재생산함으로써 행위자가 ‘순전한 형식’을 통한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하거나 다른 유형의 일과 의미에 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차원에서 의미있는 것이었다. 유르차는 학생들의 이와 같은 행위를 체제에 대한 순종 또는 저항의 이분법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이들이 보여주는 “권위적 체제나 담론의 안쪽에 머물면서 동시에 바깥쪽에서 살아가는 특이한 실존의 방식”을 통해 사회주의 시스템 자체가 구성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알렉세이 유르차 저·김수환 역 2019, 531-537)

북한의 중등교육을 진단·전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보고서의 II장은 조정아, 황진태, 박민주, III장은 조현정, 조정아, IV장은 박민주, V장은 조정아가 집필하였음을 밝혀둔다.

본 연구는 북한 학교교육 실태와 학생들의 생활실상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정과제 94번 “남북과제 정상화, 국민과 함께 하는 통일 준비” 추진에 기여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세대가 주역이 될 남북한 통합과 통일 과정에서 남북한 학생들의 상호작용의 양상과 갈등 요소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

## 2. 연구 방법

### 가. 심층면담

이 연구에서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행위와 경험, 주관적 의미에 초점을 둔 질적연구를 통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 실태와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 미시적 규율 권력의 작용과 수행, 학교교육과정의 경험, 학생들의 다양한 하위문화 등을 파악하였다. 2017년 이후 북한에서 고급중학교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학생, 동 시기에 자녀를 고급중학교에 취학시켰던 학부모, 김정은 집권기 학제개편이 이루어졌던 2013년 이후 북한 중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던 교사 출신 탈북민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2023년 3월-9월에 걸쳐 학생 17명, 교사 3명, 학부모 4명, 직원 1명 등 총 25명에 대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들 중 대다수는 본인 또는 자녀가 2018-2019년에 고급중학교에 재학하였다. 계층과 거주지역(대도시/접경지역, 농촌)을 고려하여 가급적 다양한 집단이

포함되도록 면담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2018년 이후 북한의 고급중학교 경험이 있는 탈북민이 많지 않아, 양강도 접경지역 학교 재학생이 다소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교사와 교직원 등 다양한 학교 내 행위자들에 대한 심층면담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탈북민 중 김정은 시기에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였던 교사와 교직원은 극히 소수여서 이들의 경험은 제한적으로만 반영되었다.

면담대상자 인적사항과 주요 집단별 면담인원은 다음 <표 I-1> -<표 I-5>와 같다. 면담대상자 중 가족이 북한에 남아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 면담내용 중 지역이나 학교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례번호를 비공개로 처리하였음을 밝혀둔다. 또한, 구체적인 도시 명칭, 학교 명칭 등도 면담대상자 상황을 판단하여 필요시 삭제하였다.

표 I-1 심층면담 대상자 인적사항

코드	성별	구분	거주지역	탈북 연도	본인(자녀)최종 재학/재직연도	면담 일시
사례 1	여	학생	양강도 시 지역	2018	2018	3.29.
사례 2	남	학생	강원도 군 지역	2021	2018	3.31.
사례 3	남	교사	양강도 시 지역	2019	2019	4.2.
사례 4	남	학생	양강도 군 지역	2019	2019	4.3.
사례 5	남	학생	함경북도 시 지역	2017	2017	4.6.
사례 6	여	학생	평양시	2022	2017	4.6.
사례 7	여	학생	평양시	2022	2017	4.6.
사례 8	여	학생	평안남도 시 지역/ 함경북도 군 지역	2018	2018	4.6.
사례 9	여	학생	양강도 군 지역	2019	2018	4.7.
사례 10	여	학부모	양강도 시 지역	2019	2018	4.8.
사례 11	여	학부모	함경남도 시 지역	2020	2016	4.14.
사례 12	여	학생	평양시	2022	2018	4.14.
사례 13	남	교사	양강도 시 지역	2013	2013	4.19.
사례 14	남	학생	양강도 군 지역/ 함경북도 군 지역	2019	2019	4.30.

코드	성별	구분	거주지역	탈북 연도	본인(자녀)최종 재학/재직연도	면담 일시
사례 15	남	학생	황해북도 군 지역	2019	2017	5.2.
사례 16	남	학생	양강도 시 지역	2019	2019	5.2.
사례 17	여	학생	함경북도 시 지역	2019	2017	5.11.
사례 18	남	학생	양강도 시 지역	2019	2018	5.13., 7.6.
사례 19	여	학생	양강도 시 지역	2019	2019	5.28.
사례 20	남	교사	양강도 시 지역	2016	2016	7.2.
사례 21	여	학부모	양강도 군 지역	2019	2018	7.2.
사례 22	남	학생	특별시 지역	2018	2018	7.9.
사례 23	여	학생	양강도 시 지역	2018	2017	7.14.
사례 24	여	학부모	양강도 시 지역/ 평안남도 시 지역	2019	2019	7.15.
사례 25	여	직원/교사	양강도 시 지역	2019	2019	7.20., 9.5.

표 1-2 심층면담 대상자 유형별 분포

학생	교사	학부모	학교 직원
17	3	4	1

표 1-3 심층면담 대상자 성별 분포

남성	여성
11	14

표 1-4 심층면담 대상자 거주지역별 분포

평양시	특별시	평안남도	황해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강원도	양강도
3	1	1	1	1	2	1	15

표 1-5 심층면담 대상자 탈북 연도별 분포

2013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	1	1	4	13	1	1	3

심층면담대상자는 연구자가 이전에 만났던 탈북민과 탈북청소년을 통해 소개받거나 지역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관에 부탁하여 소개받았다. 소개자들을 통해 면담 희망 의사를 밝힌 면담대상자들에게 연구자가 전화로 연락하여 연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심층면담 참가의사를 타진하였다. 통일연구원의 생명윤리심의를 거치고 면담대상자에게 사전 설명과 동의 절차를 밟은 후, 연구자의 연구실이나 외부 회의공간에서 2-4시간 정도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기본적으로 연구자 1인이 면담대상자 1인과 심층면담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필요에 따라 2-4인의 연구자가 함께 참여하기도 하였다. 특히, 교사의 경우 김정은 집권 시기를 경험한 면담대상자가 극히 적었기 때문에 전체 연구진이 다같이 참여하여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대상자의 생애사에 관한 기본질문과 개방형 질문을 먼저 한 후에, 학교생활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여러 명의 연구자가 참여하는 경우, 연구책임자가 심층면담을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면담 후반 부분에 공동연구자들이 보완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집단별 주요 질문은 다음 <표 1-6>-<표 1-8>과 같다.

**표 1-6** 학생용 질문지

- 북한에서 태어나 한국에 오셔서 현재까지 살아오신 과정을 말씀해주세요.
- 어린 시절에 관해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 부모 형제 등 가족들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 소학교, 중학교(초급중학교/고급중학교) 등 학교생활에 대해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 학교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 학교에 다니면서 가장 행복했던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학교에 다니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학교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 본인이 기억하는 학교의 모습을 그려주세요.

- 학교에 다닐 때 하루 일과를 말씀해주세요.
- 학교 수업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가장 좋아하거나 싫어했던 수업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방과 후 활동(소조 등)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농촌활동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수업으로 이루어진 군사훈련(군사활동초보 수업)에 대해 기억에 남는 것을 말씀해주세요.
- 학교에서 일한 경험(노동동원)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학교에서 경험한 소년단/청년동맹 활동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말씀해주세요.
-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청소년 문화가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이성친구를 사귀 경험에 있다면 그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선생님과 관계는 어땠는지 말씀해주세요.
- 학교에서 지켜야 할 규율에 대해 생각나는 것을 말씀해주세요. 또, 규율을 어겨 혼이 나가거나 처벌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에 관해 말씀해주세요.
- 휴일이나 방학은 어떻게 보냈는지 말씀해주세요.
- 학교를 다니다가 중도에 그만두거나 휴학을 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학교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고 누구와 그런 생각을 나누었는지 말씀해주세요.
- 탈북 동기와 과정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중국/또는 제3국에서는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 남한에 입국한 후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세요.
- 남한에 와서 학교에 다닌 경험이 있다면 북한과 어떤 점이 가장 달랐는지 말씀해주세요.
- 자신의 삶에 대한 계획이나 희망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표 1-7 교사/교직원용 질문지**

- 교사를 직업으로 선택하게 되신 과정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교사/교직원으로 학교에서 일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 교사/교직원으로 학교에서 일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교사/교직원으로 학교에서 일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교사/교직원으로 학교에서 일할 때 학교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 교사/교직원으로 학교에서 일할 때 본인이 기억하는 학교의 모습을 그려주세요.
- 교사/교직원으로 학교에서 일할 때 하루 일과를 말씀해주세요.
- 학교 수업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학생 지도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학생들을 지도할 때 가장 중요한 규율은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해주세요.
-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청소년 문화가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담임교사로 일한 경험이 있다면, 담임교사로서 학급 운영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노동(동원)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학부모들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과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 동료교사나 교장/부교장과 관계는 어땠는지 말씀해주세요.
- 휴일이나 방학은 어떻게 보냈는지 말씀해주세요.
- 김정은 집권 이후 교육정책에서 강조되거나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 김정은 집권 이후 학교교육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것인가요?
- 탈북 동기와 과정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중국/또는 제3국에서는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 남한에 입국한 후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세요.
- 남한의 학교를 교사나 학부모로서 경험한 적이 있다면 북한과 어떤 점이 가장 달랐는지 말씀해주세요.

#### 표 1-8 학부모용 질문지

- 북한에서 태어나 한국에 오셔서 현재까지 살아오신 과정을 말씀해주세요.
- 자녀를 양육한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자녀를 교육할 때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해주세요.
-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서 가장 힘들거나 어려웠던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학부모로서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일에 참여한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가 어땠는지 말씀해주세요. 교사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과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 김정은 집권 이후 학교교육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있다고 느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 탈북 동기와 과정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중국/또는 제3국에서는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 남한에 입국한 후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세요.
- 남한의 학교를 학부모로서 경험한 적이 있다면 북한과 어떤 점이 가장 달랐는지 말씀해주세요.

면담 내용은 면담 대상자의 동의를 구한 후에 녹음하였으며, 이를 전사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녹취록을 읽으면서 주요 내용에 대한 범주화 및 주제별 코딩을 실시한 후, 주제별 코딩 내용의 비교분

석을 통해 연구 주제와 관련된 중심 주제들을 도출하고 중심 주제와 주제별 해석을 정교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자료 수집 및 분석 과정에서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연구진 간에 자료 수집 및 사례 분석 과정을 공유하였다.

#### 나. 학교와 교실 공간에 대한 심상지도 분석

이 연구에서는 심층면담 과정에서 면담대상자가 다녔던 학교와 교실 공간을 그리도록 요청하여 학교의 일상 공간에 관한 면담대상자의 심상지도를 수집하였다. 심상지도는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점이나 장소를 자세히 그리게 되고, 또 자신의 삶 속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들을 표현하게 되며, 그렇지 않은 사항들은 그리지 않는 경향이 나타난다(박명화·남상준 2017, 45). 본 연구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에 대한 심층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다녔던 학교 공간에 대한 심상지도와 학급의 모습에 대한 그림을 그리도록 요청하였다. 심상지도 그리기는 대부분 심층면담 말미에 이루어졌으나, 간혹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심상지도를 먼저 그린 경우도 있었다. 먼저 면담대상자가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학교와 교실을 그렸고, 그에 따라서는 연구자가 해당 공간 또는 시설물 유무와 위치에 대해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심상지도를 완성하였다. 심상지도를 그리면서 다양한 공간과 시설에 얽힌 기억에 관해 얘기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학교 공간에 대한 기억과 학교 공간에 부여하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후 연구자가 심상지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위성사진 대조를 통해 실제 학교 건물의 위치와 구성을 확인하였다.



## 다. 교육 관련 북한 공간문헌 분석

이 연구에서는 노동신문, 교육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의 교육 관련 신문과 언론매체, 『사회주의교육학』, 『교수학』, 『청년동맹 및 소년단사업방법』을 비롯한 사범대학의 교육학 교재, 고급중학교 교과서 등의 문헌자료와 교육법령을 통해 학교교육 환경, 교육정책,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학교 및 청소년조직구울을 분석하였다. 2013년에 개정된 북한의 교육과정(『제1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초급중학교)』, 『제1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고급중학교)』)에 반영된 북한의 공식적 교육과정을 참조하였다.

북한당국이 발표한 교육 관련 공식통계가 거의 부재한 상황이지만, 국제기구에 보고된 교육 및 사회 분야 통계자료를 참조하여 북한의 교육환경 및 실태 분석에 활용하였다. 북한 교육 현황 관련 국제기구의 대표적인 보고서 및 통계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the DPR Korea and UNICEF, 2018,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Survey Finding Report*. Pyongyang, DPR Korea
-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21,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 UNICEF Data(<https://data.unicef.org/country/prk/#education>)
-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UIS)(<http://data.uis.unesco.org>)

### 3. 김정은 시대 북한 교육 제도 및 정책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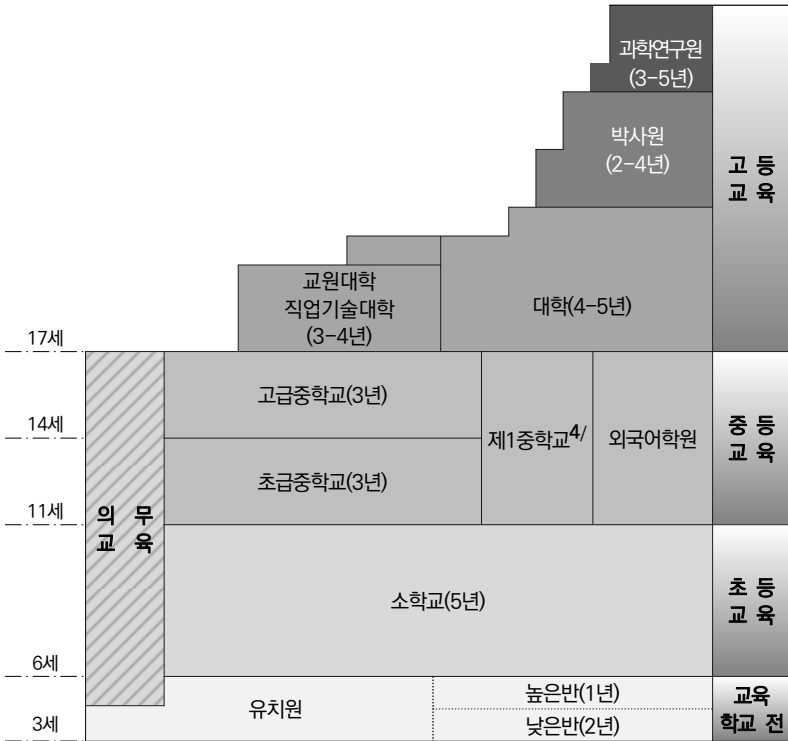
이 절에서는 북한 학교일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북한의 학제, 중등학교 교육과정, 김정은 집권 시기 북한의 교육정책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다룬다.

#### 가. 학제

북한의 학제는 3년간의 학교전교육, 5년간의 초등교육, 3년간의 전기중등교육, 3년간의 후기중등교육, 4-6년간의 고등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년간의 학교전교육과 초등교육, 전후기 중등교육의 총 12년의 무상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학교전교육기관은 유치원, 초등교육기관은 소학교, 전기중등교육기관은 초급중학교, 후기중등교육기관은 고급중학교이며, 소학교 취학연령은 남한의 초등학교 취학연령과 동일한 만 6세이다(〈그림 I-1〉 참조).

김정은 집권 이전 시기에는 유치원 높은반 1년, 4년제 소학교,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를 합한 것에 해당하는 6년제 중학교, 총 11년의 의무교육이 이루어졌는데, 2012년 9월 25일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6차 회의에서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라는 법령을 제정하여 현행 학제로 개편하였다. 북한에서는 중등교육기관의 학제를 계열 구분이 없는 단선형 학제로 운영하여 오다가, 2017년에 100여 개교의 기술고급중학교를 신설하였고(조선중앙통신 2017.12.19.), 이후 계속 확대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기술고급중학교의 특징을 "해당 지역의 경제지리적 특성에 맞게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대한 기술과목을 배워주는"(조선중앙통신 2017.12.10.) 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남한의 특성화고등학교와 유사한 특성을 지닌 학교로 판단된다.

그림 1-1 북한의 학제



출처: 저자 작성.

이 이외에도, 중등교육기관으로 영재교육기관인 제1중학교, 외국어특기자 교육기관인 외국어학원 등이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인 영재교육기관인 제1중학교 확대 과정을 보면, 1984년 평양에 평양제1고등중학교가 설립되었고, 1995년부터 각 도별로 제1고등중학교가

4/ 2015-2016년경부터 평양제1중학교 등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제1중학교에서 초급중학교 과정이 폐지되고 고급중학교 과정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6년 7월 16일자 북한 매체의 기사에서 평양시 소재 동평양제1중학교를 소개하면서 이 학교가 “평양시의 초급중학교 졸업생들 가운데서 실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3년간 수재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내나라 2016.7.16.). 사례 18도 자신이 재학한 도제1중학교에서 2015년부터 초급중학교 과정의 입학생 선발이 중단되었다고 구술하였다.

증설되었다. 특히 1999년에는 전국 시·군·구역마다 제1고등중학교가 1개교씩 추가 신설되어, 한때 전국적으로 200여 개의 제1중학교가 운영되었다(조정아 2007, 114). 그러나 제1중학교 진학을 위한 경쟁이 과열되고 일반학교 학생들의 학습열의가 낮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2008년경에 평양제1중학교, 도제1중학교와 평양시 소재 일부 제1중학교만 남기고 대부분의 시·군·구역 제1중학교는 일반학교로 전환하였다(김유연 2014, 2).

## 나. 중등교육과정<sup>5/</sup>

### 1) 초급중학교 교육과정

초급중학교는 3년제 전기중등교육기관으로, 소학교 5년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만 11세 학생들이 입학한다. 새 학년도 개학일은 4월 1일이고, 1학기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학기는 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이다. 초급중학교의 연간 교육과정은 총 52주 중 수업 34주, 집중 교수 2주, 시험 3주, 나무심기 1주, 새 학년도 및 새 학기 준비 10일, 명절휴식 2주, 방학 8주로 운영된다. 초급중학교에서는 3년간 총 16개 과목을 가르치며,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주당 32시간, 연간 1,152시간, 3년간 총 3,456시간의 수업을 진행한다. 수업은 45분 단위로 진행되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6시간 이내, 토요일에는 4시간 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5/ 이 절은 조정아 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과서』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조정아 2015, 27-35). 최근 북한은 2022년 초중등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추진하여 “제2차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강령”을 작성하였고,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새 교육과정에 따르는 교과서 개편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노동신문 2022.12.24.; 노동신문 2023.1.12.). 그러나 개정 교육과정 자료를 입수하지 못하여, 이 연구에서는 2013년에 개정된 『제1차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강령(초급중학교)』, 『제1차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강령(고급중학교)』을 기준으로 관련 내용을 서술하였다.

초급중학교에서는 정치사상 교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활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혁명활동’,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어머님 혁명활동’,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혁명활동’과 같이 김정은 일가의 항일혁명 역사 관련 과목과 ‘사회주의도덕’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어문·사회과학 교과 영역에 속하는 과목으로 ‘국어’, ‘영어’, ‘조선력사’, ‘조선지리’ 과목이 있고, 자연과학 영역에 속하는 과목으로 ‘수학’, ‘자연과학’이, 기술 과목으로 ‘정보기술’, ‘기초기술’, 예체능교과로 ‘체육’, ‘음악무용’, ‘미술’ 과목이 운영되고 있다.

## 2) 고급중학교 교육과정

고급중학교는 3년제 후기중등교육기관으로, 초급중학교 3년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만 14세 학생들이 입학한다. 학기 시작일과 종료일은 초급중학교와 동일하다. 연간 교육과정 운영은 <표 I-9>와 같다. 3년의 교육기간에 수업 이외에도 견학 1주, 붉은청년근위대훈련 1주, 나무심기 3주, 생산노동 9주 등 다른 활동이 많다. 고급중학교에 입학하면 학생들은 소년단 생활을 끝내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에 가입하게 되고, 동시에 붉은청년근위대원이 되어 남녀학생 모두 학교 내외 근위대 야영훈련소에서 군사훈련을 받게 된다. 이 군사훈련은 2학년 과정에서 1주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생산노동은 매학년마다 3주씩 주로 농번기에 농촌지원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 중학교에서는 각종 회의와 학생들의 정치활동이 학생조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년단과 청년동맹은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방과 후에 초급중학생들은 소년단, 고급중학생들은 청년동맹 조직활동을 하거나, 소조활동 등의 방과 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표 1-9 연간 교육과정 운영

번호	학업형태	학년	1	2	3
		단위			
1	주당 시간수에 따르는 교수	주	30	28	23
2	집중적으로 진행할 교수	주	3	4	6
3	시험	주	3	3	3
4	건축	주	-	-	1
5	붉은청년근위대훈련	주	-	1	-
6	나무심기	주	1	1	1
7	생산노동	주	3	3	3
8	동맹생활총화	(일)	(2)	(2)	(3)
9	명절휴식	주	2	2	2
10	새 학년도 및 새 학기준비	(일)	(10)	(10)	(10)
11	방학	주	8	8	8
계		주	52	52	48

출처: 조정아 외 2015, 33.

고급중학교에서는 <표 1-10>과 같이 재학 3년 동안 총 22개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수업은 초급중학교와 마찬가지로 45분 단위로 진행되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6시간 이내, 토요일에는 4시간 수업을 한다.

정치사상교과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역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혁명역사',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어머님 혁명역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혁명활동'과 같은 김정은 일가의 항일혁명 역사 관련 교과와 '사회주의도덕과 법', '현행당정책' 과목을 가르친다. 어문·사회과학 교과 영역에 속하는 과목으로 '국어문학', '한문', '영어', '력사', '지리' 과목이 있고, 자연과학 영역에 속하는 과목으로 '수학', '물리', '화학', '생물' 과목이 있다. 기술 교과로,

‘정보기술’, ‘기초기술’, ‘공업(농업)기초’ 과목을, 예체능 교과로는 ‘체육’, ‘예술’ 과목을 가르친다. ‘체육’ 과목에서 7-8월에 청년동맹 조직과 협동하여 매학년 1주씩 수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이외에 군사과목으로 ‘군사활동초보’가 운영된다. 이 과목은 2학년에서 붉은청년근위대훈련으로, 3학년에서는 하루씩 야외숙영의 방법으로 초보적인 군사활동 능력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표 1-10 고급중학교 교과목 및 수업시수

구분	과 목	총시간	학년	1	2	3
			주수	15/15	14/14	13/10
사회·도덕 교과군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	160		3(104)	2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혁명력사	148		-	2	4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혁명력사	42		-	1/2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혁명활동	81		1	1	1
	현행당정책	88		1주(20)	1주	1주
	사회주의도덕과 법	81		1	1	1
	력 사	104		1	1	2
	지 리	81		1	1	1
	심리와 윤리	34		-	-	1주
	소계	819		7	8.5	9
어학 교과군	국어문학	215		3	2	3
	한 문	81		1	1	1
	영 어	243		3	3	3
	소계	539		7	6	7

구분	과 목	학년 주수 총시간	1	2	3
			15/15	14/14	13/10
수학· 자연과학 교과군	수 학	368	5	5/4	4
	물 리	331	5	4	3
	화 학	248	3	4	2
	생 물	220	3	3	2
	소계	1,167	16	16/15	11
기술·실과 교과군	정보기술	111	2	1	1
	기초기술	272	2주	3주	3주
	공업(농업)기초	92	-	-	4
	소계	475	2	1	5
예체능 교과군	체 육	81	1	1	1
	예 술	81	1	1	1
	소계	162	2	2	2
군사 교과	군사활동초보	96	-	1주(48)	1주(48)
주당시간수		-	34	34	34
계, 학년별 교수시간수		3,258	1,122	1,136	1,000
과외학습		(465)	(5)	(5)	(5)
청년동맹생활		(372)	(4)	(4)	(4)
과외체육		(243)	(3)	(3)	(3)

출처: 조정아 외 2015, 34.



#### 다. 김정은 시대 교육정책 방향 및 시기별 교육정책의 특징

북한당국은 ‘정보산업시대’, ‘지식경제시대’인 현 시대에 과학기술 발전이 국력을 좌우하는 관건이 된다고 보고(조정아 외 2020, 19),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국가발전전략으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인재 양성과 교육과 교원의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국제적 추세’를 염두에 둔 학제 및 교육과정, 교육방법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보화 시대로의 변화를 반영하여, 교육공간과 환경, 교육내용 및 방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교육 정보화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우수한 교원 확보가 교육의 질 향상의 관건이 된다고 보고, 교원양성체계 및 재교육을 강화하고 교원우대 사회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별(수도와 지방, 도시와 농촌) 교육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지역별, 학교별 교육격차 해소를 강조하고 있으며, 동시에 팬데믹 사태를 맞아 정치사상교육과 학생들의 비사회주의 행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현재까지 북한中等교육정책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김정은 집권부터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가 개최되기 이전인 2014년 8월까지의 시기는 김정은 시대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이 드러난 시기이다. 이 기간의 초중등교육 부문의 대표적인 정책 성과는 초중등학제개편과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시행이다. 2012년 9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6차 회의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라는 법령을 제정하여 의무교육을 1년 연장하고 학제 개편을 단행하였고,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편, 교원 수요에의 대응과 교원 재교육 체계 마련, 교수의 정보화, 교육행정관리의 컴퓨터화, 정보통신망 구축 등 전반적인 교육 개혁 내용을 제시하였다(노동신문 2012.9.26.). 2014년부터 전국 초중등학교에 적용된 개정 교육과정의 두드러진

변화는 컴퓨터 관련 과목의 개편 등 IT교육 강화, 김정은 관련 정치 사상교육 과목 추가, 영어교육 비중 확대, 일부 통합교육과정 운영, 탐구과제 중심으로의 교과서 내용 체계 변화 등이다.

두 번째 시기는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에서 김정은의 첫 담화문 발표가 이루어진 2014년 9월부터 제14차 '전국교원대회'가 개최되기 이전인 2019년 8월까지의 시기이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라는 김정은 시대 북한 교육의 목표가 제시되었고, 각종 교육법령이 제·개정되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원법」 제정(2015.10.8.), 「교육강령집행법」 제정(2016.6.24.), 「교육법」 개정(2015.12.23.), 「보통교육법」 개정(2015.12.23.), 「고등교육법」 개정(2015.12.23.)).<sup>6/</sup> 김정은은 2013년 8월 25일 선군절 계기 담화문("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가자")을 통해 '전민과학기술인재화'라는 목표를 제시한데 이어, 2014년 '전국교육일군대회'에서 '새세기 교육혁명'의 목표는 "모든 청소년학생들을 강성국가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해 우리 나라를 21세기 사회주의교육강국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천명하였다(노동신문 2013.8.25.; 노동신문 2014.9.6.). 2015년에는 「교육법」 제8조 "은 사회의 인테리화원칙"을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실현원칙"으로 수정하여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는 것은 사회주의교육의 전망과업"이라는 점을 법에 명시하였고, 2019년 4월 「사회주의헌법」 개정 시에도 이를 반영하였다(조정아 외 2020, 39). '전민과학기술인재화'라는 김정은 시대 교육 목표의 천명 이후, 2015년경부터 전국의 초중등학교에서 컴퓨터와 TV, 교내망 등 멀티미디어 교수 환경 조성을 독려하고 있으며, 2017년경부터는 고급중학교 졸업시험을

6/ 북한 법령은 국가정보원, 2022, 『북한법령집 上, 下』 참조. 이하 북한 법령 출처는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법령 앞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외, 「법령명」과 해당 조문(필요시)만 표기하였다.

컴퓨터로 실시하는 등 교육 정보화 및 원격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또한 기술고급중학교가 신설되면서 후기중등교육에서 계열 분화가 이루어졌다. 기술고급중학교는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기술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여, 중등일반교육에 기초기술교육을 강화한 학교로, 2017년 100여 개교가 설치된 이래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600여 개의 기술고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 기술반이 운영되고 있다.<sup>7)</sup> 2021년도부터는 기술고급중학교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일반 고급중학교를 기술고급중학교로 전환하는 방식 대신, 일반 고급중학교에 ‘기술반’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기술교육에 초점을 둔 중등교육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술고급중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산업 부문은 금속, 석탄, 화학, 전기, 수산, 농산, 과수, 축산, 정보기술, 화학, 피복, 요리, 산업미술, 임업, 잠업, 서비스업(조선중앙통신 2020.4.27.; 조선중앙통신 2021.12.13.) 등이다.

세 번째 시기는 2019년 제14차 ‘전국교원대회’에서 “교원들은 당의 교육혁명방침관철에서 직업적혁명가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라는 김정은의 서한이 전달된 2019년 9월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 교원 진영 강화, 직업기술교육 강화, 선진교육 구현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등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팬더믹 사태를 맞아 정치사상교육의 강화 등 보수적인 정책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북한당국은 교원 대열 강화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관건적 요소라는 인식하에, 제14차 ‘전국교원대회’ 이후 교원 양성 및 자질향상 사업

<sup>7)</sup> 북한당국이 정확한 학교 수를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노동신문 등의 북한 매체에 나타난 기술고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 기술반 운영 현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2020년에 190여 개의 기술고급중학교가 신설되었고, 2021년에 기술고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 기술반이 320개교로 늘어났고, 2022년에 150여 개가 설치되어 전국적으로 500여 개의 기술고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가 운영되었으며, 2023년에 100여 개의 기술고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 기술반이 신설되었다(조선중앙통신 2020.4.27.; 조선중앙통신 2022.2.25.; 노동신문 2022.6.10.; 노동신문 2023.4.4.).

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특히, 사범교육기관 확대·강화, 중앙재교육 강습소와 대학 교육학부 등 교원재교육기관의 역할 강화, 교원 대상 원격재교육 확대, 교원들의 박사원교육과 학위 취득 장려 등 전문성 심화 노력, 사범대학, 교원대학 건설 및 개진, 각급학교 교원 확충 및 사범교육기관에 우수 학생 입학 조치 시행 등이 역점 추진 사항이다.

이와 함께 도시학교와 농촌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문제가 중요한 교육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도농 간 교육격차는 경제난 시기 학교 교육 인프라 약화와 이후 시장화에 따른 지역간 경제 격차 증대 추세 속에서 계속 심화되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한 학교 폐쇄도 지역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UNICEF가 보고한 코로나-19 관련 학교폐쇄 통계자료를 보면, 코로나 팬더믹 기간 북한의 학교운영 실태는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나타났다(황진태 외 2022, 206). 그러나 실제로는 방역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군 및 농촌지역 학교에서는 '안내수업'이라고 명명되는 방문교육이 학교수업을 장기간 대체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반적인 교육의 질 하락과 교육격차 확대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북한당국은 심각한 도농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에서 창안된 교수방법을 농촌지역에 보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범대학과 교원대학 졸업생의 도서벽지 진출을 추동하고(노동신문 2022.6.22.; 노동신문 2022.8.19.), 농촌과 주변부 학교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전략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임을출 2022, 16) 2021년 9월에 제정한 「시, 군발전법」에서도 6개 조항에 걸쳐 교원 확보 및 자질향상, 학교건설과 후원사업 등 교육 부문의 지역의 교육 발전과 지역간 격차 해소 방안을 서술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학 졸업생들의 산골학교,

전연지대, 섬마을학교 자원진출을 격려하는 탄원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노동신문 2022.6.22.; 노동신문 2022.8.19.).

2023년 6월에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는 “교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획기적조치에 대하여”가 의정으로 논의되었다. 구체적인 논의 결과는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고, “나라의 교육구조를 선진교육을 줄수 있게 고치며 교육내용과 방법을 세계적인 교육발전추세에 맞게 개선할데 대한 당의 방침”에 입각하여 진행된 그간의 연구정형 보고와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도되었다(노동신문 2023.6.19.). 이 회의를 전후로 북한 언론의 교육관련 기사에서는 “창조형, 실천형 인재 양성”과 “선진교육”이라 키워드와 함께, 직업기술교육과 지역 및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일례로, 2023년 1월 23일자 노동신문에서는 기초기술 분야 교육을 확대하고 기술고급중학교(기술반)를 증설하고 직업기술교육을 받는 학생수를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개성에 따라 문과, 리과, 예능, 기술분야 등의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집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노동신문 2023.1.23.) 실제로 북한에서는 제1중학교를 중심으로 고급중학교에서 선택과목제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2022년에 평양제1중학교는 몇 해 동안 적용해온 고급반 선택과목제의 교육강령을 분석하여 새로운 교육강령을 작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한다(노동신문 2022.3.6.). 지역별 특성과 학생들의 적성을 반영한 선택과목제 운영은 향후 전국의 제1중학교를 거쳐 일반학교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북한당국은 최근 청소년과 청년층의 사상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사상교양을 강화하고 있다. 청년동맹 제10차 대회(2021.4.) 서한에서 “지금의 청년세대는 나라가 시련을

겪던 고난의 시기에 나서자라다보니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다운 우월성에 대한 실체함과 표상이 부족하며 지어 일부 잘못된 인식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사회주의, 집단주의에 배치되는 자본주의사상, 개인리기주의를 비롯한 반동적인 사상요소들과의 비타협적인 투쟁을 통하여 청년들이 사회주의신념을 굳게 다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노동신문 2021.4.30.). 특히, 2019년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자력갱생 노선 전면화, 외래 사상문화 유입으로 침식된 사회주의생활양식의 재건을 위해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현상 근절을 위한 통제 강화 및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청년교양보장법」(2021년), 「평양문화어보호법」(2023년) 등 법 제정을 통한 사상·문화통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학교교육과 청년동맹 등 조직활동을 통해 혁명전통교양, 충실성교양, 애국주의교양, 반제계층교양, 도덕교양의 5대 교양을 강조하고 있다.

---

## II. 학교 안 일상의 시공간과 장소경험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학교 안 일상의 시공간과 장소경험

이 장에서는 북한 학교의 시공간의 구성과 특징을 살펴본다. 근대 교육 공간으로서의 특질과 북한 사회를 재생산하는 기제로서의 사회주의 교육 공간의 특질이 중첩된 가운데 학생들의 교육과 생활을 위한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학생들은 이러한 공간에서 다양한 장소경험을 통해 어떤 장소감을 만들어내는지에 주목하였다. 북한 매체에서 평양 이외 지역에 위치한 중등학교들에 대한 보도는 매우 제한되기 때문에 지방학교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김정은 시대의 학교 공간을 경험한 학생과 교사들의 기억을 통해 재현되는 학교의 시공간의 풍경을 드러내는데 초점을 두었다. 특히, 학생들이 그린 학교와 교실 공간에 대한 심상지도를 기반으로 학교 공간을 재구성하였다. 면담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학교명은 밝히지 않았으며, 일부 구술자료와 심상 지도의 사례번호는 표기하지 않았다.

## 1. 중등학교의 공식 일과시간과 학생들의 일과

### 가. 중등학교의 일과시간 운영

북한 중등학교의 공식적인 일과는 남한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교육강령'에 명시되어 있다. 2016년에 제정된 「교육강령집행법」에서는 교육강령 집행을 “교육기관의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제4조). 초급중학교 및 고급중학교 교육강령에 따르면, 아침등교를 비롯한 하루일과는 “학교가 실정에 맞게 정하여 시(구역), 군인민위원회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강령'에서는 교과수업과 방과 후 활동으로 과외학습, 청년동맹생활, 과외체육 등을 규정하고 있다. 수업은 45분 수업, 10분 휴식 단위로 진행되며, 하루 6시간을 넘지 않게 조직하고 토요일은 4시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과외학습은 토요일을 제외하고 하루 1시간씩 기본교수와 같이 진행하며, 청년동맹생활(소년단생활)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을 따라 배우는 학습'과 사회정치활동을 비롯하여 청년동맹(소년단)조직에서 진행하는 사업들로 한다. 과외체육은 체육교수를 하지 않는 날을 기본으로 진행한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위원회 2023a, 13-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위원회 2013b, 15-20)

기본 일과는 모든 학교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교육강령집행법」 제22조에서도 “교수형태와 실정에 맞게 교수시간단위를 합리적으로 정할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수업 등 학교일과 운영에 있어 약간의 재량권이 학교에 부여된다. 심층면담에 의하면 기본적인 학교일과 운영 시간은 거의 비슷하지만, 점심시간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 학교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강령과 심층면담을 통해 파악한 북한 고급중학교의 공식적인 일과시간은 다음 <표 II-1>과 같다.

표 II-1 북한 중등학교 공식 일과시간

오전 4교시, 오후 2교시 유형		오전 6교시 유형	
교시	시간	교시	시간
1	8:00-8:45	1	8:00-8:45
2	8:55-9:40	2	8:55-9:40
3	9:50-10:35	3	9:50-10:35
4	10:45-11:30	4	10:45-11:30
점심시간	11:30-13:00	5	11:40-12:25
5	13:00-13:45	6	12:35-13:20
6	13:55-14:40	종례	13:20-
종례 및 방과 후 활동	14:40-	방과 후 활동	15:00-

출처: 심층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대부분의 학생과 교사들은 학교 수업 시작 시간이 오전 8시라고 말했고, 사례 23만 8시 30분이라고 말했다. 양강도 지역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던 사례 13은 양강도 지역의 날씨 특성을 반영해서 겨울철에는 등교와 수업시작 시간이 20분 정도 늦춰졌다고 말했다. 심층면담 과정에서 오전과 오후 수업시수가 확인된 사례를 살펴보면, 사례 5, 사례 6, 사례 8, 사례 17은 오전 4교시 후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점심시간을 갖고 재등교하여 2시간 수업을 한다고 답하였다. 이들이 다녔던 학교는 주로 평양 또는 도청소재지나 대도시의 학교였다. 사례 2, 사례 7, 사례 18, 사례 23은 오전 4교시 또는 5교시라고 답하였고, 사례 13, 사례 15, 사례 16, 사례 20은 오전에 6교시 수업을 모두 진행한 후 1시 20분경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점심을 먹고 3시쯤 재등교하여 오후 일정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토요일은 대부분 4교시 수업과 청년동맹 조직활동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기본적으로 권장되는 수업시간 운영은 오전 4교시 후 점심시간, 오후 2교시 유형이지만 학교별로 변형하여 운영 가능하고, 실제로는 오전에 6교시 수업을 마친 후 학생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귀가했다가 오후 3시경에 재등교하여 방과 후 학습, 소조활동, 방과 후 노동 등 오후활동을 하는 일정으로 운영되는 학교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양강도 도시지역 학교에서 교사로 일했던 사례 20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교가 오전에 6교시 수업을 연달아서 한 후 점심시간을 갖는 것을 선호한다. 북한 중등학교에서 점심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대부분 귀가하여 점심을 먹고 재등교한다. 오후 시간에는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 동원노동 위주의 일과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농촌지역의 경우 학생 출석률이 높지 않고 수업 중간에 학교를 빠져나가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오전에 수업을 몰아서 하는 것은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방과 후 노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보다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사례 20은 수업운영과 관련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오전에 네 교시가 기본이고, 오후에 2교시가 기본이에요. 그게 원래 원칙인데 학교에서는 그게 오후에는 별도로 또 노동이라든가 이런 걸 활동을 해야 되니까 분위기는 1교시부터 6교시까지 하는 게 분위기에요, 보통. 규정은 네 수업, 두 수업이에요. (중략) 집에 갔다가 빨리 대체로 2시 반에 나오고, 혹은 3시, 이때부터 오후 과외활동이 시작되는 건데. 뭐 보통은 그래요. 오후 수업이 있는 날은 애들 별다른 거 못 시키니까 그래서 6교시까지 아예 다이렉트로 끝내버리고 “오후에 나올 때 샵 가지고 나와라. 호미 가지고 나와라. 물통에 물 몇 개 채우고 나와라.” 이런 걸 시키거든요. 나와서 학교 주변에 진짜 여러 가지 일을, 제가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오늘은 나무 심는데 나무 물 줘야 되고, 내일은 저기 도랑 파는데

삽 필요하니까 삽 가져오면은 남자애들 시켜서 판다거나, 모레는 저기 어디 시에서 요구하는 작업을 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으니까 4교시, 2교시를 나눠서 하는 거는 거의 실행되지 않고요, 6교시를 디렉트로. (사례 20 구술녹취록, 15)

학생들은 대체로 수업시작 30분 전까지는 등교한다. 등교 후에는 교실에 걸린 김일성·김정일 초상화를 닦는 ‘정성관리’를 포함한 교내 청소를 진행하고, 수업 시작 전에 10분 정도 정치사상교양 자료를 읽는 ‘독보’ 시간과 학생 출결상황 점검 시간을 갖는다. 사례 20은 등교 후 수업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교실 풍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수업 시작 전에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일과들이 있어요. 일단은 딱 그 나가게 되면 교실 안에는 초상화라는 게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일단은 그 초상화 정성관리라고 하는데. (중략) 학교에 나가게 되면은 초상화 닦는 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중략) (교사는) 7시 반에 나와서 잘돼 있는지 흰 종이 가지고 이렇게 쓱쓱 문대도 보고, 잘 닦여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복도 청소, 마당 청소 이런 거 내보내서 55분까지는, 수업종 울리기 전까지는 애들 다 교실에 복귀시키는 것까지. (중략) 그리고 독보라는 시간이 있어요, 10분. 그게 아마 45분부터 뭐 55분까지인가 돼 있어서. 그래서 청소를 45분까지 무조건 다 끝내고 저기 외부에 나왔든가 복도 청소하는 애들은 뺏거든요, 보통은. 청소라는 게 워낙 구간도 넓고 깨끗하게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인원 빼고 나머지 인원들은 다 앉아서 독보를 하는데, 위대성교양자료 그런 신문 내용, 혁명활동 자료, 이런 것들 한 10분 동안 그냥 앞에 나와서 한 명이 읽어. 분단위원장이나 학생 간부가. 사상부위원장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하든 담임선생님이 역할을 정해주기 나름이고요. 보통 분단위원장이나 아니면 사상부위원장 이런 애들이 하거든요. (사례 20 구술녹취록, 12-13, 20)

수업 전 교실의 일과에서 중요하게 간주되는 '정성관리'와 '독보' 시간은 이데올로기 재생산 기구로서의 북한학교의 특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학교의 일과를 물었을 때 독보시간을 중요하게 언급하기보다는 조회시간의 일부로 인식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김정은이 집권하는 시기에 중학교에 입학하였던 사례 1은 학생들 중 독보시간에 대해 가장 상세히 구술하였다. 그는 김정은 집권 이후 독보시간이 강화되었다고 기억하는데, 이는 중등학교 진학에 따른 효과에 더해서 김정은 집권 이후 지도자 교체에 따라 학교 일상에서 실제로 지도자의 "말씀을 전달하는 독보"가 강화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구술자: 김정은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항상 말씀 전달하는 시간이 항상 있었어요.

연구자: 그전에는 그 시간이 없었나요?

구술자: 그전에는, 김정일 때는 없었어요. 네, 그리고 기관들에서나 가끔씩 이렇게 내려와서 그걸 낭독을 했었지. 저희가 김정은 되고 청년동맹에 가입하고 나서 그게 정말 자주 있었어요. 옛날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었다면 나중에는 매일 그 방침이 내려올 정도로. 우리 보면은 조회 시간에도 거의 그 방침이나 그런 것들 좀 많이 경험했던 거 같고. 아니면은 회고록을 읽는다든가. 네, 그런데 회고록은 그렇게 많이 읽었던 거 같지 않고, 그렇게 조회 시간이 흘러갔던 거 같고. (사례 1 구술녹취록, 3-4)

수업 종료 후에는 청소와 종래가 진행된다. 청소와 종래 시간은 학교별로, 반별로 유동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방과 후에는 소조활동, 보충학습 등 방과 후 활동이 이루어진다. 오후 방과 후 시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동원노동이다. 「보통교육법」 제42조

에서는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교원, 학생들을 교육강령집행과 관련 없는 일에 동원시킬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많은 학교에서 교내 시설보수, 학교 주변 농촌지원 등의 노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III장에서 상세히 다룬다.

## 나. 다양한 지역, 다양한 학교 학생들의 일과

북한 중등학교 학생의 일과는 대체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지만, 지역과 학교, 학생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변주가 이루어진다. 북한 중등학교 학생들의 일과를 유형별로 범주화하여 제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지역과 학교 종류를 고려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일과를 비교하여 살펴본다. 지역별 비교를 위해 평양 및 도시지역 학생들의 일과와 촌락 학생들의 일과를 살펴본다. 또한, 영재교육기관인 제1중학교 학생의 일과를 살펴봄으로써 일반 고급중학교 학생들의 일과와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 1) 평양과 도시지역 학생들의 일과

평양에서 고급중학교를 다녔던 사례 12는 오전수업만 참가하고 오후에는 개인교사에게 악기를 배웠다. 그는 음악을 전공하겠다는 생각은 없었고 “직장에 취직했을 때 조금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에 사교육을 통해 악기를 배웠다. 그가 다녔던 학교에는 학생소년궁전이나 소조, 또는 개인교사들에게 악기를 배우는 친구들이 많았다. 사례 12에 의하면, 학급 친구들 중 80% 정도는 오후에 학교에 다시 나와서 담임교사가 진행하는 자체학습을 했고, 나머지 20%는 오후 학습에 참가하지 않았다. 사례 12와 친한 친구들은 “다 오후에 집에 가는 친구들”이었는데, 이들은 오후 시간에 사례 12와 마찬가지로

개인교사에게 학과교과목이나 악기 등 각종 사교육을 받거나 학생소년궁전과 같은 사회교육기관에서 소조활동에 참여하였다.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이나 평양학생소년궁전과 같은 방과 후 소조활동을 지원하는 사회교육기관<sup>8/</sup>에서 배우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오후 학습을 빠지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었고, 사교육으로 빠지는 경우에는 학교에 돈을 납부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평양에서 고급중학교를 다녔던 또 다른 학생 사례 7은 학교가 멀어서 아침 6시에 기상해서 6시 30분 경에 집을 나서서 버스를 타고 거의 한 시간 가까이 걸려 등교하였다. 그는 학교 수업이 끝난 오후에는 탁구소조에 참여했다. 평양의 음악학원에 다녔던 한 학생은 오전수업과 오후 학과수업 종료 후에 대부분 귀가하여 개인적인 시간을 가졌다고 구술하였다. 평양에는 유희장, 물놀이장과 같은 문화오락시설도 많기 때문에 평양의 학생들은 방과 후나 휴일에 이와 같은 놀이 시설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다고 이야기하였다.

평양 학생들의 일과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대부분 오전과 오후의 정규수업시간이 비교적 잘 지켜진다는 점이다. 또한, 평양 학생들의 사례에서는 촌락지역이나 도시외곽지역 학생들의 일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오후 노동시간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다. 여타 지방의 도시들의 경우 시내학교나 이후에 살펴볼 제1중학교와 같이 학업을 강조하는 학교라도 학생들을 교내시설 보수 등의 노동에 동원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평양의 중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공식교육 과정에 포함된 3주간의 생산노동 이외에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노동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대신, 평양의 학생들은 자율학

---

8/ 「아동권리보장법」 제24조에 따르면 북한의 대표적인 청소년 대상 사회교육기관은 도서관, 학생소년회관, 소년단야영소, 학생소년궁전 등이다. 이 중 1989년 설립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200여 개의 소조실, 활동실을 갖추고 있으며, 하루에 1만 2천 명을 수용할 수 있다.(통일부 북한정보포털, 검색일: 2023.10.8.)



습이나 소조활동, 사교육 등에 방과 후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양에는 평양학생소년궁전 등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시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소조활동도 교내에 국한되지 않고 평양시의 사회교육시설을 활용하여 학교 밖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양 이외의 도시 지역 학생들의 일과는 학교의 위치나 학생들의 가정환경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도시와 농촌 사이의 점이지대(漸移地帶)에 위치한 학교에 다닌 사례 17의 일과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특성이 혼재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사례 17은 함경북도 접경지역에서 “시내와 가까운 농촌 같은 느낌”이 나는 도시 외곽에 위치한 고급중학교에 다녔다. 그는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도보 10분 거리의 학교에 7시 30분까지 등교했다. 등교 후에는 집에서 하지 못한 과목별 숙제를 하거나 운동장에서 놀았고 청소당번일 경우 청소를 했다. 보통은 8시에 바로 수업을 시작했고 오전 4교시 수업이 끝나면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와서 다시 2교시 수업을 한 후 담임선생님이 종례를 했다. 오후 수업 후에는 학교 시설을 보수하는 일을 하거나 근처 농장에 가서 김매기나 채소 수확 등의 일을 도왔다. 소조에 속하면 오후 노동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고 돈을 내면 여러 가지 구실을 붙여서 오후 노동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 노동을 하는 친구들보다 빠지는 친구들이 더 많았다. 오후 작업이 끝난 후에는 학교로 다시 돌아와 종례를 하고 저녁 7시경에 귀가하였다. 한편, 사례 17이 다닌 학교는 소규모 학교로 학교 형태는 촌락에 있는 학교와 유사하지만 시내와 가깝기 때문에 이런 입지적 특성을 활용하여 학생들은 중소도시에 있는 교육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었다. 이 도시는 김일성 가게와 연관이 있는 도시로, 일반적인 지방의 중소도시보다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2010년대 중후

반에 학생소년궁전이 건설되어, 예체능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은 방과 후에 학생소년궁전에서 별도의 교육을 받기도 하였다.

평안남도 도시 지역의 고급중학교와 함경북도 농촌지역의 고급중학교를 모두 다녔던 사례 8은 두 지역의 경험을 비교하여 말한다. 방과 후 노동이 많았던 함경북도 농촌지역 학교와 달리, 평안남도 대도시 학교에서는 봄가을 농번기 오후시간에 학교 인근에서 농촌 지원 노동을 한 것을 제외하면 방과 후 노동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것도 대부분 돈을 내고 빠질 수 있었다고 한다. 대신, 오후 수업 종료 후 2시간 정도 학교주변 가꾸기나 학교 잔디 풀뽑기 등 교내노동을 하곤 했다. 이 학교에서는 “학구열이 세서” 방과 후 노동 대신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많았다. 함경북도 대도시에서 고급중학교를 다녔던 사례 5도 오후에 학교에서 진행되는 동원노동을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본인은 돈을 내고 빠지고 개인교사에게 피아노와 성악 등을 배우러 다녔다.

양강도 접경지역 도시 외곽에 위치한 학교에 다녔고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여학생인 사례 23은 아침 5시 30분에 기상해서 강에 나가 물을 길어온 후 7시 30분에 등교하였다. 동네에서는 집집마다 아침에 강에 가서 물을 길었는데, “자식을 아끼는 집”에서는 어머니가 물 길는 걸 담당했지만, 사례 23은 자신이 해야 했다. 사례 23의 학교에서는 오전에 수업을 종료하고 학생들은 집에 가서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3시에 재등교하였다. 축구반이었던 사례 23은 3시에 재등교 후 5시까지 축구를 하거나 학교에서 시키는 일을 하거나 자체학습으로 수학이나 국어 공부를 했다. 하교한 후에는 청소, 빨래 등 집안일을 하고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었다.

이상의 사례를 종합해보면, 도시 학교들 중에서도 농촌지역과 인접한 도시 외곽의 학교들에서는 수업 종료 후 자체학습을 진행하기

도 하지만, 인근 농촌지역으로 농사지원을 하러 나가는 시간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들 중에는 소조활동, 축구반 등의 명목으로 동원노동에서 빠지거나, 물질적 대가를 지불하고 방과 후 노동을 피하고 그 시간에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중심부 시내에 위치한 학교 학생들의 일과에서는 학습시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방과 후에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주변부 학교에 비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귀가 후 학생들의 시간 활용 면에서 계층과 가정의 교육열에 따라 편차가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좋았던 사례 5와 같이 사교육을 통해 학과공부나 취미활동을 위한 학습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비해, 사례 16과 같이 공부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집에서 TV를 보거나 빈둥거리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사례 23과 같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방과 후 여가시간을 가사노동이나 다른 생존 노동을 하는데 사용하기도 하였다.

## 2) 촌락 학생들의 일과

촌락의 공간적 범주는 도시와 가까운 촌락부터 행정단위가 시(市)에서 군(郡)으로 바뀌고 농업 또는 어업이 지역경제의 중심이 되는 지역을 포괄한다. 강원도 어촌 지역에서 학교를 다녔던 사례 2는 아침에 일어나서 등교시간까지 주로 영화를 봤다. 남한영화같이 금지된 영화 보다는 중국영화, 인도영화처럼 허용된 외국영화를 시청했다. 오전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았는데, 고급중학교 2학년때부터는 등교를 안한 날이 많았고, 3학년이 되면서 물질로 돈을 버느라 학교에 거의 가지 않았다. 사례 2는 학년마다 한 학급씩 축구, 배구 등 운동을 잘하는 학생들을 모아놓은 '체육구락부학급' 소속이어서 오전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인근에 있는 청소년 체육학교 가서 축구를

했다. 덕분에 사례 2는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이 참여하는 동원노동을 대부분 빠질 수 있었다. 그는 학교 후에는 장사하느라 바쁜 어머니를 대신해서 저녁식사 준비를 하고 집에서 기르는 염소를 끌고 나가서 풀 먹이는 일을 했다. 사례 2는 영화보기로 시작되는 아침과 염소 풀 먹이는 일로 마무리되는 저녁의 일과를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저는 그때 액정 새로 사가지고, 액정 TV라는 게, 그게 좋잖아요. TV도 보고, 계속 보고, [아침에] 영화 켜놓고 밥 먹고, 영화 밥 먹고 안 끝나거든요, “조금만 보자, 조금만 보자.” 하다가 [학교에] 늦는 거예요. (중략) 축구 훈련하고 오면 그때 한 8시 그때 될 때 염소 끌고 나가거든요, 먹이러. 염소가 또 내 마음 같지 않아서 풀을 빨리빨리 안 먹여가지고 한시간, 두시간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밤새껏 이려고 있는 게, 그게 아무것도 없이 이려고 앉아 있는 게 진짜 좀 좋은 기억은 아니죠. 그게 제일 싫었어요. 아버지 있을 때는 아버지가 조금 하고, 어머니 있을 때는 어머니가 하고 내가 했는데, 대부분 거의 내가 많이 했죠. 학교 다닐 때 엄마가 시간이 없고 하니까. (사례 2 구술녹취록, 26, 31)<sup>9/</sup>

황해북도 농촌지역의 고급중학교를 다녔던 사례 15는 오전에 수업을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학교에 나가 방과 후 활동을 했다. 농촌지역이라는 특성상 집안에 일손이 필요했기 때문에 봄·가을 농번기에는 매일 학교에 나가 농장의 농사일을 돕는 노동활동을 했다. 그 이외의 시기에는 오후에 학교에 나가는 일은 “드문히 있는” 일이었고 주로 집안일을 돕거나 친구들과 놀면서 시간을 보냈다. 면담 내용으로 미루어보면, 결석이나 지각도 잦았던 것으로 보인다.

9/ 이후 구술 녹취록을 인용한 부분에서 [ ] 안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저자가 삽입한 부분이며, 굵은 글씨체로 표기한 부분은 저자가 강조한 것이다. 이 외에는 구술자의 말을 전사한 그대로 인용했다.

하루 일과를 보면 학교를 잘 나가는 날이면, 8시까지 학교를 나가야 되고요. 좀 지각할 수도 있긴 한데, 학교 나갔다가... 대부분 오전 수업하고 오후엔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오고, 방과 후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드문히 어떨 때는 매일 정도 오후에 나갈 때도 있는데, 그렇게 나간다면 시간 괜찮으면 학교 나갈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시골이니까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가족일 돕거나 그런 일을 하고 그랬던 거 같아요. (중략) 봄과 가을 좀 바쁘죠. (중략) 대부분 오전에만 수업이 있고 오후에 나가는 건 학교에 필요한 활동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절기다 하면... 가을이나 봄에는 오전수업하고 오후에는 그 농장 같은 데 어려운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돕거나 이런 활동을 했던 거 같아요. (중략) 학교 안 나가는 날은 대부분 공부할 생각은 없으니까 놀러다니고, 그리고 집일 할 거 있으면 하고, 자기 취미생활 같은 거 재미난 거 있으면 하고 그렇죠. (사례 15 구술녹취록, 3-4)

양강도 농촌지역 학교에 다녔던 사례 4도 “오전에 수업하고 오후에 일하러 가고” 했던 일과에 대해 사례 15와 비슷한 얘기를 전했다. 그는 “감자 심으러 가고 풀 뽑으러 가는” 일상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였다. 양강도의 다른 농촌지역 학생인 사례 14도 자신이 다녔던 학교가 “농촌학교라서” 학생들이 여름철에는 방과 후에 무조건 김매러 가고 가을철에는 옥수수를 따러 다녔다고 구술하였다. 농번기에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1교시 수업만 끝나면 인근 농장에 가서 일을 하기도 했다. 그는 초급중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학급 학생들에게 방과 후에 개인 발일을 시켰는데 일을 안 하고 도망갔다가 혼이 났고, 이후 부모님이 담임선생님을 찾아가서 항의한 후 개인적인 노동을 시키는 일이 없어졌다는 일화를 얘기했다. 그는 학교에서 오후에 시키는 노동에 참여하는 대신에 산에서 버섯을 뜯거나 약초를 캐서 돈벌이를 하거나 친구들과 고기잡이를 하면서 놀았던 시간을 회상하기도 하였다.

저쪽에서는 산이당가, 약간 산 쪽에서 버섯 뜯고 뭐 약초 같은 거 캐서 돈을 좀 벌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학교 갈 때 어떨 때는 빠지고, 저쪽에 있다 보면 친구라든가 같이 탁 돌이 다 “[학교] 가지 말까?” 해가지고, 가서 약초랑 이런 거 캐고서 버섯 뜯으러도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산에 이제 버섯도 따고 약초도 캐고, 그리고 학교 끝나면 애들이랑 고기잡이 막 하고서 그랬었거든요. (사례 14 구술녹취록, 7)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와 멀고 농업이 중심인 촌락에 거주하는 학생들일수록 일과에서 농사일과 관련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촌락지역 학생들은 많은 사례에서 평양과 도시 지역 학교와 달리 오전 정규수업 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그 시간에 동원노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도시와 촌락 간의 거리가 멀어 농촌지원 활동이 단발성으로 이루어지는 도시 거주 학생들과 달리, 지역의 핵심 산업이 농업이고 학교가 지역경제와 긴밀히 연관될 수밖에 없는 촌락 거주 학생들의 일과에서는 학교교육의 연장으로 농업노동을 수행하는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간은 방과 후 가정생활에까지 이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 3) 제1중학교 학생의 일과

제1중학교는 과학기술분야의 중등 영재교육기관이다. 2000년대 초반에는 전국에 200여 개의 제1중학교가 운영되었으나, 2000년대 후반 조정 작업을 거쳐 현재는 각 도별로 도제1중학교와 평양시에 평양제1중학교를 비롯한 몇 개의 제1중학교만이 남아있다. 제1중학교에는 전국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이고, 이들은 대부분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일반중학교와는 수업분위거나 학생문화가 다르다. 제1중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의 높은 교육열은 학

교 일상의 시간에서도 차이를 만들어낸다. 제1중학교에 다녔던 사례 18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도보 25분 거리의 학교에 7시 30분까지 등교했다. 20분 정도 다같이 청소를 한 후 10분간 출석점검과 독보를 하고 수업을 시작했다. 오전에 수업을 마치고 점심시간에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다시 등교해서 공부를 했다. 학교 안에서 교사(校舍) 건설이나 시설보수 작업이 필요할 때는 오후에 두어 시간 정도 노동을 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숙제와 암기 등 담임선생님이 공부를 시켰다. 학급별 자체학습은 저녁 6시경에서 8시경까지 이어졌고, 이 시간에 해야 할 과제를 다 못한 학생들은 이후에도 저녁 10시경까지 학교에 남아 “나머지공부”를 했다. 제1중학교에서는 학생들 중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수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례 18에 따르면 일반반 학생들은 수재반에 들어가기 위해 서로 경쟁도 하고 도와주면서 방과 후 학습시간을 알차게 보낸다. 제1중학교 학생들은 학업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담임선생님이 재량껏 오후에 한 시간 정도 운동장에서 배구, 축구 등의 운동을 하도록 하기도 했다. 사례 18은 사실상의 야간자율학습이 진행되었던 도제1중학교의 풍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선생님이 대부분 [오후] 11시에 퇴근하세요. 그런데 뭐 11시까지 거의 붙잡아둘 때도 있고, “빨리 그냥 가라.” 하고 보낼 때도 있는데, 한 8시부터 11시 이 사이에 선생님은 나와서 자기 할 일을 좀 하시는 편이고, 8시 전에 끝낸 애들이 그 과제검열을 해줘요. 과제 검열을 해주고, 외운 거 검열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족족 보내줍니다. 그래서 한 10시 되면 거의 애들이 가고, 11시까지 남은 애들은 진짜로 아예 진짜 못해가지고 별별 너무 기어다니는 애도 있고, 나머지는 10시쯤이면 다 퇴근합니다. (사례 18-2 구술녹취록, 3)

사례 18은 보통 오후 6시쯤 학교 일과를 마치고 귀가하여 저녁식사를 하고 사교육을 받으러 갔다. 북한에서 사교육은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는 행위이지만, 대도시 시내학교를 중심으로 개인지도 형태로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다. 사례 18에 따르면, 제1중학교의 경우 “거의 모든”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다. 사교육은 개인교사의 집에서 동시간대에 여러 명의 학생들이 같이 수업을 받지만, “진도에 따라서 매 개인에 맞게 해주는” “일대일 과외”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내 중심학교나 제1중학교 학생들은 대학 입시에 필요한 수학, 물리, 영어 등의 주요 과목 중 필요한 여러 과목을 각기 다른 사교육 교사들에게 배우기도 한다. 사례 18은 하루 서너 시간 사교육을 받고 10시나 11시쯤 귀가해서 한 시간 정도 숙제를 한 후 자정이 지난 시간에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다.

한 달에 한 차례 이상 시행됐던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에는 공부시간을 늘리고 수면시간을 줄였다.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에는 취약한 과목의 사교육에 좀 더 시간을 투자하기도 하고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도 늘렸다. 시험기간에는 새벽 서너 시경에 귀가하기도 했고, 어머니가 새벽까지 옆에 지키고 앉아서 졸음을 깨우고 암기과목 공부를 도와주기도 했다. 사례 18은 부족한 잠을 보충하기 위해 학교에서 “오전수업 4시간 중에 꼭 1시간은 무조건 통잠”을 자곤 했다.

북한에서 ‘수재교육기관’이라 부르는 제1중학교는 학생들의 학업 수준과 교육열이 높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졸업 후 바로 대학에 입학한다.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학교의 특성은 학생들의 일과에도 반영되어, 제1중학교 학생들의 일과는 일어나 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학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제1중학교에서는 학과수업 뿐 아니라 방과 후 자체학습과 과제수행도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사가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다. 제1중학교 학생



들은 대부분 학교 공부뿐 아니라 사교육을 통해 각자 취약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내의 일과 중 학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동시에 학교 밖에서는 사교육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다. 한편, 학업을 중심에 두는 제1중학교에서도 학교 시설 현대화 등의 명목으로 학생들이 학교 내의 건설노동에 동원되는 시간이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 2. 학교 공간의 구성요소와 학생들이 기억하는 학교 공간

### 가. 국가의 학교 공간 기획

북한 중등학교 공간 구성의 원칙과 학교 공간의 구성요소 및 기준은 「보통교육법」 등의 법령과 교원양성기관의 교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북한의 「보통교육법」 제26조는 “보통교육기관은 교육행정 사업을 정규화, 규범화하고 교육학적 요구에 맞게 교육환경을 꾸리며 학교건물과 구획, 시설을 알뜰히 관리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학교 공간의 구성에 대한 세부내용은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사범대학 교재인 『사회주의교육학』에 명시되어 있다. 이는 기본적인 시설, 설비, 비품 등의 물질적 조건을 갖추고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학교관리운영사업의 “정규화, 규범화”를 원칙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보통교육법」 제26조를 따른다. 특히, “정보산업시대에 맞는 현대적인 교육조건과 환경”을 갖출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김운진 외 2008, 220)을 주목할 만하다. 적절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교육환경관리사업을 잘 조직지도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조직지도 사항을 제시한다. 첫째, 학교의 교육환경을 사상혁명의 기관답게 꾸리고 관리하여야 한다. 둘째, 학교의 교육환경을

문화혁명의 거점답게 꾸리고 관리하여야 한다. 셋째, 학교의 교육환경을 학생들의 교육교양에 이바지할 수 있게 꾸리고 관리하여야 한다. 넷째,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교육환경을 꾸리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섯째, 모든 교직원, 학생들이 교육환경의 꾸리기와 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여야 한다.(김운진 외 2008, 220-221)

『사회주의교육학』에 따르면, 학교시설은 기능에 따라 교육시설, 편의위생시설, 후방경리시설로, 위치에 따라 내부시설과 외부시설로 나누어진다. 또한 “벽, 바닥, 천정, 출입문, 창문, 난방시설, 조명설비와 같이 건축설계에 반영되는 고정적인 요소들”과 “교육설비, 교구비품과 같이 건축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가변적인 요소들”로도 구분된다.(김운진 외 2008, 220-221)

『사회주의교육학』에서는 학교와 교실의 구성요소와 크기에 관해 세부적인 표준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교원들의 교수교양사업과 학생들의 학습활동, 과외생활이 조직 진행되는 기본교육시설”인 교실의 크기와 구조는 “국가가 제정한 학급당 학생수, 교수의 효과성, 학생들의 생리적 요구”를 고려하여 학급당 기준 인원수 40-50명 기준의 “표준교실의 크기”를 각각 가로 6m, 세로 9m, 높이 3.3m로 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창문의 위치와 크기, 칠판의 크기 및 종류, 책걸상의 크기 및 책상 사이의 거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춰 컴퓨터 등의 교육설비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뒷벽에는 벽보판, 속보판, 옷걸개를 설치하고, 청소도구함 등 교구비품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난방과 조명에 대해 “난방설비를 갖추고 운영하며 보온장치를 잘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교실, 실험실은 18-20℃, 체육관은 14-15℃, 수영관은 24-25℃”의 온도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명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시력보호를 위해 자연조명 200Lux, 인공조명 50Lux 이상을 유지하도록 창문과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김운진 외 2008, 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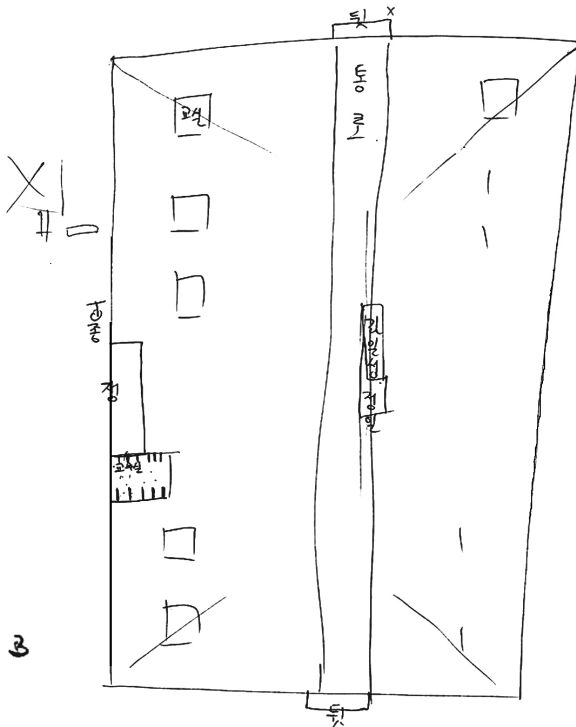
또한, 교실 이외에 실험실과 실습실, 체육실, 수영장, 도서실, 운동장 등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운동장은 보통 3,000- 5,000m<sup>2</sup> 크기를 권고하며, 학교의 규모와 조건에 따라 “물리실험실, 화학실험실, 생물실험실, 전자공학실험실, 컴퓨터실, 자동차(트랙토르)실습실, 공작실습실, 너학생실습실, 외국어학습실, 제도실, 음악실, 미술실”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자재는 국가적인 교육기자재 공급체계에 따라 구입하고, 이와 함께 후원단체와 학부모들과의 사업을 통해 교육기자재를 보충하는 사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위생시설로는 이발소, 목욕탕, 위생실, 오물장 등을 학교 부설 시설로 명시하고 있고, 급수 시설과 배수시설을 합리적으로 설치하고 정비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김운진 외 2008, 223-22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중등학교 공간 구성에 대한 국가 규정은 학교 공간과 시설의 구성요소와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은 1967년에 「학교시설·설비기준령」(1997년 타법폐지) 제정을 통해 학교면적, 운동장 크기, 각종 시설에 대한 세부규정을 밝혔고, 현재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1997년 제정)을 통해 관련사항을 규제하고 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glaw.scourt.go.kr>).

## 나. 심상지도를 통해서 본 학교 공간의 구성

푸코에 의하면, 학교는 시간과 공간의 분절적 규율화를 통해 근대적 신체를 양산해내는 대표적인 근대 규율 권력 기관이다(미셸 푸코 저·오생근 역 2020, 315-358). 북한 중등학교의 시공간에는 근대 규율 권력기관으로서의 학교 시공간의 특성이 동일하게 반영되며, 여기에 북한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이 부가되어 나타난다.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확보한 북한 학생들의 심상지도 중 다음 <그림 II-1>은 북한의 학생이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간을 보여주는 동시에 북한 학교의 공간적, 시간적,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한눈에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그림 II-1** 사례 16의 심상지도



양강도 도시지역 주변부 학교에 다녔던 사례 16의 심상지도에 나타난 학교 공간은 매우 간단하다. 학교 건물을 드나드는 교사가 출입하는 “정”문과 학생이 출입하는 “뒷”문, 중앙의 긴 복도와 복도 양측의 교실들과 정문 옆의 교무실, 복도 중앙에 “김일성 정일”이라고 표시된 김일성·김정일 말씀판, 정문 앞에 달려있는 “종”이 사례 16의 심상에 남아있는 학교 공간의 전부이다. 이중 교실, 교무실, 복도는 교사(校舍) 공간을 구성하는 물리적, 기능적 기본요소이다. 교사용과 학생용으로 구분되는 건물 출입문은 학교의 구성원 간의 수직적 위계구조를 공간적으로 반영한다.<sup>10)</sup> 심상지도에서 “김일성 정일”이라고 표시된 현관 안쪽의 말씀판은 북한 학교 공간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현관 앞에 달려있는 종은 “수업시간이 되면 전체가 다 들리게 세 번” 울려 수업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시간규율 장치이다. 학교는 종소리에 따라 시간을 분절·채취한다(송현저·김병욱 2005, 6). 황해북도 농촌지역 학교에 다녔던 사례 15도 학교에서 수업 시작과 끝, 휴식 시간을 알리는 종을 쳤고 종치는 소리를 듣고 학교로 뛰어가기도 했다고 말한다. 사례 15가 졸업할 무렵 종은 방송스피커로 바뀌었다. 사례 16의 심상지도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 학교에서도 종(알람), 수업시간표 등 학교의 시간을 일일, 일주일 단위로 분절하여 운영하는 근대 학교의 시간규율 장치가 기본적으로 작동한다.

이와 같이 학생들이 그린 심상지도에는 학교 공간의 구성요소와 함께 그들이 학교 공간을 어떻게 경험하고 자신의 장소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가 드러나 있다. 이 절에서는 우선 학생들이 그린 심상지도를 비교함으로써 북한 학교의 일반적인 공간 구성과 지역,

10) 푸코에 따르면 근대의 '교육 공간'은 건축물로서의 가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기능성과 위계성이라는 비가시적인 측면을 지닌다. 건축물의 형식이 이미 근대 교육 특유의 '기능성'과 '위계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정규영 2013, 179)

학교 규모, 학교 특성 등에 따른 학교 공간의 차이를 파악한다. 지역별, 교종별 차이를 드러내는 사례로, 평양시 고급중학교(사례 7), 지방 대도시 학교(사례 8), 지방 중소도시 외곽지역 학교(사례 17), 농촌지역의 본보기학교(사례 9), 농촌지역 병설학교(사례 4, 사례 14)의 학교 공간 구성을 비교하여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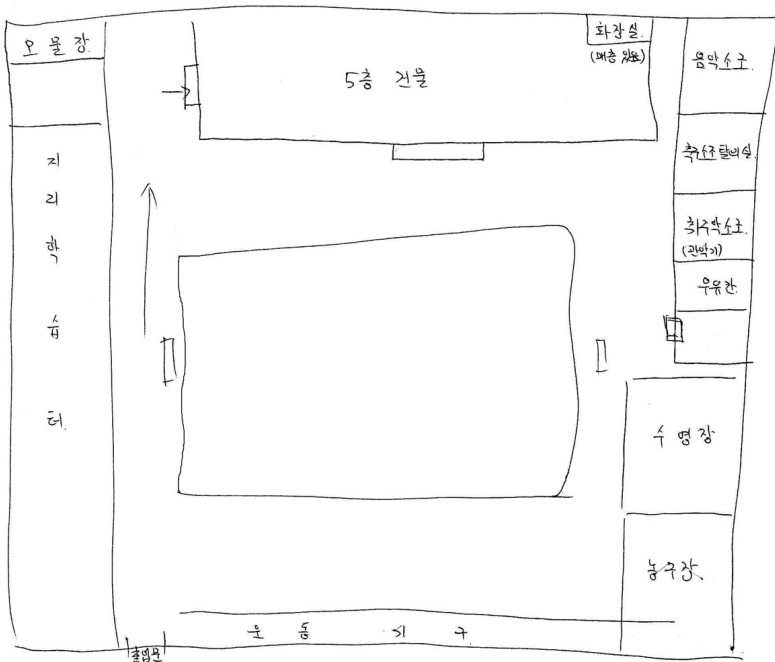
## 1) 평양 학교 사례

다음 <그림 II-2>는 평양 거주 학생 사례 7이 다녔던 고급중학교로, 본 연구과정에서 만난 학생들이 다녔던 학교 중 가장 우수하고 많은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학교는 한 학년이 8개 학급으로 편성되어 있는 규모가 큰 학교이다. <그림 II-2>에는 5층 규모의 교실이 있는 본 건물을 중심으로 양쪽에 시설들이 배치되어 있다. 오른쪽에는 예체능 소조활동을 위한 공간이 있고 축구소조 학생들을 위한 탈의실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지방학교에는 없는 콩우유를 제공하는 공간("우유칸")과 수영장도 갖춰져 있다. 평양에서 한 학년에 11개 학급 규모의 중등학교를 다녔던 사례 12도 학교에 수영장이 있고 여름철 체육시간에 수영을 배웠다고 증언했다. 심상지도의 왼편에는 "오물장"(쓰레기장)과 넓은 "지리학습터"가 있다. 이 학교의 시설 중 수영장은 사례 5, 사례 12 등 평양의 학교와 도청소재지 급에 해당하는 일부 대도시 학교에서만 확인되었고, 지리학습터도 일부 사례에서만 확인되었다. 지리학습터는 운동장 바닥에 한반도 모양의 모형을 만들어 여러 가지 지리정보를 표시하여 학생들이 한반도 지리를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든 곳이다. 콩우유 급식이 이루어지는 "우유칸"은 면담 대상 학생 중 사례 7의 학교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 7은 매일 학급당번이 "우유칸"에 가서 콩우유를 두 주전자씩 받아와서 학생들에게 나눠주었는데, 물을 많이 타서 맛이 없다고 잘 먹지 않는 친구들도 많았다고 말한다.

〈그림 II-2〉에서 또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화장실이 실내에 층마다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평양시 일부 학교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대부분의 학교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실외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또한, 심상지도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촌락 학교의 운동장은 “그냥 흙”(사례 17)이지만, 평양이나 대도시 중심부 학교의 운동장은 인조잔디로 조성되기도 한다. 학생들이 알려준 학교 위치를 인공위성 사진으로 확인했을 때 일부 인조잔디가 깔린 운동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대부분 학교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학부모들이 지원한 돈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평양의 학교에 다녔던 사례 6은 학부모들이 돈을 내서 학교 운동장을 조성하였는데, 그 비용으로 2만 불 정도가 들었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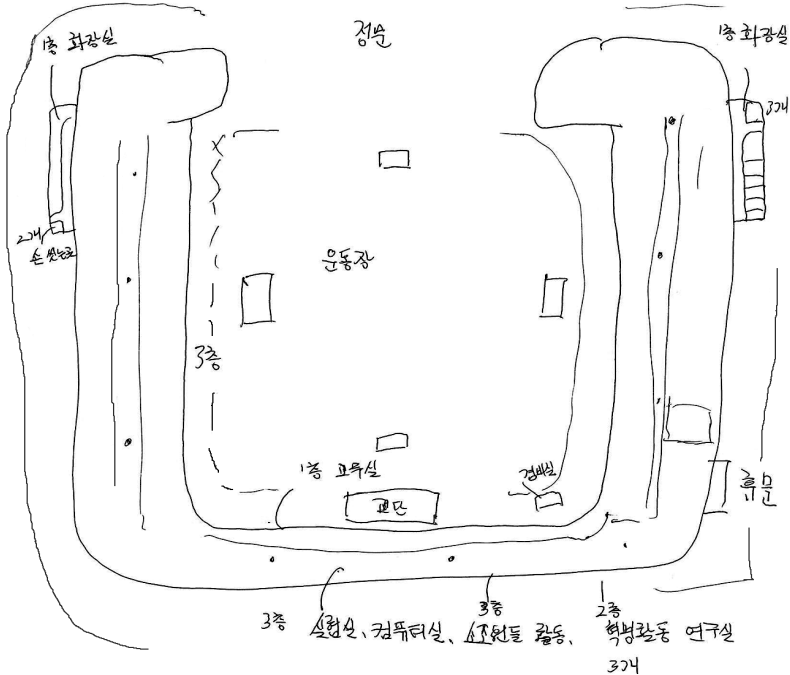
**그림 II-2** 사례 7의 심상지도(평양시 고급중학교)



## 2) 지방 대도시 학교 사례

〈그림 II-3〉은 사례 8이 다녔던 평안남도 도시의 학교이다. 학년 당 7-8개 학급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이 학교는 정문을 중심으로 3층짜리 U자 형의 학교 건물이 운동장을 감싸고 있다. 건물 1층 양쪽에는 실내 화장실과 수도가 설치되어 있다. 학교 건물에는 교실이외에 3개의 혁명활동연구실과 실험실, 컴퓨터실, 소조실 등이 갖추어져 있다. 사례 8의 심상지도에 나타난 학교 공간은 북한 학교 공간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를 보여준다. 평양시 학교처럼 수영장이나 콩우유 급식시설은 볼 수 없지만, 중소도시나 촌락지역 학교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실내 화장실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띈다.

그림 II-3 사례 8의 심상지도(평안남도 도시의 고급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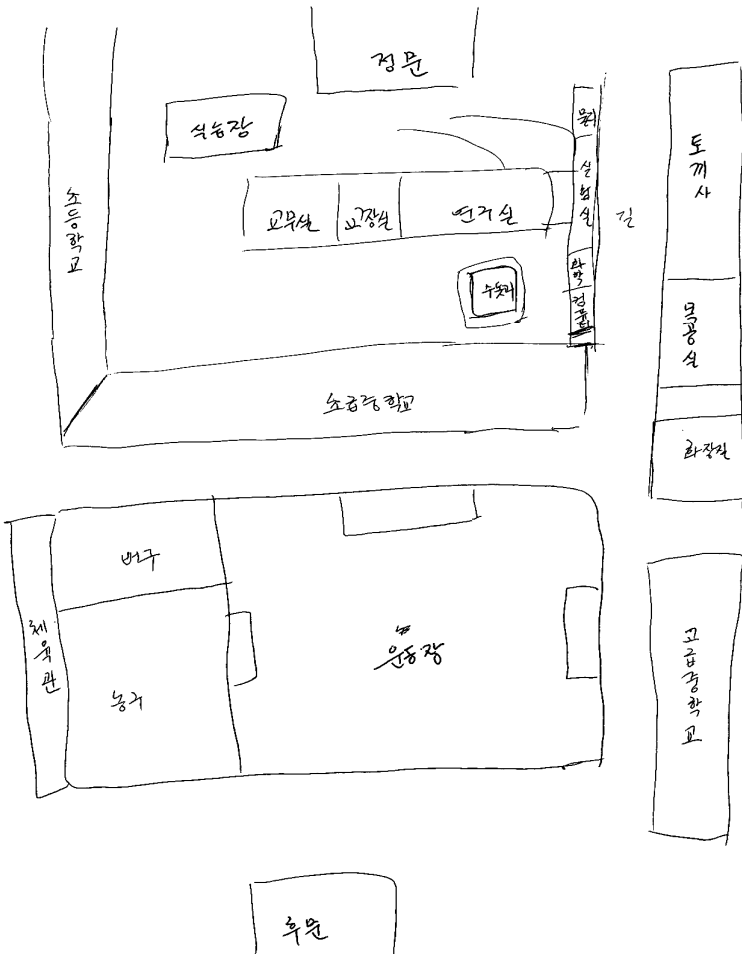




### 3) 지방 중소도시 외곽지역 학교 사례

사례 17이 다녔던 학교는 함경북도 도시 지역의 학교이지만, 다소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고,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가 같은 부지 안에 위치한 병설학교이다. 학교 규모는 한 학년이 3개 학급 정도로 작은 편이다. 정문 안쪽에 위치한 ㄷ자 모양의 단층건물을

**그림 11-4** 사례 17의 심상지도(함경북도 도시 외곽의 병설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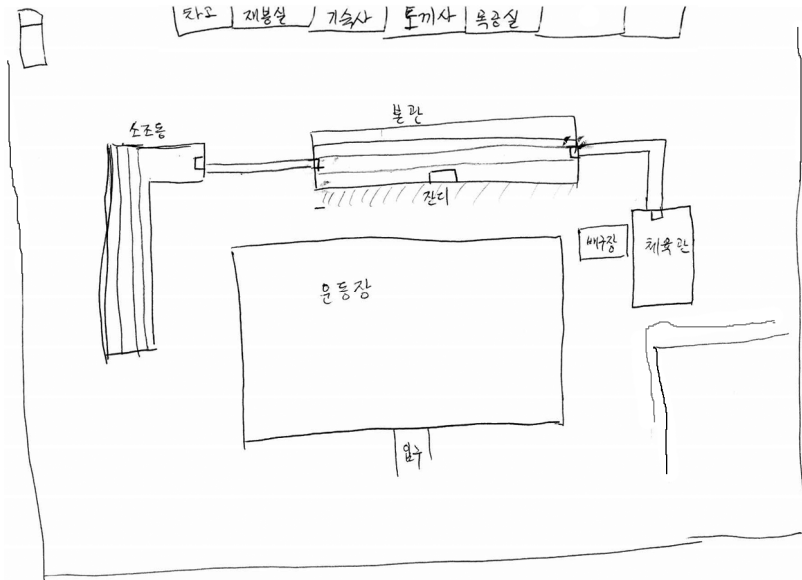
소학교와 초급중학교가 공유한다. 그 건물 중심부에는 교무실, 혁명 역사연구실이 있고, 측면에 물리실험실, 화학실험실, 컴퓨터실이 위치한다. 건물 뒤쪽으로 운동장이 있고 운동장 한쪽 옆에 배구장, 농구장, 체육관이 설치되어 있다. 우측에는 고급중학교 교실만 모여 있는 단층건물이 있고, 토끼사, 목공실, 화장실이 있으며 손을 씻을 수 있는 수도가 설치되어 있다. 이 학교는 병설학교 형태의 소규모 학교이지만, 사례 8이 다녔던 도시의 대규모 학교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에 더해서 토끼사와 같이 농촌지역 학교에서 볼 수 있는 공간 구성물을 갖추고 있다. 다른 촌락학교, 또는 농촌과 인접한 도시학교에 다녔던 학생들의 심상지도에서도 토끼사육장이 표시된 경우가 눈에 띈다. 농촌지역 본보기학교에 다녔던 사례 9에 의하면, 토끼사육장 운영은 교사의 관리하에 학생들이 먹이를 주면서 토끼를 기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교육 목적 이외에도 토끼가죽 생산을 통한 “꼬마계획” 수행이라는 목적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 4) 농촌지역 본보기학교 사례

사례 9는 양강도 농촌지역에 위치한, 한 학년에 4개 학급 규모의 김정은 일가의 이름이 붙은 ‘본보기학교’에 다녔다. 사례 9에 따르면 이 학교는 김일성이 이 지역을 방문한 뒤 학교를 짓겠다고 약속하고 전국적 지원을 통해 건설한 학교이다. 이 학교는 사례 9가 “촌골 안에 있지만 다른 데 가서 학교 유명한 데 가보고 해도 또 우리학교 만큼 멋있는데 못 봤다 할 정도로 좀 학교가 잘 돼 있다.”고 학교 공간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할 정도로, 대도시 학교와 비교했을 때도 우수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학교에는 교실이 위치한 본관과 소조동 건물이 있고 운동장과 배구장, 체육관이 설치되어 있다. 소조동에는 화학실험실, 생물표본실, 자동차실습실 등 실험실습을 위한 교

실과 음악실을 비롯한 예체능수업 및 소조활동용 교실, 공연을 할 수 있는 큰 강당이 있다. 그 외에도 차고, 재봉실, 토끼사, 목공실 등이 있고, 기숙사도 설치되어 있다. 기숙사는 장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생활하도록 지었지만 사례 9가 재학한 시기에는 사용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운동장은 흙이지만 본관 건물 앞에 잔디가 깔려 있는 부분이 있다. 심상지도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운동장에는 “북한에서 찾아보기 드물 정도로 잘 돼 있는” 지리학습터도 있다.

**그림 II-5** 사례 9의 심상지도(양강도 농촌지역 본보기학교)



### 5) 농촌지역 병설학교 사례

사례 4가 다녔던 학교는 양강도 농촌지역에 위치한 병설학교로 한 학년당 2개 학급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학교이다. 두 개의 건물 중 건물 한 동은 고급중학교, 다른 한 동은 소학교와 초급중학교가 같이

사용한다. 고급중학교와 소학교·초급중학교는 중앙에 있는 나무로 구분되어 있고, 축구골대가 있는 운동장을 각기 사용한다.

그림 11-6 사례 4의 학교 공간 심상지도(양강도 농촌지역 병설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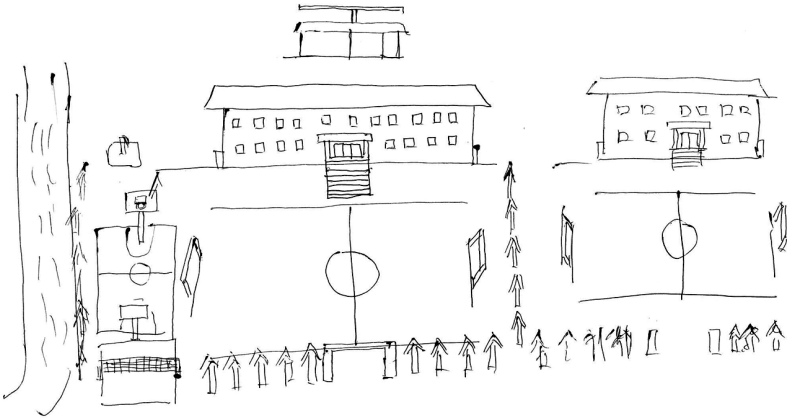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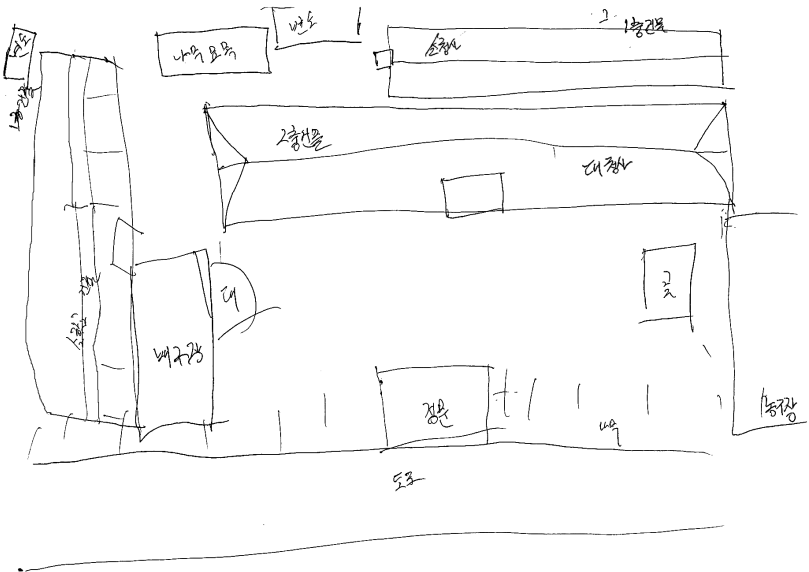


그림 11-7 사례 14의 심상지도(양강도 농촌지역 병설학교)



사례 14가 다녔던 학교 역시 양강도 농촌지역에 위치한 병설학교로, 한 학년당 1-3개 학급으로 운영된다. 이 학교는 <그림 II-7>과 같이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가 1-2층짜리 건물 3개를 각각 사용하며, 제한된 인프라로 효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운동장과 부대시설을 공유하고 있다. 운동장 주변의 농구장, 배구장이외에 나무묘목을 심은 공간이 별도로 있는 것은 임업이 발달한 이 지역의 산업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상의 학교 공간 사례를 살펴보면, 평양과 대도시 지역 학교들은 대체로 북한의 교육 관련 문헌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의 기능별 공간을 잘 갖추고 있는데 비해, 촌락지역의 학교들은 일부 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갖추고 있더라도 낙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규모가 작은 촌락지역의 병설학교는 초중등학교가 학교 건물과 운동장 등의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례 9가 다녔던 본보기 학교의 경우, 학급 수는 많지 않지만, 학교의 전체적인 크기나 시설 등 교육환경 면에서 대도시의 학교를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학교는 지리적으로는 양강도에서도 도시와 매우 동떨어진 촌락이지만, 정치지도자의 가계와 관련된 정치적 상징성을 갖는 지역에 있다는 위치성을 갖는다. 그에 더하여 국가지도자의 현지지도의 결과 건설된 본보기학교이고, 학교명에 국가지도자의 가족 이름을 붙인 학교라는 점에서 이 학교가 지니는 정치적 상징성은 더욱 크다. 북한 사회에서 학교의 자연지리적 위치성뿐 아니라 정치적 위치성이 학교의 공간적 특성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 다. 학생들의 기억을 통해 재구성한 학교의 주요 공간

### 1) 정치적 의미를 지니는 공간

학교의 공간·시설 중 『사회주의교육학』에서 그 기능과 구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공간은 김일성대원수님혁명활동연구실·김정일원수님혁명활동연구실·김정숙어머님혁명활동연구실, 현관과 복도, 교실, 실험실과 실습실,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운동장 등의 여덟 개 공간이다. 『사회주의교육학』에서 주요 학교 공간으로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공간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혁명활동연구실’이다. 『사회주의교육학』에서는 ‘혁명활동연구실’을 “학교에서 제일 밝고 깨끗하며 이용하기 편리한 중심위치”에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학교 시설 배치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울 수 있도록 건물들을 형성하고 시설들을 배치하는 것”(김운진 외 2008, 222)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북한 정권의 통치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 국가기구로서 학교의 기능이 학교 공간의 배치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학생들의 구술을 통해 볼 때 ‘혁명활동연구실’은 김정은 일가의 활동을 담은 그림과 전시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11/</sup> 심충면담과 학교 공간에 대한 심상지도 그리기를 통해 ‘혁명활동연구실’이 모든 학교에 설치되어 있고, 대다수 학생들은 연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학생들의 구술을 통해서도 학교 공간 운영에 있어 ‘혁명활동연구실’이 중요시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사례 15는 학교 건물을 개축하면서 ‘혁명활동연구실’을 새로 만든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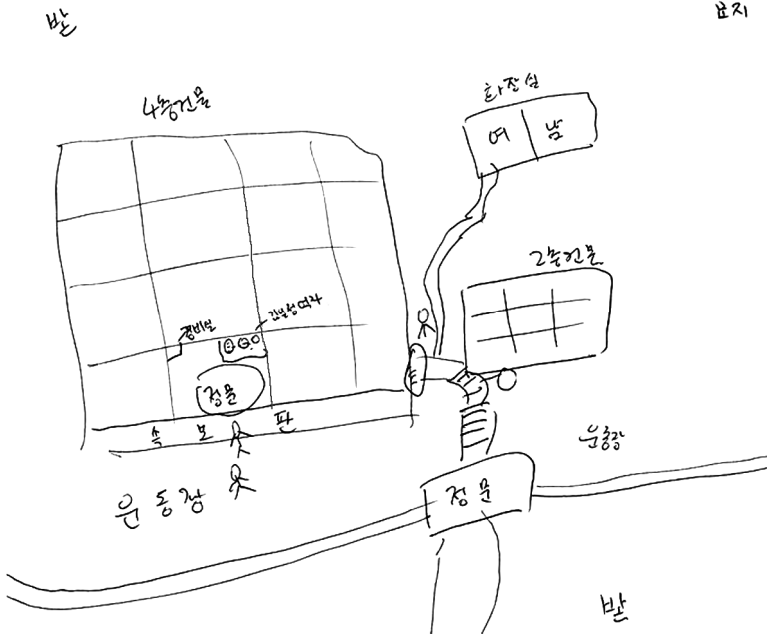
11/ 문미라의 연구에 따르면, 김일성혁명활동연구실은 1953년경부터 중등학교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된다(2021, 264).

로 옮겼는데, 그 이유가 신축건물은 지하실이 있어서 불이 날 경우 연구실에 있는 것을 지하로 “안전하게 모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구술하였다. 그는 혁명활동연구실과 관련된 규칙이 있었는지를 묻자 “옷차림을 단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점을 기억해냈다.

현관과 복도는 이동을 위한 기능적 목적의 공간일 뿐 아니라 ‘혁명력사연구실’과 마찬가지로 체제의 논리가 반영된 사회주의 교양의 공간이기도 하다. 매체에 보도된 학교 사진을 보면 중앙현관에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걸려 있고, 아래쪽에 학교 이름을 새긴 현판이 걸려 있다. 중앙현관의 내부는 공간문헌에서 “정면중심에는 수령숭배심이 차넘칠 수 있도록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초상화 또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형상한 미술작품을 정중히 모시고 관리해야 한다.”(김운진 외 2008, 222)고 강조하고 있는 장소이다.

중앙현관은 위치상 건물의 정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심상지도에 빠짐없이 등장한다. 사례 16은 자신이 다녔던 고급중학교의 지도를 그리면서, 중앙현관의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그런 그림 같은 게 있는” 곳을 가장 먼저 그렸고, “기념일에 그곳에 꽃을 놓고 인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설명하였다. 이 이외에도 많은 학생들이 건물 1층의 중앙현관 안쪽에 있는 “김일성 모자이크”나 국가지도자들의 그림을 기억하고 있었다. 사례 19의 심상지도(〈그림 II-8〉)에는 4층짜리 학교 건물에 들어가는 현관(“정문”으로 표시)과 현관 내부의 김일성, 김정일 그림 액자(“김일성액자”로 표시)가 표시되어 있다. 그는 “선생님이 들어가는 정문”과 학생들이 들어가는 건물 옆의 문을 구분하여 그렸다. 사례 2도 중앙현관 내부를 “북한은 1층에는 무조건 중앙실인가, 그거 김일성, 김정일 그림이 있잖아요. 교원들만 들어가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림 II-8 사례 19의 학교 공간 심상지도(양강도 도시지역 고급중학교)



이와 같이 여러 학생들의 심상지도와 구술에 나타난 학생들의 장소경험은 ‘혁명활동연구실’뿐 아니라 건물의 현관과 복도도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 재생산 장치로서의 학교의 기능을 구현하는 장소이자, 교사와 학생이라는 위계를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장소임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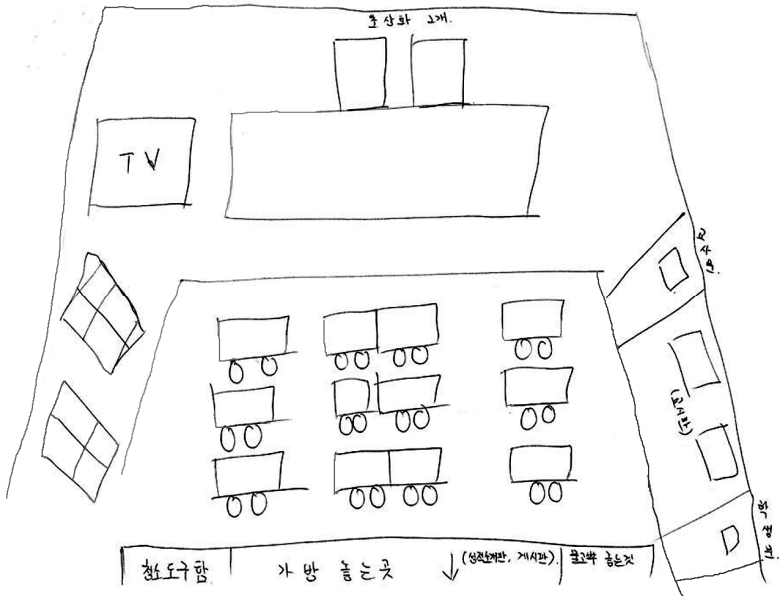
## 2) 교실 공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문헌에서는 교실의 크기와 구성요소, 주요 교구비품과 그 위치까지 매우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다. 매체에 나타난 북한 중등학교 교실의 모습이나 학생들의 그림에 나타난 교실의 모습(<그림 II-9>)을 살펴보면, 교실 후면의 옷걸개 위치



나 음료수통 유무 등의 차이는 있지만, 창문, 칠판, 책상, 의자, TV, 초상화, 말씀판 등의 위치와 배치가 대체적으로 유사하며, 문헌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9 사례 7의 교실 그림(평양의 고급중학교)



교실의 크기는 학생 1인당 면적을 기준으로 정해지지만, 학생들의 교실 그림과 구술에 의하면 학생 수가 작은 학교라고 해도 교실의 크기는 일정한 수준 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실의 앞과 뒤에는 교실 출입문이 있는데, 학생들은 앞문은 교사용이고 뒷문은 학생들이 출입하는 문이라고 말한다. 거의 대부분의 교실 그림에서 창문과 교실 출입문 위쪽의 쪽창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바닥 면적의 1/4-1/5 정도로 되게 창문을 설치하며 윗부분에 시창이 있는 출입문을 앞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김운진 외 2008, 223)는 문

현의 규정과 일치한다. 문헌에는 칠판의 규격을 3-3.5m×1.2-1.3m, 설치 위치를 바닥에서 0.9-1m 높이, 재질을 검은색 또는 암녹색 무광으로 규정하고 있는데(김운진 외 2008, 223), 교실 그림을 통해 정확한 크기를 알 수는 없으나, 대체로 규정과 일치될 것으로 보이는 “검은색 또는 암녹색” 칠판이 교실 앞쪽 중앙 부분에 설치되어 있고, 그 앞에는 교탁이 놓여져 있다. 모든 사례에서 2인용 책걸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책걸상의 배치는 일관되게 교사와 학생이 마주보는 구조이며, 학생 수에 따라 가로로 2인조 책상이 3-4개를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교실 그림에는 대부분 <그림 II-9>와 같이 교탁 옆 창쪽으로 TV가 그려져 있고, 간혹 컴퓨터도 등장한다. 이는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컴퓨터를 비롯한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북한당국의 규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김운진 외 2008, 223). 대체로 도시의 학교들에서는 교실 칠판의 왼편에 TV가 설치되어 있고, CCTV가 설치된 사례(사례 1, 사례 10)도 확인되었다.<sup>12/</sup> 도시에서 군(郡)으로 가면 TV가 없거나, 있는 경우라도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양강도 농촌지역에 거주했던 사례 14는 교실에 TV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평안남도 도시지역과 함경북도 농촌지역의 고급중학교를 모두 다녔던 사례 8은 평안남도 도시지역의 교실 그림에만 TV를 그려넣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기치로 내걸면서 교육 정보화를 추진하였고, 그 결과 대부분의 학교에서 TV, 컴퓨터 등 정보화기기를 학급마다 구비했지만 일부 농촌지역의 소규모 학교들의 경우 초보적인 수준의 교육 정보화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2/ CCTV의 용도는 분명하지 않다. 사례 1은 이를 시험감독용이거나 학급 내 교육 기자재 도난방지용으로 생각하고 있다.

북한 학교의 교실에는 이상의 일반적인 교육시설 및 기자재 이외에도 북한 체제의 특성을 보여주는 공간적 구성물이 있다. 모든 학생들의 교실 그림에 예외없이 등장하는 ‘초상화’와 ‘말씀판’이 그것이다. 북한문헌에는 교실 “정면에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다른 벽면들에는 학습을 잘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제판을 정성껏 모셔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김운진 외 2008, 223). 학생들의 교실 그림 중 한 개를 제외한 모든 그림의 정면 위쪽에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다. 예외적으로 사례 8은 자기 학급에는 초상화가 교실 뒷면에 걸려 있었는데, 교실 정면 벽에 비가 새서 초상화 오염의 위험이 있어 뒤쪽에 설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례 8은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와 함께 김일성과 김정일이 토의하는 그림이 같이 걸려 있었다고 기억한다.

북한문헌에서 “수령님과 장군님의 명제판”이라고 부르고, 학생들은 “교시판”, “말씀판”이라고 부르는 것은 학생들의 임무나 조직생활에 관한 국가 지도자의 교시를 새겨넣은 판이다. 교사인 사례 3은 “학생의 근본 임무는 학습입니다.”라는 말씀판의 문구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학생인 사례 8도 “학생의 근본은 공부하는 것이다.”라는 같은 내용의 문장을 기억하고 있다. 사례 12는 “김일성은 조직생활에 대한 거, 김정일은 학습에 대한 거”라고 기억하고 있다. 말씀판은 대부분 교실 안쪽의 복도 측 벽 위쪽에 설치되고, 간혹 교실 후면 벽에 설치되기도 한다. 김일성, 김정일의 말씀판 두 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김정일의 말씀판까지 세 개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 중 사례 8, 사례 10, 사례 12, 사례 17, 사례 19는 교실에 김일성, 김정일 말씀판과 함께 김정은 말씀판도 설치되어 있었다고 기억한다. 사례 8은 김정은 말씀판의 내용이 김정은 집권 이후 처음 개최된 소년단대회(2013년 제7차

소년단대회) 연설문 내용이었다고 기억한다. 북한의 모든 학교 교실에 설치되어 있는 초상화와 말씀판은 현관 및 복도 공간과 마찬가지로 학급 공간이 북한의 이념적 특성이 반영되는 공간이고, 교실 장소경험을 통해 특정한 정치사상적 지향과 신념체계를 갖는 학생들을 양성해 내는 공간임을 시사한다.

교실 뒤쪽과 뒷 벽면은 학교생활에 필요한 비품과 학생들의 학습 및 학교생활과 관련된 게시물을 설치하는 공간이다. 북한 문헌에는 “뒤벽에는 벽보판, 속보판, 옷걸개를 설치하며 리용하기 편리한 곳에 거울, 음료수통, 고뿌(컵), 청소도구함 등을 갖추어놓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김운진 외 2008, 224). 교실 뒤편에 설치하는 속보판은 위의 <그림 II-9>에서 “성적소개판, 게시판”으로 표시된 부분으로, 교사였던 사례 3에 의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 꼬마계획 수행 잘하는 사람” 등과 같은 학교와 학급 내의 “새 소식”을 보여주는 게시판이다. 여기에는 주로 성적과 과제수행 등에 관한 학급 간 경쟁 그래프나 (사례 4, 사례 8), “이번 달에 누가 생활 잘했고, 누가 어떤 일 잘했는지” (사례 17) 등이 게시된다. 학급 학생들의 성적이 게시되는 경우도 많지만, 이는 담임교사의 재량인 것으로 보인다. 양강도 고급중학교 교사였던 사례 3은 성적을 게시하지는 않았다고 하며, 평양시 고급중학교 학생이었던 사례 12는 칠판 옆에 학급 학생들의 성적이 게시되어서 성적이 낮게 나오면 부끄러웠다는 기억을 떠올렸다.

교실 뒷 벽면에는 “속보판” 이외에도 학생들의 교육이나 정치사상 교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이 게시된다. 사례 9는 “소년단원의 10대 사명”, 광명성 1호 발사 관련 자료 등이 게시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의 대부분을 보내는 교실에서 전면의 초상화, 측면의 말씀판과 함께 뒷 벽면의 게시판은 북한 체제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학생들의 가치관과 신념체계를 주조하는 공간적 환경을 형성한다.

교실 뒷부분의 공간 중 학생들의 교실 그림에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은 청소도구함이다. 이는 교육시설·기자재나 초상화, 말씀판 이외에 학생들이 교실에서 가장 자주 활용했던 것이 청소도구함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어떤 학생들은 청소도구함 옆에 교실 마루바닥 청소용 톱밥함을 별도로 그리기도 했다. 학생들은 이 이외에 물컵, 옷걸이, 음료수통 등을 교실 그림에 표시하였다. 소수의 학생들(사례 19, 사례 23)은 가방 놓는 곳과 신발장이 학급 뒤편에 별도로 있었다고 말하였다.

교실 뒷편에 비치되어 있는 비품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음료수통이다. 국제기구의 조사에 의하면, 전체 학교의 56%만이 기초식수와 위생시설을 갖추고 있다.<sup>13/</sup> 심층면담 과정에서 위생적인 식수나 정수기 등 설비가 비치되어 있는 사례는 매우 드물게 나타났다. 정수 시설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사례 17만 “교실에는 없고 학교 전체적으로는 있었던 거 같은데 물병을 들고 다녀서 잘 모르겠다.”고 답하였다. 심상지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거의 모든 학교에서 식수 공급은 교실에 비치된 음료수통과 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인 사례 21은 본인이 재학할 때는 교실에 음료수통을 비치하는 문화가 없었는데, 자녀들이 학교에 다닐 때는 교실마다 음료수통이 있어서 각자 자기 컵을 가지고 와서 물을 떠먹었다고 말한다. 지금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급에 음료수통을 비치하는 방법으로 식수를 공급하지만 식수 관리에서 위생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학생들의 구술 내용을 종합하면 음료수통은 뚜껑이 달리거나 뚜껑 없는 양동이 형태의 용기로, 컵을 넣어 물을 뜨는 형태이다. 식수는 학교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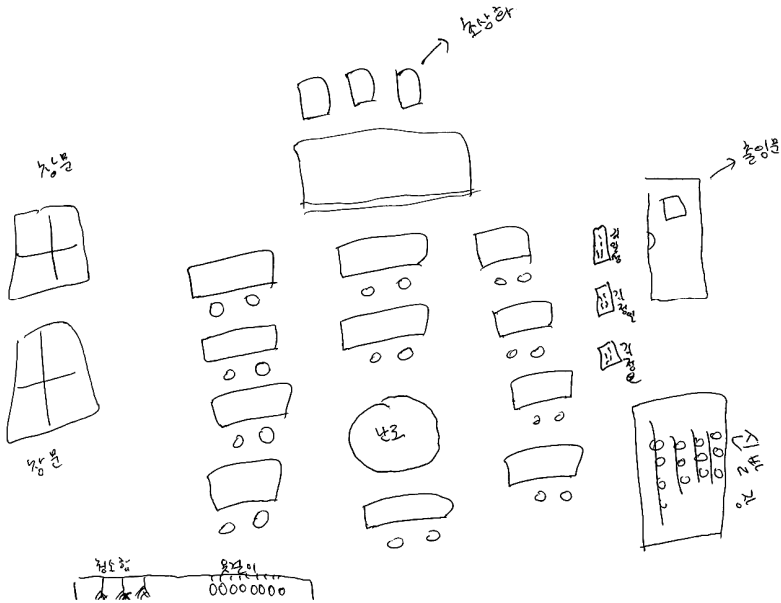
13/ UNICEF, *Analysis of the Situation of Children and Wome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yongyang: UNICEF, 2019, 81 (최규빈·박환보·이요한 2021, 150 재인용).

변을 정해서 집에서 물을 가져와서 채워넣는데, 학생들이 식수를 사오는 경우도 있지만(사례 12), 일부 학생과 교직원들은 강물을 길어서 채워놓는다거나(사례 25) “물을 길어왔다.”(사례 1, 사례 23)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위생적인 식수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이마저도 물이 없을 때도 있고 며칠씩 둔 물을 마실 때도 있다(사례 1). 사례 12는 음료수통의 물은 “보관용, 전시용”이라고 말한다. 물을 마시는 컵을 교실에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소독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위생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사례 23은 공용컵을 지저분하게 사용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행귀서 쓰기도 했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학생들은 각자 먹을 물을 물병에 담아서 가지고 다니기도 한다(사례 12, 사례 17). 사례 22는 교실에 음료수통이 있었지만, 학생들이 물을 잘 먹지 않아서 나중에는 음료수통을 없앴다고 기억한다. 그는 목이 마르면 학교 근처 마을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떠서 먹거나 근처 민가에 가서 물을 얻어 마셨다고 말한다.

이 외에도 교실에는 난방기구인 난로와 조명 등 학생들의 건강·위생과 관련된 시설·기구가 있다. 학생들이 교실을 그리면서 난방장치를 그려넣은 경우는 드물지만, 간혹 다음 <그림 II-10>처럼 이를 그려넣은 경우도 있었다.

그림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가질문을 통해 북한 학교에서 대부분 난방장치로 난로를 사용함을 확인하였다. 난로는 주로 교실의 중앙 부분에 놓고 학급에 따라 한쪽 구석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창문으로 연통을 연결하여 사용하고, 난로를 사용하지 않는 계절에는 철거하기도 한다. 연료로는 나무장작과 석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땀감용 나무와 석탄은 국가에서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땀감을 거두거나 돈을 모아 학급에서 쓸 땀감을 장만

그림 II-10 사례 19의 교실 그림(양강도 도시 외곽지역 고급중학교)



한다. 장작, 석탄 등 땔감은 학교 창고나 체육관 같은 곳에 쌓아두거나 학급마다 교실 뒷편 청소도구함 옆에 쌓아놓기도 한다(사례 3, 사례 4, 사례 9, 사례 15, 사례 22).

사례 중 유일하게 사례 8이 다녔던 평양 부근의 평안남도 도시지역 학교에서 석탄보일러와 라디에이터를 사용하여 교실 난방을 하였다. 학생들은 이를 “난로”라고 불렀는데, “쇠를 여러 개 연결한 형태의 통” 네 개를 교실 귀퉁이 벽쪽에 설치한 것이었고, 겨울에는 만지면 따뜻했으며, 여름철에도 제거하지 않고 놓아두었다고 한다. 이 난방장치를 운영하기 위해 학생들이 탄을 났다는 말로 미루어보아, 학교에서 석탄보일러를 가동하고 라디에이터로 학급마다 열을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가 잘 드는 교실에서는 난방시설을 아예 갖추지 않는 사례도 있다. 평양 고급중학교의 학생이었던 사례

12는 학급이 남향이어서 겨울에도 해가 잘 들어와서 난로를 아예 들여놓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 학교에서도 해가 잘 들어오지 않는 교실은 난로를 설치하고 나무를 땔는데, 남향 교실은 난로가 없어 좀 춥기는 했지만 “살만했고”, 난로를 때면 계속 나무를 내고 불을 지피야 하기 때문에 난로를 때지 않는 것이 나았다고 말한다.

난방시설이 거의 모든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데 비해, 냉방시설을 갖춘 학교 사례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양강도 지역 학교에 다녔던 사례 1은 여름철에도 “더우면 더운대로 살았다.”고 말한다. 북한 문헌에서도 냉방시설에 대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상대적으로 여름철 기온이 높지 않은 북한 학교에서 냉방시설은 필수적인 시설로 간주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학급 시설 중 조명을 중요하게 언급하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 이는 전력사정이 좋지 않은 북한 학교에서 조명의 쓰임새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인공위성으로 촬영한 북한 야경사진에서 평양만 집중적으로 밝게 나타난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sup>14/</sup> 불충분한 학교 조명 문제는 단위 학교의 문제이기보다는 지역 간 전력공급의 불균형성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사례 중에 평양시, 특별시 소재 학교와 농촌지역이었지만 근처에 큰 기업소들이 많아 산업용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는 경우(사례 8)에는 비교적 전력사정이 나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해북도 농촌지역 학교에 다녔던 사례 15는 교실 내 전등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처음에는 “저희는 전등이 없었던 거 같은데”라고 답변했다가 이후 백열등 4개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그러나 전구가 끼워져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하

14/ 선행연구에서 평양의 전력공급시간이 지역별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황진태 2020, 249). 본 연구를 위해 인터뷰를 했던 평양 출신 응답자들 간에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전력사정이 지방에 비하여 좋은 것으로 확인된다. 가령, 사례 6은 “학교는 24시간 불이 오죠”라고 답하였고, 사례 7은 “학교에 불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는데, 올 때가 더 많은 거 같아요”라고 말하였다.



여, 그가 불 켜진 백열등을 거의 보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학교에서 교장실, 혁명역사연구실, 교무실, 행정실 정도만 전기를 썼고 교실에서는 전등을 거의 켜지 않았다고 하면서, “학교에는 전기가 올 필요가 없고, 전기도 잘 안 온다.”고 학교의 열악한 전기 사정을 전했다. 사례 8도 전등이 “달려는 있어요. 딱 그냥 달려만 있어요.”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저녁까지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전등을 켤 일이 많지 않았다고 부연설명하였다. 지방의 농촌학교 학생들은 “그날 전기가 오면 (공부를) 하는 거고, 안 오면 못 하거나”(사례 9), “어떨 때는 촛불 켜놓고 공부”(사례 2)를 하기도 한다. 전기 사정이 비교적 좋고 조명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평양이나 도시지역 학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함경북도 도시지역의 학교에 다녔던 사례 17은 학급에 LED 전등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불 켤 일이 없었다.” 낮에는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와서 괜찮았고 야간 수업은 아예 없었다. 그는 “불이 안 온다고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평양지역 학교에 다녔던 사례 12는 전기가 비교적 잘 들어왔지만, 낮에는 전등을 잘 켜지 않고 비가 와서 어두울 때나 저녁에만 켜다고 한다.

교실 내 조명의 종류는 백열등, 형광등, LED등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는데, 이 중 충전이 가능한 LED등이 가장 발전된 형태로 보인다. 양강도 도시지역에서 교사로 근무했던 사례 3은 2010년대 초반에 본인이 고급중학교에 다닐 때는 백열등이 교실마다 4개씩 설치되어 있었는데, 2010년대 중반 이후 교사로 근무 시 형광등으로 교체가 이루어져 교실마다 5개 정도씩 형광등이 설치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기가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불을 켤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배터리로 충전하여 작동할 수 있는 LED등을 몇 개 켜놓았다고 한다. 그 지역의 일부 학교나 학급에서는 교실 천정에 LED등을 달아

서 충전해서 사용했다고 한다. 사례 8, 사례 9, 사례 15는 백열등이 여러 개 박힌 전등을 사용했고, 사례 12가 다녔던 평양 학교와 사례 17이 다녔던 함경북도 도시외곽의 학교에서는 LED등을 사용했다고 말한다. 등의 크기도 학급마다 다양하고, 등의 개수도 학급마다 4개에서 6개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시설의 종류, 크기, 개수가 다양한 것은 조명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가 국가예산으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급단위로 학부모의 경제력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사례 9).

### 3) 수업과 활동을 위한 기타 공간

운동장을 비롯해서 학생들이 뛰놀 수 있는 공간과 체육시설은 학생들의 심상지도에서 가장 세부적으로 묘사되는 공간이다. 북한 문헌에서는 운동장의 크기를 3,000-5,000m<sup>2</sup>로 권고하고 있고(김운진 외 2008, 225), 대부분의 학교에서 운동장은 이 정도 크기의 공간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같은 울타리 안에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가 같이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학교의 경우, <그림 II-4>, <그림 II-7>처럼 운동장과 체육관 등의 시설을 공유하는 사례가 많다. 운동장에는 축구골대 이외에도 농구와 배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있는데, 이런 공간은 교실 이외에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친구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체육관은 실내운동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으로, 많은 사례에서 운동장의 한쪽 옆에 조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수영장이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서, 본 연구에서는 평양시 소재 학교(사례 12)와 도청소재지급 대도시 소재 학교(사례 5)에서만 수영장이 확인되었다. 사례 12가 다녔던 학교의 수영장은 10m 정도의 레인 4개 크기로, 다이빙대, 남녀 탈의실, 몸을 씻을 수 있는 물탱크가 있었다고 한다. 이 수영장에서는 체육

수업의 일환으로 2-4개 반씩 수영수업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학교 공간에는 실험실과 실습실, 소조실 등 교육시설이 있다. 학생들은 화학실험실, 물리실험실, 생물표본실(생물실험실), 컴퓨터실, 자동차실습실, 재봉실, 목공실(공작실습실), 음악실, 미술실 등의 공간을 기억하고 있다. 이중 컴퓨터실은 김정은 집권 이후 2015년경에 정보화 교육이 강조됨에 따라 전국의 학교에 설치되었다. 그러나 학교의 정보화 환경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가 지원하지 못하고 학교 자체적으로 충당하여 컴퓨터실 구축 등 정보화 교육 시설을 확충해야 했고, 학교에서는 여기에 드는 비용을 학부모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역별, 학교별 정보화 교육 시설의 차이는 크게 나타났다. 심층면담을 통해 전국적으로 학교에 컴퓨터실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지역별, 학교별 시설 격차가 상당함을 알 수 있었다. 평양과 대도시 지역 학교나 본보기학교는 컴퓨터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시설도 좋다. 사례 7, 사례 12가 다녔던 평양의 학교들에는 학급 인원 두 명당 한 대씩 사용이 가능하도록 컴퓨터가 갖추어져 있었고, 교내 인트라넷도 설치되어 국가적인 교육 관련 네트워크와의 연결이 가능한 시설이 되어 있었다. 사례 9가 다녔던 양강도 농촌지역의 본보기학교는 컴퓨터실에 학생 한 명당 한 대의 컴퓨터에 앉을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이 훌륭했다. 이에 반해, 사례 16이 다녔던 양강도 도시 주변부 학교에는 컴퓨터실이 있기는 하지만 “뒤에 뺀 옛날 TV 같은” 컴퓨터가 한 대 있을 뿐 비어있는 “그냥 건물”이었다. 강원도 춘천지역에서 학교를 다닌 사례 2도 컴퓨터실에 “고물 같은” 컴퓨터가 두 대가 있었다고 기억한다. 사례 중에는 농촌지역의 학교이지만 비교적 시설이 양호한 경우도 있다. 사례 4가 다녔던 양강도 농촌지역의 학교에는 학급에는 컴퓨터가 없었지만, 컴퓨터실에 15대 가량의 컴퓨터가 있어서 컴퓨터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만들어진 실험실습실로 사례 25는 “외국어시청실”이 있다고 말한다. 김정은 집권기에 과학기술교육과 더불어 외국어교육이 강조되면서 관련 실습실을 만들라는 지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사례 25가 재직했던 소규모 병설학교에서는 “실만 만들어 놓았고 비품은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

북한 문헌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중 학생들의 심상지도에서 제외되어 있고 면담에서도 언급하지 않은 시설은 도서실이다. 북한 문헌에 의하면 도서실은 “교원들의 교수교양사업과 학생들의 학습에 필요한 문헌과 서적들을 보관, 열람, 대출하는 교육시설”로, 서고, 열람실, 대출실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김운진 외 2008, 225). 추가적인 확인작업이 필요한 사항이기는 하나, 학생들이 도서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도서실이 운영되지 않거나, 도서실이 있더라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4) 보건위생 및 편의시설

북한 학교에서 보건위생 및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공간·시설은 화장실과 급수시설 정도를 들 수 있다. 북한 학교에서 학생들의 보건위생과 관련된 가장 주요한 공간은 화장실이다. 북한 학교의 화장실은 대부분 재래식 화장실이며, 본 건물과 떨어진 별도의 야외 공간에 지어졌다. 재래식 화장실은 냄새가 심해서, 학생들은 화장실 청소를 “진짜 최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사례 22), 냄새 때문에 학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를 화장실이라고 답한 학생(사례 5)도 있다. 심층면담 결과를 종합하면, 지방의 대부분 학교의 화장실은 “구덩이 판 화장실”(사례 9)이거나 조금 사정이 좋으면 바닥을 시멘트로 바르고(사례 22) 정화조에 저장하는 재래식 화장실이다. 남성칸과 여성칸이 분리되어 있는데, 학교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남녀 각각 6-10칸 정도 갖추어져 있고,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각각 2칸 정도인 경우(사례 15)도 있었다.<sup>15)</sup> 재래식 화장실의 경우, 인분은 퇴비로 사용하려고 농장에서 가져간다(사례 1, 사례 15, 사례 22). 사례 중 화장실이 수세식인 경우는 평양시 소재의 학교(사례 7, 사례 12)와 평양 인근 평안남도 대도시 학교(사례 8) 정도였다. 사례 12가 다닌 평양 학교는 학생용 야외화장실은 재래식이지만, 학교 본 건물 내부에 있는 교원용 화장실은 “물 내려가는” 수세식이며 바닥에는 타일이 깔려있다. 또 다른 평양의 고급중학교를 다닌 사례 7의 심상지도(〈그림 II-2〉)에는 5층 규모 학교 본 건물 실내의 모든 층에 화장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평안남도 도시지역 학교를 다녔던 사례 8의 심상지도 〈그림 II-3〉에 그려져 있는 실내 화장실도 수세식이다. 화장실은 북한의 학교별 교육공간과 시설의 격차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화장실 이용 후에 손을 씻을 수도시설 여부도 학생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사례 중에는 상하수도 시설이 미비하여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손을 씻을 곳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사례 1이 다녔던 지방 도시 외곽의 학교에는 손 씻는 곳이 없었고, 청소를 할 때도 걸레 빨 곳이 없었다. 청소를 하려면 청소당번 조원 6-7명이 각각 5리터짜리 물 한 통씩을 가지고 와서 걸레를 빨았는데, 물을 아끼느라고 “석탄물같이 까만 물을 다시 쓰고 쓰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화장실 다녀와서 손을 씻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다.”

심층면담을 통해 학교의 수도시설 설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평양 및 대도시 지역 학교와 촌락지역 학교의 차이가 크게 다르다는 점은 명확히 드러난다. 2000년대 초반 함경남도의 한 도시

15) 북한 문헌에 의하면, 학교 화장실은 남자 30명당 1칸, 여자 20명당 1칸을 갖추고, “급수시설과 배수시설을 합리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김운진 외 2008, 227).

에서 교사로 근무했던 사례 11은 해당 지역에서는 도시에 수도망이 구축되어 있어서 이를 활용하여 학교에서도 수도물을 이용했지만, 도시 밖 농촌 학교들은 수도시설이 연결되지 못했다고 말한다. 사례 중 평양과 지방의 대도시 지역 학생들 중에는 화장실 부근이나 다른 공간에 수도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학생들이 있었다. 평양에서 학교를 다녔던 사례 6은 화장실에서 손 씻는 데 문제가 없었냐는 질문에 “화장실 물 나오죠.”라며 화장실에 수도시설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어조로 답하였다. 또 다른 평양 학교에 다녔던 사례 12는 화장실에는 손 씻는 곳이 없고 건물 지하에 있는 물탱크에서 바가지로 물을 퍼서 손을 씻었다고 답했다. 평양 이외의 대도시나 지방 중소도시 학교에도 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례가 있다. 평안남도 도시 소재 학교에 다녔던 사례 8은 수세식 화장실 두 곳에 손 씻는 곳이 있고, 수도꼭지가 3개씩 있었는데, 물이 안 나올 때도 있었다고 말하였다. 함경북도 도시 외곽의 학교에 다녔던 사례 17은 학생들이 손을 씻을 수 있는 수도가가 있고 수도가 연결되어 있는데, 물이 모자라면 물탱크에 있는 물을 쓰기도 했다고 말하였다. 특별시 지역의 학교에 다녔던 사례 22는 화장실 밖에 손 씻는 곳이 있었는데 물은 잘 안나왔다고 말한다. 이상의 면담 내용을 종합하면, 평양시를 비롯한 지방의 대도시에서는 대체로 학교 수도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물 공급이 항시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촌락지역의 상황은 보다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촌락지역 학교 재학생 중 사례 2와 사례 4만 학교에 수도가 연결되어 있거나 수도꼭지가 있었다고 말하였다. 사례 2가 다녔던 강원도 촌락지역의 학교에서는 상수도에서 물탱크에 물을 받아 운동장에서 쓸 수 있게 수도꼭지를 연결했다고 한다. 학생들은 수도가에서 운동 후 손을 씻고 물을 마셨는데, 물은 잘 나올 때도 있고 잘 안 나올 때도 있었

다. 사례 4가 다녔던 양강도 농촌지역의 학교에는 학교 안에 있는 도랑물을 이용하다가 2010년대 후반경에 수도를 설치했는데, 상수도인지 지하수인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수도꼭지가 하나 달려있었는데, 자주 고장이 났고 겨울에는 물이 잘 안 나왔다. 수도시설이 없는 학교들에서는 특정 설비(물탱크, 펌프)나 자연지형(도랑, 샘, 우물)을 활용하여 학교 내부의 물 수요를 충족시키는 모습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사례 9가 다녔던 양강도 농촌지역의 학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도랑이 학교 안으로 경유하여 학생들이 그 물을 사용했다고 한다. 사례 15가 다녔던 황해북도 농촌지역의 학교에도 “멈추지 않는 샘”이 있어서 “바위 밑에서 물이 나와” 음용수로도 이용했다. 사례 16이 다녔던 양강도 도시 주변부 학교에서는 펌프를 이용하여 학교 인근의 강물을 끌어왔다. 사례 22는 화장실 부근에 손 씻는 곳이 있었지만 물이 잘 안 나와서, 학교 울타리 밖 인가의 우물을 이용해서 “손도 씻고 세수도 하고 더우면 머리도 감고 물도 마셨다.”

재래식 화장실 문화와 수도설비 부족과 같은 위생환경은 그 자체로 집단생활에서 학생들을 감염에 취약한 상황에 노출시킬 뿐 아니라, 학생들의 위생관념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사례 1은 화장실, 수도 등의 학교환경이 “위생 문화적으로 깨끗하지는 않았다.”고 사후적인 평가를 내린다. 그는 재학 당시에는 화장실 다녀와서 손을 씻어야 되는지도 몰랐다고 말한다. 사례 2도 마찬가지로 자신과 학교 친구들은 “화장실 다녀와서 손을 씻는다는 개념이 없었다.”고 말한다. 손씻기와 관련된 학생들의 위생관념은 근본적으로 교내에 손 씻을 곳이 없는 학교 보건위생 인프라의 열악함에 기인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북한당국은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손 위생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설도 확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아동권리보장법」 제34조에서는 “보건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탁아소, 유치원, 학교에 의료일군을 배치하고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원만히 공급하며 아동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보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교내에 별도로 양호실 등 교내 보건 관련 시설은 모든 사례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교사나 직원 중 보건 관련 자격증을 가진 인원이 해당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은 있으나, 심층면담을 통해 그 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병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황 발생 시에는 인근의 병원, 진료소로 학생들을 옮겨서 치료받도록 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의료기관과 학교 간 거리가 먼 경우 사고 등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우리라고 짐작된다.

또한 한국 학교와 달리, 학교 구내에 매점 등의 편의시설은 전혀 없다. 기본적으로 급식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기숙사생이 있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학교에 식당도 없다. 이른 아침에 등교하여 6교시 수업을 진행할 경우 점심시간이 매우 늦어지지만, 학교 공간 내에는 학생들이 간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곳이 없다. 다음 절에서 살펴보겠지만, 일부 학생들은 학교 공간을 이탈하여 인근의 시장에 가서 간식과 점심을 해결하기도 한다.

---

### 3. 장소경험과 장소감

#### 가. 기억에 남는 장소: 통제의 공간, 전유의 공간

학교 공간은 특정한 기능이나 작동 패턴 등에 의해 일정한 방향으로 작동한다기보다는, 학교의 구성원들이 학교에서 수행하는 교육 활동, 인간관계, 교칙, 시대적·사회적 맥락 등과 관련된 경험 속에서 생산되는 일종의 ‘경험의 공간’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이동민



2012, 76). 인간은 사회적 공간 내에서의 경험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그 공간을 자신에게 의미 있는 ‘장소’로 만든다(조정아·최은영 2017, 18). 인간답다는 것은 의미 있는 장소로 가득한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며, 곧 자신의 장소를 가지고 있으며 그 장소를 잘 알고 있다는 뜻이다(에드워드 펠프 저·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2005, 25). 이 연구에서는 학생과 교사 등 학교 내 행위자들이 학교 공간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그를 통해 어떤 ‘장소감(sence of place)’을 형성하는지에 주목한다. Steven Feld & Keith H. Basso에 의하면 ‘장소감’은 “감각과 장소의 관계, 장소를 알고 상상하고 동경하고 간직하고 기억하고 목소리를 내고 경쟁하고 싸우는 경험적이고 표현적인 방식, 장소가 환유적이고 은유적으로 정체성과 연결되는 다양한 방식”(Steven Feld & Keith H. Basso eds. 1996, 11)이다.

심층면담 참여자들의 장소경험과 장소감을 살펴보기 위해 심상지도 그리기를 하면서 이들이 기억하는 학교 공간과 그에 얽힌 경험에 대해 질문하였다. 참여자들은 심상지도 속에서 자신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장소나 호오(好惡)의 기억이 분명한 장소 등을 부각하여 그렸다. 또한 학교의 공간적 범위를 제도적, 물리적 구획을 넘나들며 구성하였다. 심상지도와 구술에서 포착되는 장소경험은 개인의 특성, 거주 지역의 지리적 조건, 경제적 지위, 젠더, 학업과 진로의 연계성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학교 공간과 관련하여 다수 학생들은 특별히 기억나거나 추억이 있는 장소가 없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심상지도를 그리거나 추가적인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경험이 드러났다. 학생들은 수업과 관련이 있는 교실보다 교실 바깥의 운동장, 창밖 풍경, 인근 시장 등의 공간 경험을 보다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또한 학교 안팎의 장소에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학생들에게 학교교육과 학교 장소경험의 의미는 학업이 아닌 친구들과의 관계에 더 큰 방점을 두고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다수의 일반 고급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현재 북한 사회의 사회 상황 속에서 학업이 졸업 후 진로나 경제활동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학교에서 좋아했던 장소를 묻는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답변을 통해 제도와 생활로서의 학교가 학생들에게 압박감으로 작용하는 양상을 포착할 수 있다.

연구자: 학교에서 가장 좋아했던 장소, 편안한 장소는 어디예요?

구술자: 학교는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은데요. 끝나면 빨리 집 가야죠.

연구자: 학교는 대체로 다 싫은 공간인가요?

구술자: 그렇죠. 학교니까. (중략)

연구자: 싫은 공간도 있어요?

구술자: 싫은 데요? 여기 교무실 앞이요. (사례 17 구술녹취록, 42-43)

연구자: 학교에서 본인이 좋아했던 공간이나 그런 데가 있어요?

어떤 기억이 있는 거. 여기가 좀 편했다든지 그런 거.

구술자: 학교에서 좋았던 공간이요? 운동장. 운동장에서 뛰노는

게. 저는 시간 나면 그냥 집에 갔었던 것 같아요. 친구 집

이나, 집 가서 자다가 오거나. 그랬었어요. 학교 가서 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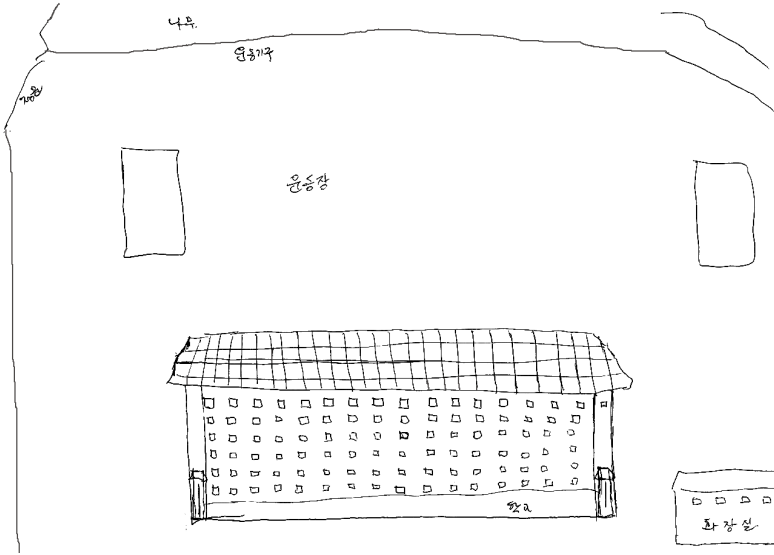
임 쌤 아침에 얼굴 보고, 집 갔다가 거의 수업 끝날 때쯤

에 올 때도 있어요. (중략) 거의 대부분은 다 그랬어요.

그런 애들이 몇 명 많았어요. (사례 16 구술녹취록, 53)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고급중학교를 2학년까지 다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생계유지를 위해 식당 등에서 노동을 했던 사례 23의 심상지도(<그림 II-11>)에서는 운동장이 학교 부지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크게 나타났다. 그는 학교 건물 외벽에 많은 창문을 빼곡하게 그려 넣었고 양쪽 출입문도 강조하여 표시하였다.

그림 II-11 사례 23의 심상지도



사례 23이 심상지도를 그린 후, 연구자는 심상지도에 나타난 운동장의 실제 크기에 대해 질문하였다. 사례 23은 실제로 운동장이 건물에 비해 크지만, 심상지도에서 운동장이 더 크게 그려졌다고 대답하였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운동했던 운동장이 가장 기억에 남는 공간이며, 운동장에서 가장 즐거웠던 경험이 전개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물론 운동장과 얽힌 “잊고 싶은 기억”도 있지만, 즐거웠던 추억이 그 장소에 대한 부정적 기억을 상쇄하기도 한다.

기억에 남는 장소요? 그 학교 내부는 딱히 모르겠고, 운동장에서 운동을, 축구를 좀 자주 했었거든요, 남자들이. 여자들은 가끔씩 했고. 축구하고 배구하고 이런 게 좀 많아서 운동장이 좀 기억에 남고. 여기 정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 뭐 몸단장을 단속을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들어갈 때마다 뭐 슬리퍼를 안 신으면은 단속한다든지 이런 게 좀 기억에 남는 거 같아요 (중략) 규율 좀

어린 학생들 앞에 세워놓고 추궁하거나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거는 재밌는 기억이 아니잖아요. 그냥 잊고 싶은 기억이니까. (사례 23 구술녹취록, 4-5, 73)

사례 23은 학교가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특히 고급중학교에서는 딱히 배운 것도 없다고 표현하였다. 사례 23은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고 부모도 딱히 자녀의 학업에 관심이 없어 결석이 잦았다고 한다. 학습 결손이 누적되다 보니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물품을 상납하지 못해 담임교사에게 자주 혼나고 수업시간에 창피를 당하기도 했다. 교사가 주는 압박 역시 크게 다가왔고, 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수입이 좋은 직장에 가게 된다는 보장도 없었다. 그러므로 그에게 학교란 창문이 빼곡한 건물 외벽처럼 답답한 공간이자 제도이며, 크게 강조된 출입문처럼 규율의 엄격한 단속과 통제가 이루어지던 곳이다. 그러나 그가 심상지도에서 답답한 학교 건물보다 친구들과 뛰어놀았던 운동장을 더 크게 그렸듯이, 학교생활은 친구들과의 놀이, 체육시간 등을 통해 즐거움을 경험한 장소이자 시간이기도 하다. 친구들과 함께했던 학교 안의 장소는 교사와의 좋지 않았던 관계나 물건 상납 요구 등 학교에 대한 부정적 경험을 일정 부분 상쇄시켜주기도 한다.

또 다른 여학생들은 학교에서 기억나는 장소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친한 친구들끼리 앉아 수다를 떨거나 “멍때릴” 수 있었던 곳을 얘기한다. 교정 구석의 벤치나 조용한 나무그늘 같은 곳은 여학생들의 휴식과 소통의 장소였다.

연구자: 학교에서 가장 편한 공간이 어디였나요?

구술자: 학교 안에 약간 야외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거든요. 야외 테이블이 있고 의자랑 다 만들어져 있고. 거기가 제일 편했던 거 같아요.

연구자: 거기에서는 어떤 걸 하셨어요?

구술자: 그냥 멍때리죠. 앉아서. 그냥 멍때리고 있죠. (중략) 밖에서 친구들과끼리 수다 떨죠. 그냥 남의, 다른 학급의 뒷소리 하거나, 남자친구 얘기하거나 그런 거 했던 거 같은데요. (사례 6 구술녹취록, 10-11)

연구자: 아지트 같은 데 없어요? 비밀공간이라든가?

구술자: 정문에서 들어오면은 나무들이 조금 많거든요. 거기에 야외실습장 같은 게 있어요. 한 여기, 들어와서 이 정도, 여긴 좀 외곽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정문이긴 하지만 보통은 다 이렇게 가고, 그래서 이쪽은 잘 안 가요. 여기 그 지리실습장 같은 게 있어요. 여기가 좀 조용해요. 그래서 이쪽에도 많이 갔던 거 같아요.

연구자: 거기서 뭐해요?

구술자: 친구들과끼리 수다 떨고, 숨어다니고. (사례 17 구술녹취록, 43)

다소 특수한 장소경험으로, 사례 22에게는 교실에서 바다가 보였던 것이 가장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 그는 해안도시의 바닷가 언덕에 위치한 학교를 다녔는데, 마침 그의 학급은 바다가 잘 보이는 위치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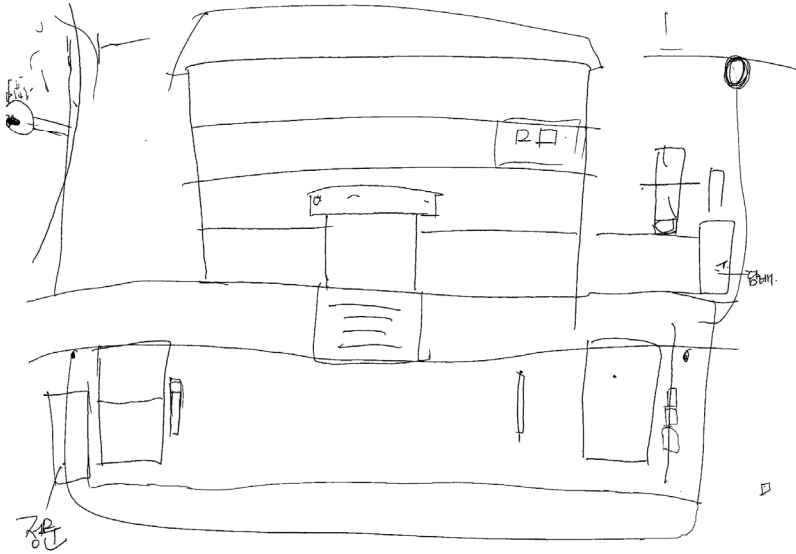
연구자: 학교를 생각하면 생각나는 공간 같은 게 있어요? 딱 떠오르는 그런 그림 같은 거?

구술자: 그냥 학교 전체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것 같아요. 학교를 항상 등교할 때 딱 제일 먼저 보이는 학교,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보이냐면 그냥 학교가 다 보여요. 4층짜리 건물이 있었고, 운동장이 있고, 이렇게 살짝 대각선으로 보였던 거 같아요. 건물은 노란색. 그래서 그런 거 있고, 교실, 교실이 생각이 나죠. 거기서

많이 맞고, (중략) 4층 건물이고 하니까 잘 보이죠. 제일 좋았던 거는 그거였던 거 같아요. 수업시간에 바다가 다 보이는 거. 바다가 이렇게, 바다가 보이거든요. 앞에 섬이 있어요. 바다가 이렇게 보이고 가운데 섬 하나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름 때는 시원했던 거 같아요. (중략) 맞아 이쪽 창문에. 안 보이는 교실도 있거든요. 창문이 저기 학교 뒤쪽에 창문이 있다거나. 우리는 내가 있던 데는 3층이었는데, 3층 이쪽 맨 끝에 교실이었어요. 이쪽 교실이어가지고. 창문이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보고 그랬었죠. (사례 22 구술 녹취록, 9, 62-63)

사례 22는 심상지도에 4층 건물의 3층에 있는 교실에서 자신이 바다를 바라보던 창을 눈에 띄게 그려놓았다. 이 심상지도는 학교 일상의 무료함을 피해 바다를 바라보았던 교실의 창이 사례 22에게 얼마나 의미있는 장소였는지를 보여준다. 고급중학교 졸업 후 대다수의 남학생들이 군대에 가는 상황에서 사례 22는 학업에 관심이 없었다. 비슷한 상황의 친구들이 학교를 자주 빠졌지만, 사례 22는 부모가 다른 일탈은 눈감아주어도 결석만큼은 아주 엄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대체로 출석을 잘했다고 한다. 그러나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지루해하다가 자는 일이 많았던 교실에서의 일상은 대체로 무료하고 큰 의미가 없었다. 그런데 사례 22가 교실에 앉아 창문으로 바다를 바라볼 때만큼은 답답함이 사라졌다고 했다. 물론 학교를 오가는 길이나 학교 밖 일상에서도 바다를 자주 볼 수 있었지만, 교실에서 바라보는 바다는 교실 밖에서 바라보는 바다와 다른 공간으로 재구성된 것이다. 칠판에서 창문, 즉 바다로 시선이 향하는 순간, 잠시나마 학교는 지루함과 의무의 공간에서 즐거움의 장소로 바뀌었다.

그림 II-12 사례 22의 심상지도



사례 22는 학교를 생각하면 노란색 학교 건물과 함께 선생님에게 “많이 맞았던 교실”이 떠오른다고 했다. 그는 친구들과 “친해지는 과정에서 싸움박질을 많이 해서” 선생님에게 맞기도 하고, 노트북으로 금지하는 계임을 하다가 청년동맹지도원에게 걸려서 맞기도 했다. 그렇지만 사례 22에게 학교 교실은 선생님과 청년동맹지도원에게 통제를 받았던 장소인 동시에, 즐거운 기억이 어려있는 장소이다.

연구자: 좀 좋았던 기억, 아니면 되게 엄청 즐거웠던 기억이 나는 공간도 있어요?

구술자: 즐거웠던 기억이 나는 공간. 학교 교실도 즐거운 기억이 있죠. 왜냐면 경비를 서잖아요. 학생들이 일주일에 한 번인가, 한 달에 한 번인가 서거든요. 그때마다 교실로 가서 애들끼리 카드놀이 하면서 논다거나, 담배 피울 애들은 나와서 담배 피우거든요. 그날 밤만큼은 학교 전체가 그냥 우리 거죠. (사례 22 구술녹취록, 9)

사례 22가 얘기하는 즐거운 기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야간 경비를 서는 경험에 관한 것이다. 북한 학교에서는 야간에 교사의 지도하에 학급별로 조를 짜서 학생들이 학교 이곳저곳을 순찰하면서 학교 시설에 대한 경비를 한다. 이 시간은 공식적으로는 학생들이 학교 건물과 시설을 지키는 시간이지만, 사례 22에게 이 시간은 교실과 학교 공간 전체를 “우리 것”으로 전유하면서 카드놀이와 흡연을 즐기긴 시간으로 기억되었다.

## 나. 물리적 구획을 넘나드는 공간 경험의 구성

학생들이 생활하고 인식하는 학교 공간은 규정된 물리적 경계를 넘어 개인의 경험에 따라 구획된다. 학교생활은 학교 건물 혹은 학교 ‘울타리’ 안팎에서도 재구성된다. 수업시간 중 몰래 나가 간식을 사먹던 학교 옆 시장, 매일 드나들며 흡연하던 학교 옆 아파트 등의 장소 역시 학생들에게 학교 공간으로 인식된다. 이때 물리적 구획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특히 남학생들은 종종 담, 나무, 울타리 등을 타고 올라가서 학교 경계를 넘었던 경험을 전해준다.

학생들의 학교일상에 관한 구술과 심상지도에는 학교 시공간의 연장으로서 학교 밖에서 친구들과 함께 한 시간과 장소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한다. 인상적일 만큼 간결하게 학교의 모습(〈그림 II-1〉)을 그렸던 사례 16은 학교에 “그냥 놀러 다녔다.”고 말하며,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학교 바로 옆에 있는 시장에 가서 순대와 술을 사먹고 이어지는 오후 수업에 빠졌던 일에 대해 얘기하였다. 사례 16의 학교생활에서 의미있었던 장소들은 수업이 이루어졌던 교실이기 보다는 친구들과 뛰어놀았던 운동장, 수업을 빠져나와 배회했던 시장과 친구들의 집이었다.

강원도 어촌 마을에서 학교를 다녔던 사례 2도 비슷한 얘기를 들려



주었다. 그는 학교생활에 대한 연구자의 질문에 수업 도중에 선생님이 칠판에 판서할 때 친구들과 교실 창문으로 도망쳐서 학교를 빠져나가서 과일 서리하고 고기 잡으러 다녔던 일을 신나게 얘기하였다. 고급중학교 2학년이 되어 친구들이 하나둘씩 돈벌이를 나서면서 학교에 결석하자 그도 “학교 재미가 떨어졌다.”고 한다. 그는 친구들이 없는 “학교에 가 있는 시간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져서 학교에 나가는 대신 돈벌이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다. 사례 2에게 학교는 온갖 놀이와 “망나니짓”을 함께 했던 친구들이 있기에 의미가 있는 장소였다.

제1중학교 학생으로,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공부하면서 보냈던 사례 18은 학교에 대한 심상지도를 그리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공간에 대해 묻자 다음과 같이 답한다.

연구자: 학교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공간은 어디예요? 내가 제일 좋아했던, 아니면 기억에 남는 공간?

구술자: 기억에 남는 공간이요? 그 뒷담 벽에 나무.

연구자: 나무? 왜?

구술자: 그게 원래 수업시간에 빠져나가... 휴식시간에 학교에서만 있어야 되는데, 우린 빠져나가서 배고프고 하니까 밥을 먹어요.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서 학교를 출근하는데, 애들이 아침밥을 거의 못 먹거나 그래서 거의 위장병 오는 애들이 많아서 부모들이 돈을 쥐어 보내요. 어떻게하나 먹으라고. 그러면 뒤에 시장이 있거든요. 학교 뒤에 시장 있는데, 학교만 그리라니까 안 그럴게요. 시장 있는데 그 시장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나갈 수 있는 나무가 있어요. 나무 타고 올라가서 넘어가면 돼요. 나무 타고 올라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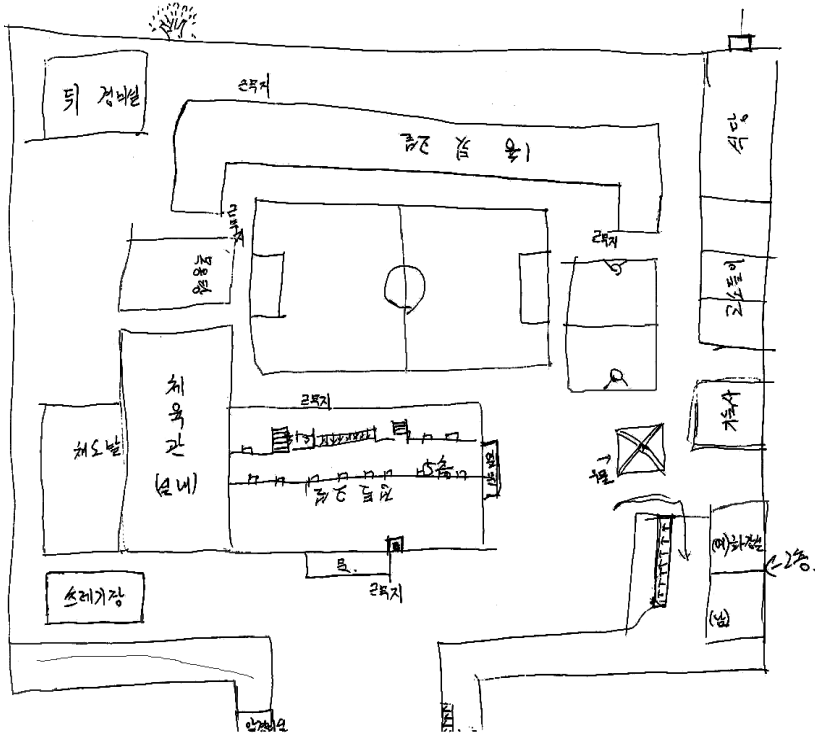
연구자: 나무 타고 나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구나.

구술자: 신기하죠? (사례 18-1 구술녹취록, 37)

사례 18은 <그림 II-13>의 심상지도를 그리면서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학교 안의 다양한 장소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림의 좌측 상단부에 보면 그가 언급한 나무가 그려져 있다. 경비실 뒤에는 나무가 많았는데, 그가 그린 “담벽에 붙은 나무”는 벽에 붙어 있어서 학생들이 그 나무를 “타고 넘어다닐 수 있었다.” 공부에 지치고 시장해진 사례 18과 그의 친구들은 수업시간이나 휴식시간에 경비의 눈을 피해 담벽에 붙은 나무를 타고 넘어 학교 뒤에 위치한 시장에 가서 간식을 사먹고 돌아왔다. 제1중학교에서도 수재반에 들었던 모범생 사례 18에게 학교 공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는 학교 안의 세계와 학교 밖의 세계가 연결되는 곳이자 학교의 규율을 피하여 자신만의 시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장소였다. 이후 심상지도와 관련된 면담 과정에서 ‘나무’는 또 한번 등장한다. 그가 다녔던 학교에는 특이하게도 우물이 있었고, 그는 심상지도의 우측 하단부에 정사각형 모양의 우물을 그려넣었다. 학교에 다니는 내내 사례 18은 우물물을 길어서 교정의 나무에 물을 줘야 했고, 그것은 학교 일상 중 “제일 짜증나는” 일 중의 하나였다.

사례 18이 그린 심상지도에는 또 다른 의미에서 학교와 학교 밖의 경계가 중첩되어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 <그림 II-13>의 좌측 상단부에 그려진 목욕탕은 사례 18이 재학할 때 학생들의 노동으로 건설한 곳으로, 학교에서 유일하게 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다. 사례 18에 의하면, 공부를 중시하는 제1중학교이지만 “학교 짓는 건 학생들이 해야” 했기 때문에 목욕탕 뿐 아니라 경비실, 식당 등의 부대시설도 학생들이 건설했다. 목욕탕은 일반적인 북한의 학교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공간으로, 사례 18에 의하면 학교가 “돈벌이 하려고 만든” 공간이다. 학교에서는 일반주민에게 요금을 받고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무료로 목욕탕을 사용

그림 II-13 사례 18의 심상지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례 18의 학교에 존재했던 목욕탕은 학생들을 위한 교내 위생시설이면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영리시설이라는 점에서 학교 안의 공간인 동시에 학교 밖의 공간이다. 이 공간은 사회주의 인민을 주조하는 공교육의 공간에 투입하는 시장경제의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사례 22는 가장 기억에 남는 학교 공간으로 <그림 II-12>의 우측 상단부에 표시된 학교 근처의 아파트 1층 창고를 지목했다. 이 장소는 그가 매일 틈틈이 휴연하러 가던 곳인데, 그의 심상에서 학교 공간은 울타리, 벽, 문 등과 같은 학교의 물리적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이것도 후문이라고... 문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그쪽은 울타리가 없었거든요. 뚫려 있었거든요. (중략) 담배 피우러 갈 때 그냥 여기로 나가가지고 여기 아파트 단지 있는데 거기서 피고, 그리고 교내 울타리 밖에 벗어난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뭐라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중략) 담을 일단 넘을 필요가 없어요. 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중략)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담배 피러 갈 때 그 창고 밖에. (사례 22 구술녹취록, 60-61)

앞에서 제시한 사례 22의 심상지도(<그림 II-12>)에는 창문이 표시된 학교 건물 이외에도 “쉬는 시간 되면 남자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운동하고 놀았던” 배구장과 축구골대와 철봉이 그려져 있다. 우측의 철봉 옆에 “담배”라고 쓰여 있는 건물이 사례 22가 담배를 피우던 외부 아파트의 창고이다. 그는 이곳에 매일 “무조건 가서” 담배 피우고 나서 교내 소지품검사를 피하기 위해 “담배를 숨겨놓고 나왔다.” 사례 22는 학교를 그리면서 학교 담장 밖에 위치한 아파트 창고를 학교 담장 안에 그려놓았고, 이 장소를 가장 기억에 남는 학교 공간이라고 말했다. 사례 22에게 매일 친구들과 어울려 담배를 피우던 아파트 창고는 학교 공간의 연장일 뿐 아니라 가장 기억에 남는 ‘학교 안의 장소’였던 것이다.

담을 넘거나 나무를 타고 학교 경계를 넘는 등의 실천은 여학생보다 주로 남학생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들은 구획된 공간을 여학생들보다 더 자유롭게 넘나들었다. 여학생들이 몰래 문을 나섰다는 정도의 증언은 있으나 담을 넘었다거나 나무를 타고 학교 바깥을 출입했다는 진술은 발견할 수 없었다. 남녀 각각에게 요구하고 용인되는 사회문화적 모습이 다른 만큼, 학교 공간의 범위 역시 젠더별로 다르게 구성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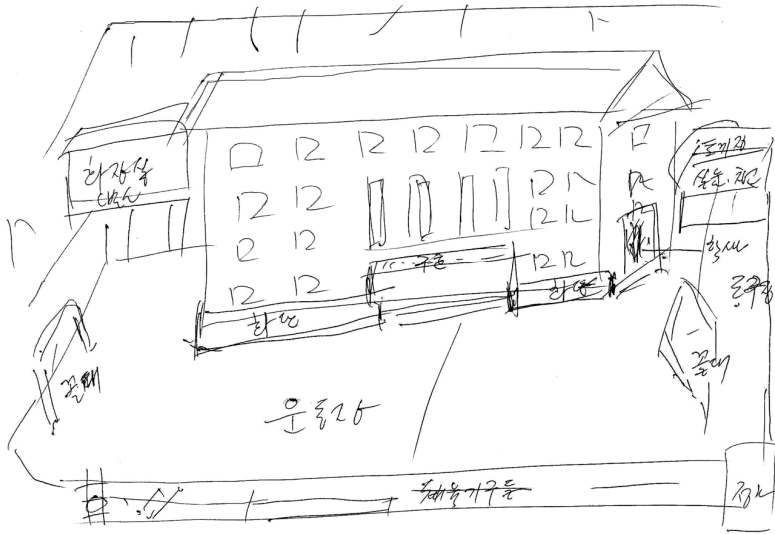
#### 다. 교사와 학부모의 장소경험

이 연구에서 교사와 학부모의 학교내 장소경험과 장소감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는 못하였으나, 이들이 학교에서의 위치와 관계, 연령 등의 측면에서 학생들과 차이가 있는 만큼 장소경험이나 장소감에서 학생들과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정은 집권 초기까지 장기간 교사로 일했던 사례 13은 학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를 묻는 질문에 대해 “그냥, 그 교실, 교실이지.” 라고 답하였다. 학생들에게 교실은 갖은 방법을 동원해 지루한 수업 시간을 피하고 친구들과 함께 추억을 채워나가는 장소라면, 교사인 사례 13에게 교실은 수업을 하고 학생들에게 방과 후 공부를 시키고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하고 “뽀뽀뽀 뱃이 나게 청소”를 시켰던 장소이다. 그의 심상지도는 앞에서 살펴본 학생인 사례 23의 심상지도(<그림 II-11>)와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사례 13의 심상지도(<그림 II-14>)에는 크고 작은 창문이 나있는 학교 건물이 운동장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만큼 크게 그려져 있고, 건물 현관 상단의 구호와 건물 앞의 화단, 측면의 학생출입문이 표시되어 있다. 작은 운동장에는 축구골대와 농구장, 체육기구가, 정문 안쪽으로 실습실 창고, 토끼장, 화장실 등 부대건물이 표시되어 있다.

사례 13은 기억에 남는 장소에 대한 대답을 이어가며, 비가 새서 계속 수리해야 했던 교사(校舍)의 옥상과 작은 운동장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고사리동원을 해서라도 심상지도에 그려져 있는 지붕 대신에 평평한 시멘트 지붕을 만들고 토끼장을 옥상에 설치할 것을 교장에게 계속 건의했고 나중에 그 건의가 받아들여졌다. 또한 그는 “학생들을 다 모아놓으면 딱 찰” 정도로 작은 운동장을 학교 주변의 땅집들을 철거해서라도 넓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비새는 옥상과 작은 운동장은 그에게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그림 11-14 사례 13(교사)의 심상지도



제공해주지 못해 “가슴 아픈 장소”였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동일한 학교 공간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장소감을 보여주기도 한다.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본보기학교’ 중 하나인 고급중학교에 다녔던 학생인 사례 9는 “전국에서 지원해서 지은 학교라서 크고 시설이 좋고” “우리 학교만큼 멋있는 데는 못 봤다.”고 하면서도, 학교에서 별다른 감동이나 추억이 깃든 장소는 없다고 하였다. 반면, 그 학교의 학부모는 자녀가 입학하기 전에는 평소 그 학교 앞을 지나다니기만 하다가 자녀가 입학한 후 해당 학교에 방문하여 매우 긍정적인 감정을 느꼈다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복합적 감정을 “평양에 간 느낌”이라고 표현하였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평양’이란 좋은 학교를 지어준 “장군님”에 대한 ‘충성심’과는 무관한 것으로, 평양 그 자체가 갖는 상징적, 실질적 ‘(신식)도시’의 감각과 맞닿아 있다.

**평양에 간 느낌.** (중략) 진짜 너무 넓어서 이렇게 좋은가 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쳐다보니까 학교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중략) 신식 문이 커다란하게 달고, 네, 팻말 단정하게 깨끗하게 딱 써 붙이고, 너무 깨끗해가지고 **막 내 절로 긍지스럽더라고요.** 이런 데서 공부한다 하는 게. 그래도 우리 딸이 다니는 학교가 이렇게 좋구나. 그저 깨끗하고 이런데서 공부하는구나 하지, 거기에 무슨 ‘우리 장군님 배려가 크구나’ 이런 거는 그런 생각은 (중략) 아예 없어요. (사례 21 구술녹취록, 41-42)

도제1중학교를 다녔던 사례 18은 학교 공간에 대한 구술과 심상지도를 그리면서 학교에서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장소경험과 장소감에 대해 얘기했을 뿐, 수재교육기관인 ‘제1중학교’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특별한 장소감에 대해서는 별달리 얘기한 바가 없다. 이에 비해 자녀를 이 학교에 보냈던 학부모인 사례 10은 그 학교가 “김일성이 60년대에 방문해서 현지도한 건물”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말했다. 그는 김일성이 직접 지도한 사적건물이기 때문에 이 학교를 도제1중학교로 지정했고, 김일성과 김정일이 현지도한 날을 “학교명절”로 지정해서 행사를 진행한다고 얘기하였다. “항상 장군님 모시는 게 준비된 학교”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학교를 “평양 학교들 못지않게, TV에 나오는 학교들 못지않게” “일류급으로 꾸렸다.”고 하면서 이 학교의 특별한 장소성과 학부모들의 노력을 연결지어 강조하였다. 또 다른 제1중학교의 학부모인 사례 11은 도1중학교라는 “간판”이 주는 이미지와 위압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례 11에게 자신의 자녀가 다녔던 도제1중학교가 특별한 장소가 되는 것은 넓고 잘 갖춰진 학교시설이나 학교의 특정한 공간이 아니라 수재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높은 학교”라는, 도제1중학교 간판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상징성 때문이다.

이 학교 자체는 도1고중이다 하면 벌써 걸보기 이미지 자체가 틀려 보이는 것처럼. 비슷하긴 한데 그게 생각이 그렇게 더 되는 거 같아. (중략) 운동장도 크고 정문 자체도 그런데, 일단은 이 간판 자체가 이렇게 도1고중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그리고 이 학교 자체는 도1고중이다 하면 벌써 걸보기 이미지 자체가 틀려보이는 것처럼. (중략) 그다음에 도1중이라고 해가지고 애들이 시험 보러 올 때도 위압감 같은 것도 있고. 건물 자체가 위압감이 있는 거죠, 그냥. 이게 도1중이라서. (중략) 하여튼 뭔가 위압적인 게 있어. 여기서 제가 좀 이게 막 높은 학교라는 그런 감이 있어가지고. (사례 11 구술녹취록, 48)

한편, 2010년대 중후반 시기 고급중학교에 재학했던 학생들과 달리, 부모세대에게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일 장소에 대한 감각과 경험이 재구성되는 현상이 포착되었다. 가령, 사례 21은 1980년대 재학 당시 학교에 꾸며진 연못에서 아늑함, 다정함 등을 느꼈고 졸업 이후에도 종종 그 장소를 찾아갔다. 그에 따르면, 학생 때에는 “너무 커 보였던” 연못이 졸업 후 성인이 되어서는 “엄청 작게” 느껴질 정도로 연못의 장소성은 다르게 구성되었다.

학교에 뒤에 양어장이라고. 지금 보면 엄청 작는데 아때는 그게 너무 커 보였어요. (중략) 거기 너무 좋아가지고 학교 졸업한 다음에도 항상 거기 가 봤어요. 네, 거기 그 양어장이라는 게 고기량은 없는데 (중략) 예쁜 것도 아닌데 아때는 그게 너무 그냥 아늑하고 다정해 보이고. (사례 21 구술녹취록, 42-43)

이처럼 세대 간의 장소경험이 대별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중등 학교 졸업 이후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의 효과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달리 나타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2000년대 초반 출생한 학생들은 사실상 일생을 시장과 함께 자라왔고 소비문화와 디지털 문화에



흥미를 느끼는 세대이기 때문에 부모세대와 달리 학창시절의 경험에서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에서의 경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볼 수 있다. 시장화 이후 각 지역의 도시화가 전개되는 상황에서, 학교 공간은 선제적으로 정비되거나 상대적 세련미를 갖춘 장소가 아니라 낙후한 장소로 인식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배급제가 작동하고 국가에 의한 직장배치가 실제 생계유지와 직결되었던 시절에 학교가 각 개인의 삶의 경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해 학교생활이 졸업 이후의 진로에 미치는 비중이 축소된 현재의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학교라는 장소경험의 강렬함 역시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

#### 4. 소결

이 장에서는 학생과 교사 등 학교 내 행위자들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틀로서 북한 중등학교 시공간의 모습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일과시간 운영 측면에서는 근대 학교의 시간규율이 작동하여 국가 규정을 통해 학교의 공식 일과시간을 세밀하게 규율하고 있으며, ‘초상화 정성관리’, 독보시간과 같은 사회주의 체제 및 3대 세습 체제의 특성이 반영된 시간이 일과에 포함되어 있다. 실제 일과 운영 면에서는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특성과 학교의 종류 및 상황에 따라 변형이 이루어진다. 학생들의 일과는 지역과 학교에 따라 다르고, 학생 개개인의 경제적 형편, 교육열, 사교육 여부 등에 따라서 달리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평양과 대도시 지역 학교와 제1중학교에서는 학과수업 시간이 비교적 잘 준수되고 방과 후에도 학습이나 소조활동의 비중이 높는데 비해, 농촌학교나 농촌과 인접한 중소도시 외곽 학교에서는 농촌지원 노동 등 방과 후 노동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같은 학교 내에서도 부모가 경제력이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 돈을 내고 방과 후 노동을 빠지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하거나 사교육을 받는 등 학교의 공식적 일과시간을 전유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행위자들의 시간 운영은 국가 공교육의 시간에 침투하는 시장경제의 흔적을 보여준다. 한편, 학교공부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학교에 출석하지 않거나 수업 중간에 학교를 빠져나가 다른 일을 하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즐기는 방식으로 학교의 공식 일과시간을 전유한다.

학교 공간 역시 마찬가지로 근대 공교육의 공간 규율이 작동하는 동시에 북한 체제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반영한다. 북한당국은 법령 등을 통해 학교 공간과 시설 표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학교 공간의 구성물이나 교실 크기 등 주요 규정은 대체로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험실습실, 화장실 등의 교육공간과 부대시설 면에서는 학교가 위치한 지역과 학교의 종류 및 정치적 위상 등의 위치성을 반영한 차이가 나타난다. 평양과 대도시 지역 학교, 지방의 본보기학교들은 북한의 교육 관련 문헌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의 기능별 공간을 비교적 잘 갖추고 있는데 비해, 촌락지역의 학교들은 일부 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갖추고 있더라도 낙후되어 있다. 학교별 교육환경과 시설의 격차는 북한당국이 기본적으로 무상의무교육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공간과 시설 조성 및 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가 아닌 학부모로부터 충당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심상지도와 구술을 통해 학교 공간의 구성을 살펴본 결과, 북한의 학교에는 일반적인 교육 공간과 시설, 학생들의 생활에 필요한 시설 등 갖추어져 있고, 이에 더하여 '혁명활동연구실'과 같이 학생들을 북한의 '인민'으로 주조하는 이데올로기 재생산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 있다. 건물의 현관과 복도, 교실의 벽면에도 일반

적인 기능 이외에 복한 체제의 특성을 드러내는 ‘초상화’, ‘말씀판’ 등의 공간적 구성물이 배치되어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학교 공간의 구성물 중 새롭게 등장한 것은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교육 관련 시설이다.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설비를 설치하라는 당국의 지시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에 컴퓨터실이 설치되었고, 교실에도 컴퓨터와 TV가 구비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보화 교육 시설 역시 주로 학부모의 지원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확충되었기 때문에 지역별, 학교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한편, 평양 등 대도시 일부 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화장실, 식수 등 기본 위생시설이 미비하고, 냉난방시설과 조명이 열악하며, 편의시설이나 부대시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에서는 또한 학생 등 주요 행위자들의 학교와 관련된 장소경험과 장소감을 살펴보았다. 학생들의 장소경험은 개인의 특성, 거주 지역의 지리적 조건, 경제적 지위, 젠더, 학업과 진로의 연계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학생들은 교실, 운동장 등의 학교 공간에 대해 부정적인 장소감과 긍정적인 장소감을 모두 보여주었다. 부정적인 장소감이 학교라는 제도적 압박, 교사의 통제와 차별 등과 관련된 것이라면, 긍정적 장소감은 친구들과 함께한 즐거운 추억과 소통의 경험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학생들은 엄격한 규율 통제로부터 벗어나 학교 공간을 자신들의 공간으로 전유한 경험-예를 들면 야간경비-에 대해서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학생들의 장소감은 종종 학교의 물리적 경계를 넘어 개인의 경험에 따라 구획되고 학교 밖으로 확장된 모습을 보여준다. 수업시간에 학교 울타리를 타고 넘어 학교 인근의 흡연장소나 시장에서 시간을 보낸 학생들의 장소경험은 학교에 관한 장소감이 물리적 경계 밖으로 확장된다는 점과 함께 학교의 공식적인 시간을 이들이 어떻게 전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한편, 학교와 관련된 교사와 학부모의 장소경험은 보다 강렬하게 표현되며, 학생들에 비해 학교 공간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신념, 지식, 기술의 체계를 형성하는 근대 공교육 기관으로서의 학교가 개인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기성세대에 비해 청(소)년 세대들에게서는 다소 축소되었음을 시사한다.

---

# Ⅲ. 교육과정의 실행과 학생들의 학습경험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교육과정의 실행과 학생들의 학습경험

이 장에서는 북한의 중등학교 교육과정 실행과 학생들의 학습경험을 살펴본다. 학교 교육과정이 실행되는 공간은 교육일상의 관성과 행위자가 창출하는 전유, 의도하지 않은 학습경험이 공존하는 장이다. 학생을 “선군조선의 기동감, 재능있는 인재”로 길러내기 위한 북한의 교육목표는 국가의 공식적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주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역동에 의해 변형된 모습으로 구현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학교 교육과정과 교육행정의 실행과 변형, 학급운영에 개입된 학부모 권력, 교육과정을 수용하거나 대응하는 학생들의 학습경험에 주목하였다.

---

### 1. 교육과정의 실행과 변형

#### 가. 국가 교육과정의 구조와 교사의 실천

##### 1) 교육과정 제정과 집행 체계

근대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육성하고 사회화에 필요한 정신적·육체적 기능을 육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북한의 교육 역시 학생들을 체제 유지와 재생산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지닌 인간으로 양

성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조정아 2004a, 130). 이와 동시에 북한의 교육은 맑스·레닌주의에 기반한 사회주의 교육학을 전승하였고(조현정 2020, 23-24),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체제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북한 학교교육의 목표는 한국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교육강령'을 통해 전달된다. 북한 사범대학의 교육학 교재에서는 "교수의 본질은 교육강령에 따라 조직적·체계적으로 진행되고, 교수활동과 학생들의 학습활동의 유기적인 통일로 이루어지며, 교사의 지도하에 학생들의 인식활동이 집약적·능동적으로 진행되는 교육과정의 특성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김운진 외 2008, 98-99).

북한당국은 2012년에 9월 학제 개편에 따라 2013년에 초중등 교육강령을 개정하였다. 새 교육강령에서 "자라나는 새 세대들의 나이와 심리적 특성, 인식과정의 합법칙성에 맞게 새 의무교육의 총적 목표와 교종별 도달목표, 학년, 학과목별 도달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노동신문 2014.4.1.). 새 교육강령은 교육단계별로 교육내용의 체계와 순서를 명료화하고, "계승성과 통일성, 연관성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개정 취지를 밝히고 있다(노동신문 2014.4.1.). 새 교육과정은 김정일 애국주의 구현 및 정치사상교육 강화, 기초과학분야를 기본으로 하면서 컴퓨터교육 및 외국어교육 강화, 실험실습교육을 통한 응용실천능력 향상 및 기초기술 습득 제시, 교육방법 및 평가방법 개선, 교육사업의 정보화 등에 초점을 두었다.<sup>16/</sup> 이와 같은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성을 구현하기 위해 교사들은 수업과 연습, 실험실습 등 교육강령 상의 다양한 수업 형식을 정확하게 적용하여 학생들의 수업내용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노동신문 2014.4.1.).

16/ 교육신문 2012.9.26(조정아 외 2015, 25 재인용).



교사들의 교수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의 요구는 「교원법」(2015년)과 「교육법」(2015년) 등 법적 규제와 교원연수를 통해 유지되어 왔다. 김정은 집권 이후 교육을 주요 국가발전전략으로 설정한 북한당국은 2016년에는 「교육강령집행법」을 제정하여 교사들이 교육의 목적과 내용, 방법, 교육사업의 정규화·규범화를 통해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교육강령 집행에 대한 규정을 세분화하였다. 북한은 동법 제2조에서 교육강령을 “교육의 목적과 내용, 방도를 규정한 국가의 법적문건”으로 정의하고, 교육강령 집행의 감독 통제, 형태별 교수, 조건보장 등 교육사업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적 책임까지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6조에서는 “교원은 정해진 교수시간을 정확히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7조에서는 “교원은 교수를 교수진도표와 교수안에 기초하여 하여야” 하며, “교수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교수할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교육강령에 기초하여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에서 중등학교 교육강령과 교과서는 모두 국가가 작성하여 배포한다. 「교육강령집행법」 제7조에서는 보통교육기관의 교육강령은 중앙교육지도기관이, 직업기술학교를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강령은 해당 교육기관이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1조에서는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에 비상설로 교육강령심의위원회를 두어 교육강령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담당 중앙부처인 교육위원회<sup>17/</sup>와 각 지역의 지방인민위원회에는 각 학교가 교육강령을 정확히 집행하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관리할 임무가 주어진다(제41조). 교육강령 집행기관인 학교에서는 당해 학년

17/ 북한은 2003년 11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에서 교육위원회를 교육성으로 개편하였다(노동신문 2023.11.5.). 기존에는 교육위원회 산하에 보통교육성, 고등교육성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조치는 중앙교육행정기구를 축소 개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활용된 문헌자료와 구술자료의 시점을 고려하여 중앙교육행정기구를 교육위원회로 표기하였다.

도의 '과정안집행계획', '교수집행계획', '교원교수계획' 등의 '교육강령집행계획'을 세우고, 수업시간표와 교수진도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제14조, 제18조, 제19조). 교사들은 교수진도표와 교수안에 기초하여 수업을 진행하여야 한다(제27조). 이와 같이 교육과정 관련 법령은 중등학교 수업의 계획과 진행에서 교사의 자율성을 인정하기보다는 국가가 작성한 교육강령에 철저히 의거하여 수업을 진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 2) 교수안 작성과 새로운 교수방법의 적용

교육강령은 각 학교, 학년별 교과 구성과 수업 시간수와 전체 학기 일정을 명시한 '교육과정안'과 각 교과의 교육내용, 방법, 교과 내용별 시간 배정 등을 명시한 '교수요강'으로 구성된다(조정아 외 2015, 26). 교육과정안과 교수요강에 반영된 교과목의 교육내용은 구체적인 교수안 작성을 통해 실현된다. 따라서 북한의 교사들에게 교육강령 집행을 위한 교수안 작성은 교수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교수안은 교육강령을 집행하기 위한 교과목 교수시간별 교사의 구체적인 교수활동 계획이다. 교사가 작성하는 교수안은 “교수제목, 교수목적, 교수내용(직관물, 실험실습기자재들, 참고도서), 교수흐름(이끌기 단계, 가르치는 단계, 다지기 단계), 교수방법, 교수시간” 등으로 구성된다(김순 2013, 92-93). 이렇게 작성된 교수안은 분과장, 부교장, 교장 등의 검열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수업에 적용한다. 교수안 작성이 법에 규정된 사항이고 승인 절차를 거쳐 수업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학생이 숙제 검열 받듯이” 교장에게 교수안 검열을 받아야 한다(사례 20).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국가가 요구하는 교육강령과 교수학의 원리를 반영하여 교수안을 작성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

이 따른다. 학급운영과 학생 생활지도뿐 아니라 각 학급에 할당된 각종 물품 수집과 노력동원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사가 교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대부분의 학교는 교사들이 교과목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기초적인 교구비품과 실험실습 기자재도 미비하다. 전기가 안 들어와서 “촛불을 켜놓고 교수안을 쓰기도” 하고, 교육 정보화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학교의 교사들은 교수안을 “줄 하나하나 줄자로 그어서 작성”한다. 다음과 같은 탈북교사의 구술에서 드러나듯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많은 교사들은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교수안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검열을 위한 교수안’을 쓴다.

사실은 그 교수안에 다 반영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말하는, 깨우쳐주기 위한 수업이 되잖아요. 깨우쳐주기 위한 수업. 그러니까 그 안에 교수안을 잘 쓸 때 원래는 그 선생이 하나하나 그 정말 땀 들여 써야 돼요. 실험은 어떻게 하고 실습은 어떻게 하고 준비 막 하는데, 선생들이 그거까지 세세히 보며 하자면 선생님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나 대충 검열을 위한 교수안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실지는 세부적으로 다 써야 되지 않아요? 근데 검열을 위한 교수안을 써. 교수안을 보는 선생이 어디 있어. (중략) 이 교육 과정을 지키는 선생 있고, 안 지키는 선생 있고. 근데 원칙은 지켜야 돼요. 그 너무 또 다 지키면, 또 아이들 싫어하고. (사례 13 구술 녹취록, 50-51)

2013년에 학제개편에 따른 새 교육강령이 시달되고 순차적으로 새 교과서가 개발·보급되면서,<sup>18/</sup> 교수안을 작성해야 하는 교사들의

18/ 개정 교육과정은 2014년에 각급 학교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었고, 교과서는 2014년에는 1학년 교과서, 2015년에는 2, 3학년 교과서를 만드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조정아 외 2015, 26).

어려움은 가중되었다. 새 교육과정에서는 교육내용뿐 아니라 교육 방법 측면에서도 변화가 이루어졌다. 기존의 일방적인 주입식, 암기식 교육을 지양하고 학생들이 수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방법이 강조되었다(조정아 외 2015, 262). 탈북교사인 사례 20은 기존의 교사가 “가르치는 교사”라면 새로운 교육과정 하에 서의 교사는 “지도교사”, 즉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안내자로 그 역할이 바뀌었다고 인식한다. 새 교육과정에서는 교수안 작성에 있어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의 북한 교육은 대부분 주입식, 암기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교사들이 학생의 탐구와 참여를 강조하는 새로운 교육방법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새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수안을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그때는 우리가 학생들이 모르면 이거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내가 다 설명을 하고 답을 내주고 해야 됐었는데, 이제 초중, 고중으로 바뀌면서는 깨우쳐주기식이 아니고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게 만들어요. (중략) 새 방식은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해서 교수안 자체가 아예 틀려졌어요. 안을 쓰는 방식이. (중략) 옛날에는 가르치는 교사였는데 우리 때는 지도교사죠. “어, 그런데 너 이랬어? 저랬어?” 이러면서 유도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아, 그러면 이게 이런 거겠네요.”라고 결과적으로 답을 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교수 방법을 적용을 해라 해서 그때부터 그렇게 막... 저희는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1년 수업하면 그 과정안이 데이터가 쌓여서 이걸로 한 2-3년 우려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교육과정이 바뀌다 보니까 그 교수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례 20 구술녹취록, 24)

더군다나 교육과정 개정 직후에는 교수안 작성에 대한 지침이나 자료가 미비하였고, 교과서 개편도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원연수도 충분하지 못했다. 때문에 학교현장의 교사들이 기존 교수안과 차별화된 교수안을 만들어내고 이를 실제 수업에서 구현해내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당국은 교육과정 개정 이후 새 교육과정을 학교현장에 뿌리 내리기 위해 교원연수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였다. 각 지역의 학교들에서 “새 교육강령의 성과적 실험을 위한 보여주기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들을 소개하고(교육신문 2015.5.14.), “백번 말로 강조하는 것보다 한번 보여주는 것이 더 큰 효력을 가져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교육환경과 조건 마련에서 본보기단위들을 교종별로 설정하고 그 단위들에 힘을 집중”하도록 하였다(교육신문 2015.4.2.). 또한 교사들에게 학생들의 지능을 계발하기 위해 관찰력, 상상력,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수내용과 수법을 연구하고 교수경연과 교수경험 발표, 우월한 새 교수방법을 창조하고 일반화하는 데 열정을 쏟을 것을 호소하고 있다(교육신문 2018.10.25.).

새 교육과정 구현을 위해 교육당국이 주력한 것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학교급별, 교과목별로 진행되는 교원연수이다. 교육과정 개정 이후, 방학 중의 정기적인 교사교육과 학기 중의 특별강습을 통해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는 교수법 연수가 이루어졌다. 교원연수에 참여했던 교사의 구술에 따르면, 교원연수에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참가하지만, 이를 실제 수업에서 충실히 적용하는 교사들은 “사명감을 가진” 소수에 국한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열성교사들은 교원연수에서 교수법을 전수받는 곳 이외에 자체적으로 전공 교과 내용을 정독하고 참고문헌을 수시로 읽으면서 해당 상식을 찾아내어 교수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설명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사례 13). 그러나 교원연수는 교육당국이 개발한 교

수법을 대규모 인원 대상 강연을 통해 전달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학교별 실정도 다르기 때문에 교사들은 연수를 받은 후에도 기존 교수법대로 수업을 진행하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 강습 같은 거 하고 그러지 않나요?

구술자: 하죠. 1년에 두 번인가 과목별로 날짜가 있어요. 어느 날에는 뭐 이런 큰 회관, 강당 같은데 모여서 전 00시면 “00시 무슨 과목선생님들 어느 날에 교육을 합니다.” 하면 그날에 또 다 내려가서 그 교육을 참가하고, 안 참가하면 또 뭐가 학교에 불이익이 있고 하니까 그 교육은 되게 다 잘 참가해요. 그러니까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냐, 잘 가르쳐야 된다, 이 정도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뭐... 평양에 교육청에서 새로운 교수법을 연구하잖아요. 그럼 그게 지방에 내려오면 도교육부나 시교육부에서 선생님을 모다 놓고 “교육청에서 이런 교수법이 내려왔는데 이 교수법을 적용을 해라.” 네, 그런 걸 하고, 그런 걸 많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 1년에 세 번 정도는 모였던 거 같아요. 새로운 교수법이 나오면 그걸 “일반화하라.” 하고 하는데 뭐 그게 거기서 거기고.

연구자: 선생님들이 참여는 하지만 한두 번 하는 거로는 새로운 교수법에 대해서 숙지한다거나 이러기는 어렵잖아요?

구술자: 네, 그러기는 어렵죠. 그게 안 되고, 거기서는 이렇게 듣고, 가서는 늘 하던 교수법대로 그냥...

연구자: 그래도 보면 열성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계시지 않아요?

구술자: 있어요. 그런 분들은 계시요. 네, 뭐가 교육 부문에 사명감인가, 이렇게 본인이 정말로 이렇게, 나이 드신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머리도 많이 쓰시고, 어떻게 하면 애들을 더 알기 쉽게 그게 될 것인가. 그런 선생님들도 계시요. (사례 3 구술녹취록, 11)

중등 교육과정 개정 이후 북한 교사들이 수업 준비와 실제 수업 과정에서 공식적 교육과정의 변화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를 단편적인 사례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북한에서 교수안 작성은 철저하게 교육강령에 의거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업방식은 대부분 그쪽(새 교육과정)으로 바뀌는 형상”이라는 사례 20의 관찰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 20대에 과학교사를 하다가 탈북한 사례 20은 “하나하나 설명을 늘어놓는” 기존 교육방법보다 학생들의 질문을 이끌어내는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방법이 학생들의 흥미 유도 측면에서 장점을 지니며, 교사들 입장에서도 수월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한다. 이와 달리, 김정은 집권기에 대학을 졸업하고 양강도 중소도시 외곽지역 학교에서 교사로 일했던 사례 3은 본인이 근무했던 학교에서 50여 명의 교사 중 교수법을 열심히 연구한 열성교사는 3명 정도였고 다른 교사들은 수업 방식 면에서 이전이나 별반 차이가 없었다고 말하며, 이런 상황은 학교별 차이가 크다고 덧붙였다.

### 3) 교사의 수업전략

북한의 교사는 교육강령에 따라 학생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갖춘 인재로 키워내야 할 사명을 가지고, 국가의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며, 교육발전과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해야 할 의무를 지닌 ‘교육혁명의 전초병’으로 호명된다(교육신문 2019.11.7.). ‘전초병’이라는 말은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대면하여 수업과 생활지도를 통해 이들을 국가가 원하는 인재로 양성하는데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자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교사는 교실 내의 관계와 상호작용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교실 상황을 규정하는 행위자이므로(김신일·강대중 2023, 108), 교사의 수업

전략은 의도된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데 있어 관건 요소이다. 그러나 교실은 국가를 대리하는 교사들에 의해 국가가 추구하는 공식적인 교육 목표와 교육과정이 그대로 관철되는 공간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라는 교실 내의 행위자에 의한 교육과정의 변형과 전유가 일어나는 공간이다. 북한의 교사들도 다른 사회의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수업전략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면하고 수업을 이끌어나간다. 교사들의 수업전략은 공식적 국가 교육과정의 실현에 모종의 영향을 미친다.<sup>19/</sup>

북한 교사들이 '교육혁명의 전초병'이라는 국가의 호명에 대응하는 방식 중의 대표적인 방식은 기존 수업방법을 유지하는 것이다. 특히 교사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는 학생이 별로 없고" 학생들이 호응을 하지 않는 교실 상황에서 교사들은 기존의 '주입식' 교육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이 문제는 북한당국의 회의와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7년 4월에 열린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법령 집행 총화'에서는 "각 지역의 교육위원회에서 교원자질향상 사업을 계획이나 시달하고 과목교수강습을 주는 것으로 대치한데로부터 적지 않은 교원들이 아직까지도 주입식, 암기식, 기계식 교수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창조적인 교수방법을 적용하는 능력이 따라주지 못하니 학생들에게 사물 현상에 대한 원리적이고 체계화된 기초지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교육신문 2017.4.20.). 국가적인 법령 집행 총화에서 비판적 내용이 언급된 것처럼, 2010년대 후반에 고급중학교를 다녔던 학생들 중에는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바뀌었지만 교육내용과 방법의 변화를

19/ 1980년대 미국 고등학교의 사회과 교사들의 수업을 분석한 맥닐(McNeil)에 따르면, 교사들은 교육목표인 "지식에의 접근"을 추구하는 대신, 학습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단편화, 신비화, 생략, 방어적 단순화 등의 "방어적 수업" 전략을 사용하여 수업의 모든 주제를 단순한 정보로 환원시켰다. 이를 통해 공식적 교육 목표는 변질된다(맥닐 저·이인효 외 편역 1991, 206-227).



체감하지는 못했다는 학생들이 많다. 사례 1은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소통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교사 중심의 전달식 수업방법이 유지되었다고 말한다. 사례 8도 컴퓨터나 미디어 교육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오직 교과서 하나로” 수업이 진행되었고, 모든 선생님이 교과서를 “다 따라하니까” 수업이 모두 똑같았다고 기억한다.

북한에서는 그런 재료들이 많이 없고 그런 장소도 없다 보니까 그런 활동적인 것보다는 개념적인 부분들로 모든 수업이 다 이루어졌었거든요. (중략) 수업 시간이 45분 수업시간이고 그 시간 동안에 대부분 교사가 다 설명을 하는 거로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문답식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토론을 한다거나, 주제가 있어서 학생들끼리 대화를 하는 거는 거의 없었고 선생님이 얘기를 설명을 해주면은 그냥 받아적는 정도. (사례 1 구술녹취록, 50)

북한 교사는 또한, 국가가 권장하고 있고 교수안에 반영되어 있는 교수단계를 수업 실정을 고려하여 단축하거나 일부 생략한다. 교육과정 개정 이전의 북한의 교육학 교재에서는 수업 과정을 “새교재로의 이끌기, 새교재 가르치기, 새로 가르칠 지식의 다지기 및 활용”의 세 단계로 크게 구분하고, “이미 배운 교재의 되익히기 및 새교재로의 이끌기”, “새교재 가르치기”, “다지기 및 활용”, “마무리” 등과 같이 교육내용과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 변형하여 적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김운진 외 2008, 127-128). 교육과정 개정 이후에 출판된 사범대학 교재에서는 수업의 목적에 따라 교수과정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 번째는 “새 지식을 학생들에게 기정사실, 진리로 알려주면서 인식시키는 교수”이고, 다른 하나는 “학생들의 탐구적인 사색과 활동으로 지식을 발견하고 파악해나가도록 하는 교수”이다(김순 2013, 101). 전자의 경우 교사가 계획한 방식에 따라 선행지식과 경

힘에 의거해서 새 지식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에 수업은 “지각, 이해, 다지기, 활용”의 네 단계를 거친다(김순 2013, 101). 그런데 이러한 “전수위주, 기억위주”의 교육방식은 현대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어서 현재 북한 교육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지식 자체가 아니라 “지식을 발견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이 경우에는 “연구식학습”이라는 수업모델이 적용된다. 연구식학습은 “연구문제 진입단계, 탐색해결단계, 결론확정 및 서술단계”를 거쳐 수업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수업에서는 “논리적이며 창조적인 사고”를 가지고 학생들의 상호 협동과 교류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 독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김순 2013, 110).

본 연구과정에서 만난 탈북교사들과의 면담 내용에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 교육학 교재에 서술된 수업과정과 단계가 반영된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 탈북교사들은 대부분 본인이 이전부터 해왔던 수업의 단계를 기준으로 수업 운영방식을 설명하였다. 이들의 구술에 따르면, 교사들이 준수해야 하는 수업의 과정이 있지만, 수업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과정을 안 지키는 선생” 있고, 대부분 “숙제 검열을 생략”하는(사례 13) 등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수업을 운영한다.

과정이 있어요. 먼저, 숙제검열. 되살리기라고 하는데. “전에 배웠던 게 무엇이던가요?” 하고 물어보고, 숙제도 검열하고, 숙제 딱 그러니까 고릴 때 하라는 건 아닌데 임의의 순간에 해도 돼요. 되살리기는 꼭 해야 되는 기야. 전 시간에 배워 보이고, 새 지식 들어가는 기야. 연결해서 새 지식. 그러고 무슨 깨우쳐 주고, 새 지식 주기, 다지기, 무슨 과정이 있는데, 그거 지키는 선생 있어? 그런데 그 원칙은 그렇게 해야, 원리는 오는데... 숙제검열 나중에 하겠다. (중략). 또 숙제 검열 안 하는 선생이 가뜩해요. (사례 13 구술녹취록, 60-61)

북한 교사들의 수업전략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 학급 내에서 학생들의 능력의 차이를 고려하는 방식이다. 이 문제는 어느 사회에서건 교과별로 다른 다양한 학습수준과 학습능력을 지닌 학생들이 한 교실에 모여있는 학교의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부딪히는 도전적인 과업일 것이다. 맥닐은 1980년대 미국의 일반학교 학습을 관찰하면서, 교사들이 모든 학생을 중간 수준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고 교과 내용과 숙제를 단순화하고 학생 간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가르치는 전략을 구사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맥닐 저·이인효 외 편역 1991, 229). 북한의 일반학교에서도 이와 같은 단순화 전략이 적용된다. 그런데 북한 학급에서 주목할 점은 교사들이 고려하는 학급 학생들의 수준이 학생들의 평균적인 수준보다는 공부할 의지가 있는 상위 성적의 학생들에게 맞추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고급중학교 학급별 인원은 도시학교 기준으로 30여 명 정도인데, 지역과 학교, 담임교사의 수학 능력에 따라 학급 학생 수에 차이가 있다. 한 학급 공간에는 다양한 학생들이 공존하고 있으므로, 교사들 자체도 모든 학생이 공부 잘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몇 명의 학생들만 이해했다면 교사들은 시수만 채우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사례 20). “잘 하는 친구 몇 명이 이해를 하면 넘어가는”(사례 1) 방식으로 “열심히 공부하려는 학생들 위주로”(사례 4) 수업의 초점을 맞춘다. 교사와 학생들의 구술을 종합하면, 지역별, 학교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 교사들이 학급에서 우수한 학생들에 초점을 맞추어 수업을 진행하는 전략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학업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교사의 수업전략에 대해 수업 내용을 “그냥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고, 나는 안 해도 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교사가 공부 잘하는 학생에 맞게 수업을 진행해도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위축되지 않는다(사례 23). 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은 교사의 기대 수준에 맞게 반응하

므로, 이와 같은 수업전략 하에서 어떤 학생의 학업성취는 강화되고 어떤 학생의 학습행위는 약화된다(김종두 2023, 138).

교사의 수업을 잘 따라오는 소수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업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의 수업참여 태도를 관리해야 한다. 교사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많은 교사들은 “자는 친구들은 그냥 자게 하고”(사례 1), “장난을 치거나, 만화책을 보거나”(사례 22), “작두질하고, 그림 그리고, 쪽지 놀이”(사례 2)를 하는 등 수업에 집중을 하지 않는 학생들은 제쳐두는 등 수업 규율 위반행위도 수업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 이상 강하게 통제하지 않는 ‘느슨한 통제’ 전략을 취한다.

수업을 가르쳐 주는 것도 열심히 하는 애들만 위주로 그 수업을 가르쳐 줘요. 아예 수업을 안 하려고 하는 애들은 방치하거든요. 니들 마음대로해라.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고 잘 듣고 하는 애들은... 개네들만 위주로 그냥 공부. 공부 안 하는 저희한테 관심이 없는 거죠. (사례 4 구술녹취록, 32)

## 나. 학교 간 교육과정 운영의 차이

### 1) 도시와 농촌 학교의 교육격차

시장화 이후 경제적 계층화로 인한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심각해지면서,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격차는 국가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로 대두되었다.<sup>20/</sup> 북한에서 현재 인구변화와 도시화 진전에 따른 지역 간 격차, 생활수준 변화에 따른 지역별 빈부격차 등 다양한 빈부격차 양태가 나타나고 있는데(임을출 2016, 98), 그에 따라 지

<sup>20/</sup> 한국 사회에서도 교육격차를 파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도시와 농촌 간 차이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영향이라는 분석이 있다(김병성 2021, 193).

역간, 계층간 교육격차도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북한은 2021년 6월 유엔에 발표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가 검토보고서(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VNR)를 통해 “교육 내용과 방법의 혁신이 저조하고, 교육학적 요구에 맞게 교육환경을 개선하기보다는 형식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며, 중등교육의 농촌과 도시 지역 간의 격차 등과 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다(Government of the DPRK 2021, 22). 북한은 도시와 농촌의 교육수준 차이를 줄이는 것을 당의 중대한 과업으로 강조하고 있지만(노동신문 2022.6.10.), 지역 간 경제적 격차는 도시와 농촌 등 지역 간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있다(조현정 2022, 210).

우선, 도시와 농촌 간의 학교 교육환경과 시설 측면에서 큰 격차가 있으며, 같은 도시 행정구역 내에서도 시내 중심에 있는 학교와 시내 변두리에 있는 학교는 교육환경과 시설 면에서 차이가 크다(조현정 2022, 205-206). 교육환경과 시설의 차이는 교육과정 운영 면에서의 차이로 이어진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도시와 농촌의 학교는 기본적인 학교 공간 구성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실험실습실, 수영장 등 교육관련 시설이나 화장실, 수도 등 부대시설 유무, 크기, 노후화 정도 등의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컴퓨터 등 정보화 교육 관련 시설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환경과 시설은 교육과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2013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고 읽히는 방식의 교육이 아니라 체험과 직접 참여를 통한 교육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조정아 외 2015, 192) 과학교과 등에서 실험실습이 중시될 수밖에 없지만, 화학실험실이 갖추어져 있어도 시약이 부족하면 학생들에게 실험을 시키지 못하고 교사의 시연수업에 그치거나 그것

마저 어려워진다(사례 25). 중소도시 외곽 지역 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했던 사례 3은 학교에 물리실험실이 있었지만 공간만 있고 학생들이 거기서 실험실습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말한다. 이후 절에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정보화 교육의 경우 교육환경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의 차이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도시 학교의 경우 컴퓨터실에 컴퓨터가 잘 갖추어져 있거나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컴퓨터 수업을 진행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컴퓨터를 학교망에 연결하여 시험을 보기도 하는데 비해, 농촌학교의 경우 대체로 정보화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전기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학생들이 컴퓨터를 직접 조작하면서 교육내용을 익히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학교들에서는 '정보기술' 과목 수업을 교육강령이나 교수안대로 진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교사의 자질과 전문성 측면에서도 도시와 농촌학교 간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교육의 질 차이로 이어진다. 북한에서는 “교원의 자질은 곧 학생들의 학과 실력으로 나타나며, 교육의 질을 결정”한다고 보고 있다(김운진 외 2008, 234). 교사의 자질을 향상하는 문제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당국이 교육정책에서 핵심적인 당면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부분이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지역 간 교육격차를 농촌과 산간 지역의 일부 학교 교원들의 자질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교원 진영 강화에 주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노동신문 2019.8.9.). 최근에도 북한은 도시와 농촌의 교육수준 차이를 줄이기 위해 교육위원회에서 교종별, 학과목별, 학년별 수업녹화물 등을 농촌학교에 지원하고, 농촌 학교들에 시·군 교원재교육강습소 지도 교원들을 집중적으로 파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노동신문 2023.8.24.). 또한 도시지역 우수 교육자의 농촌지역 파견과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 등 경쟁운동을 농촌 교사들의 교육수준을 제고할 방법으로 강조하고 있다(노동신문 2023.8.22.).

사례 3, 사례 25에 의하면, 북한당국은 2016년경부터 농촌학교 교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사범대학 졸업생들을 농촌지역 학교에서 일정기간 ‘현실체험’을 거치도록 한 후에 학교에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학교에서 ‘현실체험’을 하는 젊은 교사들 중에는 기한만 채우고 도시 학교에 배치받으려는 생각으로, 농촌학교에 적을 걸어놓고 수업을 하는 대신에 학교에 돈을 내고 개인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현실체험’을 마치고 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도시로 나아가려고 하지 농촌학교에 남아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농촌학교는 늘 교원이 부족하고,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맡아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 교육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사례 25).

대학을 졸업하고 제창[바로] 배치 못 받고 현실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현실체험 온 선생들이 학교에다 돈 날마다 내면서 그걸 마무리하더라 말야. 그렇게 해서는 그 아이들이 시당에도 배치 받고, 1년 지나가면. (사례 25-1 구술녹취록, 33)

저희 대학교 졸업할 때 김정은이 “사범대 졸업생들은 다른 분야로 가지 말고 무조건 교육부문에 가라.” 해가지고 저도 뭐 다른 부문의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저는 나이가 어렸으니까 “담임은 안 맡겠다. 그냥 저는 수업만 하겠다.” 강의만 하고... (사례 3 구술 녹취록, 3)

교사들이 농촌학교를 기피하는 것은 도시와 농촌의 생활환경의 차이가 크고 학교 교육환경과 시설 차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배급을 비롯하여 교사들이 받을 수 있는 물질적 지원 면에서 도시와 농촌학교는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농촌학교나 도시 주변부의 일반중학교에서 감자나 옥수수 등 잡곡 배급이 가끔씩 이루어지는 정

도인데 비해, 제1중학교나 외국어학원 같은 도시의 일부 “좋은 학교”에서는 교사들에 대한 배급이 잘 이루어진다(사례 3, 사례 25). 뿐만 아니라 이런 학교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열이 높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부모들도 많기 때문에 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물질적 지원도 많이 이루어진다. 이런 학교의 교사들은 “의상 자체가 다르고” 겉모습만으로도 다른 학교 교사들과 차이가 난다고 한다.

저희도 강습을 가면 시내 중심 선생님들이 이렇게 쪽 같이 하잖아요. 딱 그림이 나오거든요. 앉아있는 거만 봐도. 진짜로 의상 자체가 다르고. (중략) 그 학교에 가는 게 교육부에서 배치를 해야 갈 수 있는 건데, 쉽지가 않아요. 그 학교는 배급도 진짜 잘 나와요. (사례 3 구술녹취록, 23-26)

북한당국은 실력있는 교사들을 농촌학교로 보내서 농촌학교의 교육수준을 높이고 싶어하지만, 농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시내 중심에 있는 “좋은 학교”에 가고 싶어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시의 교사들을 농촌으로 보내거나 사범대학 졸업생이 농촌에 남아있도록 독려하는 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 2) 제1중학교와 일반 고급중학교의 차이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 학교별 차이는 제1중학교, 외국어학원과 같은 특수학교와 일반 고급중학교 간에도 나타난다. 제1중학교는 과학기술계통의 영재를 선발하여 교육하는 북한의 대표적인 영재교육기관이다. 도제1중학교 학생들은 도 전체적인 선발과정을 거치고, 평양제1중학교 학생들은 전국적인 선발과정을 거쳐 학교에 입학한다. 일반 고급중학교의 경우 졸업 후 대학에 바로 진학할 수 있는 ‘대학지표’(일명



“뽀뜨”)를 받기 어렵고 그나마 도내의 학교에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제1중학교 학생들은 졸업 후 대부분 군대나 직장을 거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대학지표를 받을 수 있다. 평양과 전국의 ‘중앙대학’의 입시할당도 제1중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정된다.<sup>21/</sup>

이와 같이 제1중학교는 일반 고급중학교와는 다른 ‘계열(track)’의 학교이기 때문에 일반 고급중학교와 교육과정이 다르며 교과서도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 현재 북한 제1중학교의 교육과정안이 입수되어 있지 않아 일반중학교 교육과정과의 차이를 분석할 수는 없으나, 과학기술계 영재교육기관인만큼 자연과학 교과 비중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국내에 입수되어 있는 일부 교과서를 비교해보면, 수학 등 기초과학과 자연과학 교과의 내용 범위가 일반 고급중학교보다 넓고 난이도도 높다. 제1중학교는 또한 선진적인 교육과정이나 제도 도입 시 실험학교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2013년에 교육과정 개정 시에도 학제개편의 취지를 반영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제1중학교용으로 먼저 개발하여 적용한 후 일반 중등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개편하였다. 수재반이나 선택과목제 같은 학교 운영과 관련된 새로운 제도 도입 시에도 제1중학교에서 우선적으로 실험을 거친 후 일반 학교로 확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도제1중학교에 다녔던 사례 18은 제1중학교의 “선구자”적 특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

[교육과정] 개정이 없어도 거의 교육방법이 바뀌고 수업방식이 바뀌고 하는데 선구자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이런 방법 했는데 좀 더라.” 하면 다른 학교에 그냥 내려가는 거고, 이래가지고, 우리 도에서는 우리 학교가 그냥 선구자예요. (사례 18-2 구술녹취록, 13)

21/ ‘중앙대학’은 학생의 선발, 배치가 전국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대학으로, 종합 대학과 각 부문의 주요 대학이 이에 해당한다. 나머지 대학은 도 단위로 입학생을 선발하고 졸업 후 도 소재 직장에 배치하는 도급대학과 공장대학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입학생을 선발하는 대학들이다. (조정아 외 2020, 75)

교사들도 자질과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선진적인 교수법을 스스로 개발해서 수업에 적용시키고 있다. 사례 18은 자신이 다녔던 제1중학교에서는 교육과정 개정이 아니어도 교육방법이 수시로 바뀌었다고 말한다. 이는 제1중학교 교사들이 수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방법을 일상적으로 연구하고 교실에서 적용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사례 18은 면담을 통해 자신이 경험했던 제1중학교 수업 방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가 전해준 제1중학교 교육방법은 혁명역사 과목과 같은 인문사회 과학 과목은 학생들이 관점과 내용체계를 잡도록 하는 방법, 물리 같은 자연과학 과목은 “탐구식” 교육방법이다. 대부분의 일반중학교와 달리 제1중학교에서는 북한당국이 2012년 학제개정 이후 새 교육과정을 적용하면서 강조했던 교육방법이 교육과정의 의도를 반영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선생님들이 찾아보라고 해요. [혁명역사 과목은] “더 큰 체계가 뭘까?” 원 두 쓰리 잡아요. “틀리든 말든 상관 없다. 그냥 그 안에 내용이 꼭 차게 들어가면 된다. 네가 체계를 어떻게 잡든 상관이 없다. (중략)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너는 이걸 빼냈다. 혁명력사일 때는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걸 배워줘요. 애들이 어떻게 공부 그런 걸 봐야 되는지를 가르쳐 줘요. (중략) [체계 잡는 걸] 숙제로 내주세요. “다음 날 할 거 너네 다 체계 잡아와.” 잡아오잖아요. 그럼 쪽 봐요. 돌아다니면서 숙제 검열하듯이 봐요. (중략) [수학 과목은] 중요한 공식들이 있잖아요. “이걸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왜 유도하게 됐냐? 그리고 이걸 이렇게 유도했다.” 하고서 우리를 유도하게 해요. 그리고 그 유도를 우리는 외우든가 아니면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누구누구는 이런 방정식을 유도했다. 이걸 어떻게 유도해 보라.”고 하고 이런 게 많아요. 수학 시간에 이런 거 많이 했고요. 물리는

“공기 중에 이런 것들이 몇 % 있었는데 몇 % 없어졌다. 이게 왜 일어나냐?” 이런 거고, “찬 공기는 이쪽에서 들어오는데, 왜 이게 확산되냐?” 확산되는 방식에는 몇 가지가 있고,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아요. (중략) “해라.” 하면 그냥 내가 앉아서 열이 전달되는 방식에는 몇 가지가 있고 뭐 이렇게 되고, 땅에서 나온 빛 복사는 공기가 뭐 어떻게... 공기만 덥힐 수 있고, 빛은 공기를 덥힐 수 없고, 그래서 뭐 이렇게 바닷가 먼저 더워진 후에 뭐가 더워지고 이런 거, 쪽 내가 서술해야 돼요. (사례 18-1 구술녹취록, 16-18)

사례 18은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발표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회고한다. 학생들이 일어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식의 발표가 수업시간에 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발표라고 생각도 안 했다.”고 한다. 그는 한국에 와서 대학 이공계 학과에 진학했는데, “오히려 남한에 오니 그런 게 없다.”고도 덧붙인다.

제1중학교는 해당 도에서, 또는 전국적으로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선발되는 중등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과정과 교과서뿐 아니라 학교 운영, 교사의 수준, 학생문화, 학부모의 교육열, 교육환경도 일반 중등학교와는 차이가 난다. 제1중학교에는 일반 고급중학교에는 없는 수재반이 운영된다. 2001년 3월에 평양제1중학교와 도제1중학교에 수학수재반과 생물학수재반을 설치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김영인 2004, 29). 제1중학교 학생과 학부모 출신 면담자들에 의하면, 이와 같은 수재반 체계는 현재에도 대부분의 제1중학교에 남아있다. 구체적으로 수재반 구성의 방법, 명칭과 같은 상세 사항은 학교 별로 약간의 자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례 18이 다녔던 도제1중학교에서는 “5% 시험”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이 시험의 우수자를 선발하여 특수반을 구성하였다. 평산시 학교시험은 모든 과목을

합산하여 순위를 내지만, “5% 시험”에서는 수학, 물리, 화학, 영어 과목만 시험을 보고 그 결과로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수재반을 구성하였다. 안그래도 학업경쟁이 심한 제1중학교에서 수재반이 운영되면서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가 심해지자 사례 18이 다녔던 제1중학교에서는 2015년경에 수재반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학년이 바뀌어도 학급은 그대로 유지되는 북한 학급체제의 특성상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 반의 구성은 바뀌지 않고 이름만 ‘기준반’으로 바뀐 채 그대로 운영되었다고 한다. 수재반으로 운영될 때는 일반반보다 앞서 선행학습을 많이 했고 수업의 난이도도 높았지만, 기준반으로 바뀐 뒤부터는 일반반 학생들과 같은 교육과정을 배웠다.

5% 시험이라는 게 너무 이게 학생들한테 편견을 많이 준다, 스트레스를 많이 준다, 아무래도 공부량이 심한 학교인데 5% 시험을 치면 애들이 공부량이 더 많아진다, 애들 경쟁 더 시키지 마라, 이런 게 있어가지고. 부모들도 좀 진짜 미치는 애들, 공부하다 미친 애도 있고, 사회 부적격자도 생기고 하니까 그렇게까진 안 바란다고 그래가지고 5% 시험이 폐지됐어요. 그건 또 학교마다 달라요. 학교 체제마다 달라요. 1중학교를 어떻게 잘 운영하는가는 교장의 역할이니까. 우리 선생님은 5% 시험을 쳤고, 다른 1중학교들에는 이런 체제가 있더라고요. 그 특수반이라고 있는데 수학특수반, 물리특수반, 화학특수반, 컴퓨터특수반 해가지고 특수반이 총 4개가 있어요. (사례 18-1 구술녹취록, 10)

위의 구술에 따르면, 다른 제1중학교에서는 ‘특수반’이라는 이름으로 과목별 성적우수자를 선발하여 학급을 구성했다고 한다. 이는 2001년에 북한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은 과목별 수재반 운영 방식이다. 수학올림피아드 대회와 같은 국제적인 경연에 참가할 학생들이와 같은 수재반 학생들 중에 전국적인 선발과정을 거쳐 뽑는다.

각 도제1중학교에서 올림피아드 대회 출전을 위해 선발된 학생들을 모아 평양제1중학교에 특수반을 설치하고 별도의 교육을 실시한다. 사례 18이 다녔던 학교에서는 수재반을 폐지한 후에도 올림피아드 대회 참가자들은 주로 그 반에서 선발했기 때문에 각종 대회 개최철이 되면 수학, 물리, 컴퓨터 등 과목별로 대회참가자들이 빠져나가 학급이 “텅 비는” 사태가 발생했다.

일반 고급중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제1중학교에서 볼 수 있는 학업성취도에 따른 우열반의 분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만, 김정은 집권 이후에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기치 하에 과학기술분야 인재육성이 강조되면서 평양의 일부 고급중학교에 ‘과학반’을 설치한 것이 면담을 통해 확인되었다. 사례 12에 의하면, 과학반은 평양시 고급중학교 중 두 개의 학교에 설치되어 있다. 사례 12가 다녔던 학교에는 한 학년 11개 학급 중 4개 학급이 과학반으로 운영되었는데, 다른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전학하여 과학반에 편입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사례 12에 따르면, 과학반 학생들은 오전에는 일반 학생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공부를 하지만, 오후에는 학생소년궁전에 가서 제1중학교 교재로 과목별 소조활동을 한다. 과학반을 졸업한 학생들 중에는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았다고 한다.

제1중학교는 또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열과 경쟁주의적인 문화가 일반중학교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제1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 어릴 때부터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대학 진학을 위한 통로로 제1중학교에 입학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통해 제1중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사교육을 통해 학업을 보충하고 대학입시를 준비한다. 자녀를 제1중학교에 보냈던 사례 10은 제1중학교 학생들을 일컬어 “돈이 안받침(뒷받침)돼야” “인물, 체격부터 시작해서 체육, 음악, 공부까지 다 구비하는” “인공수재”라고 말한다. 가난하지만 학업에서 뛰어난 소수 학생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1중학교 학생들은 경제력이나 권력을 갖춘 부모를 두고 있다(사례 1, 사례 10, 사례 11, 사례 16, 사례 18, 사례 25). 제1중학교의 학부모들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공부에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은 자녀가 입학한 후 학교와 교사들에게로 확대된다. 경제력을 갖춘 부모들은 자녀가 입학하기 전부터 제1중학교 교사들의 세평을 듣고 어느 교사에게 자녀를 맡기면 좋을지를 알아본다. 자질과 능력을 갖춘 교사들은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있는 학부모로부터의 경제적인 지원 확보로 이어진다(사례 11). 제1중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잘사는 집, 간부집 자식들”이기 때문에(사례 21), 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지원은 일반 고급중학교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진다(사례 11). 그렇기 때문에 제1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생활수준은 일반 고급중학교 교사들보다 높고, 교사들은 제1중학교나 학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시내 중심학교에 근무하고 싶어한다.

제1중학교 선생님 잘살아요. 학부모들 다 해줘가지고. 그래서 다 제1중학교라고 하면 너도나도 가고 싶은 학교. 교사, 대신에 자질이 있어야죠. 자기가 진짜 능력이 안 되는데 제1중학교 오면 막 그 다음부터 쉬쉬하는 거죠. 애들도 선생님 수업 보면 탁 벌써 척 감을 느끼거든요. “저 선생님이 잘 배워준다. 저 선생님은 아야 줌...” 북한말로 땡탕이라고 하거든요. “저거 땡탕이다. 물에 물 탄 듯 아무 것도 모르는 선생이 들어왔다.” 막 이러면 그다음부터 학부모들 뭐가 들어가죠. “우리 애는 이 선생한테 안 되겠다. 과목담임 좀 바꿔 달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애들이 와서 막 뭐라고 하니깐, 학부모들이 그 과목담임 싫다고 하면 도1중은 그냥 교장이 바꾸게 돼 있어요. (중략) 도1중에 들어온 선생들은 진짜 능력이 돼야 되고, 자기 본인 자체가 좀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지? 일타강사, 이 정도 돼야 되거든요, 진짜. (사례 11 구술녹취록, 18)

위의 학부모 구술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1중학교에서는 교사들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대수준이 높은만큼 교사들은 일반 고급중학교에 비해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사례 11은 “일타강사급”이 되어야 한다고 표현한다. 교사의 실력이 부족하면 학부모들이 항의를 해서 담임을 바꾸거나 일반중학교로 쫓겨날 수도 있다(사례 11). 일반중학교 교사였던 사례 13은 자신이 관찰한 제1중학교 교사들의 자질향성 노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1중학교나 외국어학원이나 이런 데 선생님들은 솔직히 자질향상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정말로. 따라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애들 자체, 그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학교를 졸업한 애들은 다 중앙대학을 갈려고 하는 애들이라 선생님들이 자질이 안 되면 다른 학교로 밀려나고 밀려나고 하니까. 그런데 좋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면 선생님들이 수입도 괜찮고, 정말로 그 학교에 못 가서 안달인데. 그러니까 본인들이 능력 있어야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학생들 실력이 올라가야, 개네가 좋은 대학을 가면 선생님이 살아남으니까. 결국에는 네, 그러니까 좋은 학교에... 시내 중심학교 선생님들은 애들을 정말 강의 끝내고 집 안 보내고 날 어두워질 때까지 공부시키고, 매 한 명, 한 명 받아서 합격되면 보내고 하거든요, 정말로. (사례 3 구술녹취록, 14)

제1중학교 교육내용이 일반학교에 비해 난이도가 높고 학생들의 수준도 높기 때문에 제1중학교 교사들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없다. 게다가 일반학교에 비해 학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교사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많이 하는 학부모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본인 담당 과목을 잘 가르칠뿐만 아니라 학급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데 필요한 과목의 성적을 전반적으로 잘 관리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1중학교 교사들은 주요 입시 과목 교사들에게 사례를 하고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특강을 조직하기도 한다(사례 3).

## 다. 정보화 교육 확대와 미디어 교육실태

### 1) 교육 정보화 환경의 지역별 격차

김정은 정권이 시작되면서 인재강국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 정보화가 이전 시기보다 더욱 강조되고 있다. 북한에서 교육 정보화는 정보통신기술과 수단을 활용하여 교육내용에 첨단과학기술 이론 및 성과를 적시에 반영하고, 교육방법 면에서도 컴퓨터 설비와 최신 실험실습기자재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조정아 외 2015, 171).

교실의 교육 정보화 환경을 몇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학생들이 개별 컴퓨터나 컴퓨터 네트워크에 접속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가 DVD 등 디지털기기와 TV를 활용하여 멀티미디어 수업자료를 전체 학생들에게 시연하는 방법이다(조정아 외 2020, 227). 2014년 '전국교육일군대회'에서 '새 세기 교육 혁명'의 목표로 '전민과학기술인재화'가 천명된 이후, 2015년경부터 전국의 초중등학교에 교육 정보화 환경을 구축하라는 지시가 하달된 것으로 보인다. 학생과 교원들의 구술에 의하면, 일부 학교는 국가에서 컴퓨터를 지원했고,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지원으로 초보적인 수준의 교실 정보화 환경을 구축하였다. 다음 단계는 교내에 '국부망'을 설치하고 교사가 교실의 국부망을 통해 학생들과 학습자료를 공유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단계이다. 마지막 단계는 학교망을 국가망과 연결하여 학생들이 국가에서 구축한 학습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활용하거나, 전국적 단위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다.(조정아 외 2020, 227-228) 2010년대 중후반경에 일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학교망 설치와 국가망과의 연결 작업이 진행되었다. 학생



들의 구술에 의하면, 평양과 지방의 주요 대도시 중심부 학교와 제1 중학교에서는 2016-2017년경에 학교망이 설치되고 컴퓨터망에 접속하여 객관식 시험을 치르는 형식으로 졸업시험이 시행되었다(사례 7, 사례 12, 사례 18, 사례 22). 2018년경에는 컴퓨터로 시험을 치르는 평가방식이 일부 지방도시 학교에까지 확산되었다(사례 24).

그러나 도시와 농촌지역 학교의 교육 정보화 환경은 상당히 큰 격차가 나타난다. 도시의 학교들은 학부모들의 지원을 받아 국가가 제시하는 교육의 정보화, 현대화에 발을 맞추기 위한 시도를 꾸준히 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은 경제활동과 교통, 통신 분야에서 대부분 뒤떨어져 있고 학부모들의 경제 수준이 도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런 상황에서 농촌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지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사례 25), 이는 농촌학교의 정보화 교육 구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사례 14, 사례 25). 교사들 입장에서 매체를 활용하는 정보화 교육을 수업에서 활용할 때, 도시 학교의 경우는 그나마 TV나 컴퓨터가 교실마다 갖추어져 있어서 전기가 공급되는 시간에 이를 활용할 수 있지만, 농촌학교의 경우는 전자기기를 수업에서 활용하는 것은 흔치 않다.

## 2) 미디어 교육자료 활용과 교사의 컴퓨터 활용능력

김정은 시기에 들어와 정보화 교육이 특별히 강조되면서 교실마다 시청각매체인 TV를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조치가 하달되었다. 국가적으로 ‘교육용다매체편집물’ 경연을 열고, 학교들마다 교육용다매체프로그램을 출품하는 성과를 자랑하기도 했다. 다매체편집물 경연에 참가한 우수한 교원들에게 ‘10월 8일 모범교수자’, ‘새교수방법등록증’, ‘실험기구 및 교편물창안증’ 등 포상을 수여하기도 하였다(교육신문 2017.9.14.). 이처럼 학교 현장에서 과목 교사들이 미디어를 활용한

멀티미디어 교육자료를 창안하여 교수에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 정보화 환경의 격차는 미디어 교육자료 활용의 차이로 연결된다. 제1중학교의 경우, 교실마다 컴퓨터, 전자칠판, 빔프로젝트, 학교망이 갖추어져 있는데 비해(사례 10), 중소도시 외곽의 학교나 농촌학교에서는 학급에 컴퓨터 한 대조차 없는 경우가 많고,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교사도 흔치 않은 상황이다(사례 25). 컴퓨터나 정보화 설비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더라도 전기사정이 여의치 않아 실제 수업시간에 컴퓨터를 활용하거나 미디어 교육자료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사례 3, 사례 16). 공공기관인 학교는 가정집보다는 전기를 조금 더 공급해주는 편이지만, 전기가 상시 공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디어 교육자료를 수업에 활용하는 데 불편이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교육자료가 있어도 칠판에 판서를 하는 기존 방식대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나마 경제력이 있는 학교에서는 학교 자체에서 배터리로 전기를 해결하기도 하고, 또 학생들에게 충전을 맡겨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 양강도 중소도시 외곽 지역의 사례 13이 근무했던 학교에서는 컴퓨터실이 있었지만 전기 공급이 되지 않아 컴퓨터를 가동하지 못했다.

우리 학교 [컴퓨터가] 석 대 밖에 없는데, 전기 와야 [수업을] 하지. (중략) 컴퓨터는 키로수 높아서 발전기 한두 대 가지고는 안돼. 학교가 뭐 전기가 어디 있어, 우리 학교에. 컴퓨터실에 컴퓨터 세 대가 있어. 가동해 본 적이 없고. (사례 13 구술녹취록, 58)

사례 22가 다녔던 접경지역 도시 학교에서는 생물, 화학, 물리, 수학과 같은 자연과학 과목의 경우 교실 내 TV를 활용해 미디어 교육자료로 '보여주기' 수업을 했다. 태양광판을 교실 창문 또는 학교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했고,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수입 전기를 사용하기도 했다(사례 22).

수업은 TV로 영상 강의를 많이 해요. 그리고... 생물학 특히 많이 했고, 화학 분자 움직이고 그런 것도 보여주고, 물리 약간... 과학 계열에서 많이 썼던 거 같아요. (중략) 수학도 했던 거 같아요. 이게 학교에 TV를 설치하고 나서 “TV를 최대한 활용해라.” 이거여가지고 선생님들이 웬만하면 TV를 많이 활용했었어요. (사례 22 구술녹취록, 53)

국가에서는 멀티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교육을 강조하고, 일부 수업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지만, 정보화 환경 미비와 교사들의 컴퓨터 활용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일부 학교에서는 교실에 설치한 TV로 김정은 참여 행사나 교육용 영화를 시청하거나 학생들의 개인 USB에 자료를 넣어주는 정도로 멀티미디어교육을 대신한다(사례 1, 사례 14). 또한, 교사별로 컴퓨터 활용 능력에 차이가 있고, 특히 연령이 높은 교사들은 컴퓨터를 다루거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교육자료를 만드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교수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교사들은 교수법 향상과 정보화 교육 확대를 위한 교사 강습을 연 2-3회 정도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사례 3). 그러나 일회적인 정보화 강습을 통해 교사들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많다. 교사 재교육을 통해 컴퓨터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단기간에 컴퓨터 활용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교사들은 컴퓨터로 학교명과 본인 이름을 쓰는 정도로 컴퓨터 시험을 통과하는 실정이라고 한다(사례 25).

그러니까 새로운 뭐, 평양에 교육청에서 새로운 교수법을 연구하잖아요, 그럼 그제 지방에 내려오면 도교육부나 시교육부에서 선생님들 모여 놓고 “교육청에서 이런 교수법이 내려왔는데, 이 교수법을 적용을 해라.” 그런 걸 많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1년에 세 번 정도 모였던 거 같아요. 새로운 교수법이 나오면 그걸 일반화하

라 하고 하는데, 뭐 그게 거기서 거기고. (중략) 그게 안 되고 거기서는 이렇게 듣고, (학교) 가서는 늘 하던 교수법대로 그냥. (사례 3 구술녹취록, 9-10)

이에 비해 김정은 시기에 사범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20대 젊은 교사들은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과목 교사의 열정에 따라 교수방법을 다양하게 고안하여 수업에 활용하기도 한다 (사례 20). 교사들 간에도 연령대에 따라 컴퓨터 활용능력에 차이가 있다보니, 나이든 교사들은 교수안 검열이나 시범수업을 위한 수업 자료를 젊은 교사들에게 부탁하기도 한다. 이렇게 만든 멀티미디어 교수자료는 검열을 받기 위한 용도로 쓰일 뿐 실제 수업자료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TV 모니터는 걸어 놓죠. 그 모니터로 하자면 선생님들이 PPT 다 해야되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노트북을 아예 모르는 상황이라 그게 적응이 안 되고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다 교수안 해가지고 백묵해가지고 칠판에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더 편하니까. (중략) 나이 드신 선생님들은 그게 적응이 안 되고 불편하니까 그걸 받아들이려고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걸 무조건 일반화를 해라. 학생들한테 무슨 깨우쳐주기 교수방법인가 이런 걸 실현을 해라 해가지고. 그러면 그 선생님들은 저희처럼 젊은 세대 선생님한테 “이거 나 이번 교수안 좀 짜주면 안 되겠나?” 그러면 저희가 그냥 파워포인트 해갖고 “샘 이거로 넘기기만 하면 돼요. 넘기면서 설명만 해주세요.” 하면 교육부에서 이렇게 검열을 나와요. 잘 진행되고 있는지. 뭐 그러면 그날만 그냥 모니터 켜놓고 강의도 안 하고, 그 교육부 선생님들이 지나가면 그거 끄고 교수안 던지면서 그렇게 강의를 하는 거죠. 젊은 선생님들은 쓰려고 하는데 전기도 잘 안 오고 하니까 본인 노트북 이렇게 돌리고. 화면 돌리는데 맨 뒤에 앉은 애가 화면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지 하게 되면 훌 접고 그냥 칠판에다 하는 거죠. (사례 3 구술녹취록, 9-10)

어떤 경우에는 학생들이 교사보다도 컴퓨터 애플리케이션을 더 잘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교사는 교과서를 보고 그대로 설명하는데 비해 노트북으로 스스로 애플리케이션을 익힌 학생들이 오히려 교육 내용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엑셀 같은 거를 조금... 프로그램 배워줬던 기억이 나는데, 쌤도 잘 모르시는 거 같고, 집에 노트북 있는 학생들은 다 잘 알잖아요. 있으면 다 하게 되니까. 쌤이 교과서만 보고 배워주시니까 모르는 거예요. 진짜 앞에 노트북 있으니까, 그랬던 기억이 좀 있어요. 쌤은 교과서 그대로 설명만 해주시고. (사례 19 구술녹취록, 6)

한편, 코로나 팬데믹 환경에서 미디어 수업자료 활용도가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북한에서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학교가 폐쇄되면서 미디어 수업자료의 중요성이 증가했다. 농촌지역이라도 웬만하면 집집마다 TV와 배터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 수업자료만 있으면 TV에 연결하여 가정집에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출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사들은 컴퓨터가 있는 학생들 집을 방문하여 수업자료를 USB 파일로 전달하였다. 학급 학생들이 이를 복사해서 공유하고 학습하는 방식으로 학업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코로나 때 보니까, 이거 코로나로 해서 학교 못 가잖아요, 그때는. 그때 그걸로 액정으로 그냥 USB 떠다가 그걸로 보던데요. 수업을 그걸로 듣던데요. (중략) 집집마다 USB는 다 있거든요. 내용 신는 거는 애들 컴퓨터 있는 집들 많아가지고 복사해서 다 하는 거예요. 애들이 거의 온라인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USB로 해가지고 많이 봐가지고, 그걸로 보고. (사례 2 구술녹취록, 111)

## 2. 학교 교육행정 체계의 틈새와 학부모의 영향력

### 가. 낮은 출석률과 출석관리의 어려움

북한에서 학생들의 취학률과 출석률은 12년제 무상의무교육의 성과와 공교육의 효과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다. 취학률은 또한 학생의 교육 기회가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다(김중두 2023, 169). 취학연령 학생들의 취학을 보장하고 출석률을 높이는 것은 교육당국의 기본적인 관심사항이고, 교사들의 학급운영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결석을 줄이고 높은 출석률을 보장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가 된다.

북한은 후기중등교육인 고급중학교 단계까지가 의무교육으로 진행되므로, 공식적인 취학률은 100%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국제기구 통계에 따르면, 북한 중등학교의 총취학률<sup>22/</sup>은 다음 <표 III-1>과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총취학률은 해당학교 학령기 인구에 대한 실제 취학자 수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학령기보다 늦거나 빨리 입학하거나 졸업하는 학생들이 많을 경우 취학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표 III-1 북한 중등학교 총취학률

	전기중등(초급중학교)	후기중등(고급중학교)	
총취학률(%)	96.01	95.91	100.09
기준연도	2015	2015	2018

출처: [http://data.uis.unesco.org/#\(검색일: 2023.10.24\)](http://data.uis.unesco.org/#(검색일: 2023.10.24))

22/ 총취학률(Gross Enrollment Ratio)은 연령에 관계없이 공식적인 교육 수준에 해당하는 연령대의 인구에 대한 총 취학 비율이다. 즉, 연령에 관계없이 각급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를 공식적으로 해당 학교 학령기 인구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계산한다(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UIS, 유네스코 통계 연구소), "Other policy relevant indicators: Gross enrollment ratio by level of education," <<http://data.uis.unesco.org/#>>(검색일: 2023.10.24)).

국제기구에서 보고한 북한 중등학교의 출석률 통계는 <표 III-2>와 같다. 고급중학교의 출석률은 초급중학교보다는 약간 낮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초급중학교에서는 남성의 출석률이 여성에 비해 높지만, 고급중학교 단계에서는 여성의 출석률과 거의 비슷하며, 도시와 농촌간에는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 모두 도시 지역 학생들의 출석률이 농촌지역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III-2** 북한 중등학교 출석률

(단위: %)

	전체	남성	여성	도시	농촌
전기중등 (초급중학교)	96.1	97.8	94.4	96.8	95.4
후기중등 (고급중학교)	94.8	94.7	94.9	95.0	94.5

출처: 저자 재구성(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Survey Finding Report, 115, 118).

본 연구에서 탈북학생과 교사들에 대한 심층면담을 실시한 결과, 중등학교의 출석률은 공식적으로 보고되는 통계만큼 높지 않으며, 지역과 학교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급중학교 단계에서는 학업결손을 초래하는 장기결석 사례도 다수 관찰되었다. 심층면담을 통해 출석률 수치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학생들 중 다수는 자신과 친구들이 학교에 결석했던 사례에 대해 얘기했다. 농어촌이나 산간지역의 학생들은 부모의 일손을 도와 농사를 짓고, 밭 경비를 서고, 버섯이나 약초 캐러 가고(사례 8, 사례 14), 시장에서 장사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 학교를 장기간 결석하기도 한다(사례 2, 사례 4, 사례 9). 어촌 지역에 살았던 사례 2는 고급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잠수일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 학교를 장기 결석했는데, 부모가 없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못 다니고 같이 일했던 친구들 중에는 한글을 모르는 친구들도 있었다고 말한다.

양강도 중소도시에서 학교를 다녔던 사례 18은 자신의 학급은 출석률이 매우 높은 편이어서 학급인원 30명 중 2명 정도만 결석을 했다고 한다. 같은 학교에서 다른 학급은 출석률이 낮아서 고학년이 되면서 학급 수를 줄였다고 한다. 그는 학급에 따라 출석률의 차이가 큰 이유는 반 분위기나 담임교사의 리더십 차이라고 말한다. 국경 인근의 대도시 학교에 다녔던 사례 22도 70명이었던 학급인원이 생활고, 전학, 조기졸업 등의 이유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줄어들어 졸업 무렵에는 50명대 후반이 되었다고 말한다. 양강도 중소도시 외곽의 소규모 학교에서 근무했던 사례 25는 출석률이 70% 정도였고, 고급중학교 3학년이 되면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는 대신 돈을 벌러 가기 때문에 출석률이 40% 정도로 내려갔다고 말한다. 양강도 중소도시의 시내 중심학교에서 근무했던 사례 20은 같은 학교 안에서도 출석률이 학급에 따라 다르고 계절에 따라 다르고, 심지어는 하루 중에도 시간에 따라 다르다고 말한다. 본인 학급의 출석률은 보통 80-90% 정도였다는데,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학생들이 절반 정도 못 나오는 날도 있었다고 한다. 그는 학생들의 출석률을 높이는 것은 “담임교사의 임무”이기 때문에 “채찍”과 “달래는” 방식으로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 신경을 썼다.

북한은 애들이 뭐 부모들이 여건이 안돼서 애들 컨트롤 못해가지고 나가서 장사하느라고 애들 학교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결근률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50명 학급에 스물다섯 앉아 있으면 담임교사인 내가 욱 먹어야 돼요. “너는 이 정도밖에 못하냐? 학급이 이렇게 해서 굴러가겠냐?” 학교에서도 쪼여 오고,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일단 애들은 계속적으로 뭘 요구를 해서 그게 실행되도록, 계속 뭔가를 채찍하고 달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담임교사의 어떤 임무라고 해야 되죠. (사례 20 구술녹취록, 14)



교사들은 장기결석생의 집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학급의 친구들을 보내보기도 하지만, 고급중학교 단계가 되면 학생 통제가 힘들고, 학생들이 경제적 사정 등으로 결석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교사들이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결석을 크게 문제삼거나 처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당국에서 검열이 나올 때면 학생들에게 전화로 출석할 것을 당부하는 방법으로 대응한다.

학생들이 결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학생들의 장기 결석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빈곤계층의 청소년들이 학교에 나가는 대신 생계를 위한 노동을 하거나 부모의 노동을 보조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생계를 위해 개인이 일군 소토지나 농장에서 나누어주는 개인경작지를 경작하기 위한 일손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가정의 중요한 노동력으로 인식된다. 학교에서도 방과 후 노동 형태로 농사일손을 돕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등교해서 농사일을 할 바에는 학교에 가지 않고 자기 집의 농사일을 돕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따라서 농촌지역 학교에서는 농번기와 같은 계절적 요인에 의해 출석률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

한 학교에 70% 정도는 그냥 공부를 거진 안 해요. (중략) 그계 농촌학교라 해서. 농촌학교라 더 한 것 같아요. 애들이 학교 안 나오고 여름철에는 한 달 두 달 정도는 그냥 밭에 가 있어요. 자기, 자기 집 밭에 가 가지고 경비 서고 어떤 애들은 안 나와요. 학교 아예, 전문으로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사례 14 구술녹취록, 10)

중하위계층의 일부 학생들은 고급중학교 고학년 단계가 되면 학교를 장기간 결석하고 이른 나이에 시장경제활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도 한다. 이를 통해 가족의 생계를 보조하고 남보다 일찍 장사 기반을 마련한다. 여학생인 사례 23은 고급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집안일도 해야 하고 학교에 “꾸준히 나가고 싶은 생각도 없어서” 일주일에 이틀 정도만 학교에 나갔다. 그는 고급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나와 개인이 운영하는 빵집과 국영식당 등에서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 청년동맹에서도 식당에서 일을 한다고 하니 통제하지 않았다. 법적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고급중학교 학령기의 나이였지만 공식직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장기결석생은 고학년이 될수록 많아지는데, 이는 교육열과 진로 기대감 저하와도 관련이 있다. 정치적 권력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포부수준이 높다. 당간부가 되거나 법관, 보위부원 등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공식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이 필수적이다. 즉 사회적 지위획득에서 대학교육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고급중학교 생활도 비교적 충실하게 수행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중하위계층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고급중학교 졸업 후 입대하거나 선호도가 높지 않은 직장에 배치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고급중학교 성적이나 출석이 진로와 직결된다고 여기지 않는다. 양강도 농촌지역 학교에 다녔던 사례 4는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후에 “아무 데(직장)나 국가에서 보내고 하니까”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모르고 “학교에 대한 개념이 올바르지 않아서” 결석하는 학생이 많았다고 말한다. 특히 여성들은 결혼 전에 공식직장에 다니더라도 결혼 후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장사 등의 경제활동을 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딸을 둔 중하위계층의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가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도록 하기보다 장사경험을 쌓게 하는 것이 낫다고 여기기도 한다.

빈곤계층의 학생들의 경우, 학교 다니는 데 드는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점도 잦은 결석의 이유가 된다. 북한은 중등무상의무교육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 북한의 학교에서는 각종 명목으로 제출하는 “세외부담”이 많아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 토끼가죽, 파지, 파철, 파병, 각종 열매, 꽃씨 등 다양한 물품을 제출하는데, 이러한 물품의 수집은 소년단과 청년동맹 조직 활동의 일환으로 “꼬마계획”이라고도 불린다(최영실 2009, 67). 이 이외에도 학교 시설 유지·확충, 컴퓨터 설치와 같이 교육 정보화에 드는 비용 또한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은 학급에서 경제력이 있는 학부모가 부담하기도 하지만, 학급에서 모든 학생들이 납부해야 할 ‘과제’로 부과되기도 한다. 학급에서 제기되는 과제가 부담되는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학교에 가지 말라고 하기도 한다(사례 5, 사례 10, 사례 16).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세외부담”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친구들과 앞에서 선생님에게 공개적으로 지적을 받기 때문에, 과도한 “세외부담”은 출석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사례 2는 학교에 내야 할 것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교사에게서 받은 차별적 대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라는 걸 안 내면] 쌤들이 좀 안 좋아하죠. 그런 거 안 내면 계속 일어나라고 그러고 따로 막... 그러면 잘 때려요. 무슨 같이 나쁜 짓을 했는데 나만 때리는 거 있잖아요. 선빵만 때리는 거. 그리고 한 대 때리고 이쪽엔 들어가고, 똑같이 나쁜 짓을 해도, 똑같이 지각을 했어도 나만 따로 나오라고 이런 게 있거든요. 뭘 안 내니까. “너는 아무것도 안 내는 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을 해요. (사례 2 구술녹취록, 27)

빈곤계층과는 반대로, 상위계층의 학생 중에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수업시간에 사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 수업을 빠지거나 결석하는 경우도 관찰되고 있다. 보통은 오후 노동시간에 돈을 내고 노동에서 빠지고 그 시간에 사교육을 받으러 가지만, 일부 학생들의 경우에는 교사의 묵인 하에 사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 수업시간까지 빠지는 경우도 있다.

북한의 교육행정 체계 미비 또한 학생들의 장기결석을 방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이 고급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2017-2018년경에는 중등학교 학사행정을 전국적인 단위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전자행정망 시스템이 운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사나 가정형편 등의 이유로 학생이 학교를 이동할 때 전·입학 절차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학생이 어느 쪽 학교에도 소속되지 않는 상태에서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북한에서는 학생이 직접 전학증을 떼어서 전학 간 학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학이 이루어지는데, 일부 학생들은 전학증을 이사 간 지역의 학교에 등록하지 않는 방법을 써서 학교의 출석 통제를 피하기도 한다(사례 23). 다만, 최근 들어 초중등학교에서도 학교망 구축이 진행되고 교육행정의 정보화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출석을 관리의 책임이 학교와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구조 하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중등교육을 보장한다는 사회주의 교육의 명분이 역으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중등학교 졸업생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사례 23은 “시험을 볼 때 많이 빠져도, 성적표를 딱히 받아보지 않아도” 무사히 졸업하게 되기 때문에 성적에 별 의미를 두지 않았다고 말한다. 사례 1도 공부를 못해도 유급하는 친구들이 없었다고 전한다.

저희 때는 그런(낙제를 받아도 진급 못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아무리 빵점을 맞아도 다 학급은 올라가는 거니까. 저희 때는 유급 그런 게 없었어요. 성적증명서 같은 그게 따로 있거든요. 그걸 선생님들이 기록을 해주기 때문에 알아서 0점까지는 안 매기고 1점 그냥 그렇게 매겨주는 거죠. (사례 1 구술녹취록, 54-55)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성적이 일정 기준 이하면 진급이나 졸업을 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교육제 체제에서 유급자가 많은 경우 해당 학교와 교사는 이에 대한 책임추궁을 당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학생의 성적이 학년 진급이 안 될 정도로 낮거나 출석일수가 부족해도 교사 재량으로 성적을 조절하여 진급시키고 졸업장을 주는 전략을 취한다. 학교와 교사 입장에서는 중등 의무교육제도 하에서 많은 학생들을 유급시키거나 졸업을 못 시킨다는 것 자체가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굳이 학생들을 낙제시키거나 졸업을 유예하는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사례 2는 시험볼 때 학급에서 컨닝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컨닝을 하다가 걸려도 큰 제재는 없었으며, 성적에 대해 별 관심도 없었다고 말한다. 그는 시험을 못봐도 유급을 당하지 않는 이유를 국가적 노동력 공급의 필요성과 관련지어 설명한다.

- 구술자: [컨닝을 하다가] 걸리면 심하면 시험지 뺏어가고, 아니면 그냥 컨닝만... 별로 시험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꼴찌를 하든지 말든지 뭐 그런 게 상관없어가지고.
- 연구자: 그래도 낙제점을 주진 않아요? 아주 시험을 못 보면?
- 구술자: 거기는 낙제하면 다시 재수해야 돼서. 그런데 북한에서 재수하는 경우... 재수하면 저야, **우리야 땡큐죠. 미성년자로 계속 남아 있는... 계속 보호를 받는데. 북한에서는 계속 그냥 빨리빨리 졸업을 시켜서 일을 제공해야 되잖아요.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데. 낙제는 안 줘요. 보통 정도.** (사례 2 구술녹취록, 42)

고급중학교 졸업 무렵이 되면 입대하거나 직장배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 잘 나오지 않던 학생들도 학교에 복귀하여 몇 달간 다니다가 졸업장을 받는 경우가 많다(사례 23). 졸업 때까지 학교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교사가 졸업장을 받아 가라고 연락을 취하기도 한다. 사례 2는 고급중학교 2학년때부터 학교에 거의 나가지 않았지만, 학교를 졸업할 때쯤 졸업장을 받아가라고 교사가 연락해서 졸업장을 받고 직장에 배치되었다. 또한, 생활고가 심한 학생은 학교에서 사정을 고려하여 '조기졸업'으로 처리하는 사례도 포착되었다(사례 22). 「보통교육법」 제44조에서는 “실력이 특출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업년한을 단축하여 조기진급 또는 졸업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적이 특출한 학생’에게 적용하는 ‘조기졸업’ 규정을 생활고가 심하여 학교에 출석하기 어려운 학생에게 적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나. 학교 운영에서 학부모의 영향력

### 1) 학교 예산 체계와 학부모의 지원

북한당국이 세부적인 교육예산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학교 운영을 위한 국가 재정지원의 규모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 팬더믹 이전 시기까지 양강도 중소도시 외곽지역의 소규모 고급중학교에서 예산 담당 행정직원으로 일했던 사례 25의 구술에 기초하여, 학교 예산 운영 사례를 살펴본다. 사례 25가 근무했던 학교에 국가에서 배정한 예산은 1년에 300-400만 원 정도이다. 이는 500불 정도에 불과한 돈으로 매우 적은 액수이다. 사례 25는 주요 예산 지출 항목이 교직원 생활비, 교구비품, 학교보수공사의 세 항목이라고 말한다. 교직원 생활비는 교직원의 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사 한 명 당 임금은 쌀 500g 가격에 해당하는 2,150-2,500원 정도이다. 국가 예산 중 교직원들의 임금으로 연간 1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다. 교구비품은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교사용 교과서와 교수안, 학적부, 출석부, 성적

표 등 비품, 책결상, 실험기구와 시약, 축구공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가 예산 중 교구비품 구입비로 연간 200만 원 정도 소요되었다. 이 이외에 남는 예산은 학교보수공사에 필요한 시멘트, 도색제 등 구입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정부에서 나오는 예산 가지고는 일체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뭘 할 수 있는가? 정부예산 가지고는 교원들의 생활비를 풀고, 그 다음에 교원들이 이 교과서, 교사용 교과서, 그다음 책결상, 그다음 약간의 실험기구들, 체육기자재들, 이런 것들인 데다가 쓰지 뭐 다른 데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급에서 무슨 김정은이 “학교 교실을 현대화해라.” 그 현대화에 들어가는 비용은 몽땅 다 합해서 나누기를 해서 학생 1인당 이렇게 처리하고, 네, 모든 거는 다 그렇게 해요. (사례 25-2 구술녹취록, 8)

학교에서는 10-11월경에 다음 해의 예산을 작성하여 인민위원회 재정과에 제출하여 비준을 받는데, 매년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책결상 구입비 같이 특별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신속하게 예산을 올리고 승인받을 수 있도록 인민위원회 담당자에게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책결상 구입비는 매년 나오는 예산이 아닌 데다가 책결상을 국정가격이 아니라 시장가격으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 책결상 구입 예산은 한번에 몇 백만 원 정도씩 내려오는데, 책결상 가격이 20만 원이 넘기 때문에 몇 백만 원 예산을 받아도 기껏해야 책상 몇 십 개 정도를 구입할 수 있다. 사례 25는 10여 년 근무하는 동안 세 번 정도 책결상 구입예산을 받아서 한 번에 책결상을 30-40개 정도씩 구입했다. 인민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런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책결상을 구입할 수 있는 시내중심학교에는 배정하지 않고 농촌학교나 도시의 주변부 학교들을 중심으로 배정한다.

교구비품은 국가의 교육기자재관리소에서 국정가격으로 공급받는데, 공급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실험설비나 시약 같이 수업에 꼭 필요한 것을 갖추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 정보화를 위해 필요한 TV, 컴퓨터나 배터리, 태양광판과 같은 고가의 기자재는 학교 예산으로 구입할 수 없고, 각 학급마다 알아서 자율적으로 구입하고 관리한다. 학부모들의 경제적 수준이 높지 않았던 사례 25의 학교에서는 교육 정보화 기자재를 갖춘 학급이 많지 않았다. 학급의 유리창 교체 비용도 학교 예산으로는 충당할 수 없어서 학급마다 알아서 관리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급에서 이중창 중 하나는 유리가 아닌 비닐박막으로 되어 있었다. 학교 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멘트나 도로 구입도 후원기관이나 학부모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다. 교사 임금에 해당하는 예산은 매월 정기적으로 들어오고 은행의 계좌를 통해 지급되고, 교구비품 비용은 새학기가 시작될 때 일괄 지급된다.

국가에서는 학교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배정하기 때문에 학교시설을 유지·관리하려면 학교에서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혁명역사연구실은 학교에서 가장 신경써서 조성해야 하는 공간인데, 사례 25의 학교에서는 거기에 사용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가을마다 국화씨를 채취하는 '외화벌이'를 시켰다.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은 500위안 정도였다. 학생들을 동원해서 돈을 모으는 것은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사례 25는 국가 예산 이외에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을 동원하는 학급별 모금실적을 교원들에게 공개하고 그 사용처는 별도의 비밀장부에 기록했다.

「교육법」에 의거해서 각 지역에서 학교의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당일군, 후원기관·단체를 지정하고 이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후원은 명목적인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 학교별로 후원을 담당하는 지도원들이 있지만, 성의 표시



정도에 그칠 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사례 3). 사례 25는 후원단체의 지원은 1% 정도의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북한 실태가 지금 말이 아닌데, 그거 가지고 또 시에서 총화 짓는다는 소리예요. 일군들이 모여서. “야, 너 공장에서는 어느 학교에다가 지원하라 했는데 왜 못 했니?” 이렇게 하고 추궁 받는다 소리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우리 학교도 4개 기업소가 후원단체 땀어요. 그래서 후원단체에서 오는 거 보면은 무슨 도색제가 온다거나, 그러지 않으면 나무 한 입방이 온다거나, 또 무슨 어떤 경우에는 돈을 100원 지원한다든가. 그다음 또 밧데리를 하나 가져온다든가 이런 경우. 그저 그렇게 해요. (중략) 무조건 하계는 되어 있는데 정 사정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사례 25-2 구술녹취록, 52)

이와 같이 국가의 예산과 지역사회 후원기관의 지원만으로는 기본적인 학교 운영과 학교시설의 유지보수도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가 기댈 수 있는 것은 학부모밖에 없다. 2015년 12월에 제정된 「보통교육법」 제13조에서는 “중등일반교육은 무료”이며 “학생의 입학, 수업, 실습, 견학, 답사와 관련한 일체 교육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보통교육기관은 학생이나 그의 부모 또는 보호자로부터 입학, 수업, 실습, 견학, 답사와 관련하여 일체 요금을 받을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2조에서는 학교추천이나 입학, 수업, 실습, 견학, 답사와 관련하여 돈이나 물건을 받았을 경우 기관 책임자와 담당자에게 행정처벌이나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교육예산이 부족한 가운데 각급학교의 운영과 환경개선을 위한 충분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책걸상 수리, 벽 도색, 교실 조명 등 기본적인 시설 유지부터 컴퓨터와 교육 정보화 기기 등 교육기자

재 확충 비용이 학부모 전체 또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학부모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교육 정보화가 국가적 시책으로 강력히 추진되면서, 학부모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례 25가 재직했던 농촌 인근의 학교나 농촌학교들은 학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높지 않아 학부모로부터 큰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평양이나 대도시 중심학교들에서는 학교 운영과 시설 개보수에 드는 비용의 대부분을 학부모가 지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부모들에 대한 지원 요청은 학급별 학부모회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사례 21은 학부모회의 정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술한다.

학부형위원장이라는 게 있어요. 학급에. 그게 또 분단위원장 아니면 학급반장 아주머니 있고. 그래서 학부형회의를 가면은 선생은 주로 “내라.” 이렇게 그런 말은 안 해요. 이미 전에 학부형위원장하고 토론해서리 다 그거한테 위임시켜 놓고 (중략) 크게 많이 낼 때는 선생이 학교에서 뭐 무슨 어디 중앙당 검열이 온다든가, 무슨 영예의 붉은기 학급 판정이 와서 우리 학급이 그거 지정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거 꾸리기도 하고 교실에 뭐도 하고 뭐도 하고 하자면은 이게 좀 자금이 드는데, 이렇게 부형들이 학부형위원장하고 토론해서 이거 좀 다 합심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내를 해 놓고는 그다음에 학부형들이 앉아서... (중략) 아이들한테서는 받아낼 때는 우리는 안 가고 학교에 작은 과제, 아이들이 무슨 돌격... 아이들도 뭐 돌격대 무슨 지원이요 어찌요 하며 얼마씩 내라. 5천 원씩 내라, 2만 원씩 내라, 뭐 그런 거는 아이들은 그 선생이 받는데. (사례 21 구술녹취록, 20-21)

위의 구술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부과되는 작은 지원과제는 학급에서 학생들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전달되고, 보다 규모있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위원장을 통해 조정하며, 전체 학교 차원의

지원은 학부모회의를 통해 교사가 직접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학부모들의 지원은 학교 운영비에 국한되지 않고 담임교사의 생활비 지원도 이루어진다. 교사들에게 국가배급이 부분적으로 지급되기는 하지만 충분치 않고,<sup>23/</sup> 교사 월급으로는 쌀 1kg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배급과 임금만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교사가 먹을 쌀과 부식물, 빨감을 보장한다. 학부모 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매월 “선생님들 배급을 해결해야되니까, 어떻게 한 집 당 얼마씩 내자.” 해서 돈을 모아 전달한다. 학기 말이나 졸업 시기가 되면 학급에서 돈을 모아 교사에게 컴퓨터나 TV 같은 큰 선물을 전달하기도 하고, 담임교사의 생일이나 결혼식 등 경조사도 학부모들이 책임진다. 교사 집안의 가구나 가전까지 교체해주는 학부모들도 많이 생겼다(사례 8, 사례 20, 사례 24). 학부모회의가 있거나 기말에 학교를 방문할 때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담임교사에게 돈 봉투를 전하기도 한다(사례 15). “부잣집 자식이 없는 반을 맡으면 담임을 해도 별 의미가 없는”(사례 9) 정도로 학부모의 경제력에 의존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상이 되었다. 사례 11은 학부모들이 한달에 한 번씩 교사를 지원해주는 것은 “틀”이고 “틀”이라고 말한다.

중학교 6년 동안 담임 선생님을 우리 애들이 먹여 살려야 되는데, 애들이라는 게 부모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힘 있는 부모를 만난 교사는 많이 일어날 것이고, 힘이 없는 애들을 만났으면 그렇지 못해 겨우 먹고 살고 하는데, 힘이 있는 부모를 만났을 때는 집도 해결 받을 수 있고요. 집도 다 인테리어도 되고, 그다음 또 부모가 선생님 옷부터 시작해서 핸드폰까지 다 일식으

23/ 사례 25가 재직했던 학교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1년에 6개월분의 감자 배급과 부정기적인 쌀 배급이 이루어졌다.

로. 저희 학급이 그랬거든요. (중략) 일단 학급에서 열성자라고 하는데 저기는, 열성자 부모들은 당연하게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중략) 대체로 한 번 학부형회의 할 때마다 중국돈 그저 2천원은 안전하게 모여지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 가정생활은 충분합니다. (사례 10 구술녹취록, 12-13)

학교와 교사를 지원하는데 드는 비용은 지역, 학교의 종류, 학급 구성원들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다르다. 자녀가 제1중학교에 재학했던 사례 10은 3개월에 한 번씩 학부모회의를 할 때마다 일반적인 학부모는 50-100위안(6만-12만 원), '열성자' 학부모는 200위안(24만 원) 이상을 냈고, 한번 학부모회의를 하면 2,000위안 정도를 학부모들이 모았다고 말한다. 사례 11은 한 달에 학급에서 내는 돈 3-4만 원, 교사에게 개인적으로 준 돈 5만 원 정도를 지출했다고 한다.

교사와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부모들은 대체적으로 이러한 관행을 뇌물이라는 부정적 의미보다는 교사의 노고와 가치를 인정해주는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교사를 열심히 지원했던 학부모들은 “교사는 학생을 책임지고, 학부모는 교사를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피력한다(사례 11). 사례 13은 처음 담임을 맡은 학생들을 졸업시킬 때 학급의 학부모들로부터 “평판 컬러TV”를 선물로 받았다. 그는 당시의 감회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렇게 받고 야, 그러니까 기쁘더라고. 선생된 게 보여주는 그게 된 거 같아. 쪽 보여주고서리. 아마 그때 난 제일 울컥하면서도 감동됐어. 야, 참 이렇구나. 무슨 그 물건을 떠나서, 그러니까 자기 선생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더라고. 그때 좀 느꼈어. (중략) 그래서 선생들이 이래서리 학급담임하겠다는 거구나 그때 느꼈지. (사례 13 구술녹취록, 65)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개별적인 지원은 많은 경우에 대가성을 띤다. 단순히 자녀에 대한 교사의 애정과 관심을 바라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자녀에게 학급임원을 시키거나 방과 후 노동이나 농촌지원 노동에서 면제받거나 사교육을 받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결석이나 조퇴를 허락받거나 대학 입학시험 자격을 얻는 등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에 학부모의 지원은 순수한 지원의 의미보다는 ‘뇌물’에 가깝다.

교사 입장에서는 학급에 경제력 있는 학부모가 많을수록 학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 커지기 때문에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담임 지정을 받기 위해 교장에게 뇌물을 주면서 잘 보이려고 한다.

내가 교원이라면 담임을 해야만 값이 있어요. 담임 안 하는 교원은 값이 없고. 교장한테 고일내기[뇌물 고이기]... [교원인] 우리 조카가 말하는 게. 교원들이 얼마나 그 교장한테 고일내기하고 하는지 모른다고. 우리가 교원을 이렇게 선택하듯이 교원들도 또 교장한테서 내가 그저 선택받아 담임이 되기로. 그래 담임이 되면은 일단 못사는 교원도 담임이 되면은 잘사는 집한테 굽신거리고. 그 집에 우선 자기 살림을 챙기려 하고, 그 덕에 산다고 그거는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네. (사례 21 구술녹취록, 18)

이와 같이 국가의 교육 재정이 취약한 가운데, 학교 운영에서 교사의 생활지원까지 모두 학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의해 이루어지다 보니 학생들에게 “세부담 시키지 말라.”는 법과 방침은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관철되기 어렵다.

## 2) 자녀를 위한 학부모의 영향력 행사

북한 사범대학의 교육학 교재에서는 학교운영 관리에 대해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자본주의 학교관리 방식의 반동성과 해독성, 표현 형태를 똑똑히 알고 그것을 반대하여 날카롭게 투쟁”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김운진 외 2008, 203). 그러나 학교 현장의 실태를 보면 학부모들의 경제력에 의해 학교가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돈’의 위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와 학급 운영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영향력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학교 운영에 대한 학부모들의 영향력 행사는 학교 운영의 방향성이나 방침을 결정하거나 개선사항을 요구하는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것이기보다 자녀의 반 배치나 담당교사 교체와 같은 개인적인 사안에 집중된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으는 집단적인 방식보다는 연줄을 동원하거나 뇌물을 주는 개인적인 방식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다.

예를 들면, 학부모들은 자녀를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기 위해 교육행정당국이 결정하는 자녀의 학교 배정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한다. 북한에서 중등학교 배정은 거주지역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같은 도시 내에서도 시내 중심학교와 주변부 학교 간에 교육 환경과 교육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좋은 학교에 배정받기 위해서는 원하는 학교 주변으로 이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들은 이사를 가지 않고도 뇌물이나 연줄을 동원하여 자녀를 원하는 학교에 입학시킨다.

자녀가 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학부모들은 원하는 담임교사 반에 배치받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연줄을 동원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제1중학교나 도시의 시내 중심학교와 같이 학부모들의 교육열과 경제적 수준이 높은 학교에서 흔히 나타난다. 북한의 학교에서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입학시에 배정된 담임이 졸업할 때까지 유지된다. 따라서 입학 시에 어떤 담임교사가 배정되는지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와 학교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같은 학교에서도 학부모들에게 인기있는 교사들이 있다. 자녀를 대학에 진학시키고자 하는 학부모들은 수학, 물리 같은 대학입시 주요과목의 교사를 선호한다. 또한 생활지도 면에서 자녀를 “통제할 수 있는” 교사를 원한다. 학부모들은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부모를 통해 교사의 평판과 실력, 학생지도 성과 등 교사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녀를 어떤 교사에게 맡길지를 고민한다(사례 20). 이때 집안의 경제적 수준과 아버지의 직업, 직위 등 “내 수준”, 즉 교사와 학교에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할 수 있는지도 고려 요소가 된다(사례 10).

담임 배치는 감독기관의 비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입학 전에 미리 담임이 결정된다(사례 13). 학급 인원은 원칙상 고르게 배정되지만, 학급 담임 명단이 확보되면 학부모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교사의 학급에 자녀를 배정받기 위해 인맥을 동원하여 교무담당 교사나 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사례 10, 사례 11, 사례 20).

구술자: 애가 들어가기 전에 1학년 때 애가 붙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교사, 담임선생이 딱 누구한테 들어가야 좋냐 해가지고 1고중 뭐 선배들 있잖아요. 학부형들 막 전화를 해보는 거예요. 해가지고 “야, 누가 좋냐? 누가 좋냐?” “이번에 누구 누구 누구 선생이 있다는데, 그 몇 반에 들어가라. 그 선생이 좋다.” 정보입수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는 그 선생한테 무조건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교무과에다가 이제 막 그냥... 교무과에 혹시 백이 있는 또 선배가 있어. 그럼 선배 학부형한테 그 선생 좀 소개해 달라 해가지고 “나 여기에 좀 우리 애를 넣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죠.

연구자: 그런 분들은 어떻게 알게 되는 사이예요? 장사 관계로 알게 된 분들이에요?

구술자: 1고중에 있으면 있잖아요 그게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러니까 장사 관계로 아는 것도 있고. 돈을 이렇게 회전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게 다 이렇게 인맥이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가 되게 작거든요. 돈 있는 집은 보면 다 장사가 연결돼 있거든요, 부모들끼리. (사례 11 구술녹취록, 22-23)

제1중학교의 학부모인 사례 11은 학기 중간에 학부모들이 학교에 압력을 행사하여 교과목 담당 교사를 교체했던 경험에 대해서도 얘기한다.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들은 학기가 시작되면 교과수업과 교과 담당 교사들에 대한 자녀의 반응을 확인한다. 이중 문제가 되는 교사가 있을 때는 학부모들끼리 통화를 통해 다른 학생들의 평가를 확인하고 여론을 형성한다. 교과 담당 교사를 교체해야겠다는 판단이 들면 담임교사에게 교체를 요구하고, 그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교장에게 요청한다. 학부모들이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장 입장에서는 학부모들의 요청을 무시할 수는 없다. 사례 11의 경우에는 해당 교사가 결국 일반학교로 전출되었다. 사례 11에 따르면 이런 일이 빈번히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례는 경제적 영향력과 함께 학교 운영에 미치는 학부모들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술자: 한 번은 화학선생인가 되게 질이 안 좋은 선생이 들어와 가지고 했다가 한 번 바꾼 적 있어요. 학부형들이 막 물의를 일으켜가지고. 다른 반 싫으니까 그 선생 결국 나가 는 거죠. 다른 데 가야죠. 1고중에 있지를 못하죠. (중략)

연구자: 학부형들이 학교 교장에게 그런 걸 신소하는 거예요?

구술자: 네, 그렇죠. 교장 선생님 아니면 담임한테 말을 하는데, 담임한테서 말해서 안 되면 [교장에게 말하죠].



연구자: 학부형들끼리 모여서 이거 같이 얘기하자. 이렇게 의논을 해요?

구술자: 아니죠, 전화로. 전화로 짝 도는 거죠. 공유를 하는 거죠. 전화로 “야, 우리 애가 화학 선생 이번에 들어왔는데 그 선생님 이해를 못 하겠다.” 하면... 그다음 또 장사보다 그게 나는 더 바쁘니까 담임선생님한테 그냥 다 서로 끈지르는 거죠. “선생님 이거 학부형이 이런다는데 바뀌 달라. 이해를 못한다.” (중략)

연구자: 그러면 여러 선생님들이 항의를 하면 재깍 바뀌어요?

구술자: 재깍은 안 바뀌죠. 그게 또 단계가 있죠. (사례 11 구술 녹취록, 18-21)

### 3. 학생들의 학습경험

#### 가. 정치사상교육의 효과성과 학생들의 수행

김정은 집권 이후 정치사상교육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2013년 교육과정 개정으로 고급중학교 교육과정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혁명활동’ 과목이 신설되었고, 정치사상 과목의 비중이 소폭 증가하였다(조정아 외 2015, 46). 정치사상 교과, 특히 김정은 일가의 관련 과목은 대학입시의 성패를 좌우하는 과목은 아니지만, 모든 학생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학업성적을 유지해야 하고, 특정 내용을 암기해야 하는 과목이다. 즉, 학교교육을 통해 북한의 ‘인민’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 핵심적인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소학교부터 고급중학교까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어린시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활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와 같은 식으로 동일한 교육내용이 학생들의 연령에 맞게 나선형으

로 반복된다. 정치사상과목은 못하면 안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들은 이에 대한 압박감을 갖는다.

그때[북한에서 살 때]는 그게 의무적이라고 생각해서 혁명력사나 활동 이런 공부들을 제일 1순위로 두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어찌면 그게 너무나도 선생님들이 “무조건 이걸 외워야 된다. 토씨 하나도 틀리면 안 된다.” 그 압박감이 저한테는 되게 많이 와 닿았던 거 같고. 네, 그래서 다른 과목을 다 못해도 북한에서는 혁명활동이나 력사 같은 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걸 항상 1순위로 공부했던 게 제일 기억에 많이 남고. (사례 1 구술녹취록, 3)

김정은 일가 ‘혁명역사’, ‘혁명활동’ 과목에 대해 학생들은 긍정적인 인식을 표현하는 학생들도 있고 부정적인 인식을 표현하는 학생들도 있다. 또,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을 동시에 보여주는 학생들도 있다. 사례 4는 김정은 혁명활동 과목에 대해 김정은이 어릴 때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일화를 배웠던 것과 김정은의 연대기를 외웠던 것을 기억했다. 그는 정치사상교과가 “꼭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어서 하기 싫어도 했다고 하면서도, 다른 과목에 비해 특별히 더 싫은 것은 아니었다고 말한다.

하기 싫어도 하는 거죠. 모든 과목도 마찬가지로. 다 하기 싫은 데도 해야죠. 특별히 뭐 혁명력사라서 하기 싫다 그런 건 없어요. 왜냐면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진 않으니까. 꼭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라 생각하니까. (사례 4 구술녹취록, 33)

위의 구술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사례 4는 정치사상과목의 교육내용의 정당성을 의심하지 않았고 다른 “모든 과목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수용했다. 사례 2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충성심을 유도하

는 학교의 여러 가지 활동과 관례들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인데, 정치사상교과 수업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저는 솔직히 김일성은 재미났거든요. 빨치산 싸웠다 뭐 이러니까 일단... 그런 건 재미난데 김정일은 좀 깡짜로 만들은 느낌. 그러니까 이게 뭐지... 뭐 별로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때도 김정일 거는 재미없었고 김일성 거는 재미났어요. 김일성이 회고록 잘 써가지고. 회고록 다 읽었거든요. 엄청 재미나게 써가지고. 그리고 또 김정은이 거는 더 약간 더 깡짜로 만들었다고 해야 하나. 그냥 뭐 어릴 때부터 차를 잘 탔고, 배 보트에서 외국인 무슨 선수를 이겼고 뭐 이딴 거... (중략) 그냥 어떤 생각이 뭐 별로... 해야 되는... 그거는 약간 그냥 외워야 되는 거다 싶어서 외운 것들도 있고, 새로 나오는 것들이니까. 이게 우리 시대에서 새로 나온 거잖아요. 부모님 시대에 나왔던 게 아니니까. 그래도 뭐 머리에 좀 들어오던데요. 그나마 괜찮은 거 같아요.(사례 2 구술녹취록, 45-47)

위의 구술에서 사례 2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혁명역사, 혁명활동 과목에 대해 비교하면서 평가하고 있다. 구술 내용을 보면, 사례 2는 항일무장투쟁을 비롯한 김일성 혁명역사 관련 교육내용은 흥미롭게 받아들이고 ‘회고록’까지 스스로 읽는데 비해, 김정일 혁명역사 과목은 재미없었다고 느꼈고, 김정은의 혁명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깡짜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내용의 사실성 여부를 의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례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 배양이라는 동일한 교육목적의 지닌 정치사상 과목들이라도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전달방식에 따라 다른 교육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례 2는 또한 김정은 관련 과목의 교육내용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면서도, 김정은 과목은 “우리 시대에 새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머리에 좀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다. 사례 2가 김정은 관련 정치사상 과목 교육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 의심하면서도 부정적이지만은 않은 태도를 보였던 것은 변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에게 김일성 집권 시절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평소에 들어왔던 사례 2는 김정은 집권 이후 학교에서 들었던 강연회를 통해 김정은이 “김일성처럼 잘 살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다고 한다. 젊은 지도자가 가지고 올 사회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정치사상교육에 대한 사례 2의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례 2는 김정은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가졌고 학교의 정치사상교육에 대해서도 비교적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북한에서 선전하고 있는 ‘전쟁영웅 리수복’ 이야기에 대해서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 리수복은 6.25 전쟁 당시 적군의 화구를 자신의 몸으로 막아 부대원을 보호했다는 군인이다. 사례 2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믿지 않았고, 친한 친구들 중 그 이야기를 그대로 믿는 친구들은 없었다고 단언한다.

위의 사례들과 달리 제1중학교에 재학했던 사례 18은 정치사상 관련 과목 수업 시간의 수업태도가 가장 좋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는 수학이나 물리, 화학 수업에는 잠을 자지 않았지만, 혁명역사 과목은 수업시간 대놓고 “누워서 잤다.” 수업시간에 열심히 듣지 않아도 소학교 때부터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만큼 성적에 큰 지장은 없었다. 그는 북한에서 학교에 다닐 때부터 정치사상 과목의 우상화 내용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었다고 말한다.

연구자: 북한 사회에 대해 의문이 들었다고 그랬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어떤 특정한 계기가 있어요?

구술자: 북한에서... 나는 이해 안 되는 게, 북한에서 신이나 이런 거 없어요. 마술 같은 건 없다고 배워줘요. 마법 같은 일은 절대로 없다고 하는데, 김일성이 하는 일은 다 마법이예요. (중략)

연구자: 북한에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구술자: 네, 북한에서 했어요. (중략) 짜증나잖아요. 다 그냥 마법처럼 해결했다, 이겼다. 뭐... 처음엔 이겼다니까 좋긴 하죠. 자기편이 이겼다니까 좋긴 하잖아요. 그런데 들어 보면 그게 현실에서 벽의 차이가 나요. (중략) 항일투쟁 그거는 확실히 있을 수 있어요. 내 주변에도 애들이 보면 진짜 놀라운 애들이 많았어요. (중략) 그건[항일무장투쟁의 전투 이야기 같은 것은] 과장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상화 같은 게 심각한... 맨날 할 수 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 사람들이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적은 없고, 맨날 그렇다고만 그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싫었던 거 같아요. (사례 18-1 구술녹취록, 26-27)

위의 구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중학교 학생인 사례 18은 정치사상교과의 이상화 내용을 과학적인 인식의 잣대로 평가하고 사회현실과 견주어 보기도 한다. 그에게 정치사상교과 속의 마법과 같은 이야기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현실과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감정적으로는 “짜증나는” 것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례 18에게 정치사상교과 수업시간은 상당한 고역이었을 것이다. 다음과 같은 사례 18의 구술은 제1중학교에 다닐 정도로 공부를 잘한 그가 정치사상 과목 시간에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은 것은 자칫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잘못된 말을 하지 않도록 수업내용에 대해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관심을 끄는” 방식으로 대응한 일종의 ‘생존전략’이었음을 보여준다.

사실 처음부터 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생존본능이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입밖에라도 혹시 실수로 나가면 일족이 멸족되니까 아예

생각을 바꿔버려요. 아예 이런 [비판적인] 생각을 할 바에는 생각  
조치를 안 하는 거예요. 관심이 똑 끊기니까 공부도 안 되는 거죠.  
나는 뭐 진짜 그런 분이다, 믿겠다, 이런 게 아니고 관심을 끊겠다.  
그래서 그렇게 됐나 봐요. (사례 18-2 구술녹취록, 47)

북한에서 정치사상교육의 효과는 학생들의 충성심 고조로 나타나  
야 한다. 학생들의 충성심은 교실에 걸린 초상화, 휘장, 영생탑 등  
수령의 혁명역사와 사적이 깃들어 있는 물건이나 장소를 항상 “정중  
히 모시고 철저히 보위”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는 소년단 및 청년  
동맹 조직에서 가장 첫 번째로 완수해야 할 과업으로 제시되기도 한  
다(신영철 2016, 5).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의 표현은 반복적인  
학교의 일과와 교사들의 생활지도, 청년동맹 조직활동 등을 통해 일  
상화된다. 예를 들면, 앞 장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은 초상화 ‘정성  
관리’나 영생탑 등 사적지 주변 청소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일상적 의례에 모든 학생들이 ‘수령에 대한 충성’이라는 의  
미를 부여하며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사례 1에 의하면, 매일 수업  
전 청소시간에 이루어지는 초상화 정성관리는 소수의 “충성심 100%  
인 석기”들에 의해 수행된다. 다수는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 시간에 놀거나 원하는 일을 한다. 학교에 검열이 내려오면 학교에  
일찍 등교해서 초상화 청소를 하라는 담임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동  
적으로 움직인다. ‘모범’을 연출하기 위해서 정성함에 “예쁘게 보드  
라운 정성걸레”를 준비해놓고, 교실에 불이 나거나 유사시를 대비해  
초상화를 보관할 함을 구비해 놓는다(사례 15).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의 일상 속에서 강제되는 충성의 의례를 형식적으로 수행할 뿐,  
자신의 마음을 담지는 않는다. 다음과 같은 학생들의 구술은 불이 났을  
때 수령의 초상화를 불길에서 구해낸 충성심 강한 ‘영웅’들의 이야기  
가 학생들의 현실에서 한편으로는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온전한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자: 불났을 때 초상화 모시는 지함도 학교에 있어요, 교실에?

구술자: 교탁에 아마 있었던 거 같아요.

연구자: 교탁에. 무슨 색깔이었는데 기억나세요?

구술자: 저는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불이 나면 제일 중요한 거, 자기 돈 꺼내고 그렇게 하고, 그래도 “초상화를 꺼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사례 15 구술녹취록, 42)

세뇌를 당하다 보니까 당연하게 하는 건 있었는데 “무조건 장군님 위해서 진짜 이 한목숨 바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었던 거 같아요, 그 당시 친구들도. (중략)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어. 그런데 “장군님 초상화를 먼저 가지고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러면은 “일단 내가 살아야 뭐 누군가를 구할 거 아냐?” 이 생각이 드는데, 옛날에는 진짜 그게 있었어요. 물에 집이 떠내려가는데 자기가 죽으면서도 초상화를 건져서 그거 되게 영웅으로 치하받은 적 있거든요. 그때 그게 초등학교 때인데 그걸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훗날에 제가 고등학교 올라와서 조금 드라마도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까지 해야 돼?”라는 생각을 조금 하긴 했던 거 같아요.  
(사례 1 구술녹취록, 31)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영생탑 정성작업’이라 불리는, 등교 전 또는 휴일에 이루어지는 기념탑과 사적지 청소작업에 참가할 것을 독려한다. 교사는 정성사업 출석을 관리하고 때로는 교실에 학생별 참여 실적을 게시하기도 한다. 학생들 입장에서 이른 아침에 학교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청소작업은 기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매번 이를 빠지기는 어렵다. 일부 학생들은 영생탑 정성작업에 나가서 참석

자 명부에 이름을 적고 청소는 소홀히 한 채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서 '충성의 시간'을 '자신의 시간'으로 전유한다. 이러한 경험은 학생들이 사회생활의 원리 혹은 기술을 습득하는 '살아있는 교육'의 시공간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사례 2는 영생탑 청소에 나가 청소는 하지 않고 친구들과 잔디에서 미끄럼을 타고 주변의 잣나무에서 잣을 따면서 놀았던 "재미난" 경험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를 "102삽을 뜨는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102삽'이란 100번의 삽질 중 첫 삽과 마지막 삽, "두 삽만 뜨고도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말한다. 사례 2는 '영생탑 정성사업'이라는 충성의 의례를 통해 충성심이나 집단주의가 아닌 검열에 걸리지 않는 방법, 국가가 원하는 '모범'을 연출하는 방법, 북한 사회에서 살아남는 요령을 배운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북한의 학교에서 정치사상교과와 각종 행사, 의례를 통해 북한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이데올로기와 신념의 체계를 교육하고 있으며, 김정은 집권 이후 정치사상과목 신설과 강연회 등을 통해 통치체계의 정당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국가의 의도만큼 완벽하지는 못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학생들의 이야기를 통해 김정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면담에 참여했던 학생들 중 몇 명은 초급중학교 때 김정은이 참석하는 소년단대회에 학교 친구가 참석한 일에 대해 얘기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세 차례의 소년단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이 중 2013년에 개최된 제7차 대회와 2017년에 개최된 제8차 대회에 김정은이 참석하였다. 학교에서는 소년단대회에 참석할 학생들을 선발하고 이와 관련된 집회와 선전을 하면서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는데,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과 담임교사는 큰 자부심을 갖는다(사례 8). 사례 2의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참가하게 되어 다들 부러워했고, 대회에서 어떤 선물을 받아왔는지 궁금해했다. 사례 2는 당시에 김정은을



만난 친구들이 왜 우는지 의아했는데, ‘접견자’가 되는 것이 진로에 도움이 되고 간부가 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평안남도 대도시 학교에 다녔던 사례 8의 학교에서는 소년단대회 참가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없고 공부를 잘하는 한 학생이 선발되어 친구들이 참가비용을 모아서 지원한다고 했다가, 최종적으로 잘 사는 간부집 자녀가 대신 선발되었다. 학생들은 대회에 참가한 친구를 뒤에서 욕했지만, 그 친구가 평양에서 돌아오자 같이 사진을 찍느라고 법석을 떨었다.

김정은 원수님 뵈고 와서 학교에서도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그 친구랑 사진 찍느라고 다들 난리였는데, 개가 이렇게 뭐 거기서 타 온 거 있잖아요. 꽃다발 보여주고 여기 막 이려고, 개 옆에서 사진 찍고 이려고, 김정은 원수님 봤다는데, TV에도 나왔거든요, TV에도 학생들 막...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원수님 나온다고 이런 붉은 벡타이 매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TV에도 나온 아이들은 집도 잘살고 앞으로 개네는 출셋길이 열렸지 하니까, 그 거까진 아이들이 생각 못 하는데 되게 신기한 거죠. “원수님 봤대.” 이런 느낌이라서. (사례 8 구술녹취록, 19)

위의 구술에 나타난 바와 같이, 김정은은 학생들에게 신비한 존재 이면서, 그를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출셋길’이 열리는 신적인 존재로 인식된다. 한편, 김정은에 대해 비판적 발언이나 충성심을 의심 받을만한 발언을 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금기의 대상이다. 사례 2의 아래와 같은 구술처럼, 학생들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우리 최고 사령관 동지”를 입에 올리며 농담을 주고 받기도 하지만, 이와 같은 행위에는 준수해야 할 규칙이 있고, 학생들은 이를 직관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준수해야 할 선을 넘지 않는 것, 즉 김정은에 대해 불경

스러운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은 서로 간의 암묵적인 규칙이다. 그 규칙이 깨지는 순간 학생들은 단속의 두려움과 처벌의 공포를 느끼고 농담은 종료된다.

한 번 친구들과 대화하는데 우리 막 장난칠 때 김정은 소리 하거든요. “우리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뭐 어떻게 했는데 너는 뭐 그 방침에 대해서 모르냐?” 뭐 이런. 농담인 거죠. 우리도 모르는데, 그 아가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하는 소리가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걸 듣고, 나는 그런데에 관심이 없다고 딱 그렇게만 말을 끊더라고요. 그다음에 다른 말로 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저 많이 열었다가 분위기를 푸는 거죠. 그렇게 없었던 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저도 개... 말을 못 해서 그렇지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표현을 개처럼 못했던 거죠. [그렇지만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죠. 무서운 거죠. 계속 대화를 해야 되나. 나까지 걸리지 않나. (사례 2 구술녹취록, 121-122)

사회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암묵적 규칙을 깨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입 밖으로 꺼냈을 때 닥쳐올 일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학생들이 해야 할 말과 행동을 정해진 형식대로 수행하도록 만든다.

## 나. 교과교육과 교과 외 활동의 즐거움과 괴로움

### 1) 교과수업에 대한 기억

고급중학교에서는 총 22개 교과목이 운영되고 있지만, 학생들에게 교과수업에 대한 기억을 물었을 때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수업에 대해 얘기한 학생들은 많지 않았다. 교과수업 자체에 대해 아예 흥

미를 느끼지 못한 학생들도 많았고, 좋아했던 교과로 몇몇 과목을 지목한 학생들도 있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목은 과목 특성과 개인의 흥미, 교사의 역량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지리 과목의 세계지리 부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얘기”여서 재미있었고(사례 22), 교사가 교과목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설명을 재미있게 하면 그 시간만큼은 조용한 분위기에서 집중했다. 학생들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사나 열정적인 교사가 하는 수업(사례 8, 사례 14, 사례 9)을 좋아했다. 혁명역사 수업시간에 외운 연대기와 사건은 잊어버렸지만, 학교에서 ‘문답식 경연’을 진행했던 ‘5가지 시, 15가지 노래’ 중 마음에 들었던 시를 지금도 외우는 학생(사례 2)도 있었다.

## 2) 컴퓨터 수업 진행과 정보통신능력의 활용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학제개정 이후 학교교육과정에서 정보화 교육이 강조되고 학교별로 정보화 교육 시설이 확충되었지만, 기재 부족, 열악한 전기 사정, 멀티미디어 매체 부족, 교사의 숙련도 등의 문제로 실제로 교육과정을 반영한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대도시 지역 일부 학교나 제1중학교 등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급중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은 주당 1-2시간의 ‘정보기술’ 수업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학생들의 수업 경험은 지역과 학교에 따라 편차가 크다. 일부 대도시의 학교나 제1중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컴퓨터 수업은 교실에서 이론 중심으로 진행되거나, 컴퓨터실에서 진행될 때에도 컴퓨터 한 대당 여러 명의 학생들이 배정되기 때문에 충분한 실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서는 컴퓨터 실습 수업 시

에 학생들이 개인 노트북을 지참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설이 열악하고 컴퓨터 보급률도 낮은 농촌지역 학교에서는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습득과 타자연습 정도가 이루어질 뿐, 실습을 통한 컴퓨터 활용능력 함양이 어려운 실정이다.

학생들이 자기 노트북을... 그러니까 저기는 판형컴퓨터, 그냥 노트북이라고 할게요. “노트북을 가지고 오세요.” 컴퓨터 시간에 그러면은 있는 친구들이 가끔 가져왔는데, 그게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한 세네 대밖에 없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올라와서 2-3학년 때는 없는 친구가 몇 명 빼고는 다 있었어요. 그만큼 그게 되게 대중화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게 없는 친구들이 한글 연습할 때 그 모형... 종이박스로 만든 모형 같은 걸로 연습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사례 1 구술녹취록, 41)

양강도 중소도시 외곽지역의 학교에 다녔던 사례 16은 학교에 컴퓨터실은 있었지만 컴퓨터가 없어서 제대로 된 컴퓨터 교육을 받지 못했다. 사례 4가 다녔던 학교는 양강도 농촌지역의 학교이지만 국가적 지원을 받아 컴퓨터실에 십여 대의 컴퓨터를 갖추고 있었다. 컴퓨터실에서 실습을 했지만 “가르쳐주는 게 없고” 학생들끼리 컴퓨터게임을 같이하곤 했다. 양강도 농촌지역의 ‘본보기학교’에 다녔던 사례 9는 한 학기에 서너 번 정도 컴퓨터실에 가서 정보기술 과목 실습을 했다. 컴퓨터실에는 한 학급 학생이 다 앉을 수 있을 정도로 컴퓨터가 잘 갖추어져 있었지만, 전기 사정이 좋지 않아 실습수업을 자주 하지 못했다. 수업시간에는 알고리즘과 프로그램 작성법 등을 배웠지만, 이해하기 어려웠고 구술자 자신은 집에 노트북이 없어서 컴퓨터 수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비해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의 비교적 좋은 컴퓨터 시설을 갖춘 학교 학생들의 학습 경험은 조금 다르다. 도청소재지 급의 대도시 학교에 다녔던 사례 5는 김정은 집권 초기인 초급중학교 때 컴퓨터 수업이 시작되었던 것을 기억한다. 당시에는 학교에 컴퓨터실이 없어서 컴퓨터 시설을 갖춘 사회교육기관에 가서 실습을 했는데, 고급중학교 때 학교에 컴퓨터실이 설치되었다. 그는 컴퓨터 작동법 등의 기초지식과 문서작성법 정도를 배웠다고 기억한다.

윈도우 켜는, PC를 켜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타자를 연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문서작성을... 네, 게임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배웠던 거 같아요. 그렇게 뭐 파워포인트라든가 그런 걸 배워주는 게 아니라 그냥 기초의 기초를 배워줬던. 그러면서 더 보급이 된 게 초급중학교 나올 때는 학교들마다 컴퓨터실이 있어가지고 그냥 거기 안 가도 학교에서 배울 수 있게끔 그 시설도 마련되어서 수업을 했던 거 같습니다. (사례 5 구술녹취록, 21)

평양 소재 고급중학교에 다녔던 학생들의 컴퓨터 교육 경험은 다른 지역 학생들의 교육 경험과 확연히 구분된다. 평양에서 학교를 다녔던 사례 7은 김정은 집권 이전 시기인 소학교 때 학교에서 컴퓨터로 국기와 병아리 등을 그리고 색칠하는 수업을 했다고 한다. 그는 고급중학교 컴퓨터 수업 시간에 거의 모든 학생들이 개인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수업을 했다고 말한다. 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을 어떻게 했느냐고 묻자, “다 할 줄 안다.”고 답했다. 사례 7이 다녔던 학교에서는 학교망이 연결되어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했고, 졸업시험도 컴퓨터로 보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 수업이 아니어도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익혀서 활용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 학교에서 컴퓨터 관련 교육은 어떻게 해요?

구술자: 교육... 안 해요. 교육 하나? 다 할 줄 알거든요. 아니 그냥 그 컴퓨터마다 프로그램을 설치해가지고 그거 틀면은 인터넷망을 다 설치해가지고 다 서로 연결되게 돼서 문제 나오면 그거 풀고 또 이렇게 하고. (중략)

연구자: 컴퓨터교육 따로 받아본 적 없어요?

구술자: 네, 그런 거 받아본 적 없어요.

연구자: 그런데 어떻게 다 해요?

구술자: 개인적으로 다 하는 거죠. (사례 7 구술녹취록, 45)

또 다른 평양 학교의 학생인 사례 12는 매주 컴퓨터실에 가거나 교실에서 컴퓨터 수업을 했는데, 컴퓨터실에는 학급인원 2명당 한 대씩 쓸 수 있도록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었다. 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는 학생들에게 개인 노트북을 가지고 오도록 했는데, 학생들이 노트북과 함께 “나라에서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을 USB에 넣어서 다니는 바람에 학교에서 통제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그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실제 컴퓨터 쓰는 데 큰 도움은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한편, 학교의 컴퓨터 수업시간에는 컴퓨터 지식과 기술의 습득이 아닌 컴퓨터게임이라는 놀이의 향유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일부 학생들이 컴퓨터 수업을 “즐거웠던 수업”으로 기억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학생들은 컴퓨터 수업시간에 교사의 이론설명은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사례 9), 대신 친구들과 컴퓨터게임을 즐겼다고 말한다(사례 2, 사례 4).

연구자: 파워포인트나 엑셀, 한글, 워드 프로그램 이런 것도 조금 다뤄봤어요, 수업 시간에?

구술자: 여기서 한글 같은 그런 거 하고 타자하는 거는 가르쳐주고, 그리고 특별한 게 없는 거 같아요. 다른 수업도 마찬가지로 교사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중략) 그냥 뭐 가르쳐 주는 게 없고, 애들끼리 콤퓨터게임하고. 간단한 이런 게임 있잖아요, 간단한 게임. 무슨 게임이라고... 콤퓨터 갖고 장난치는 거 같아요. 수업이라고 볼 수 없고. (사례 4 구술녹취록, 30-31)

컴퓨터 수업에 흥미를 느낀 학생들은 방과 후 활동으로 진행되는 ‘콤퓨터소조’를 통해 심화학습을 한다. 사례 17은 소조활동을 통해 컴퓨터로 ‘엑셀’, ‘포토샵’ 등 애플리케이션 활용법을 배웠고, 졸업 후에 이를 활용하여 사진관에 취업하였다.

연구자: 컴퓨터소조 활동을 한 이유는 뭐예요?

구술자: 나중에 취업할 때도 그렇고 좀 재밌었던 거 같아요, 그때는.

연구자: 컴퓨터소조에서는 어떤 걸 하셨어요? 프로그래밍을 배웠는지?

구술자: 그런 걸 하는 친구도 있었던 거 같은데, 저는 그렇게는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하고 이랬던 거 같아요. 저는 포토샵을 많이 했어요 (중략) 가르쳐 주는 거는 어느 정도 스킬이나 이런 거는 전문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잘 모르지만 “기본적인 이런 틀은 이렇게 사용하고, 이런 틀은 이 정도 사용한다.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 봐라.” 이 정도였던 거 같아요. (사례 17 구술녹취록, 23)

제1중학교의 컴퓨터 관련 수업은 일반중학교보다 깊이 있는 교육 내용으로 이루어지며 학생들은 실제로 컴퓨터를 매우 능숙하게 활용한다. 제1중학교 학생들은 컴퓨터를 잘 다루기 때문에 집에서 ‘불순독화물’을 보다가 단속반이 올 경우, 단속반이 현관문을 따고 들어올 동안 컴퓨터를 조작하여 시청 흔적을 지울 수도 있다. 컴퓨터의 내부 장치를 이용해 시청 내역을 삭제하고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

도 가능하기 때문에(사례 18) 제1중학교 학생들은 일반중학교 학생들보다 '불순녹화물'을 많이 본다고 한다.

[제1중학교는] 애들이 다 컴퓨터에 능통하고 있으니까. (중략) 소프트웨어 같은 게 컴퓨터 하나에 딸랑 있는 거니까 자기가 자기 입맛에 맞게 바꾸는 애들이 있어요. 만지는 애들이 있어요. 어릴 때 그런 애가. 그런데 우린 딱히 그걸 코딩까지 그렇게 열심히... 그 소프트웨어에 완전 접속해서 바꿔놓을 정도로 배울 필요 없어요. 한 애가 만들어서 퍼뜨리면 그냥 쓰면 돼요. (중략) [단속원이 와서] 방법장치 두 개를 다 열고 들어올 시간이면 우리가 봤던 이력을 싹 지우고, 다 컴퓨터를 원상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들 빠져나가요. 애들이 진짜 손이 너무 빨라요. (사례18-1 구술녹취록, 23)

일반학교의 학생들도 USB를 활용해서 교육용 자료뿐만 아니라 “말이 통하는 한국영화”나 외국 영상물을 공유하고 있다. 고급중학교 ‘정보기술’ 과목은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처리 및 활용 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데(조정아 외 2015, 197), 이러한 교육 목적은 학교 교육환경 미비 등의 원인으로 인해 제대로 달성이 되지 않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학생 스스로의 학습욕구와 결합하며 초과달성되기도 한다. 또한, 학생들은 학교 교육 안팎에서 습득한 컴퓨터 활용능력을 국가가 의도하는 바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발휘하기도 한다.

### 3) 농촌지원활동의 고된 일상과 추억

북한의 교육학 이론에는 실천이 결합되지 않는 교육은 사명을 다할 수 없으며, 사회적 실천에 기여할 수 있는 인간으로 키우는 것이 교육의 가치라고 제시하고 있다. 즉 사회적 실천과 동떨어진 교육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공리공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천 자체가 인식의 출발점이자 진리의 기준이며 이론 발전의 추동력으로 간주하고 있다(김운진 외 2008, 23-24). 북한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생산노동’은 매 학년 농촌지역에 가서 숙식하며 모내기, 김매기 등의 농촌지원활동을 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모든 학생들이 정해진 시수를 채우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원론적으로 노동의 교육적 가치를 가르친다는 측면에서 노작교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고급중학교 교육과정 중 학생들의 직접적인 노동활동은 <표 I-9>에 표시된 것처럼 연간 3주간의 ‘생산노동’과 1주간의 ‘나무심기’이다. ‘농촌지원’이라고 불리는 ‘생산노동’은 매학년마다 주로 농번기에 농촌지역에 가서 숙식하며 모내기, 김매기 등 농촌노동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 지역 상황에 따라 봄에만 진행되거나 봄, 가을로 나누어 진행되기는 하지만, 거의 모든 학교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농촌지원’을 갈 때는 전체 학년, 또는 몇 개 학급이 기차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일손이 필요한 농장으로 이동하고, 3주간 농장원들 집에 몇 명씩 나누어 숙식을 하면서 모내기, 감자수확 등 농장원들이 하는 노동을 수행한다. 학생들은 낮에는 일을 하고 일과 후에는 학생들끼리 모여 운동과 놀이를 하면서 고단했던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보낸다.

10대의 학생들에게 농촌에서 숙식하면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노동을 해야 하는 것은 매우 고된 일이었다(사례 17). 특히 농사일에 익숙하지 않은 대도시 학생들은 하루의 할당량을 채우는 것이 버거웠다. 일부 학교의 학생들은 농장 관리자들에게 돈을 주고 자신들이 못다 한 일을 맡기기도 했다. 사례 6은 그렇게 돈으로 해결하는 일이 있어서 자신이 다녔던 평양의 학교 학생들은 농촌지원을 가는데 다른 지역의 고급중학교 학생들보다 두 배 넘는 돈이 들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농촌지원의 힘든 노동의 이면에는 집과 학교를 떠나 온전히 또래 친구들과 먹고, 자고, 어울리며 놀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는 숨겨진 재미가 존재한다. 여학생인 사례 8은 농촌지원에서 빠지려는 목적으로 배구소조에 들어갔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농촌지원을 가게 된다. 아래의 구술에서 사례 8은 농촌지원의 힘겨웠던 기억 대신에 이성친구들이 함께 어울려 음식을 해먹고 증폭기를 틀어놓고 춤추고 맥주 마시며 놀았던 재미있었던 기억을 얘기한다. 그는 애초에 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농촌지원을 “MT”, “수학여행”에 비유했고, 거기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며 얻었던 재미는 한국에 와서도 견줄 수 있는 것이 없을 정도라고 말한다.

그거[농촌지원] 빠질려고 진짜 갖은 노력을 다 했는데, 제가 배구소조 들어간 이유가 배구소조에 가면 농촌활동을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은 가면은 진짜... 그런데 재밌는 거는 또 재밌어요. 이제처럼 대개 낮에는 일을 하거든요. 옥수수 김도 매주고 감자밭도 매고. 가을에는 감자 캐고 옥수수 따고 이런 거 하는데, 밤에 와서 기본 우리 또... 여기 뭔가 다른 의미로 MT라고 할까요. 수학여행, 그런 느낌으로다가. 저녁에는 그 애들끼리 식모도 하고 음식도 하고 하니까. 오늘은 또 색다른 요리해가지고 여자들이 요리하고, 남자들은 이런 놀 준비해가지고. 또 거기에는 이런 노래방보다는 집에서 놀잖아요. 거기서는 증폭기라고 하는데, 이런 거 갖다 놓고 노래 틀어놓고 막 춤추고 또 노래도 부르고 이러면서 되게 재밌게 놀아요. 남자 여자가 모이면 또 그런 재미... 여기 오니까 그런 재미가 좀 많이 없어요. (중략) 농촌동원 가서도 그렇고. 일단 우리 고등학생들끼리 모인다 하면은 맥주는 그냥 옵션이었던 느낌으로. 그래서... 물론 안 먹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그게 또 먹이는데 재미잖아요. (사례 8 구술녹취록, 9)

농촌지원 기간은 집을 떠나 온전히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다 보니, 어렵고 힘든 일을 함께하며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되고 친구들과끼리의 좋은 추억을 만들어간다. 남학생이 좋아하는 여학생의 일을 도와주고 여학생은 관심 있는 남학생의 옷을 빨아주기도 하면서 이성친구 간에 호감을 표현하는 기회를 만들기도 한다. 고급중학교 시기에는 부모보다는 또래와의 관계가 중요해지고, 특히 이성관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인 만큼 많은 학생들에게 농촌지원은 힘겨웠던 노동만큼이나 친구들과 함께했던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으로 기억된다(사례 1, 사례 4, 사례 8, 사례 9, 사례 18, 사례 22). 체육학교에 소속되었던 학생이나, 전학을 가느라 시기를 놓쳐 농촌지원에 참석하지 못했던 학생들은 친구들과 농촌지원을 못 나가 재미있는 추억이 없다고 할 정도이다(사례 2, 사례 7).

특히, 평소에 공부에 시달리던 제1중학교 학생들에게는 농촌지원 기간이 잠시나마 학업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휴식시간이기도 하다. 제1중학교 학생이었던 사례 18은 농촌지원 활동이 재미있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다고 하면서, 해보지 않은 노동이었어도 공부보다는 쉬었다고 말한다.

힘든 게 공부하면서 힘든 것보다 한참 쉬웠는데요. 하루종일 감자만 파도, 손이 아파도 그게 오히려 나았어요. 한 달뿐이잖아요. 한 달 동안 그냥 쉬다고 생각하고. (중략) 제일 재밌었던 건 우리가 밥해 먹는다는 거고, 두 번째로 재밌었던 건 감자 캐면서 감자 구워 먹는 게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사례 18-2 구술녹취록, 52)

자녀를 제1중학교에 보냈던 사례 10도 제1중학교 학생들은 “공부에만 시달리던 애들”이어서 농촌지원을 “명절 만난 것처럼” 좋아하고, 학부모들도 “만시름 다 놓고 실컷 놀다오라는 심사”로 식재료와 간식을 싸고 돈까지 주어 보낸다고 말한다.

학생들이 농촌지원을 하는 동안 기본 식량은 해당 농촌에서 제공 해주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자기가 먹을 쌀과 부식물을 준비해가고 식사당번을 정해서 식사준비를 한다. 부식물과 간식거리까지 싸오는 학생들이 있는가하면, 어떤 친구들은 먹을 쌀만 가져오고, “아예 몸만 가는” 학생들도 있다. 사례 4에 의하면, 개인 사교육을 받거나 소조활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내고 빠지는 학생들도 꽤 많기 때문에 교사들은 몸만 가는 학생들도 반긴다. 농촌지원에서 빠지는 학생들이 낸 돈의 일부는 필요한 식량이나 부식물, 차량 등을 준비하는데 쓰인다.

일단 그 농장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충족은 못하지만 본인들이 직접 그 쌀이랑 가져가요. 이동 지원하는 데 갔을 때는 쌀을 이렇게 그 날짜에 맞춰서 가져가는 거죠. 진짜 생활형편이 힘든 애들은 아예 몸으로, 몸만 가는 애들도 있고. (중략) 담임교사들도 교장이라 해야 되나, 높은 그런 사람들한테 혼나니까. 애들이 다 빠지고 안 가고 막 그러면. 담임교사들은 다 맞춰서 데려가려니까 그렇게 몸만 가는 것도 선생들은 좋아하죠. (중략) 가면은 농장에 일반 가정집에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동안은 그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 거는. (사례 4 구술녹취록, 35-36)

지원활동 중간에 부모들이 음식을 장만하여 찾아오기도 하는데 (사례 6, 사례 17), 이 과정에서 학교 간, 학생들 간의 경제적 격차가 드러나기도 한다. 제1중학교 학부모들은 농촌지원 기간에 차로 부식물을 실어 나르는데 비해, 농촌 학교에서는 “부모라는 게 찾아오는 거 그림자도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 4) 붉은청년근위대 훈련

고급중학교 2학년 때 실시되는 붉은청년근위대 활동은 ‘군사활동 초보’라는 정규교과의 일환으로, 집체 군사훈련을 통해 학생들을 “김정일애국주의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군사활동과 자연재해시 불리한 환경과 조건에 처하더라도 살아서 끝까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신육체적 및 군사기술적으로 준비시키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위원회 2013b, 397). 한 주 동안 진행되는 군사훈련은 새벽 기상부터 침구 정리, 주어진 시간에 식사하기, 각종 군사훈련, 오락모임, 저녁 취침 등 군인생활을 그대로 체험하는 과정이다. 붉은청년근위대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전시환경에서 실제 써먹을 수 있는 행진, 무기 분해와 조립, 조준법, 사격법 등 초보적인 군사지식을 습득하고, 여러 상황에서 불을 피우고 밥을 짓는 법, 부상자 응급처치법, 방위판정법 등 유사시에 써먹을 수 있는 군사활동 기능을 체득하게 된다(김운진 외 2008, 86).

붉은청년근위대 훈련을 받은 학생들은 기본적인 군사지식을 습득하고 기초 군사훈련을 받기 때문에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있다고 하며, 훈련의 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냥 군사적으로 그래도 대충 배운 거하고 안 배운 거하고 큰 차이가 있으니까 그게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단 유사시에 “모였” 하면 나는 이제 몇 분대 몇 조 가서 딱 서고, 내 총기 번호 외우고 있다가 총기 쥐고 딱 가서 설 거예요. 그리고 위치도 알아서 짝 가서 이동해가지고 할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은 그냥 여기서 피난소 못 찾고 이리다가 그냥 죽는 거죠. (사례 18-2 구술녹취록, 44)

군사훈련 활동을 하는 기간에는 노동은 하지 않고, 오로지 군사지식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은 후 마지막 날에는 실탄사격을 한다. 부모들은 실탄사격 하는 날에 맞춰 갖가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여 사격장을 방문하고, “들놀이” 분위기 속에서 학급별로 둘러앉아 자녀들과 함께 준비한 음식을 나눠먹는다.

집을 떠나 훈련소에서 합숙생활을 해야 하는 군사훈련은 “진짜 군대 간 것처럼”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학생들은 군사훈련을 일종의 놀이처럼 받아들이기도 한다. 일단 공부를 안 해서 좋고, 충기를 분해·조립하고, 총 조준하는 법도 배우고, 진짜 총으로 실탄사격도 하고, 침구를 각 잡아 정리해보는 것들이 재미있었다고 말한다(사례 4, 사례 18). 근위대 훈련도 농촌지원 활동처럼 “살던 데를 벗어나” 친구들과 숙식을 같이하면서 밤에는 함께 노래 부르고 노는 즐거운 시간이 있기에 많은 학생들에게는 고된 훈련의 시간으로 기억되기보다 친구들과 함께한 즐거웠던 시간으로 기억된다. 사례 14는 학교생활에 대해 가장 좋았던 기억을 묻는 연구자에게 붉은청년 근위대 훈련이라는 “가장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이 가장 아쉽고”, “인생에서 제일 후회된다.”고 답하였다. 그는 또래로부터 “진짜 군대생활”을 하는 근위대 훈련이 정말 재미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보고 싶었으나, 붉은청년근위대 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탈북하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학생들이 근위대 훈련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례 15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더운 여름철에 군복을 입고 산꼭대기까지 모래를 날랐고, 총 쏘는 연습은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너무 억울하고 짜증났던” 당시의 감정을 떠올렸다. 붉은청년근위대 훈련은 농촌지원과 달리 돈을 내고 빠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학교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는 학생들 중에는 붉은청년근위대 훈련에 참가하라는 담임 교사의 요구에 “그

냥 깡으로 버티는” 학생들도 있다고 한다(사례 23). 이는 군사지식과 함께 ‘조국보위정신’을 체화시키는 교육의 효과가 공교육망에서 빠져나가는 학생들로 인해 이전 시기만큼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 5) 방과 후 소조활동

북한의 학교에서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소조활동은 학생들의 재능과 소질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소조에서 그 분야의 지식을 심화시키고 실용적인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일종의 방과 후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 외에 과외수업으로 이루어지는 소조활동은 학교 운영 상태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음악소조, 축구소조, 탁구소조 등의 예체능소조와 컴퓨터소조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제1중학교나 대도시 중심학교에서는 수학소조, 물리소조와 같은 주요 교과소조가 활성화되기도 한다.

소조와는 다르지만,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체육교육 강화 기조에 따라 지역별로 ‘청소년체육학교’가 설치되고 학교별로 학년마다 한 개 반씩 축구반을 만들어 체육교육을 장려하고 있다(사례 2, 사례 7, 사례 16, 사례 20). 체육학교는 체육 부문에서 재능이 뛰어난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집중적으로 훈련하여 선수급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사례 2, 사례 7, 사례 16). 체육학교 학생들은 각자 소속된 고급중학교에서 오전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체육학교에 모여 축구, 배구, 농구 등 종목별 운동 연습을 진행한다. 평소에 훈련 위주로 진행하고, 군 단위 학교별로 시합을 벌일 때 학교를 대표해 출전하기도 한다. 체육학교 학생들은 농촌지원과 방과 후 노동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학급에서 진행되는 각종 노력 동원에서

제외되다 보니 학교에서 눈총을 받기도 한다(사례 2, 사례 9).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 후 소조활동은 교과목 교사들이 운영한다. 때문에 수업에서 배운 지식을 심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부보다는 음악이나 미술, 체육소조에 관심이 더 많으며(사례 5, 사례 6, 사례 7, 사례 9, 사례 15), 가끔씩 컴퓨터 소조에 참여한 학생도 있었다(사례 17). 소조활동은 학생들이 관심 있는 소조를 선택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우정을 쌓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다(사례 7). 학생들은 소조에서 운동할 때 실수를 하면 교사들에게 “회초리, 몽둥이 이런 거에 좋아리 맞았던 기억”이 있지만, 그래도 소조활동이 재미있었다고 말한다(사례 8).

소조활동은 주로 학교 내에서도 진행되지만 평양 등 대도시에서는 학생소년궁전이나 청소년회관에서 소조활동이 진행되기도 한다. 소조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경기나 공연 준비 등의 이유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방과 후 노력동원에 빠질 수도 있어, 방과 후 노동에서 빠지기 위해 일부러 소조에 들어가 활동하는 학생들도 있다(사례 8).

미술소조도 있고 체육소조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었어요. 공부는 안 하는데 다른... (중략) 수업 끝나고 그냥... 학생들이 방과 후 끝나고 올 때까지 거기[소조]에 있다가 종례하니까 그때 가서 같이 참여하고.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음악소조거나 체육소조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방과 후 일을 하거나 이런 데는 참여를 안 하거든요. 보통은 다 그렇게 빠져서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례 17 구술녹취록, 21-22)

대다수 학생들에게 방과 후 소조활동은 학과수업보다 재미있고 친구들과 함께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고, 때로는 힘든



방과 후 동원노동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구실이 되기도 한다. 또 소수의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적성을 개발하고 이를 이후 직업진로와 연결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사례 17은 컴퓨터소조를 통해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능력을 익혔고, 졸업 후 사진관에 취업하여 일하는 과정에서 이를 활용하고 자신의 진로를 개발해나갔다.

한편, 소조활동을 진행하는 데도 지역별 격차가 나타난다. 평양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학생소년궁전과 같은 사회교육기관에서 해당 부문의 전문 교사들에게 교육을 받는데 비해, 농촌지역 학교들은 교과수업을 운영할 교사도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학교 교사들이 방과 후 소조활동을 충실히 진행하지 못하고, 방과 후에 동원노동 이외에 여유가 있을 때 수학이나 물리 등 교과수업을 보충해 주는 정도에 그치기도 한다(사례 5, 사례 14).

## 6) 방과 후 노력동원의 괴로움

「교육법」 제36조는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교원, 학생을 교육강령집행과 관련없는 일에 동원시킬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에 명시된 교육적 성격의 노동 이외에 학습과 관련이 없는 일에 학생들을 동원할 경우에는 「보통교육법」 제52조, 제53조에 의거해서 책임자에게 행정적 책임이나 형사적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학생들을 무분별하게 노동에 참여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책임이 따르는 사안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방과 후 각종 노력동원에 학생들을 참가시키고 있다. 지역과 학교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방과 후 노동은 대부분 오후 수업 종료 후부터 몇 시간씩, 일주일에 여러 차례 진행되며, 일요일에도 몇 시간씩 진행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수행하는 과도

한 방과 후 노동은 큰 틀에서는 학생조직 활동이나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자체활동의 외피를 쓰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의 처벌조항을 피해가고 있다.

북한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중 학생들이 가장 힘들고 지루했던 것으로 기억하는 것은 오후 수업을 마치고 방과 후에 부과된 노동이었다. 방과 후 노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작업의 종류는 학교 건물 보수작업, 각종 청소, 운동장 돌 고르기, 회칠, 페인트칠 등과 같은 '학교꾸리기' 작업, 마을 환경 정비 작업, 모내기, 풀뽑기, 김매기, 감자씩 고르기, 감자 심기, 옥수수 껍질 벗기기, 고추 따기, 봄철 나무심기, 꽃심기, 겨울 화목 동원, 학교 운동장 청소, 건설장 지원 등 매우 다양했다(사례 1, 사례 2, 사례 4, 사례 7, 사례 8, 사례 14, 사례 16). 정치적 성격을 띠는 노동 동원으로는 '정성사업'의 일환으로 등교 전 이른 시간에 이루어지는 김일성 일가의 동상, 사적지 청소가 있다. 사례 1은 오후 수업 종료 후 뿐 아니라 주말마다 근교의 농촌에 가서 농사일을 지원했던 것이 "거의 시스템화 되어 있을 정도로"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회고한다. 학생들은 이런 여러 가지 동원노동을 "강제노동"이라 칭하기도 한다.

오전에 수업하고 오후에 일하러 가고. 그래서 애들이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우리가 뭐 범죄인들이냐?"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런데 학생들도 공부를 시키는 등 마는 등... 안 시키는 날이 더 많았으니까. 막 풀 뽑으러 동원 가고 하니까. 오전에 수업을 하고 오후에 일하러 가고. 일하러 가는 것도 6시에 끝나서... 힘들었죠, 엄청. 가까운 농장 같은 데 가서 일하고. (중략) 그래서 되게 일했던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일하는 게 강제노동. (사례 4 구술녹취록, 33-34)

방과 후 동원노동의 빈도와 강도는 지역과 학교,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 농촌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일부 농촌학교에서는 단축수업을 하고 “도시락 싸가지고” 인근의 농장으로 농사일을 도우러 가기도 한다(사례 14). 학생들은 이에 대해 불만을 갖지만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지는 못한다.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학생들은 돈을 내고 동원노동을 면제받는다. 경제적 여력이 없는 학생들 중에는 동원노동을 피하기 위해 아예 학교를 빠지고 “무작정 안 나오는” 학생들도 있다(사례 4).

학교 건물 증축과 같은 큰 공사를 할 때는 때때로 학부모를 동원하기도 하고, 기술적인 일을 처리해야 하는 전문분야는 학부모들에게 돈을 걷어 인력을 고용하기도 한다(사례 17). 학생들은 고학년이 될수록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미안해하면서 시멘트 몰탈 작업도 하고 벽돌도 나르면서 일손을 돕는다(사례 15). 일반중학교 뿐만 아니라 제1중학교에서도 학생들은 학교의 부대시설 신축 공사에 동원된다. 국가 차원의 교육투자가 부족하고 학교시설의 유지보수가 개별 학교의 의무로 부과되는 현실 속에서, 학생들은 학교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노동력으로 활용되고 있다. 고급중학교 학생들이 학교 관련 공사에 참여해서 수행하는 노동의 수준은 기초공사, 벽돌쌓기, 미장 등 노동강도가 높고 일의 범위가 광범위하며 전문적인 작업을 포함한다. 학교 건물 신축공사에 투입되었던 사례 18은 동원노동을 통해 건축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을 습득했다고 말한다.

구술자: 이 건물 전체를 우리가 지었어요. (중략) 우리 있을 때 만든 게 너무 많네요. 우리 기초공사도 배웠어요, 그때, 몰탈 해가지고, 몰탈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철근도 묶어서 막아놓고, 거기다가 기둥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박고, 그 옆에다 이렇게 해서 축을 올려서 아예 그걸 만들고, 그 우에다 또 쌓으면서 1층 만들고, 2층 만들고 해서 만들었어요.

연구자: 제1중학교 학생들은 공부만 시키는지 알았더니 일도 했네요?

구술자: 학교는 누구 노력을 시킬 게 없잖아요. 누구 데려다 써요? 학교 짓는 건 학생들이 해야죠. (사례 18-1 구술녹취록, 43-44)

한편 일부 농촌지역의 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농사짓는 개인 밭에 학급 학생들을 동원시키는 현상도 나타난다. 농촌학교는 학부모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 교사의 생활을 크게 지원해주지 못하다 보니 개인 텃밭을 경작하여 부수입을 얻는 교사들이 많다. 양강도 농촌지역 학교에 다녔던 사례 14는 담임이 교과수업이 끝난 오후에 학생들을 자신의 텃밭으로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키자 일하기 싫어서 도망쳤고, 그 일로 교사에게 혼이 났다. 그는 이 일을 보호자에게 얘기하였고, 보호자가 담임에게 개인적인 노동을 시켰다고 항의한 후에는 더 이상 교사 개인을 위한 노동에 동원되지 않았다.

학급 애들을 시켜가지고 [담임 개인 텃밭일을 했어요]. 저는 막 짜증 나가지고, 시키려면 원래 하기 싫은데 가라 해가지고 그냥 한 번 도망쳤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막 저를 혼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아버지가 또 그런 데는, 큰아버지가 또 그래도 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 큰아버지가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네 집 텃밭을 안 땀다고 애를 그렇게 혼내냐고 막 그래 뭐 욱해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저를 저걸 안 시킨 것 같았어요. (사례 14 구술녹취록, 7)

이 사례에서 교사는 자기반 학생들에게 사적인 노동을 시키다가 보호자의 항의를 받았다. 보호자가 이를 절차에 따라 신고할 경우 교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후로는 해당 학생에 대해 사적 노동을 강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례는 법적인 노동금

지 규정이 학교에서 부과하는 방과 후 동원노동을 실질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교사 개인이 학생들에게 부담하는 사적인 노동을 통제하는 효과는 있음을 보여준다.

#### 다. 학생들의 진로 고민과 학교생활의 의미

고급중학교에 진학하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담임교사에게 진로상담을 받는다. 담임교사는 학생들의 진로를 파악하고 학생들의 진로희망과 성적, 가정의 경제력, 출신성분 등을 고려하여 진로지도를 한다.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추천서를 작성하고, 입대나 사회에 진출하는 학생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해준다(사례 1, 사례 15). 그러나 가정의 경제력과 출신성분 등의 요인으로 인해 학생들이 택할 수 있는 진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대학 진학의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지도는 아래의 구술 내용과 같이 학생들의 진로설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희망이 뭐예요?”라고 물어봐요, 항상. 그리고 생기부 앞에도 보면은 희망사항 같은 거 적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1학년 때는 생각 없이 그냥 막 적어내요. 왜냐면 딱히 내가 뭐 하고 싶은지도 모르고, 어떤 직업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주변에 있는 “괜찮더라.” 하던 직업들을 그냥 적어내고. 2학년 때부터 그걸 좀... 2학년 2학기 때부터 좀 많이 느끼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이번에 졸업을 하면 뭘 할까?”라는 걸 고민을 하고, 그때부터 신중하게 써내고. 선생님이란 가끔 상담도 하는데 도움이 안 되죠. 왜냐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하든 가게 되고, 돈이 없으면은 힘들 거다. (사례 1 구술녹취록, 61)

고급중학교 학생들의 진로는 기본적으로 가정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대학 진학 희망 여부에 따라 학교생활에 부여하는 의미와 학교생활 경험이 달라진다. 최근 북한도 출산율 저하로 인해 자녀 수가 적어지면서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계층에서는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진로 지원 열의가 높아졌다. 자녀의 진로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교육열은 제1중학교와 대학 진학 열풍, 사교육 확산 등으로 외현화되고 있다.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지원하는 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진로를 설계하기도 하고, 부모가 적극적으로 자녀의 진로를 설계하고 따라오도록 하고 있다(사례 7; 조현정 2022, 120-121). 반면, 경제적 여유가 없는 계층의 부모들은 자녀의 진로나 학업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자녀가 당장의 생계유지를 위한 부모의 노동을 돕거나 장사일을 배워 돈을 버는 것을 선호한다.

고급중학교 졸업 시의 진로는 크게 대학 진학과 군입대 또는 취업으로 나뉜다. 현재 북한 사회에서 대학 졸업은 일반노동자가 아닌 '간부'나 전문가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필수적인 요건이 되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당간부나 사법계통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대학졸업장과 군 경력, 입당이 필요하다. 여성들의 경우, 대학 진학은 사회에 진출했을 때 "막일"이 아닌 교양원이나 교사 같은 "깨끗한 일"을 하고, 조건이 좋은 배우자와 결혼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다(사례 21). 대학에서 공식적인 수업료는 받지 않지만, 학교와 교원에게 내야 하는 '세외부담'이 많고 생활비와 용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대학에 진학해도 학업을 마치기 어렵다(사례 6). 사례 1의 다음과 같은 구술처럼 학생들은 고급중학교 단계에서 진로를 고민하면서 가정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서 대학 진학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

[2학년] 2학기 때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그거 더 직감하게 되고, 중학교 때부터 그거 알긴 했었어요. “돈이 없으면 대학교 못 간다.” 왜냐면 주변의 어른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고 또 그렇게 실제 형아들이나 언니들이나 그런 분들도 봤고. 돈이 없으면 다니다가도 다시 또 퇴학... 아무튼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보니까 “돈이 없으면 대학교도 못 가겠구나.” 했는데. 2학년 2학기 때부터 진짜 확실하게 내가 간다면 하고 붙여보니까, 이게 당연히 “내가 돈이 없으면 못 가겠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례 1 구술녹취록, 61)

대학 선발 제도도 대학 진학 포부를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 북한은 대학 입학 인원을 중앙 교육행정기관에서 통제하는데, 대학 정원뿐 아니라 대학입시에 응시할 수 있는 인원도 지역별, 학교별로 배정한다. 또한, 북한에서는 고급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지 않고, 대신 일정 기간 군대나 직장생활을 하다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어 고급중학교 졸업 후에 바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이 많지 않다. 고급중학교 졸업 후에 바로 대학입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수재학교’인 제1중학교를 중심으로 배정하고 있어 일반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군대나 직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구조이다. 연구참여자들에 따르면, 대도시 일반학교의 경우 학급에서 대여섯 명 정도가 대학 진학을 고려하고, 농촌학교의 경우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급에 한 두명도 안된다(사례 4, 사례 8).

좋지 않은 ‘출신성분’이나 부모의 탈북 등은 대학 진학을 제약하는 요소가 된다(사례 9, 사례 17). 초급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해서 대학 진학을 생각했던 사례 9는 오빠가 탈북하여 한국에 오면서 대학 진학의 꿈을 접었다. 가족이 탈북한 경우에도 대학에 진학하는 사례

가 있지만, 사례 9의 경우 오빠의 탈북으로 인해 자신의 진로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sup>24/</sup>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오빠가 한국 오고 나서 대학교에 못 가는 줄 알았거든요. (중략)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거의 안 하고, 해야 되는 이유를 몰라서 그런 욕구가 사라졌던 거 같아요. 오빠가 한국 왔으니까 나는 북한에서 더 이상 대학교를 못 가겠다는 생각에, 대학을 안 가는데 굳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특히 북한은 공부를 거의 고등학교 졸업해서 영어 발음기호 모르는 애들이 수두룩해도 개네가 사회에서 뭐 “상식이 없다. 이런 공부를 못한다.” 해서 뭐 그런 소리를 듣거나 그런 일도 없으니까 굳이 공부할 이유가 없었던 거 같아요, 그때는. (사례 9 구술녹취록, 9-10)

진로의 제약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진로 모색과 학업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교육선발의 구조와 자신의 상황을 간파하고 “하고 싶어도 내가 못 할 거면 (대학 진학은) 쳐다도 안 본다”는 입장을 취한다(사례 2).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은 고급중학교 졸업 후에 군에 입대하거나 국가에서 배치하는 직장에 취업하게 된다. 공식직장을 배정하는 데 있어 학생들의 적성이나 진로희망은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시장화 확산 이후 배급이 잘 제공되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부 기관·기업소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배치하는 공식직장이 주민들의 생계에서 갖는 의미는 상당히 축소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대다수 학생들에게 본인의 진로희망이나 학교에

24/ 김정은은 2013년 조선노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서 “나라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의 자녀라고 해도 학습과 소년단조직생활에서 모범적인 학생들은 차별하지 말고 대표로 추천하게 하였습니다.”(조선중앙통신 2013.1.29.)라고 하며 탈북민 자녀를 차별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들의 구술에 따르면, 탈북민 가족들은 특정 대학이나 전공 진학에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서의 학업성취는 개인의 진로와 직결되지 않는다. 이들은 “꿈이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학교생활을 하거나(사례 2), 졸업 후 장사 등의 시장활동을 통해 돈을 벌 방법을 모색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학업성취와 진학에 뜻이 없는 대다수의 일반 학교 학생들에게 학교는 “의무적으로 가야만 하는 곳”, 즉 성인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만 하는 과정으로 여겨진다.

학교라는 게 어떤 의미냐. 의무적으로 가야만 하는 곳이 아닐까요?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게,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 나는 배움에 좋은 뜻이 있어 배워야 된다, 그런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거 같아요. 저는 학교를 안 갔으면 좋겠는데, 가야만 하는 곳이잖아요. 졸업을 해야 끝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례 15 구술녹취록, 54)

사례 23은 한글을 비롯해서 필요한 것을 익히는 초등교육 단계와 달리 고급중학교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교육”을 받는 곳이 아니라 “그냥 나가는 그런” 곳이라고 표현한다. 그는 고급중학교에서 배웠던 문학이나 혁명활동 과목이 살아가는 데 생활에 필요한 교육이 아니고, 현재의 자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나 직업경력을 쌓는 데 있어서 고급중학교 교육이 기여한 것이 별로 없다고 본다. 그는 “친구들이랑 좀 재밌게 놀아본” 것 이외의 의미를 학교교육에 부여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사례 23과 같이 학교에서 받는 교육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친구는 가기 싫은 학교를 나가게 하고 지루한 수업을 버티고, 짜여진 일과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주는 요소가 된다. 많은 학생들은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노는 것이 학교생활에서 가장 큰 의미였다고 말한다(사례 1, 사례 4, 사례 7, 사례 8, 사례 16, 사례 22, 사례 23).

연구자: 학생에게 학교생활은 어떤 의미였어요?

구술자: 좀 의무적인 느낌이었어요. 안 나오면 좀 학교에서 많이 그랬으니까 학교를 많이 갔는데, 힘든 것도 있었고 재밌는 일도 많았고. 친구들이랑 노는 게 제일 재밌었던 거 같아요.

연구자: 어떤 게 제일 힘들었어요, 학교에서는?

구술자: 일단 학교 가는 거 자체가 힘들었어요. 진짜 가기 싫었어요. 가기 싫은데 그냥 친구들이 있으니까 가는 거지. “오늘 누가 안 나온대.” 이러면 안 나가고. (사례 22 구술녹취록, 44)

강원도 촌락지역의 학교에 다녔던 사례 2는 두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 “과일 철에는 과일 따먹으러 산에 가고” 물고기 잡는 그물을 매고 학교에 가기도 하는 등 학교가 친구들과 함께하는 “놀음터”였다. 고학년이 되어 친한 친구들이 돈을 벌기 위해 학교를 떠나게 되면서 학교를 다니는 “재미가 떨어지고” 학교에 나가 있는 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사례 2는 학급 친구들 중 3분의 2 정도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공부에 관심 없고 노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말한다. 사례 4는 학교생활에서 후회되는 일로 “친구들과 더 가까이 지내지 못한 것, 친구들과 더 재미있게 놀지 못한 것”을 꼽는다. 이런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이 100%라면, 친구관계는 90%를 차지할”(사례 23) 만큼 큰 의미를 지닌다.

학교교육의 의미를 학업성취와 교사의 인정에 두는 학생들도 있다. 이 연구에서 만난 학생들 중 평양 등의 대도시 학교와 제1중학교 학생 일부는 학업성취가 주는 행복감에 대해 얘기했다. 사례 7은 고졸중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는 않았지만, 졸업 시 최우등 성적을 받았다. 그는 학교생활 중 가장 행복했던 기억으로 고졸중학교

졸업 시에 ‘최우등 성적증’을 받은 일을 꼽는다. 그는 공부를 뛰어나게 잘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했다. 졸업 시 성적 평정에는 시험성적 뿐 아니라 평상시의 성적과 품행 등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되는데,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제외하면 최우등 성적을 받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사례 7은 최우등 성적이 자신에 대한 선생님들의 좋은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고, 이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제1중학교에 다녔던 사례 18은 면담 과정에서 학업성취와 관련한 양가감정을 토로하였다. 제1중학교 입학 시 그의 성적은 전체에서 중간 정도였다. 그는 다른 학생들에게 공부에서 지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고, 부모의 사교육 지원을 받아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에 매진했다. 노력의 결과, 1년 후 그의 성적은 전교 10등 안에 들 정도로 향상되었다. 그런 어느 날 그는 특별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는 ‘5% 시험’에서 전교 1등을 하게 되었고, 자기 “인생의 가치를 매겨버리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나를 곧장 담임선생님이 끌고 이렇게 이런 교단 같은 데 올려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교장이 와서 나한테 손을 주면서 “이 학생이 원래 120등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8등이 됐고, 이번에 5% 시험에서 1등을 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교장하고 쌤이... 담임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부터 이게 네 자리”라고 말해주는데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1등을, 왜 1등하는 애들이 눈물 흘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해되는 거예요. 이게 네 자리라고 말해주는 그게... 내 인생의 가치를 그게 매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짠하고 그랬던 거 같아요. 그때 네 자리라고 말해주는데, 1등을 세우고 네 자리라고 말해주는데, 그건 진짜 누구도 거부할 못하는 그런... 감개무량했어요. (사례 18-1 구술녹취록, 9-10)

사례 18에게 학교교육의 의미는 공부 그 자체, 그리고 그에 대한 인정이었다. 그것은 성적의 순위나 제1중학교 학생에 대한 타인의 부러움의 시선만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인정을 포함한 것이었다. 수재들이 모여있는 제1중학교에서 그는 자신보다 더 공부를 잘하는 “천재”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존감의 하락을 경험하기도 했다.

자랑스러워 안 해도 자랑스럽게 돼요. 왜냐면 옆에서 제1중학교 학생이라 하면 다들 뭐 높이 봐주니까. (중략) 나는 내가 자랑스러운 적이 없었는데, 내가 어떤 애를 진짜 천재를 봤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개 앞에 서면 또 천재가 있어요. 또 노력해서 개 옆에 있으면 또 천재가 있어. 나는 언제까지 올라가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상황인데, 내가 뭐 언제 나를 자랑스럽게 여겨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나는 처참한데 어머니가 너무 열성이다나니까 올라간 케이스라고 항상 말하고 다녔고. 별로 내가 자랑스러운 적은 없었어요. (사례 18-2 구술녹취록, 42)

사례 4와 사례 16은 학교교육을 받는 것이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는 시각을 전해준다. 근대 공교육 체제에서 학교교육은 그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신념의 체계를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 후속세대는 학교교육을 이수함으로써 그 사회의 명실상부한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사례 16의 다음과 같은 구술은 이러한 관점이 북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통용됨을 보여준다.

연구자: 학교는 어떤 공간이었어요?

구술자: 뭐, 사람, 사람이 되기 위한 공간. (중략)

연구자: 추억 같은 거든지 애착 같은 것도 있을까요, 학교에 대해서?

구술자: 친구들, 친구들이. 근데 친구들 만나는 게, 저는 학교 안 다니는 친구들은 안 만나고 어쨌든 학교에서 만난 거니까 착한 친구들을 만났다고. 학교를 나가면 착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통. (사례 16 구술녹취록, 62-63)

사례 16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착한 친구”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에 다님으로써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는 것 뿐 아니라 그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기준과 규율을 갖추게 된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사례 4도 유사한 어휘를 사용해서 학교교육의 의미를 말한다. 사례 4는 자신이 다녔던 농촌지역 학교에서도 간혹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었다고 말한다.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극히 드물어 공부의 목적은 뚜렷하지 않았지만, “공부한다는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은 똑똑하고 착하다.”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말한다.

---

#### 4. 소결

이 장에서는 북한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의도된 교육과정과 교육행정이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전개되는 실행과정과 학생들의 학습경험에 주목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2012년 학제개편에 따라 공식적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정보화 교육 등의 측면에서 교육개혁이 추진되었지만, 교육현장에서 전개된 교육과정은 교육정책 및 공식적 교육과정과 괴리가 나타난다. 학교에서 교사들은 새 교육강령의 목적에 맞게 교수안을 문서화하고 이에 따라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공식적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주입식, 암기식 수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정보화 교육 역시 컴

퓨터 등 기자재와 미디어 교육자료의 부족, 열악한 전기사정으로 인해 국가적인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집권기에 대학을 졸업한 교사들과 기존 교사들 간에 정보매체 활용 능력 및 교육 수준 차이가 크다. 이로 인해 학교 간, 도기 중심부와 주변부 내, 도시와 농촌, 평양과 지방 도시 등 다양한 수준에서 정보화 교육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제1중학교 등 '수재양성'을 위한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데, 제1중학교와 일반중학교 역시 교육과정, 교육환경, 교사 역량,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열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북한의 교육구조와 교육당국, 학교 운영자, 교사, 학부모 등 행위자들의 역학관계 속에서 교육행정 체계가 공식문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고급중학교까지 무료의무교육제를 표방하고 있고 학령기 아동의 취학의무를 교육법에 명시하고 있다. 국제기구에 보고되는 취학률과 출석률은 상당히 높지만, 실제 학교 현장의 학생 출석 실태는 이와 다르다. 부모의 이혼이나 장사로 인해 이사를 하면서 전학을 간 학교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에 내야 하는 물품이나 돈을 못 내는 학생, 시장에서 부모의 장사를 돕는 장기결석자, 학교에 돈을 내고 집에서 사교육을 받는 의도적 결석자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고급중학교 단계에서는 지역과 학교에 따라 학업결손을 초래하는 장기결석도 잦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졸업시켜 군대나 직장에 배치해야 할 의무가 있고, 행정전산 체계도 미비하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이 장기결석을 하더라도 교사들은 성적과 출결을 조정하여 진급과 졸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든다. 이는 학생들의 교육 수준 저하로 이어지며,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문해력이 떨어지는 학생들도 발생하고 있다.

한편, 경제난 이후 북한당국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의 예산으로 보장”하도록 법에 규정(「보통교육법」 제49조)하고 있고 지방인민위원회 행정체계를 통해 이를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가 차원에서 학교 운영과 환경개선을 위한 충분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제한된 예산이라도 배정받기 위해서는 인민위원회 담당부서와 ‘사업’을 해야 한다. 교육 관련 법에는 학교별로 후원기관을 지정하여 학교에 필요한 후원을 하도록 하고 있고 보호자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학교 환경 및 시설 개선, 교육기자재 확충 등 학교의 유지와 운영에 드는 비용이 학부모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또한, 교사들에 대한 국가 배급이 충분하지 못하고 월급으로 실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학급 단위로, 또는 개인적으로 담임교사에게 돈이나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교사들의 생계를 지원한다.

학교의 운영과 교사의 생계가 학교와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지원에 좌우되는 상황에서, 경제력 있는 학부모들이 학급 배치나 교사 지정과 같은 학교 행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 같은 행정구역 내에 있는 학교라고 할지라도 학부모들의 정치권력과 경제력에 따라 학교 시설 수준과 교사들의 처우가 달라지고, 이는 학교교육 수준으로 연결된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육환경이 좋고 교육수준이 높은 학교에 자녀를 맡기고 싶어 하고, 학교 입장에서는 경제력이 있는 집안의 학생들을 충원하기를 원한다. 기본적으로 통학거리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학교별로 학생들을 배정하지만, 힘이 있는 학부모들은 여러 가지 사유를 대서 자녀를 원하는 학교에 보내거나 전학시킬 수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같은 학교 내에서도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통제할 수 있는 교사에게 자녀를 맡기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학교 당국은 부모들의 요구와 교사 평판을 고려하여 학교를 운영하게 된다.

셋째, 북한의 사회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진로 선택의 제약으로 인해 대부분의 일반학교 학생들은 학업에 열중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학교는 “사람이 되기 위한 공간”,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곳”이며, 친구들과 재미와 고달픔을 공유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공간이다. 실천활동으로서의 농촌지원, 붉은청년근위대, 방과 후 노력동원은 육체적으로 힘든 과정이지만 친구들과 우정을 쌓을 수 있는 신나고 재미있는 시간으로 기억되기도 한다. 한편, 학생들은 정치사상교육을 통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과 국가가 요구하는 신념체계를 갖추도록 교육을 받고 있지만, 많은 학생들은 국가의 요구를 내면화하기보다는 국가가 원하는 ‘모범’을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실현한다.



---

## IV. 학교 규율과 학생문화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학교 규율과 학생문화

이 장에서는 학교 규율의 통제와 그에 대한 학생들의 수행성을 살펴본다. 학생을 특정한 인간형으로 주조하려는 북한 교육의 규율화 장치는 매우 다양하여 공식적 수업 및 그 교육목표와 같은 명시적 교육과정부터 법률·교칙 등의 문자적 레짐, 행위자들의 관계 및 교육조직 특성 등의 ‘잠재적 교육과정’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규율과 규율 권력은 시대, 지역, 행위자 특성 등에 따라 지속과 변화를 거듭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교와 청년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규율화의 주요 메커니즘에 착목하면서, 김정은 집권 이후의 학교 규율 정책 변화, 시장화 이후 화폐 및 학부모 개입 등에 따른 규율 권력의 실제 전개 양상도 함께 포착하고자 한다.

규율은 학생을 특정한 방향으로 강제하고 통제하려 하지만, 학생들은 순응/저항의 이분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에 대응한다. 학생들이 일상에서 규율을 수행하고 규율 권력을 전유하는 양상은 개인에 따라 유사하면서도 또 다르며, 규율의 종류나 규율 권력의 특성에 따라서도 학생들의 수행방식, 가용자원, 협력관계 등이 달라진다. 이 연구에서는 주요한 규율 항목별로 학생의 규율 수행양상을 살펴보고 인구학적 변수(지역, 젠더, 계층)에 따른 수행성의 차이를 읽어낸다.

또래관계와 학생문화는 시장화 이후 중등학교 학생의 일상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또 다른 규율 권력이다. 시장화, 계층화, 정보화, 외부문화 확산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면서 또래문화와 학생문화 역시 시장화 이전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ICT 기술과 콘텐츠, 화폐, 외부문화 등의 새로운 요소들로 재구성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 일상에 부상한 새로운 규율 권력들에 주목하여 또래 관계와 관계맺기의 특성, 또래 놀이 문화, 이성교제, 경제문화적 기표 및 사물들이 매개하는 또래관계 등이며 학생들의 지역, 젠더, 계층에 따른 경험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살펴본다.

---

## 1. 규율 권력의 통제와 학생의 수행성

### 가. 규율 권력의 구성과 학생 통제

#### 1) 학교 규율의 형성과 특성

북한이 지향하는 '사회주의 교육학'에 따르면, 교육에서 규율이란 “유일적 영도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율”을 의미한다(김운진 외 2008, 18). 학교 규율이란 ‘유일체제’ 존속에 궁극적 목적을 두면서 학생을 상부권위·집단지서에 일사분란하게 순종하는 인민으로 주조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집단주의교양은 조직과 집단을 위한 헌신에 그 기본을 두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에서 “자신들의 사생활을 조직집단, 집단생활에 복종시키고 조직과 집단의 규율과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는 것을 습성화”할 것을 강조한다(김운진 외 2008, 60).

## 가) 북한식 학교 규율의 형성

북한 교육은 수업과 학교생활의 세세한 규칙, 강한 권위를 행사하는 교원, 학교에 상주하는 소년단·청년동맹 조직과 그 지도원 등 다양한 규율 권력을 동원하여 학생의 수업시간 중 시선처리, 작은 몸동작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의 언행까지 강제해왔다. 이처럼 엄격하며 교사주도적인 규율 특성은 해방직후 시기 북한이 교육제도의 모델로 삼았던 소련 마카렌코식 교육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것이면서, 일제강점기의 강압적 교육 규율과도 연계된다(조정아 2004a, 125).

초기 북한 교육은 시대적 과제와 현실적 사회문제 해결에 역점을 둬으로써 구체제를 허물고 새 사회를 건설할 ‘혁명적 인간상’을 교육 목표로 삼았다(신효숙 2003, 133). 교육의 궁극적 목표가 ‘집단을 위해 헌신하는 인간형’ 구조에 있었기 때문에 개인의 전인격적 성장이나 자율적 발전의 가치는 뒤로 밀려났다. 또한 교육 규율은 통치에 관한 학생들의 반발을 사전에 검열하고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도 활용되었다. 1946년 토지개혁 반대시위에 고급중학교 학생 다수가 참여하자 학생과 교원에 대한 직접적이고 조직적인 통제 장치가 만들어졌다. 1946년 4월 10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중앙 제6차 확대위원회에서는 교육사업 개선이라는 명분 하에 “교원들을 심사 재교양하며 우수한 민청일꾼들을 각 학교에 훈육주임으로 배치하며 학교 내에서 민청사업을 강화”할 것이 결정되었다.<sup>25/</sup> 이전에도 정치사상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긴 했지만 학교에 인원을 배치하여 교원과 학생을 직접 통제·감시하지는 않았다. 결국 1946년 4월부터 인민위원회에서 민청소속 청년들을 학교 현장에 훈육주임으로 배치함으로써 ‘반동학생’들을 통제하고 색출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신효숙 2003, 217)

<sup>25/</sup> 조선로동당출판사, 1954, 『김일성 선집 제1권』, 101(신효숙 2003, 217 재인용).

산업화 시기에 학교 규율은 학생들이 상부의 권위와 위계적 집단질서를 내면화하는 것은 물론 “생산성을 위해 분절되고 대상화 된 자신의 노동과 신체”를 수용하도록 만드는 장치로서도 기능하였다(조정아 2003, 137). 이는 시간 규율 준수, 정해진 과업 완수, 상급자에 대한 자발적·적극적 복종을 미리 훈련시킴으로써 졸업 후 배치된 노동 현장에서 규범에 따라 충실히 노동을 수행할 ‘사회주의적 노동자’ 주조 작업으로 학교 규율이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조정아 2003, 139).

## 나) 학교 규율의 기본적 특성

북한의 학교 규율은 학생들에게 집단 질서와 상부 권위에 순종하고, 자기 의사결정권의 부재를 수용하며, 집단 규율/목표 달성을 위해 자기 신체를 대상화하도록 요구한다. 특히 졸업 후의 진로가 당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구조 속에서, 학교 규율의 일차적 지향은 ‘집단 질서와 상부 권위에 순종하는 인민(노동자)’으로 학생들을 주조하는 것이다. 시장화 이후에도 이러한 공식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다음과 같은 학교 규율의 상세 특성 역시 상당부분 지속되고 있다.

첫째, 교사는 규율 권력의 중요 주체로서 강력한 권위를 갖는다. 동시에 교원은 학생들을 일사분란하게 통제해야 하며 교원 역시 교수요강과 교장 등 상부의 지배와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회주의 교육학’에 따르면, 교원은 “학생들이 조직생활과 규율생활에 습관되도록 교수규율을 엄격히 세워야”하며 “학급집단안에 규율있고 절도있게 생활하는 기풍”을 세워야 한다(김운진 외 2008, 178; 188). 가령 「교원법」(2015년) 제24조에는 “학생들을 원칙적으로 대하고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그들이 건전한 사상의식과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규율의 교사

주도적 측면은 학생들로 하여금 교원 앞에서 많은 규범을 지키도록 하는데, 한 줄 통행, 복도에서 교사 우선 통행, 학교의 정면 출입문 이용하지 않기, 교사에 대한 인사, 수업 시간 중 정숙, 교사 앞에서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지 않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규율의 항목은 다양하며 매우 세세하다. 모든 학생은 최상위 규범인 교시부터 시시때때로 재구성되는 방침, 학교와 청년동맹의 명문화된 규칙, 교원과 청년동맹지도원의 언어적 지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규율에 순응하도록 요구받는다. 특히 북한 초기의 세밀한 수업 및 행동 규율은 소련 교육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1943년 8월 발표된 소련 학생규칙을 그 원형으로 한다. 1949년 10월 26일 북한에서 공포된 학생규칙을 살펴보면 총 22개 조항 중 10개 조항이 수업 규율에 관련한 것으로, 출결, 교원 지시에 대한 복종, 수업 준비, 용의복장, 교실 청결, 수업 태도 등이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조정아 2003, 138) 1954년 8월에 제정, 공포된 학생생활표준세칙은 학교 실정에 맞게 준용할 수 있는 것으로 16개 조항에 걸쳐 수업 시작 및 종료 절차, 수업시간 중 수강 및 질문의 방법과 절차, 필기 도구 사용, 수업 중 교실 출입, 학습장 사용법, 연필을 깎는 법 등 교실 안팎에서의 사실상 모든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조정아 2003, 133). 이러한 규칙은 소련의 학생규칙보다 한 차원 더 강화된 측면이 있는데,<sup>26/</sup> 영화관 출입의 조건부 허용 및 통제,

26/ 소련의 학생 규칙에는 일과 시간의 규칙성 및 준수, 교원에 대한 절대적 순종, 복장 및 두발과 개체 위생, 수업 중의 바른 자세 및 태도, 교장 및 교원과 대면시 반드시 기립, 수업 중 대답/질문/기립/착석은 모두 교사 허락 하에만 가능, 정리 정돈과 청결함, 의복의 교체 및 손질 규칙 준수, 욕설/흡연/도박 금지, 학교시설 (물과 전기 절약 및 올바른 화장실 사용) 관리 및 동료 소유물을 조심해서 다루기 등의 각종 규범이 매우 자세하게 제시된다(Sovetskaia pedagogika 1943, 2(SEVENTEEN MOMENTS IN SOVIET HISTORY, Rules for School Children, <https://soviethistory.msu.edu/1947-2/the-new-curriculum/the-new-curriculum-texts/rules-for-school-children> (검색일: 2023.11.1.) 재인용).

교장 및 교원이 안내하는 학교 방문 손님에 대한 예절 준수 등의 조항이 추가되었다.

셋째, 청년동맹에서는 다양한 장치를 통해 학생의 일상에 세밀하게 개입하고 강력하게 통제하려 한다. 각 학급에는 분단지도원이 있으며 이들은 청년동맹지도원의 지도를 받아 학급의 규율 준수를 지도, 감시, 보고한다. 청년동맹지도원은 학급과 학생을 대상으로 불시 소지품 검열을 시행하며 위반에 대해 처벌할 수도 있다. 또한 청년동맹은 정기적 생활총화와 호상비판을 조직, 감독하며 '사회주의 도덕규범' 토론회 등을 통해 각종 상세규율을 학생들에게 학습시킨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 “당과 수령에 대한 혁명적의리를 잘 지키기 위한 내용, 레의도덕을 잘 지키기 위한 내용, 공중도덕과 교통질서를 잘 지키기 위한 내용, 옷차림과 머리단장, 몸단장을 잘하기 위한 내용, 비도덕적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내용, 인사례절, 언어생활에서의 례절, 식사할 때 지켜야 할 례절, 사람들과의 호상관계에서 지켜야 할 례절, 가정에서 부모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례절,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례절 등”이 구체적 사례들과 함께 다뤄지고 있다(신영철 2016, 191). 가령, “담임선생님을 찾아 교원실에 갔을 때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하는가, 동무를 찾아 옆집에 가서 손기척을 하고 문을 여니 온 가족이 식사를 하고있을 때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하는가 등” 학교 안팎의 아주 구체적인 상황마다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범들을 하나하나 학생들 스스로 친구들 앞에서 언급하고 상연해보도록 지시한다(신영철 2016, 191). 이러한 특성들은 학교 규율이 여전히 학생들로 하여금 집단질서를 준수하고 상부권위에 순종하도록 강제하는 장치로 작동하며, 시장화 이후의 사회변화에 조응하여 새로운 규제의 항목들을 추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 상세 규율의 구성

학교 규율은 언어적·비언어적 차원 모두를 포함하며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한다. 탑다운 형태로 상시 하달되는 방침, 청년동맹 소년단의 조직 규범이 상존하며,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집단적으로 코드화 된 규율레짐과 규율감각이 통용된다. 가령, 교원을 만나면 반드시 인사를 해야한다거나, 시기나 유행에 따라 직관적으로 ‘우리 스타일’, ‘불량’여부가 확인된다. 이는 학교 규율이 문자적 레짐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재구성되는 불문법까지 포괄하며, 그만큼 학생들에게 하달되는 규율에 즉각적으로 세세한 항목까지 순종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서화된 건 없어요. 그냥 저희는 위에서 [방침이] 내려오면 그것만 하지, 학교 내의 규율 같은 건 없으니까. 저희는 유일체계라고 그냥 이렇게 오니까. (사례 3 구술녹취록, 53-54)

선생님 만나면 인사를 해야 되고. 인사 안 하면 지나가다가 “야, 너 왜 인사안해?” 이렇게 할 수 있고. 교내 안에서는 슬리퍼를 외부 신발이랑 분리를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신고 다녀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있고. 규정은 많죠. (중략) 그거를 우리가 딱 봤을 때 불량해 보이고 우리 스타일이 아니다 이러면은 그냥 다 단속해요. 일단은 청년동맹에 기본 그런 것들 하라고 정해놓은 게 있는 거라서. 그거 다 있어요. (사례 20 구술녹취록, 64-66)

복장과 두발은 학교 규율 중에서도 관련 내용이 가장 많고 상세한 항목이다. 복장과 두발에 대한 기본적 규율은 지역을 막론하고 대동소이하나, 구체적 내용들은 시대나 지역, 학교 특성 등에 따라 재구성되기도 한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더 많은 규율 항목들이 적용되는데, 남녀 모두 짧은 머리어야 하며 여학생은 단발보다 길 경우 짧아야

하고 화려한 장식을 할 수 없다. 다만 김정은 집권 이후 일부 악세서리와 머리를 기르는 것을 허용해주는 등 약간의 완화조치가 있기도 했다.

연구에 참여한 탈북 학생과 교사들에 따르면 학교 출입 시에는 반드시 교복을 착용해야 한다. 여학생 치마 길이는 무릎 위 5cm 보다 밑으로 내려와야 하며 행사일에는 반드시 치마를 착용해야 한다. 최북단 지역의 경우 겨울이 매우 춥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여학생의 바지 착용이 가능하나 여름에는 반드시 치마를 입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편리화'라 부르는 운동화를 신도록 규정하며 굽이 높은 구두 착용이나 화장은 금지된다. 남학생의 경우 무주름 바지, 몸에 달라붙는 바지, 소매 걷기 등이 금지된다.

초상화 패용은 북한 특유의 규율인데, 고급중학교에 입학하고 청년동맹원이 되면서 학생들은 이 규율의 영향권에 진입하게 된다. 갑자기 매일 초상화휘장을 패용해야한다는 것은 고급중학교에 막 입학한 학생들에게 준수하기 어려운 규율이다. 소년단 스카프의 경우 크기가 커서 잘 잃어버리지도, 착용을 잊어버리지도 않았고 대체할 품목도 있었다. 그러나 초상화는 크기가 작고 익숙하지 않아 학생들이 패용의무를 잊기 쉬운데 대체품을 구하기도 어렵다. 학생들은 분실을 대비해서 휘장 뒷부분의 핀을 떼어버리고 옷에 부착하기도 한다.

소년단의 넥타이하고 휘장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런데 휘장을 계속 잃어버리거든요. 뽑아지고 하니까. 넥타이는 잘 매는데 휘장은 없을 때가 많으니까. 그걸 무조건 착용해야 되고. 아침마다 단속할 때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중학교 때는 이거 초상화, 초상화 무조건해야 되고. 초상화도 계속 잃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중략) 잃어버리면 없잖아요. 이게 없으면 걸려가지고 이름 계속 적히고. 얻으려고 노력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그 핀을 떼어버리고 이렇게 꿰매거든요. (사례 2 구술녹취록, 48-49)

이외에도 학생들이 지켜야 할 규율로 기억하고 있는 항목은 학생 간 폭력 및 패싸움 금지, 무단 지각·조퇴·결석 금지 및 기타 출석 규범, 교내외 소란 금지, 음주 및 흡연 금지, 교내 복도 한 줄 통행, 교원을 만나면 하던 것을 멈추고 인사하며 정숙하기, 초상화 및 선전물에 대한 예의 갖추기 등이 있다.

### 3) 김정은 집권 이후 규율 강화 조치

#### 가) 법적 조치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당국은 청년 통제를 강화하고 이를 각종 법률의 신설과 개정에 반영하면서 교원, 청년동맹지도원, 109 단속반, 학부모, 전체 사회 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가령 「청년교양보장법」(2021년) 제27조에 따르면, “학교와 가정, 사회가 청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사업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은 청년교양 사업에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또한 동법 제28조는 교원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교육기관과 교원은 사회주의교육의 사명에 맞게 고급 중학교와 대학에서 학생청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큰 힘을 넣어 그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과 현대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한 열렬한 혁명가, 혁명인재로”키울 것을 요구한다.

이 법률에서는 학부모의 책임이 강조되는데, 제29조에는 학부모 회의가 학부모의 자녀교양 책임 완수를 적극 추동하도록, 제30조에는 부모가 “국가와 사회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자식들이 학습과 조직생활을 잘하고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며 맑은 일터와 초소에서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발휘하고 조국보위와 어렵고 힘든 부문에 적극 탄원”할 것을 교양하도록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신문 등의 공간문헌에는 학부모의 자녀 교양 모범사례가 지속 보도되고 있으며 “사람의 성장에서 가정교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혁명가의 풍모를 제대

로 갖추는가 갖추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가정교양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데 많이 달려있습니다.”라는 등 학부모의 규율 지도를 강조하는 김정은 ‘말씀’도 지속적으로 언급된다(노동신문 2023.7.20).

또한 학생 교양 책임을 “누구나” 가지므로 “청년들이 길거리와 공공장소에서 비도덕적이며 비문화적으로 행동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외면하거나 묵과하지 말고 즉시 투쟁을 벌려 그들이 사회적인 비난과 압력 속에 배겨나지 못하게”할 것(제34조), 종업원 총회 및 주민 총회 등에서 자녀교양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모들을 비판할 것(제35조), 기관·기업소·단체가 “종업원들의 자녀교양정형을 정상적으로 알아보고 대책하며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양할수 있는 시간과 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 가정을 혁명화하도록” 조건을 마련할 것(제36조) 등이 법적 의무로 명시되었다.

학생 흡연의 법적 규제도 강화되었다. 김정은 집권 이전에도 개정 「담배통제법」(2016년) 제28조 제3항에 학교가 흡연 금지장소라는 점이 명시되었고, “부모와 후견인, 교육기관은 미성인과 학생들에게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는 교양을 정상적으로 하며 그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엄격히 단속통제”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제30조). 2016년 개정된 「담배통제법」에서는 학생 대상 담배 판매만 금지하고 학생에게는 직접 죄를 묻지 않았던 것을, 「금연법」(2021년)을 제정하면서 제15조에 “미성년과 학생은 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조항을 두고 흡연에 대한 학생의 책임을 명시하였다. 이처럼 학생 흡연에 대한 책임 소재는 보호자와 성인들에게만 주어졌다가, COVID-19 이후 학생의 책임도 묻는 방식으로 법적 규제가 한층 강화되었다.

## 나) 규율 통제 및 검열 강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당국은 청년 사상교양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고, “청년중시는 국사중의 국사”라고 단언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청년교양보장법」 제2조). 그러나 학교 규율이 수시로 재구성되어 각 학교 현장에 시달되는 현상은 외부문화에 익숙해진 학생들을 통제하는 일이 결코 수월하지 않으며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 준다. 이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립압살하기 위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해지고있는 오늘”이라며 학생지도의 시의성과 중대성을 강조하는 언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신영철 2016, 4). 이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는 각종 방침 전달이 잦아지고 수업 중에 갑자기 운동장에 나가 사상을 교양하는 전체 조회를 하고 다시 들어오는 일도 빈번해졌다. 교원들은 “수업 시간에 무조건 5분, 10분은 무조건” 정치사상교육을 하도록 요구받았다(사례 20). 이외에도 109 단속반의 검열 강화 소식, 각 지역 총살처벌 소문 등은 규율의 엄중함과 강제성을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입시킨다.

김정은 되고 청년동맹에 가입하고 나서 그게 정말 자주 있었어요. 옛날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었다면 나중에는 매일 그 방침이 내려올 정도로. (중략) 수업을 하다가도 이제처럼 방침 같은 게, 또 중요하게 전달할 게 있다라고 하면은 학교 운동장에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또 전달받고. (사례 1 구술녹취록, 4-6)

가장 엄중하게 처벌되는 항목은 외부 콘텐츠와 마약이며, 이는 성인 사회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마약 사건은 희소한 반면, 외부 콘텐츠의 시청, 공유 등은 학생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외부 콘텐츠 중에서도 언어가 같은 한국 드라마·영화는 최고

의 처벌을 받지만, 학생들은 콘텐츠를 보고 친구들과 공유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메모리 기기가 CD에서 USB, SD카드로 점차 소형화되면서 학생들의 콘텐츠 공유가 더욱 활발해졌다. 그만큼 북한당국도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의 외부 콘텐츠 보유와 시청 여부를 검열하며 조회, 불시검문, 109 단속반 등을 통해 상시적 통제와 처벌을 강화해왔다. 사례 3에 따르면, 교원들에게 연초 하달되는 연간 교육 목표에 “불순록화물 근절”이 포함되며 “강력 처벌 대응”을 명시해놓았을 정도라고 한다.

같은 민족이잖아요. 똑같은 언어고 한데 서로 다른 문화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솔직히 좀 위험하죠. 북한도 아니까. 그게 그런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독일이 어떻게 통일이 됐는지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진짜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한국에 대한 콘텐츠를 엄청 엄격하게 관리해요. (사례 22 구술녹취록, 30)

#### 4) 전개되는 규율 권력

교원과 교장, 청년동맹지도원, 109 단속반 등의 행위자들은 규율 권력과 함께 학생통제의 의무도 갖는다. 교원은 「교원법」(2015년) 제 55조에 따라 “학생이 위법행위를 하였거나 사회적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학생 교양을 잘못했다는 죄목으로 행정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청년동맹지도원 역시 “넓은 사상잔재와 외부로부터 침습하는 부르조아사상의 영향으로 하여 생활에서 말썽을 부리거나 비사회주의적행위를 비롯한 불건전한 행동을 하는 학생들”로부터 “조직생활에서 리탈된 학생, 사상적으로 견실하지 못한 학생, 비사회주의적행위를 하는 학생들, 소학교들에서는 미등교생들”까지 “뒤떨어진 학생”들을 지도할 의무를 갖는다(신영철 2016, 40). 109 단속반 역시 외부 콘텐츠 시청 및 공유에 대한 엄중 단속과 검열, 처벌의 책무를 지닌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 혹은 학생의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행위자들은 ‘의도된’ 혹은 명시된 바와 다른 양상으로 규율 권력을 전개해 나간다. 여기에는 학생의 규율 위반을 무마하기 위한 부모의 개입, 화폐 및 인맥관계, 교원 및 지도원 개인의 성향과 경제사회적 환경, 교원과 교장의 성과 및 학생 관리 방식, 학교-청년동맹 등 규율 권력 간의 갈등과 충돌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규율 권력의 이러한 구성적 측면은 학교 규율이 ‘강철’ 같을 수 없는 주요 원인이다.

### 가) 교원의 자기 성과관리와 선별적 학생 지도 전략

교원의 능력은 학업지도와 규율 통제로 인식된다. 한 학부모는 “애들을 어느 만큼 잘 배워주는 선생님인가, 그리고 애들을 엄청 손에 딱 틀어쥐고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그게 교사의 능력”이라고 단언하였다(사례 10). 사실상 다수 학생이 대학 진학이나 학업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고 교원 역시 학생의 학업 부진보다는 규율 위반이 자기 성과관리에 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학업 지도보다 규율 통제에 더 많은 관심을 둔다. 따라서 노련한 교사일수록 학생들의 언어적, 비언어적 분위기를 기민하게 읽을 수 있는 ‘감각’, 정보수집능력 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가령, 교원이었던 사례 13은 주 1회 “통합감시망”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전에 심각한 규율 위반 가능성을 포착하고 사전 예방을 꾀하였다. 학생이 실천/목격한 불법행위를 기록하여 제출하면, 다른 내용은 적당히 찢어서 소각해버리고 학급 내 학생 관련 내용 중 문제가 크게 될 것만 골라서 조사한다. 그는 이런 과정을 통해 종종 일벌백계하여 학생들에게 “자극과 경중”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사안에 따라 교원은 학생에게 노동 등의 처벌을 주며(사례 4), 장기결석 등 사안이 무거운 경우에는 가정방문을 통해 부모와 상담하

기도 한다(사례 25). 처벌의 수준, 항목, 훈육 기법 등이 교사 지침서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교원들은 지침이나 문서화 된 가이드라인이 없더라도 불문법적 감각과 노하우로 학생들을 대한다.

학교를 안 나오고 지각을 하고 하면은 처벌 같은 걸 줘요. 노동을 시키는 거죠. 나무 시키고, 학교에서 또 따로 그렇게 일을 하는 게 있어요. 학교에서 마당청소라든가 아니면 풀 뽑기라든가. (중략) 문서화된 거는 없는 거 같아요. 말로. 선생하고 싸웠다든가 그랬을 때도 또 처벌 주고, 만약에 초상화라든가 그런 선전물 같은 걸 훼손했을 경우에도 또 처벌... (사례 4 구술녹취록, 38-39)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어디 경기장 같은데 모여서 싸움을 한다고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한 번 교사들이 출동해서 막았던 적 있어요. 그래서 가서 “야, 너네 왜 여기 다 모여있어.” 담임교사들이 잡아다가 학교에 데려오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남자샘들이 동원돼가지고, 샘들은 확실히 애들이 좀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례 20 구술녹취록, 62)

이처럼 교원은 모든 규율 위반이 아니라, 교장이나 다른 반 교사가 알 수 있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외부 컨텐츠 시청 및 공유, 패싸움, 장기결석 등의 사안만 집중적·선택적으로 관리한다. 북쪽지역은 남학생끼리 패싸움이 큰 상해 사건으로 종종 이어지기 때문에, 사례 20처럼 정보를 입수하면 남성 교원들이 단체 동원되어 현장에서 학생들을 통제한다. 사안이 커질 경우 간단한 경고나 주의 조치로 무마되지 않고 최소한 전체조회에서 학생이 자아비판을 해야 한다. 교원 역시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학생의 규율 위반이 누적되거나 심각할 경우, 외부 기관에 적발되었을 경우, 교원 평가에 반영된다. 교장까지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담임교원들은 대체로 자기 선에서 학부모와 학생에게 주의를 주는 정도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경향이 있다.

담임교원이 선별하여 보다 세심하게 관리하는 대상은 ‘발전할’ 학생들이다. 대학 진학 혹은 좋은 직장 배치를 원하면 규율 위반이 기록으로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109 단속반 등의 더 강력한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에 “자극과 경종”을 주는 것이다. 반면 정치경제적 계층상 ‘발전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학생에게는 교원 자신이 연대책임을 물을 정도의 큰 사고만 치지 않도록 관리한다. 이러한 현실은 교원을 “학생의 보호자”로 정의하면서 “학생들속에서 건전한 발전에 지장을 줄수 있는 행위가 나타났을 경우 제때에 저지시키며 비판, 교양”할 것을 규정한 법률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다(「교원법」 제32조).

선생님이 봐줄려고 해도 못 봐줄 때, 그러면 어차피 선생님이 피해를 입지 않자면 반영을 해야 되니까 문제가 커지기도 하더라고. 대부분은 선생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꺾어버리면서 “이런 거 보지 마라. 니 앞으로 대학교도 가야 되고 발전해야 되니까.” 부모님 불러가지고 “어머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좀 자제해 주세요.” 이 정도로는 해요. 그런데 애들이 길을 가면 109하는 애들이 보고서 “어, 와봐.” 길에서도 막 뒤지거든요. 그런데 길에 가면 대부분 USB 들고다니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걸려요. 그 사람들 못 빠져나가요. (사례 3 구술녹취록, 41)

## 나) 청년동맹-학교 간 갈등과 규율 통제방식의 차이

「보통교육법」(2015년) 제45조에 따르면, 학교는 청년동맹과 “긴밀한 연계밑에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조직과 집단을 사랑하고 사회주의도덕과 법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교양하여야” 하나, 학교 현장에서는 청년동맹(지도원)과 학교(담임) 사이에 훈육 및 검열 방

식 등에 대한 충돌이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갈등은 김정은 집권 이후 청년 및 학생 대상 정치사상교양 작업이 강화되면서 한층 더 심화되는 측면이 있다.

북한의 다른 부문처럼 교육 역시 정치와 행정의 이중 구조로 이루어져있다. 학교의 경우 정치사상교양 부문에서는 청년동맹의 역할과 권한이 교원보다 크고, 행정과 학습은 교원이 전적으로 담당한다. 학생들의 규율 통제에 있어서 사실상 가장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행위자는 교원이 아니라 청년동맹지도원이다. 따라서 교원들은 청년동맹지도원의 학생 지도방식이나 학생호출을 드러내놓고 반대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적극 찬성하지도, 동의하지 않으며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교원이 많다. 담임교원이 학생의 규율 위반을 가능하면 자기 선에서 처리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청년동맹지도원이라든가 학급담임은 사이가 좋은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청년동맹이라든가 소년단이라든가 이런 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학급마다 보면 간부가 있잖아요. 분단위원장, 사상부위원장 이런 애들이 그 청년동맹이나 저기 소년단 소속이에요. (중략) 학급에서는 애네들을 좀 경제적으로도 좀 활용하고 두루두루 쓰면서 뽑았는데, 너무 이쪽에서 뽑아가니까 좀 사이가 안 좋죠.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지도 편달한답시고 교실에 들어와서 갑자기 막 가방 뒤지고 이러니까 안 좋아하기도 하죠, 보통은. (사례 20 구술녹취록, 70)

한 번씩 무슨 공개폭로, 뭐 불량녹화물 청소년 무슨, 그런 거 해요. (중략) 교양방법이 틀린 거야. 교육부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청년동맹. 아, 이 이상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아는 또 외곽단체요. 융합이 안 돼. 그런 게 보면서 우리가 뭐 싸우겠어 어찌겠어. 그래 해라. (사례 13 구술녹취록, 55-56)

규율 통제는 청년동맹과 학교 여부뿐만 아니라 지도원이나 교원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도 다르게 구성된다. 담당 교원/지도원의 단속의 강도나 빈도, 학생 통제와 훈육의 방식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학생들은 교원/지도원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다르게 규율을 수행해 나간다. 사례 8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더 열정적인”인 교원/지도원을 구분하고 그들이 “유별나게” 처벌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혹시 마주칠 일이 있다면 언행에 보다 더 주의를 기울였다. 반면, 사례 15처럼 적당히 “편한” 교원/지도원들에게는 다소 긴장을 풀고 대하거나 안심하고 규율을 위반하기도 한다. 학생 다수가 규율 위반의 집단적 감각을 조성해버리면, 교원이나 지도원 혼자 이 분위기를 역전시키기 어려워지기도 한다. 이처럼 다양하게 구성되는 규율 권력과 그에 대한 학생들의 기민한 수행 탓에, 학교 규율은 그 의도된 바 ‘강철같은 규율’에 도달할 수 없다.

쌤 나름인 거 같아요. 아까 그 공부 열심히 시키는 쌤은 완전... 여자 쌤인데 뽀뽀하게, 무조건 내 학급이 공부에서도 1등이고. 이런 쌤을 만나면 학생이 좀 힘들고. 저는 남자 쌤이었어요. 남자 쌤들은 “청소는 니가 알아서 하고, 빨리빨리 가자.” 이렇게 하고 좀 편안하게. (사례 19 구술녹취록, 32)

사로청지도원이 되게 고약해가지고 (중략) 맨 처음에 그 바뀌기 전에는 좀 말을 한 건 책임지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카리스마 있는 그런 진짜였었는데, 이쪽 쌤은 매 처음엔 기강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맨 처음에 좀 물렁물렁하게 노니까 애들이 다 그냥 친구처럼 그런. (사례 15 구술녹취록, 27-28)

#### 다) 화폐를 매개로 한 학부모-규율 권력 간의 협상

학교 현장에서 규율 권력이 국가 규율이 의도한 바와 다르게 전개 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요인은 화폐를 매개로 한 학부모의 개입이다. 교원과 청년동맹지도원 역시 배급을 받지 못하고 각자도생해야 하기 때문에, 학부모가 교원에게 '인사차림'을 많이 하거나 할당금액을 잘 납부하는 경우에는 학생에게 규율 위반이 발각되어도 교원이 알아서 사안을 무마해주거나 최대한 가볍게 처벌한다. 간혹 집단적 규율 위반이 발생했을 때, 일부 교원은 상납이 어려운 학생에게 노골적으로 "너는 아무것도 안 내는 게"라고 말하면서 해당 학생만 선별적으로 처벌하기도 한다. 다만 고급중학교 고학년들은 이러한 처사에 불만의 여론을 크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담임교원들은 "애들의 시선을 어느 정도 의식"하여 사안에 따라 차별의 완급을 조절하기도 한다. 사례 22와 친구들은 그러한 교원에게 "여우"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하였다.

이는 교원 개인의 일탈보다 사회구조적 현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교원은 배급을 받지 못하지만 일과시간이 학교에 완전히 복속되어 장사를 하기 어렵다. 게다가 교원도 교장에게 헌납 등을 통해 잘 보여야 하므로 학부모의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학부모는 교원에 대한 물질적 지원에 관심이 없다가도, 자녀로부터 교원이 경제적 조건에 따라 규율 통제에 있어서 차별적 대우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환경이 허락하는 선에서 현금, 담배 등으로 인사차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유로, 일부 학부모들은 학습지도 능력이나 규율 통제능력보다 "아이들 차별을 안 놓는"(사례 21) '인성'을 교원의 가장 최우선 덕목으로 여긴다.

일부 학생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불시 소지품 검열이 규율 권력의 경제적 이익과 직결된다고 평가한다. 사례 4는 학생으로부터 압수한

담배를 교원이나 지도원이 흡연함으로써 “사리사욕을 채운다”고 표현하였다. 또한 교원, 청년동맹지도원, 109 단속반 등은 학생의 규율 위반에 대해 학부모로부터 일정한 사례를 받고 무마해 주기도 한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외부 콘텐츠 단속을 강화하면서 109 단속반 등 외부기관의 학생 대상 외부 콘텐츠 검열이 매우 강화되었는데, 109 단속반은 교원/지도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금액을 받은 뒤 학생을 상급기관으로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켜 주기도 한다.

대체로 109 단속반에 걸리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소문이 나 있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받는 협박의 강도와 소요되는 거래 금액이 매우 클 뿐이다. 109 단속반은 학생을 단속한 뒤 별도의 조사실로 소환하여 장시간 강압적 조사를 시행하고, 학부모에게는 자녀를 교화소에 보내는 등 크게 처벌하겠다고 협박한다. 면담에 참여한 학부모들에 의하면 이 과정에서 부모들이 지불한 금액은 편차가 크긴 하지만 최소 1,000위안부터 10,000위안에 이른다. 5위안이 쌀 1kg 정도의 가격이라고 단순 환산해보면 쌀 200kg 이상에 상응하는 금액을 요구한 것이다.

그쪽 사람들은 돈도 안 통하고, 부모님이 무슨 직위에 있고 뭐 어떤 일을 하든 무조건... 심하면 총살당한다고 하더라고. (중략) 진짜 큰 금액이 아닌 이상 안 받아요. 만 원(위안) 이상. (사례 22 구술녹취록, 20-22)

엄포를 놓고 네, 막 당장 우리 딸애를 소년교화소를 보낸다고 그래. 너무 돈을 많이 받아내길래 집을 보면서 좀 없는 집 같으면 적당히 받아내고 또 살려주겠는데, 그래가지고 많이 줬어요. 그때, 109상무인지 거기 걸려가지고, 중국 돈으로 1,000원 넘어 냈어요. (사례 21 구술녹취록, 31-32)

이런 현상은 북한당국이 규율을 강화했다고 해서 반드시 의도한 대로 규율 권력이 전개되지만은 않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규율 권력이 강화될수록 화폐와 더 강력하게 결합하면서 결국 화폐가 규율을 압도할 빈틈을 만들어낸다. 특히 앞길이 창창한 자녀의 문제이기에, 부모는 가능한한 처벌을 경감시키고자 큰 금액도 마다하지 않고 지불한다. 그러므로 학교 규율과 화폐는 매우 긴밀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으며, 북한당국이 아무리 학교 규율을 강화해도 '강철'같은 규율이 유지되기는 어렵다. 특히 학생들은 어떤 규율 위반이 어느 정도의 화폐나 부모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지, 그 선을 기민하게 감각하며 이를 계산하여 행동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규율 위반을 둘러싼 성인 세대들의 협상을 목도하며 화폐가 강력한 규율 권력임을 생생하게 학습하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지능적으로 규율을 수행하는 데 자원이 된다.

구술자: 뭐 약간 조용히 처리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좀 이렇게 월요일 날이라든가 전교생이 다 모였을 때 비판을 받거나.

연구자: 조용히 처리하려면 부모님이 좀 사정을 해야 하는 거죠?

구술자: 네, 바로 바로.

연구자: 청년동맹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도 사정하면 넘어갈 수 있어요?

구술자: 그런 건 기본 청년동맹 선생님들이 하는데... 네, 넘어가는 거 같아요. (사례 12 구술녹취록, 24)

## 5) 체벌 금지 조치와 교권의 재구성

### 가) 교원의 위압적 태도와 학생과의 관계

「교원법」 제31조는 교원이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학생을 사랑하고 인격을 존중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학생들의 기억 속에서 교원은 인격적으로 학생을 대우해주고 사랑해주었던 존재가 아니라 권위적이고 무서운 훈육자, 어려운 존재 등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담임교원의 경우 입학부터 졸업까지 오랜 기간을 함께 하기에 정이 들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렵고 무서운 존재로 기억되는 경향이 있다.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교원의 위압성을 기억하는 만큼, 이를 교원이나 학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전반의 사회구조적 문제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어려운 관계죠. 선생님들은 좀 되게... 본인들을 (중략) 두렵게 할려는 그런 게 있죠. 애들을 일단 그렇게 했을 때만이 자기 교권을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들하고 좀... 애들을 되게 많이 혼내는 거 같아요. (사례 4 구술녹취록, 43-44)

제1중학교 재학생이나 학업에 관심을 지닌 소수의 학생을 제외한 일반중학교 학생들은 진로가 정해져 있기에 학업에 큰 관심이 없다. 때문에 교원의 열성적 학업지도나 진로지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담임교원도 학생들을 통해 큰 성과를 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들이 큰 규율 위반 사고 없이 졸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물론 “긍정감화”라는 오랜 교양 방법이 존재하긴 하나, 교원은 그러한 교양 방식까지 활용할 여력이 없다. 교원의 입장에서는 굳이 “어머니 같은 심정”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례 14는 교원의 역할을 출석과 조퇴 등의 행정처리 중심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냥, 출석해주고 조퇴시켜주고 뭐 이런. 근데 북한은 담임쌤 한번 맡으면 죽 끝까지 가가지고. 그래도 정은 많이 붙어요, 그냥 선생님이라든. 제가 좀 잘못된 거를 그래도 좀 가르쳐주려고 하는 존재랄까요. (사례 14 구술녹취록, 35-36)

교원에 대한 사회적 존중이 남아있지만, 시장화 이후 많은 교원이 학부모들의 지원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학생들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만큼 교권은 전보다 낮아졌다. 학생지도의 별다른 수단도 없으므로 교사가 권위를 세울 수 있는 장치나 기회는 많지 않다. 따라서 교사 입장에서는 학생에게 위압적 태도를 취하며 적당히 거리를 두고 체벌을 사용하여 강하게 훈육하는 것이 효율적인 직업 전략일 수 있다. 교원이 자신을 존중해 주고 부모 대신 진로상담을 해주었던 사례 15 역시 스스로가 예외적인 사례임을 이야기할 정도로, 담임 교원의 역할은 훈육에 집중되어 있다.

인격적으로 대해주려고 했던 거 같아요. 어떤 쌤들은 애들 의견이나 이런 데서는 거의나 다 무시하는 경향이 많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좋게 봐서 더 그런 게 돋보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을 대하는데 있어서 편차를 가지지 않았던 거 같아요. (중략) 대부분 군대를 가거나 군대를 가지 않으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정해져 있으니까, 쌤의 도움 별로 필요 없어요 (사례 15 구술녹취록, 29)

친구들끼리 이렇게 풀면 풀었지. 쌤한테 가서 하면 (중략) 학부모한테 소문나고 이러니까. 별로 좋은 소문 아니어가지고. 쌤들하고는 논의를 한 번도 안 했던 거 같아요. (중략) 고민 있으면 혼자 해결해야 될 거. (사례 2 구술녹취록, 30)



## 나) 가장 빈번한 학생 지도 수단으로서의 체벌

체벌은 북한에서 오랫동안 가장 빈번하게 활용된 규율 통제 수단이자 교사의 권위적 태도를 유지시켜 온 장치 중 하나였다. 체벌은 학생들에 대한 물리적 훈육을 당연시하거나 “남학생은 맞으며 크다, 학생 때는 맞아야 된다.” 등의 인식에 의해 정당화되었다. 아주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부모나 학생 모두 교원의 체벌을 크게 문제삼지 않았다. 부모들은 생계로 바쁘며 체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전학할 것이 아니라면 학생이 더 큰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냥 넘어가기도 했다.

거기 선생님들은 되게 강압적이시고, 좀 매도 자주 드시고, (중략) 저희한테 당연시되던 거다 보니까 “왜 우리가 맞아야 되냐?” 이런 의문을 못 가지고, “내가 실수했으니까 맞아야 되고.” (사례 8 구술녹취록, 3)

체벌은 지역, 교원과 학생의 개인 특성, 젠더 등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지역별로는 앞지대보다 국경 지역에서 더 빈번한 것으로 보인다. 평양에 거주했던 학생들은 강력한 수준의 체벌 경험이 없었으나, 국경 지역 출신 학생들은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폭력을 경험하기도 한다. 성별은 교원이나 학생 모두에게서 가장 큰 변수인데, 여성 교사가 지시봉으로 가볍게 치는 정도라면 남성 교사는 의자를 집어던지거나 상흔이 크게 남을 정도로 때리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 교원이나 청년동맹지도원의 경우 다른 과목 교원보다 체벌을 더 자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학생 성별 역시 중요 변수이다. 같은 위반이라도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 강하게 체벌한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심각한 규율 위반을 덜 저지르

는 경향이 있다는 점과 여성을 열외로 생각하는 남성 중심의 사회적 경향, 그리고 남녀의 성역할이 다르다고 보는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여자애들은 보통 좀 경하게 주죠. 남자애들은 강하게 주고. (중략) 차별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역할분이 정해진 거잖아요. 그 역할분에 따라서 저는 차별이 적용된다고 봐요. (중략) 출석률을 잘 지키라는 것처럼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있고, 상황에 따라. (사례 20 구술녹취록, 72-73)

그런데 시장화 이후 화폐개혁을 거치면서 체벌에 대한 학부모 향의가 증가하였다.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자녀 수도 감소하면서 체벌에 대한 학부모들의 감각도 다르게 구성되었다. 학부모들은 교원뿐만 아니라 학교장, 시·군 당 위원회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심할 경우 교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학부모도 나타났다.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식을 그렇게 때리냐고. 반발하는게 많았죠. 학교에 와서 선생님이랑 싸우거나 선생님 싸대기 때리고 머리 채 잡고 난리도 아니에요. “나도 한 번도 안 때렸는데 왜 남의 집 귀한 자식을 그렇게 때리냐.” (사례 22 구술녹취록, 22-23)

#### 다) 체벌 금지 조치와 교원들의 학생 통제전략

교원의 학생 체벌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면서, 2016년을 전후하여 학생 체벌 금지 방침이 여러 차례 학교 현장으로 시달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는 체벌을 지양하라는 한 두 문장의 형태로 교원들에게만 전달되다가 점차 교사의 형태로 확대되어, 학교 전체 조회시간에 학생들에게도 읽어주는 방식으로 규범성이 강화되었

다. 사례 25는 사안이 심각한 경우 교원회의에서 비판을 받고 해임되거나 광산으로 좌천되는 교원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시범게임”이었다고 표현하였다. 결국 이러한 조치에 대해 소문이 널리 퍼지면서 학생들이 체감하는 체벌은 대폭 감소하였다. 다만 그 지속성에 대해서는 학생마다 의견이 다소 다르다.

전에는 쌤들이 마음에 안 들면 때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졸업하는 해부터 고2, 고3 때는 그런 게 너무 많이 줄었어요. 쌤들이 학생 때리고 그래서 신소하고 하면... 방침 같은 게 너무 내려오고 해가지고, 막 학생 때려서 신고하면 그럼 쌤이 해임도 되고 그래서 저희 졸업할 때는 거의나 그런데 많이 줄었어요. (중략) 맨 처음엔 좀 쉬쉬했는데 그게 더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그 말 하나 가지고 “더 강화할 데 대하여 팽팽” 이렇게 내려오면서. (사례 15 구술녹취록, 22)

고3... 그때 체벌방침이 내려오긴 했는데 맞을 애들은 맞고, 방침을 종이에 써 갖고 와가지고 그걸 전교생 앞에서 읽어줘요. (중략) 덜 때리긴 하는데... 흐지부지된 거 같기도 해요. (사례 22 구술녹취록, 48)

교원들은 체벌 금지 조치로 안그래도 낮아진 교권이 더 낮아졌다고 토로하였다. 교원 처벌에 대한 사례가 공유될수록 너도나도 교원을 신소하는 일을 더 쉽게 생각하며, 체벌뿐만 아니라 학급 운영에 관한 내용까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학생들도 통제를 어길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교원에게 별다른 지원을 하지 않는 학부모일수록 신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교원의 생계를 돕는 학부모의 경우 자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많은 만큼 교원과 학생 사이가 좋아 체벌이 발생할 여지도 적기 때문이다. 어쨌든 교원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균형을 맞추기 힘들니 학생을 교양하거나 통제하기보다 일정 선 안에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이다.

학교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평가하는데, 저 선생이 좋더라. 아 때리는 선생을 어느 엄마가 좋겠어. 공부 못 배워주더라도 애들 사랑하는 만큼 중시하는게. 그러다 어쩌다 하나씩 때리지. 그러다가 어떤 때는 엄마랑 합의하고도 할 때도 있어. (중략) 이후로 애들 책벌 쥐도 “선생님이 욕하는 게 좋니, 하나 맞는 게 더 좋니?” 문화가 그렇게 돼 있는거예요. 아이들한테서리 빨아먹고 살아가는 선생님인데 그게 고객인데. (사례 13 구술녹취록, 1-2)

담임쌤들도 “더러워서 내...” 하고 그냥 애를 내쳐두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학교폭력 같은 게 사라지긴 했지만 대신에 교권은 사라진다는 거죠. (중략) 자식한테 관심이 많은데 경제력도 받쳐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애한테 담임도 잘해주는데 굳이 신소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진짜 신고를 많이 하고 그래요. (중략) 선생이 처벌받는 거를 몇 번 학생들이 보고 학부모들이 알아요. 그러면 “나도 그래야지.” 이러면서. (사례 20 구술녹취록, 53-54, 78)

베테랑 교원 일부는 체벌·강제보다 학생을 타이르고 감싸며 자신이 모범을 보이는 등 다양한 교양 방법을 사용한다. 이들은 교원 양성과정에서 심리학을 배웠지만 구체적 노하우는 자기만의 경험에서 나온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그 중에서 핵심은 집단주의, 곧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공부는 못해도 되지만 일 안하는 사람 제일 밉다.”라는 식의 가르침이 이에 해당한다. 사례 25는 교원 생활 초기 학생들을 때리고 위압적 태도를 유지했지만, 점차 경험이 누적되면서 체벌보다는 집단에서 소외시키는 방식으로 훈육 방법을 바꾸었더니 훨씬 효과가 컸다고 한다. 타인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에 대한 미안함 혹은 양심을 강조하는 방법도 유사한 맥락이다. 이는 고급중학교 학생들에게 또래집단이 중요한 규율 권력 중 하나라

는 점을 이용한, 교원 나름의 규율 통제 전략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공부할 때 선생님 산모범을 보여줘. 과외학습 때 있잖아요. 책 앞에다 가져다 놓고 교사도 뭔가 써. (중략) 결국은, 집단주의지. 니로 하여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고 괴로움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그걸 느끼지 못하면 너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봐야지. (사례 13 구술녹취록, 24-25, 52)

## 나. 학생들의 수행성

### 1) 수업 규율의 위반과 전유

평양이나 제1중학교를 제외하고, 한 학급에서 다수 학생은 학업에 큰 관심이 없고, 교원도 학업에 관심 있는 학생만 집중 지도한다. 일부 학부모는 고급중학생 자녀에게 학교생활보다 향후의 직업 혹은 경제활동이 훨씬 중요하다고 가르치기도 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다른 친구들의 수업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이상 교실 이탈, 딴짓 등의 수업 규율 위반은 큰 처벌의 대상이 아니며 학생들도 이를 잘 알고 있다. 가령, 시장 근처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 중에 배가 고플 경우 남학생들이 휴식시간에 월담해서 외부 음식을 사먹고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사례 18). 학업에 별 관심이 없는 경우 수업시간이 시작되어도 들어오지 않고 음주를 하기도 한다(사례 16).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자리에 앉아 딴 짓을 하지 않고 교원을 열심히 쳐다본다 해도, 체벌이 무서워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실제 수업에 집중하는 것은 아니다.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학업이 진로와 연계되지도 않으니 멍하니 앉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초점을 두는 것은 학업이나 규율 준수가 아니라, 안전하게 적당히 시간을 때우고 친구들과 노는 것이다. 어떤

학생들은 부족한 잠을 보충하고 방과 후의 시간을 준비하는 용도로 수업시간을 활용한다. 학생들의 전유에 교원들의 간접적인 공모가 이루어진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사례 15는 “수업이 없는 수업시간을 좋아했으며” 사례 23은 할 일도 생각도 없이 멍하니 앉아만 있었다. 사례 8은 수업시간에 소소한 규율 위반을 통해 지루함을 해소하였다. 그는 면담 과정에서 연구자에게 그 많은 수업을 어떻게 다 집중해서 들을 수 있냐고 반문하였다.

그렇게 차렷 자세로 앉아있었는데 머리에 든 게 하나도 없어요. (중략) 체육시간이 제일 좋았어요. 딱 시간은 별로 기억에 남지 않아요. 아무래도 수업시간에 그냥 앉아만 있고 이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들도 아마도 공부는 재미없었을 거예요. 명해서 앉아 있거나 진짜 선생님 계속 얘기하시고 나는 앉아서 이려고 있어야 되는데, 진짜 지루했어요. 옆 사람이랑 소곤소곤 많이 하죠. 아이들끼리는 저런 문화가 있죠. 글 적어가지고 숙... 그런 거 있잖아요. (중략) “하지마. 이런 거.” 하고, “네.” 하고 조금 있다가 또 하죠. 그 많은 수업 중에 그걸 어떻게 다 들어요? (사례 8 구술녹취록, 16-17; 21-23)

듣는 척을 하는 거죠. 그냥, 왜냐면 선생한테 혼날 수 있으니까. 저쪽은 아직도 그런 게... 폭력이. 학생체벌 같은 게 좀 있어갖고. (중략) 안 하려고 하는 애들은 방치하거든요.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고 잘 듣고 하는 애들은 계네를 위주로 그냥 공부. 공부 안하는 저희한테 관심이 없는 거죠. (사례 4 구술녹취록, 27; 32)

학업에 관심이 매우 낮았던 사례 2는 교과서 도난 시 변상해야 한다는 점을 우려하여 집에 아예 교과서를 두고 다녔다. 북한에서 교

과서란 “학교교육의 생명이며 무기”로서 단순한 학습용 교재를 넘어서는 “정치이데올로기 교화”의 주요 수단이다.<sup>27/</sup> 그만큼 북한당국이 교과서 제작에 비용을 소모해왔고, 학생들은 학기 초에 배급받은 교과서를 학기 말 다시 반납해야 하고 분실하면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사례 2에게는 배상책임이 가장 크게 다가올 뿐 교육도 정치이데올로기도 큰 의미가 없었다. 게다가 새 것과 다름없는 교과서를 학교에 가져가 봐야 교원에게 꾸지람만 듣고 도난당할 위험도 크다. 규율 권력이 교과서에 담아낸 정치경제적 무게 탓에, 학생은 오히려 교과서와 더 멀리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이다.

새 거 한 번도 안 펴고 바치는 경우도 많았어요. (중략) 잃어버리면 나중에 변상해야 되거든요. (중략) 집에다 다 놓고 안 가지고 다녔어요. (중략) 새 거 이렇게 나오면 쌤들이 이... 공부 안 했다는 게 알리거든요. (사례 2 구술녹취록, 38-40)

학년이 올라갈수록 출석, 지각, 이탈 등 학생들의 시간 규율 위반이 잦아지는 경향이 있다. 졸업에 가까워질수록 자신의 진로가 이미 결정되어 있으며, 학교생활이 사회진출이나 지식 획득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함을 보다 확고하게 깨닫기 때문이다. 동시에 학교 제도와 규율의 허점을 학생들이 ‘간파’하고 이를 활용하기도 한다. 북한에서는 제도상 12년제 의무교육이며 졸업 책임은 학생 개인이나 학부모가 아닌 학교에 있다. 그러므로 학생이 컨닝, 결석 등의 어떤 규율 위반을 하더라도 학교 차원에서는 퇴학시킬 수 없다. 학생들은 이러한 허점을 가진 규율을 자신의 필요에 맞게 전유하며 결석, 무단이탈, 컨닝 등의 각종 규율 위반을 자신있게 실천한다. 사례 2는 교과서를 놓고 다녔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낙제는 없으므로 마음 놓고

27/ 신원우 1947, 『인민교육』 제3집, 29(신효숙 2003, 194-195 재인용).

시험에 백지를 제출했다. 낙제를 하면 유급이 되고 졸업이 유예되는 만큼 오히려 사회 노동력으로 차출되는 시간도 연기되어 더 좋다고 생각했다.

재수하면 저야, 우리야 땡큐죠. 미성년자로 계속 남아 있는... 계속 보호를 받는데, 북한에서는 계속... 그냥 빨리빨리 졸업을 시켜서 일을 제공해야 되잖아요.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데. (중략) 백지장을 내든 낙제는 없어요. (사례 2 구술녹취록, 42)

## 2) 복장, 두발을 둘러싼 학생과 규율 권력 간의 동학

복장은 규제 항목이 많지만 비교적 처벌이 가벼운 규율로, 지역을 막론하고 위반 사례가 빈번하다. 학생들은 시장화 이후 태어났기 때문에 전 세대들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외부 콘텐츠에도 자주 노출된 만큼 나름의 패션·문화적 감각을 지니고 있으며, 그 실천을 통해 또래문화를 공유하고 싶어한다. 옷차림과 두발 규율 위반은 다른 항목과 달리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빈번하게 나타난다. 접경지역이나 무역이 잦은 곳이 내륙지역보다 외부 콘텐츠와 시장 유행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은 자세하고 엄격한 복장·두발 통제에 피로감이나 반감을 갖기 시작한다. 통제가 강화되면서 물품·의류를 압수하고 옷을 찢어 훼손하는 일이 잦아지고, 학생들은 지도원이나 검열하는 개별 단속반에 반감을 크게 갖게 된다. 그러나 정치지도자에 대한 반감을 표현하는 경우는 드물다. 정치 규율 상, 김정은이나 당을 직접 욕하는 것은 목숨을 전제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학생들은 복장과 두발 단속을 조심하지만, 규율 권력이 금한다고 해서 유행하는 옷차림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학교 졸업하기 한 2년, 한 1년 남으니까 좀 옷도 예쁘게 입고 싶고, 머리도 좀 규정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고 싶고 해서 (중략) 제재하고 하니까 반항심도 생기고. 그럴 때가 제일 좀 힘들었던 거 같아요. 불쾌하고..., 화가 나죠. “왜 입고 싶은 대로 못 입게 하나?” 라는 생각도 들고. 이 모든 것이 대통령에서부터 나오니까, 막 그 걸 거기에다 대고 하진 못하지만 그 밑에 관할하는 학교의 청년비서라든가 사로청지도원이라는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엄청 밉죠. (사례 15 구술녹취록, 2)

다른 학생들도 다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거다. 이해가 안 됐지만 일단 따라가긴 했었죠. 정말 싫었죠. 주름바지, (중략) 염색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노래, 한국노래랑 이런 걸 들으면 안 되는. 네, 당연히 거기서 안 들어야 되는 건데 몰래 듣는 거였지만도 그런 거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나... (사례 23 구술녹취록, 37)

학생들의 행위성에 때로 규율 권력이 일부 압도당하며 시장 유행에 학교 규율이 복속되는 양상도 포착된다. 경제난 이후 교복 배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은 교복을 시장에서 구매하거나 맞춰 입는 경우가 많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기술자에게 부탁하여 개인의 취향에 따라 교복에 크고 작은 변형을 가한다. 이처럼 때에 따라 학생 다수가 특정한 방식으로 교복을 변형하면, 학교 규율은 이에 조용하여 해당 방식을 갑자기 금지해 버린다. 학생들의 실천에 따라 교복 규율이 상시적으로 재구성되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규율 권력의 통제와 감시에도 일정한 틈새가 생길 수밖에 없다. 가령, 나팔바지를 단속하다가 일자바지가 새롭게 유행하면 일자바지를 금지시키고 나팔바지는 허용하는 식이다. 일자바지나 나팔바지나 교복을 변형한 것은 마찬가지로임에도 어떤 것은 허용되고 어떤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규율이 궁극적으로 통제하려는 바가 ‘변형’이

아닌 '유행'에 있음을 의미한다. 나팔바지든, 무주름바지든, 일자바지든 유행만 아니면 되는 것이다. 학생들은 바로 이러한 지점을 이용해 유행이 아닌 방식의 변형을 시도하고 규율 권력은 그 뒤를 따라간다. 이렇게 유행과 통제는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서로를 구성하고 학생들은 자신들의 감각대로 교복 입기를 실천한다.

[교복] 맞춰 입는데 그거 또 규정 있잖아요. 뒤 터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나팔이라든가 이거는 유행 따라가는데 한때 나팔바지 막 유행하다가 그계 속 없어지면서 일자바지가 유행하고. (중략) "유행은 물레바퀴다." 해가지고 돌아온다고. (중략) 교복을 또 변형을 해서, 일본식으로 학도복이라고 해가지고 세운 에리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단속을 하고. (사례 20 구술녹취록, 65-66)

### 3) 외부 미디어 시청

#### 가) ICT 리터러시를 통한 외부문화 소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정은 집권 이후 '불순녹화물' 시청 단속이 강화되고 연간 교육 계획으로 시달되었지만 이 목표는 달성되기 어렵다.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학생들은 시장과 함께 자란 세대들로, ICT 리터러시가 높아 예상불가한 위반의 면모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성인에 비해 외부 콘텐츠의 수용과 모방이 빠르며, 동일한 학교급 내에서도 저학년일수록 더 빨리 ICT 능력을 학습하며 외부문화에도 더 개방적인 태도를 취한다. 특히 2010년대 중반부터 스마트폰 보급이 급증하고 노트북이 확산된 기술사회적 조건 변화도 이들의 외부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또한 위반 여부가 즉각 판단되는 복장이나 두발과 달리, ICT 기기(휴대전화, USB, SD 카드 등) 혹은 외부 콘텐츠 시청 여부는 소지품

검사와 기기 재생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복장에 비해 처벌이 심하지만, 단속될 가능성도 낮다. 특히 USB나 SD카드의 경우 소형이기에 단속 상황에서 폐기하거나 훼손해 버릴 수도 있다. 단속반이 시청 현장을 급습하거나 누군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시청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파일의 출처도 기계적으로 추적하기 어렵다. 또한 매일 단속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은 등교 시 휴대전화, USB, SD카드 등을 몰래 휴대하며, 불시 검열을 대비해 다른 곳에 숨겨두기도 한다.

SD 너무 많이 쓰죠. USB보다 SD가 편하니까. 작으니까 덜 걸리죠. 덜 걸리는데, 대부분 걸리는게 애가 보다가 잡히면 “너 누구한테 빌렸어?” 하면 이렇게 돼서 다 그냥. [단속하면] 정말로 끊던가 먹는 애들도 있거든요. (사례 3 구술녹취록, 53-55)

김정은 집권 이후 단속이 강화되었지만, 그럴수록 외부 콘텐츠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도시가 농촌보다 빈번하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다소 과감한 경향이 있다. 한국 콘텐츠는 처벌 수위가 가장 높은만큼 학생들에게 가장 매력적인데, 무엇보다 언어가 통하기 때문이다. 사례 16은 한국 영화에서 “조국이 우리를 부릅니다” 하니까 “조국이 우리를 왜 불러?”라는 대사를 들었다. 이런 경험은 일부 학생들에게 다소간 사고의 변화를 촉발한다. 또한 한국 미디어를 접한 학생들은 드라마와 영화에 나온 욕부터 애칭까지 다양한 한국식 표현을 사용하며 한국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규율 권력의 통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익숙한 언어로 상연되는 새로운 문화를 향유하려는 학생들의 실천의지를 꺾기에는 역부족이다.

불순녹화물은 학교 내에서도 진짜 크게 보거든요. [불순녹화물을 학교에] 갖고 와요. 바꿀려고. [김정은 집권 이후 단속이] 엄청 세졌는데 더 많이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진짜 옛날 영화들만 봤거든요. 가까운 친구들 끼리만 봤는데, 지금 보면 애들이 다 신작만 보고, 엄청 많이. 지금은 대부분 애들이 고등학교 주머니에서 USB 하나씩 다 나와요. 대부분 다 한국영화 보죠. 네, 애들이 말이 통하니까. (중략) “자기야, 뭐 하나?” 이런 말 진짜 써요. (중략) 학교에서 “이색적인 퇴폐적인 말들 쓰지 말게 해라.” 계속 내려와요. (사례 3 구술녹취록, 37-38; 56-59)

외부 콘텐츠 시청은 지역별, 계층별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우선 부모에게 경제적 여유가 있을수록 자녀가 비싼 외부 콘텐츠를 시청하기 수월하다. 특히 한국 영화의 경우 다른 국적의 영화보다 리스크가 큰 만큼 인기도 많고 가격도 비싸다. 지역적으로는 평양, 평성 등의 ‘앞지대’보다 함경도와 양강도 등의 북쪽 지역에서 더 빈번하게 시청하는 경향이 있다. 국경지역일수록 USB 및 SD카드를 이용하여 외부 콘텐츠를 적극 공유한다. 적발 시 강한 처벌을 받는 순위를 학생들끼리 자체적으로 매기기도 하는데, 한국>미국/일본>영국>인도>중국 순이라고 한다.

혜산이나 다른 지역의 국경 도시들은 중국이랑 되게 거래를 많이 하고 있죠. 밀수를 한다거나 그런 게 많아서 좀 외부에 있는 그 게 유입이 많이 됐었어요. (중략) 항상 이미지가 그랬었거든요. “그 쪽은 물이 좀 나쁘다.” (사례 22 구술녹취록, 3)

휴대전화의 경우 길거리에서 단속반이 상시로 탑재된 앱이나 다운로드 된 파일 등을 확인한다. 학교에 휴대전화를 지참했다가 걸릴 경우 대체로 압수당하거나 부모에게 교사가 연락하여 계도하는 정도의 비교적 경한 처벌이 주어지기도 한다. 운이 나쁠 경우 청년동맹지도원에게 걸려 학교 전체 조회에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대체로 숨길 수 있고 검열을 미리 예고한다는 점, 담임교원에게 적

발되면 부모가 무마할 수 있다는 점 등은 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안전한 규율 위반의 가능성을 확인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점 때문에 사례 12는 외부 콘텐츠도 시청해 본 적이 없고 복장이나 수업 규율도 크게 위반한 적이 없는 전형적 모범생이었으나 휴대전화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자주 소지하고 다녔다. 한국 콘텐츠가 USB와 SD카드에 담겨 시끌벅적하게 규율 권력의 장을 휘저어놓고 있다면, 이처럼 휴대전화는 비교적 조용하지만 그 역시 빈번한 규율 위반을 이끌어 내며 학교 일상을 구성한다.

## 나) 학생의 외부 미디어 시청과 학부모 요인

외부 미디어, 특히 한국 드라마·영화 시청은 북한에서 정치적 사안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학생의 규율 위반이 발각될 경우 부모의 정치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동시에 학생의 외부 미디어 시청 양상은 부모의 규율 수행 태도나 정치경제적 지위와도 관련이 있다. 평양 출신 학생 일부는 아예 외부 콘텐츠 시청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부모가 계획해 준 방과 후 일과가 바쁘고 간부계층이었던 부모가 단단히 통제했기 때문이다(사례 12, 사례 6, 사례 7). 사례 7은 인도영화, 중국영화 정도는 친구들이 본다고 생각했지만 “설마 남조선드라마까지 본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정치경제적 지위를 가진 부모는 자녀의 규율 위반을 매우 경계할 수밖에 없는데, 학생이 심각한 수준의 법·규율 위반을 할 경우 가족이 연좌되어 직위해제나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 학생들은 단속의 무서움을 잘 모르고, 검열에도 잘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이를 우려한다.

저는 학교 때 아예 그런 걸 안 봤고, 학교 때는, 친구들 자체도 대개 다 그런 거 걸리면 다 집안에 안 좋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

라 부모들 이미지에 문제가 있으니까 부모들이 일단 통제를 엄격히 하는 거 같고. 저희 친척 애들을 보면 학급에서 뭐 봤으면 같이 보더라고요, 돌리면서. (사례 6 구술녹취록, 12-13)

아빠 엄마가 간부인 집 자식들은 그게 데미지가 엄청나요. 어차피 서민들은 그게 상관이 없어요. (중략) 갑자기 검열 들어오면 애들이 손도 못 가요. 너무 떨려가지고. 잡히면 진짜 어렵게... 매도 맞고 곤욕을 치르니까. (사례 3 구술녹취록, 53-55)

일부 부모는 자녀의 교우관계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학생들이 친구와 함께 영상을 시청하거나 친구로부터 파일을 구해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노트북 보유가 증가하고 메모리 기기도 점차 소형화되면서 부모들은 학생들이 노트북을 갖고 나갈 때 공부하러 나가는지, 학교에 가는지, 게임하러 가는지, 드라마를 보러 가는지 알 수 없다. 학생들도 부모의 반응을 알기에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다.

애들이 어떤 게 있냐면 자꾸 비사회주의. 이렇게... “꽃보다 남자” 이런 걸 하루 학교 갔다 와서 봤다고 해요. 누가 가져온 걸. (중략) 후에 말하더라고. 그때 바로 말한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야, 너 ○○네 하고 패지지 말라. 너 진짜 집 망하게 하려고 그러냐?” 막 이래가지고 그때 막 무서웠단니까. 부모들이 진짜 제일 쫓려 하는 거거든요. (중략) 우리 애가 그런데에 들어가면 온가족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애뿐 아니라 진짜 가족이 망하는 그런. (중략) 그전에는 이렇게 테이프 식으로 됐는데, CD가 돌다가 MP3로 돼가지고 계속 그게 발전하다 보니까 메모리 조그만 요파만한 거 쥐고 다녀요. (사례 11 구술녹취록, 30-31)

일부 교원은 외부 콘텐츠 시청 뿐만 아니라 흡연, 폭력 등의 문제 역시 가정교육이나 가족 분위기에서 비롯되는 영향이 크다고 주장

한다.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연구 참여자 중 109 단속반에 걸렸던 학생들은 모두 부모가 외부 콘텐츠 시청에 수용적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례 21은 딸과 함께 종종 외부 드라마를 보았고 딸이 109 단속반에 걸리자 돈으로 처벌을 면하였다. 그는 들길까봐 걱정했지만 말린다고 듣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딸과 함께 드라마를 보았다고 한다. 이때, 드라마 파일을 “어디 가 못 얻는”(사례 21) 부모들을 대신하여 ICT 리터러시가 높은 자녀들은 문화적 공급책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외부 미디어 시청에는 부모에 반하는 학생 개인만의 일탈을 넘어서는, 은근한 가족적·집단적 공모를 전제하는 측면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공부도 잘하고 가정교육이 좀 잘 돼 있는 애들은 담배를 그렇게 빨리 안 피우더라고요. (중략) 간부자식들은 그렇죠. (중략) 막 노는 애들끼리 돌려 보고, 돌려 보고 이러다가 걸리면 처벌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은 좀. 잘하는 애들은 안 봐요. (중략) 잘사는 동네일수록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그 부모들이 어떤 뭘 하는 부모들인지에 따라서도 많이 틀려져요. 일단 당간부 이런 사람들은 진짜 못하게 하니까 아예 못 볼 수도 있어요. 돈만 있는 학교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터치를 안 하니까 가만가만 볼 수도 있고. (사례 20 구술녹취록, 52, 60)

#### 4) 학교별·학년별 규율 수행 차이

학생들은 성인세대를 모방하기도 하지만 연령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상급학년의 학교생활을 보고 배운다. 규율 수행이나 위반 역시 마찬가지로 저학년이 고학년에겐 흡연, 연애, 패싸움 등을 전수받는다. 일부 교원들은 북한당국이 최근 상급학년을 모방하는 경향으로 인해 규율 위반 연력이 낮아졌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등

학교를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로 분리하였다고 평가한다(사례 13). 특히 교원들은 초급중학교까지 규율을 강하게 잡지 않으면 “고급중학교 2, 3학년에서는 다루지 못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고급중학교 학생과 초급중학교 학생은 규율수행 양상이 아예 다른데다가, 고급중학교 학생들은 초급중학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율 위반이 강력해지고 교원의 통제도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패 같은 게 요게 초급단계부터 살살 생기다가 고급단계로 이어져요. (중략) 초급 때는 조금조금씩 해서 욕 먹으면 듣고, 그래도 말이라도 듣고 하는데 고급중학교에 올라와서 나이가 딱 들고 이제 막 날떨 때가 되면은 그냥 초급중학교 때보다 사이즈가 커진다. (중략) 그때는 손에 잡히는 대로 던질 수도 있고, 찌를 수도 있고. (사례 20 구술녹취록, 62-63)

다만 졸업을 앞둔 고급중학교 3학년 즈음부터는 교사와 학부모 모두 학생들을 사실상 성인으로 인정하면서 규율 통제를 완화하거나 체벌을 지양한다. 특히 강하게 규율 권력을 행사했던 남성 교원이 규율 위반을 가장 쉽게 눈감아주거나 함께 공모하는 모습도 나타난다. 이는 교원의 방임보다 성인으로서의 인정과 수용, 남학생들의 경우 곧 시작될 장기 군복무 생활에 대한 걱정과 격려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사례 15는 “샘은 샘대로 학생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애들은 애들대로 샘한테 애들처럼 그러지 않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처럼 학생들 역시 한 차원 성숙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인식 확대와 협력 능력 발달이 이루어지는 청소년기 후기의 연령대적 특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진보교육연구소 비고츠키교육학실천연구모임 2015, 189-192).



고등학교 3학년쯤 되니까 선생님도 그냥 눈감아 주고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요. 특히 남자 선생님들이 많이 눈감아 줬어요. (중략) 남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가서 진짜 성격이 털털하신 분은 같이 술도 마시고 그랬어요. 선생님들도 어차피 졸업할 애들이고 졸업하면 다 할 거다, 이런 건데. (사례 22 구술녹취록, 5-6, 9)

학부모와 교원들에 따르면, 세대 간 규율 감각의 격차가 점차 증가하고 세대 간의 연령 차이 또한 축소되고 있다. 가령 5살 이상 10살 미만 정도의 연령 차이가 나는 형제자매 혹은 젊은 교원과 학생 사이에도 서로 혹은 제3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규율 태도에 차이가 나타난다. 한 학부모는 첫째 자녀보다 5살 어린 둘째 자녀 세대에서는 아예 ‘충성심’도 찾아볼 수 없고 개인주의적 경향이 더욱 강하다고 말한다(사례 21). 모교에 갓 부임한 청년 교원은 김정은 집권 이후 후배 학생들의 규율 감각이 보다 예민해지면서 규율 권력과 학생 사이에 모종의 언어적·비언어적 협력관계가 조성되었음을 경험하였다(사례 20). 학교, 청년동맹 등의 다양한 규율 권력 역시 무조건 규율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기준을 알려주면, 학생들이 그에 따라 적정 선에서 ‘안전’하게 지능적으로 규율을 전유하고 활용한다는 것이다.

저희 때는 막무가내였는데, 제가 교사할 때 보니까 애들이 좀 똥가 세월이 문명화가 됐는지 눈치 보며 하더라고요. 좀 약게. (중략) 애들한테도 알려주거든요. “나는 어떤 거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기준을, 나의 기준을 알려주고, 학교에서는 또 학교의 기준을 알려줄 거고, 청년동맹이나 소년단에서는 그 기준을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에 봤을 때 “그래 넘어가자.” 요런 거는 넘어가 주고, “도 넘는데?” 이러면은 확고하게 조지고. (사례 20 구술녹취록, 69-70)

제1중학교와 일반중학교 등 교종에 따라서도 규율수행의 차이가 나타난다. 학업성취와 부모의 경제력이 비교적 좋은 제1중학교의 경우, 겉보기에는 '학풍'이 잘 잡혀있는 것 같지만, 학생들이 가장 지능적·적극적으로 외부 콘텐츠를 소비한다는 점에서 양면적 특성을 지닌다. 제1중학교 학생들은 학업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나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복장, 수업 및 시간 등에 관한 명시적 규율 위반이나 마약, 패싸움 등의 큰 사건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한다. 그러나 교원과 학생들은 제1중학교 학생들의 외부 콘텐츠 시청이 더 빈번하다고 증언한다. 공부를 잘하는 것은 부유한 가정환경을 지녔다는 뜻이고, 그러한 경제적 계층조건은 외부 콘텐츠 시청에 필요한 기술적, 경제적, 지리적 자원과 기회를 마련해주기 때문이다. 특히 1제중학교 학생들은 IT 기술 수준과 디지털 리터러시가 일반중학교 학생보다 높아 단속에도 더 기술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애들이 공부 따라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맞을 짓을 하고 있겠어요. (중략) 일반중학교 애들은 약이 문제라면 1중학교 애들은 문화가, 한국문화 같은 걸 많이 봐서 문제죠. [제1중학교 학생들이] 더 많이 봐요. 왜냐면 애들이 다 컴퓨터에 능통하고 있으니까. 컴퓨터 체계 자체가 계속 업데이트 되는 체계가 아니에요. (중략) 자기 입맛에 맞게 바꾸는 애들이 있어요. (사례 18-1 구술녹취록, 23)

1중학교, 외국어학원 이런 애들은 더 심하거든요. 불순녹화물 정말로 심해요. 보는데, 저희들보다 더 많이 까져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는데, 불순녹화물 이런 게... 저희도 보면, 저희 고등학교 때도 저희가 못 본 거는 다 개네한테서 오는 거고, 이게 더 유통이 잘돼요, 그런 애들이. [그 학교에서]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오는 거죠. 어차피 개네는 시내에서 놀다 보니까, 국경이 딱 가까이 있잖아요. 국경에서 접하는 애들이, 사는 애들이 있다보니까 다 중국에

서 들어와요. 중국에서 노트북 받으면 거기에서 저장돼 있고 하면 그거 USB에 카피해 가지고 그냥 또 들고 들고 하니까. (사례 3 구술 녹취록, 38-39)

반면, 제1중학교 학부모 일부는 자녀의 지능적 규율 위반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며 자녀의 규율 위반 가능성도 매우 낮게 생각한다. 이는 제1중학교 학생 중에는 학업성취와 성실함을 무기 삼아 규율 위반 사실을 부모에게 기술적으로 잘 숨기는 능력이나 경향이 있는 학생들이 많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부모 역시 자녀가 ‘일탈’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부모는 자녀의 ‘똑똑함’을 잘 알지만 그 ‘똑똑한 자녀’가 지능적으로 규율을 위반하거나 전유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이다.

애들 자체가 “나는 졸업해서 군대에 간대. 뭐 공부를 하겠냐?” 뭐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1중은 학풍이 딱 서 있어. 들어가면 벌써 교실마다 이렇게 조용하고, 그 다음에 딱 아이들이 다니는 것도 복도에도 질서정연. 딱 이렇게 되거든요. 뭔가 분위기가 완전 틀리거든. 일반학교에 가면 뛰는 애들도 있고, 구석구석 담배 피우는 애들도 있고, 넥타이 같은 것도 안 매고. 애들이 이렇게 돌려 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옷차림 자체가 다 좀 이렇게 단정하지가 않아. (사례 11 구술녹취록, 11)

공부, 조직생활을 제일 잘한다는 아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중략) 우리는 1고중이다. 이렇게 하고. 1고중에서 일반 학교보다 공부는 많이 시켰으니까. 그래 아이들이 인성은 도덕적으로는 이쪽 아이들 보다... [나아요]. 이쪽 아이들 속에는 좀 불량기... 도둑질이요. 학교도 엄청 무작정 안 나오고 이런 게 많은데 (중략) 몰랐는데 담배 피.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뭐 조그말 때부터 피웠다고. (사례 21 구술녹취록, 13)

---

## 2. 또래관계와 학생문화

### 가. 또래 관계와 관계 맺기의 실천

#### 1) 또래 관계와 관계 맺기

북한식 사회주의 교육학에서 규정하는 이상적 또래관계는 “호상 도와주는 동무관계”이며, 또래 관계는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교수환경 중 하나로서 “정신육체적발육이 가장 왕성하게 진행되는 청소년시기에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에게 (중략)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김순 2013, 217). 더불어 또래 간의 이상적 관계 맺기는 “집단주의적생명관에 기초하여 (중략)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의 관계로 결합되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화목하게 생활하는 기풍”을 담지하는 것이다(김운진 외 2008, 188). 이에 따라 청년동맹에서도 속보, 영예게시판 등을 통해 “학생청소년들속에서 발휘되는 긍정적모범들”, 곧 또래 친구들의 긍정적 사례를 소개선전할 것을 권하며 “모든 학생 청소년들이 자기들도 그 모범을 따라배워 영예게시판에 소개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도록” 할 것을 강조한다(신영철 2016, 159-161).

학생들 역시 실제 일상에서 친구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는 생애주기적 특성인 동시에 북한 특유의 집단 문화가 학생세대에서 발휘되는 양상일 수도 있다. 가령, 남학생들은 자기 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놀이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도 꽤로 몰려다니는 측면이 있다. 이렇다보니 또래관계는 학교 규율이 의도한 바와 다른 방향으로 학생들의 일상을 조직해 나가며 때로는 학교 규율을 넘어서는, 또 하나의 규율 권력으로서 의미를 갖기도 한다.

거기는 중2병이 아니고 고2 때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중2병이. 애들이 학교도 잘 안 나오고 쌤한테 막 덤비고 하니까. (중략) 학교를 안 다니는 애들을 사귀어가지고 걔들 따라다니다니니까 학교 안 나오게 되고. (사례 16 구술녹취록, 52)

다수의 학생들은 학습보다 또래관계를 우선시하고 즐거워하였고 “공부보다는 친구들과하고 놀던 그 기억이 제일 많이” 남았다고 표현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 따르면, 학교 수업은 지루했고 교원, 청년동맹지도원 등의 규율 권력은 피하고 싶은 것이었지만, 친구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그 괴로움을 상쇄시켜주었다. 특히 일반 고급중학교에서는 대학 진학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학습보다는 의무감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많은 만큼, 학습보다 또래관계에 더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다. 고급중학교에 진학하고부터는 친구들과끼리 돈을 모아 시내 이곳저곳을 놀러다니기도 한다.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앞지대’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나 제1중학교 학생의 경우 성적을 중요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구 관계를 소홀히 하지는 않는다.

북한에서도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중략) [나는 친구들에게] 잘 배워줘요. 왜냐면 나는 배워줄 때, 더 많은 걸 얻는다고 믿거든요. (중략) 다른 애들한테 존중을 좀 많이 해줬어요. 여자애들은 똑같이 대해줬고.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좋아해요. (사례 18-1 구술녹취록, 28-29)

학교를 안 갔으면 좋겠는데, 가야만 하는 곳이잖아요. 졸업을 해야 끝나는 곳이잖아요. [그래도] 재미가 있긴 있죠. 재미있는 이유는... 내가 어리고 그럴 때는 딱히 재미있는 기억이 없는데, 졸업할 때 돼서 친구들이랑 그런 같이 다니고 그런 과정이 좋았던 거 같아요. (사례 15 구술녹취록, 54-55)

북한의 학교에서는 입학 후 한 번 구성된 학급은 졸업까지 바뀌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학생들은 하루 일과 중 친구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다. 따라서 학급 내에서는 대체로 두루두루 친하지만, 조금 더 친밀한 동성 간의 무리가 있거나 '패'가 여럿 존재한다. 패의 구성인원은 여학생일 경우 4-5명, 남학생일 경우 그 이상도 있다. 학생들마다 다르지만 보통 내밀한 대화가 가능한 친구는 소수이며, 진로 논의는 부모와 하고 연애상담 등은 친구와 한다. 그 외에는 고민상담을 딱히 타인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한 학급이 3년을 함께 하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가고 졸업이나 입대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서로 동질감을 느끼고 더 친밀해지기도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는 교사가 주도하여 옷, 쌀 등으로 도와 주기도 한다. 함께 군에 입대한다는 동질감이나 연대의식이 작용하면서 졸업 직전에는 우정이 더욱 깊어진다고 한다.

초급중학교 때랑은 그냥 애들이 친구끼리 사이좋거나 이런 것도 별로 없었던 거 같고, 그런데 고급중학교 이렇게 올라오고 하니깐 애들 다 가까워지기도 하고... 조금 있으면 군대도 나가고 해야 되니까, 그때는 서로 위하려는 마음도 좀 생기고 친구들끼리 사이가 좀 좋아지고 했던 거 같아요. (사례 15 구술녹취록, 5)

## 2) 젠더와 정치경제적 계층에 따른 또래 관계 구성

북한에서 이상적 학급반장은 “공부를 잘하며 통솔력과 신망도 갖춘 남학생”이며(신영철 2016, 23), 실제로도 학급을 통제·통솔하는 리더십을 갖춘 남학생을 선호하여 학년급이 높을수록 물리적 힘이 센 남학생이 반장이 되는 경우가 많다. 물리적 힘이나 남성중심적 리더십을 선호하는 사회 분위기가 학교에서도 공유되고 있으며, 이러한 남성 선호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왔고 쉽게 바뀌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령, 2016년 출간된 청년동맹 및 소년단 지도서에는 여학생도 “도와주면 능히 학급반장사업을 잘할수 있을 것 같다.”는 1950년대 후반의 “혁명일화”가 언급되는데(신영철 2016, 22-23), 이는 1950년대 후반이나 2010년대 후반이나 남성 리더십을 선호하는 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음을 보여준다. 성별뿐만 아니라 부모의 지위 역시 중요한데, 특히 반장과 분단위원장의 경제적 여건은 학급 운영에 직결되기 때문에 교원이 임원을 선출할 때 부모의 정치경제적 지위를 따져볼 수밖에 없다.

학급반장이랑 분단위원장이 제일 큰 간부인데 그 둘은 좀 경제적으로 받침을 해줄, 아무래도 학교에서 뭔가 돈을 써야 될 때 열성자들이 다 내서 하나까 그 둘은 좀 공부를 못해도 돈 많은 애들 시키거든요. (사례 9 구술녹취록, 25-26)

학생들은 유사한 정치경제적 계층끼리 패를 구성한다. 간부 및 부유한 집 자녀들의 패에는 반장, 학교 청년동맹 위원장 등의 리더가 속해 있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학교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패는 대체로 부모가 충분한 지원을 해줄 수 있고 학생 역시 친구들에게 돈을 여유롭게 쓸 수 있는 학생이 많다. 매력적 외모는 남녀를 불문하고 인기를 끌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한데, 위생, 영양상태, 옷차림 등의 경제적인 배경과도 연관이 된다. 물론 예외적이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어도 배려심이 많거나 친구들을 참여하도록 만드는 리더십이 있다면 리더가 될 수 있다.

첫째 잘생기고, 둘째 돈 많고, 셋째 옷 잘 입고, 뭐 이런 거. 그 뒤따라 잘생기면서 좀 나대는 애들 있잖아요. 뭐 말하자면 그룹도 만들어서 뭐 그... “이건 내 그룹이다.” 그런 애들이 잘나가지 않았을까. (사례 5 구술녹취록, 37)

친화력이 좋은 애들이 짝이죠. [학급 간부도] 생활도 괜찮고 그런 애들. (중략) 여자에 중에 어떤 인싸 같은 애는 뭔가 남자들하고도 정말 말을... 얘기를 잘하고. (중략) 남자들은 좀 세고... 싸움 잘하고 세고 생활도 좀 괜찮은 애들이 하는 거 같아요. 엄청 못 사는, 못 사는 애들도 리더가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친구들... 배려심이 좀 많고, 친구를 잘 도와주는 친구. (사례 23 구술녹취록, 59-60)

남학생 패와 여학생 패가 상부상조하며 중심 패끼리 연합하기도 한다. 따라서 한 패의 리더는 친구들을 이끄는 능력뿐만 아니라 다른 패와의 교섭력도 갖출 필요가 있다. 각 학교의 리더그룹끼리 종종 연합하여 놀기도 한다. 학급에서는 “대가리”라고도 불리는 중심패가 전체 분위기를 좌우하는 특성이 있다. 담임교원이 경제적 지위만 보고 선발한 반장이 음주, 이성교제, 흡연을 즐기는 패에 속해 있을 경우, 리더 패에 따라 학급과 학교가 움직이면서 때로 학급 내 다른 학생들이 이에 적응하지 못해 단체로 출석률이 저하되기도 한다(사례 2).

분단위원장, 사상위원장 등 청년동맹 임원들은 청년동맹지도원이 선발하는데, 이들 중 일부는 규율지도라는 명목 아래 친구들을 강압적으로 대하고 친한 친구의 규율 위반은 눈감아주기도 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조직적 지위를 활용하여 규율 권력을 전유하고 유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리자적 권력을 휘두르는 학생일수록 학교 밖에서는 더 많은 규율 위반을 저지른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북한 전반의 사회구조, 곧 통제·검열 기관 간부일수록 더 안전하게 비법(불법)행위를 하는 관행이 학생세대로 전수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청년동맹활동. 그거 진짜 뭐랄까 오지랖이라고 할까요. 선생님들이 굳이 감시하는데, 우리끼리 나가가지고 애들 치마 짧게 입고 화장하고 오면은 “너 다 지워.” 이려고 뽑주는 (중략) 그런 애들이 (중략) 학교 내에서는 되게 조신하게 한듯 안 한듯 꾸민 듯 안 꾸민



듯 그러고 있는데, 밖에 나가면 난리 나는 거죠. (중략) 선생님도 아니면서 많이 뭐라 했어요. (중략) 친한 애는 또 다 봐줘요. “너 왜 그러고 왔어? 나 말하기 민망하잖아. 다음부터 그러지마.” 이려고. (사례 8 구술녹취록, 26-27)

반면, 한 학급 내에서 장기결석생, 경제적 최하층, 어울리기 좋아하지 않는 성향의 학생 등 소수는 소외되거나 패에 참여하지 않는다. 입성이 깔끔하지 못하거나 좋지 못한 냄새가 나는 학생 역시 “자연스럽게 좀 따돌림 당하는 편”이다.

학생들에게는 마음이 잘 맞거나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친구관계 형성의 가장 첫 번째 요건이며, 경제적 지위는 선호 항목으로 친구에 대한 호감을 가중시킨다. 가령, 느낌에 잘 맞을 것 같아서 친해졌는데 ‘경제적 형편도 좋은’ 것은 친구에 대한 만족도를 더욱 높여주는 요인이라는 것이다(사례 7). 또한 학생들은 처벌 위험이 높은 불순 녹화물 등 외부 콘텐츠를 보다 걸렸을 때 민폐를 끼치지 않을 정도로 푹푹하고 정치적 감각이 있으며 의리 있는 친구를 선호한다. 돈이 없어도 마음이 맞고 성격이 맞으면 친구가 될 수 있고, “모든 면에서 자기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말하지 않아도 끼리끼리 모인다는 것이다. 반면 돈이 많거나 공부를 잘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큰 인기가 없고 신뢰관계를 쌓기도 어렵다.

상처나 비밀 같은 것도 서로 지켜주고, 그런 애들끼리 그렇게 무리가 형성 되는 거죠. 아까처럼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는 그렇게 같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 만약에 한국영화를 보다 그 친구가 뭐 신고를 하면 다 뭐... (사례 4 구술녹취록, 15)

### 3) 남학생들간의 폭력과 '싸나이문화'

남학생의 경우 정치경제적 계층과 무관하게 싸움을 잘하는 학생끼리 종종 한 패를 구성한다. 공동의 적을 상대로 함께 싸우면서 전우애와 친밀성을 높이는 것이다. 물론 패싸움은 학교에서 금지하는 반학교문화 중 하나지만, 패싸움에 가담하는 남학생들은 싸움이 '진정한' 우정 형성의 관문이라고 생각한다.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해나갈 때야 비로소 믿을만한 친구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패싸움이라는 '싸나이(lads) 문화'<sup>28/</sup> 사례 4가 언급한 '몽치지 못하고 빠지는, 생각이 다른 애들'을 걸러냄으로써 친구를 분별하고 '우리'를 빚어내는 장치(apparatus)이기도 하다. 이 문화에 심취한 남학생들은 그들 나름대로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학급정리'의 명분 하에 조직적으로 폭력을 사용하기도 한다.

성인 분들도 그런 문화가 있지만은 고등학교가 더 심하거든요. 일진문화라 할까. 패싸움도 하고 너무 심해요. (중략) 싸움도 잘하고 그런 애들끼리 이렇게 또 연합, 몽치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중략) 같이 싸우고, 복수해주고, 그러면서 좀 돈독해지고, 사이가 좋은 것만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하면은 그 친구에 대한 중요성을 잘 깨닫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좀 상황이 힘들 때 같이 겪고 하면 할수록 이렇게 되게 친구들 사이가 가까워지지 않나. 빠지는 애들 있으면 더 이상 친구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다 그냥 좀 몽쳤죠. 마음이 다 맞고 애들이 좀... 생각이 다른 애들하고는 같이 못 있니까. (사례 4 구술녹취록, 9-11)

28/ 백인 남성 노동자 계급과 그 자녀들의 계급재생산방식을 연구한 폴 윌리스(Paul Willis)의 저작에 등장한 표현으로, 노동자계급 남학생들이 반학교문화를 수행하며 자기 집단과 자신을 정체화하는 특유의 방식을 의미한다(P. Willis 1981, 34-35).

학급도 정리하고 뭐 이러니까. 좀 갑치는 애들 있거든요. 싸움 완전 잘 하지도 않고, 완전 못 하지도 않는데, 중간인데 더 한심한 애들 때리는 거. 자기보다 더 싸움 못 하는 애들 때리는 거. 우리가 보기에는 재가 잘못했는데 때리는 거 같거든요. 억지 쓰는 거 같은. 우리가 가서 “이거 뭐냐? 일로 와.” 그래서 우리가 때려놓거든요. 개를. (사례 2 구술녹취록, 34)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북한 남학생들의 패싸움 문화는 돌부터 시작하여 칼, 망치 등의 흉기를 휘둘러 상해와 사망이 발생하기도 하는 심각한 수준이었으나,<sup>29/</sup> 2010년대 중후반부터는 다소 완화되었다. 이는 일부 학부모들이 교사의 자녀 체벌에 강하게 대응하였듯 사회 전반적으로 폭력을 지양하는 인식과 관행이 확산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폭력성이 감소했더라도 일부 남학생들 사이에는 여전히 주먹 서열, 기싸움, 영역별 패 장악 문화가 상존한다. 개인 간의 싸움과 달리 집단(패) 간의 싸움은 더 폭력적이고 흉기 사용도 여전히 빈번하다. 지역 감정처럼 구역 간의 경쟁이나 감정이 유달리 나쁜 관계도 있어서 패 내부에서 싸우다가도 다른 패와 싸울 때는 바로 연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싸움을 잘하는 것을 남성적 능력으로 인식하는 ‘싸나이문화’가 북한 사회 전반에 만연한 측면도 있다. 또한 북쪽 지역일수록 평양이나 ‘앞지대’에 비해 폭력 문화가 뚜렷하며,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남학생끼리의 폭력 문화가 더 강한 경향이 있다.

애들이 칼 차고 다니고, 흉기 들고 다니고 망치 들고 다니고 막 이래요. 제가 올 때까지만 해도, 제가 교사할 때까지만 해도 많이

29/ 북한 반학교문화 중 하나로 패싸움을 다룬 2000년대 연구에서는 패싸움이 수시로 벌어지며 주먹과 돌을 기본으로 하되 때로 삽, 곡괭이, 칼 등의 사용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조정아 2004a, 136).

없어졌거든요. 그때는 애들이 싸운다고 해봐야 그냥 싸우는 정도였고. 저희 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애들이 칼 들고 다니고. 학교 졸업해서 사회 나간 애들도 이게 서클 같은 게 있어가지고 칼 들고 싸우고. “찔려서 누구 죽었다.” 그런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그런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진화를 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서 많이 괜찮아졌고. 학교 분위기는 그렇게 막 변했거나 이런 건 못 느꼈어요. (중략) 망나니들도 구역 있잖아요. ○○시 안에서도 구역이 있는데. ○○이랑 ○○은 지네끼리 싸우다가도 ○○ 쪽이랑 싸운다 하면은 다 뭉쳐요. (사례 20 구술녹취록, 7-8, 48)

학교랑 학교끼리 패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애들이 막 무섭게 나가더라고요. (중략) 한 학년 한 학년 올라오면서 좀 순해지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싸움도 많이 안 하고. 그전만큼 진짜 뭉둥이 들고나와서 싸우거나 칼 들고 이러진 않았어요. (사례 22 구술녹취록, 11-12)

남학생들 사이에는 힘의 서열에 따른 ‘후견’문화도 포착된다. 체구가 작은 저학년 남학생에게 다른 남학생들이 종종 시비를 걸거나 폭력을 행사하는데, 싸움을 잘하거나 체육을 하는 형이 있을 경우에는 봐준다는 것이다(사례 24). 이는 남학생들의 피아인식이 개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 간의 전체 위계질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방증한다.

패싸움이나 물리적 충돌과 같은 상호적 폭력은 정도가 약해졌지만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한 명에게 다수가 물리적, 심리적 폭력을 가하는 집단 따돌림의 형태로 변형되기도 한다. 교원인 사례 3은 구타를 동반한 학생 간 집단 따돌림이 심각해져 피해 학생이 고통을 받지만 아직 학부모들도 잘 모르고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간 북한 사회에서 학생들 간의 갈등이나 폭력을 크게 문제 삼지 않

있던 데다가 따돌림에 관한 개념도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학생들 사이의 ‘싸나이문화’는 풍선효과처럼 일부 변형된 것일 뿐, 축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어느 한 명을 왕따 시키고, 지금 보면 그렇게 있잖아요.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었고, 그런데 보면 지금은 그게 있어요. 혼자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학교생활 진짜 힘들고, 그런데 부모들이 몰라요. 그 애 부모만 몰라요, 정말로 있어요. 구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뤄지거든요. (사례 3 구술녹취록, 53)

## 나. 또래 간 놀이문화

### 1) 놀이의 시공간

학생들의 또래문화는 놀이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놀이 시간은 주로 명절, 휴일, 방학, 동원 없는 일요일이나 평일 방과 후, 생일잔치 등이며, 장소는 대체로 부모가 부재 중이거나 전력공급이 원활한 집이다. 대도시에서는 식당, 놀이공원 등의 외부 장소에도 가지만 학생 전용 놀이 공간은 별로 없다.

학생들은 주로 패 단위나 그보다 작은 규모로 모여 노래 듣고 부르고 춤추기, 카드, 윷놀이, 컴퓨터 게임, 콘텐츠 시청 등의 놀이를 즐긴다. 초급중학교 때와 달리 약간의 현금 및 현물성 내기 게임을 하는데 상금은 개인이 갖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함께 먹을 간식거리를 구매할 때 사용한다.

증폭기, 컴퓨터, 노트북 등의 콘텐츠 재생 기기가 놀이의 필수 요소라는 점도 특징적이다. 이는 학생들의 또래 간 놀이문화에 음향이나 영상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생들이 향유하는 음악, 춤, 영화 등의 구체적 내용은 함께 하는 친구, 놀이 공간에

따라 달라진다. 성인과 함께하거나 공공장소일 경우 북한 음악을 틀고 따라부르며 어른들처럼 민속무용 비슷한 춤을 춘다. 반면 친구들과 집에 모여 놀 때는 중국 EDM이나 한국노래를 듣고 부르며 한국식 창법과 새로운 춤을 추기도 한다. 이때 가무는 아파트나 이웃이 가까운 주거형태가 아니라 마당이 있고 거리로부터 먼 실내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언제 단속에 걸릴지 모르니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작게 틀고 창문도 모두 닫는다.

특히 정보화와 함께 '전민과학기술인재화'나 과학기술인재증시 정책 등이 강조되면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컴퓨터나 노트북을 사주고, 이에 따라 ICT에 기반한 학생 놀이문화도 대거 등장하였다. 단체 컴퓨터 게임은 '새 세대' 학생 놀이문화의 정점을 보여준다. 학생들은 PC방 대신 전력 공급이 원활한 공간에 모여 각자 노트북으로 함께 게임을 즐긴다. 빛과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고 노트북용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라면 어디든 PC방이 되는 것이다.

지금은 대부분의 집들이 방이 다 있어요. 문을 다 닫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시내는 그나마 전기가 다 오니까 공장전기를 따로 땡겨가지고 쓰거든요. 그렇게 쓰면 애들이 망케이블 가지고 와서 국가망 아니고 자기들끼리 망을 연결해서 게임하고. (중략) 부모님들이 “게임을 하든 뭘 하든 컴퓨터는 해야 된다.” 이제는 이 인식이 있어가지고 애들을 많이 해줘요. (중략) 분식집 뭐 밥 먹으려고 많이 가죠. 애들만이 놀 수 있는 공간은 그렇게 없어요. 집에서 많이 놀죠. (사례 3 구술녹취록, 59-60)

전기가 없잖아요, 북한에. (중략) 호텔에서 전기를 쓰니까 그쪽에서는 전기를 쓸 수가 있었어요. 보일러실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같이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토요일 밤에 들어가면 일요일 날 점심에 나와가지고, 하루종일 집에 와서 다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이랬었거든요. (사례 22 구술녹취록, 14)

경제적 여유가 있는 때에는 한국 영화 등의 외부 콘텐츠를 사서 볼 수 있는 화폐, 기기, 공간,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이런 경우 집에 전력공급이 안되더라도 돈을 주고 공장이나 상업 시설의 전력을 끌어쓸 수 있다. 이처럼 학생들의 놀이를 통해 부모의 지원, 국가 재산인 전력, 과학기술중시 정책 등에 대한 총체적 전유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생활이 어렵거나 넉넉하지 않은 계층에서는 노트북이나 휴대전화를 보유하지 못해 학생들이 함께 게임을 하거나 한국 영화를 시청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한겨울을 제외하고 북쪽 지역에서는 명절이나 휴일에 꽤 단위 혹은 그 이상 다수가 냇가나 강가에서 먹고 노래하고 춤추는 문화가 뚜렷하다. 농촌이나 북쪽지역일수록 집단 놀이문화를 즐기는데, 특히 여름에는 음식을 해먹고 해수욕, 춤추기, 뗏목이나 고무배 타기 등 자연을 즐기기도 한다. 자연 지형이나 지물을 이용한 놀이, 예를 들면 사격장 근처에서 ‘탄피 따먹기’, 도로에서 롤러스케이트 타기, 강이나 하천 근처의 피크닉·수영·썰매 등과 딱지치기, 물총쏘기 등의 놀이도 한다.

학생들의 경우 친구들과 숙식을 함께 하면 더 친해지고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고(사례 1), 함께 도시락을 먹기만 해도 재미가 있다(사례 10). 특히 매일 밤 학급별로 돌아가며 불침번을 서는 ‘경비’ 활동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순번이 돌아오는데 필수활동은 아니지만 친구들끼리 놀 수 있는 재미가 있어서 많은 학생이 참여한다. 초급중학교에도 경비활동이 있긴 하지만 학생들이 참여를 꺼리는 경향이 컸다면, 고급중학교에서는 친구들끼리 어울려 노는 것을 즐기 시작하면서 경비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은 아쉬워한다. 학교 경비실에 학급 학생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학생이 교사에게 술을 사주거나 교사와 학생이 함께 술을

마시며 모종의 공모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때, 보수적인 부모는 자녀의 경비활동 참여를 제지하기도 한다. 참여자들은 재북 당시의 수업시간에 대해서는 어두운 표정으로 지루했노라고 말한 반면, '경비'했던 추억에 관해 밝은 표정으로 즐거웠던 기억들을 이야기하였다.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거기서는 쌤도 같이 술 마셨던 거 같고. 운동장에서 뛰어 놀기도 하고. 안 나가도 되긴 하는데, 중학교 때는 안 나가고 싶어서 다들 소극적인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친구들이랑도 친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나가고 싶어 하거든요. (중략) 집에서 안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이. (중략) 보수적인 분들이 좀 그런 게 있죠. (사례 23 구술녹취록, 12)

평양이나 대도시에는 놀이 공간이 많지만 학생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며 입장료를 동반하는 경우도 많다. 평양은 유희장, 식당, 물놀이장, 볼링장, 빙상장, 개선청년공원 등 다양한 장소가 있으나 입장료가 비싸다. 그래도 평양에서 학교를 다닌 학생은 이러한 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종종 있다. 혜산 등 국경 지역 대도시에도 수영장, 체육시설, 게임 오락시설, 소규모 유원지, 롤러스케이팅장, 탁구장, 화면반주기가 있는 음식점, 사우나, 식물원, 동물원 등이 있으나 대체로 입장료가 비싸다.

집에 다 같이 모여서 수다 떨지 않으면 놀러가고. 유희장, 물놀이장 두루두루 그런 데 놀러가죠. 유희장도 있고 물놀이장도 있고. 평양에는 놀테가 좀 많아가지고 그런 데 다니는 거죠. [물놀이 입장권] 만 오천 원인데 한국돈으로 하면은 한 1,500원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그게 1시간 돈이라서. 시간당이라서 좀 일반 분들은 좀 비싸다고 하시죠. 그런데 가보실 분들은 다 가보셔요. (사례 7 구술녹취록, 6)



## 2) 또래 놀이문화의 집단적 특성과 경향

북쪽 지역일수록 여러 패나 학급 전체가 함께 노는 집단 놀이문화가 발달하였으며, 평양 등의 ‘앞지대’는 소수의 친한 친구나 소규모 패 단위로 모여 노는 문화를 중심으로 한다. 이는 성인 놀이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북쪽 지역에서는 집단적으로 자주 모여서 시끌벅적하게 노는 마당놀이 같은 분위기가 있다. 반면 평양과 가까울수록 집단이 아닌 개인 단위의 놀이문화와 개인주의적 성향이 두드러진다. 주거 생활 역시 북쪽 지역의 일상은 집 울타리를 넘나드는, 개방성이 강한 방식이라면, 평양이나 내륙지역은 울타리를 넘지 않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방식으로 지역 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 학구열이 높지 않은 지역일수록 또래관계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패끼리 뭉쳐 노는 경향이 더 강했을 가능성도 언급된다(사례 1). 다만 북쪽 지역이라도 학급이 서로 크게 친하지 않은 분위기라면 학급 전체가 모여 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관광시설이 많은 지역에서는 학교 차원에서 근처 바닷가로 대형버스를 대절하여 전교생이 여름철 물놀이를 가기도 했다. 이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 학교, 지역 전반에 걸쳐 집체적 나들이/놀이 문화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개방적이고 집체적인 놀이 문화 속에서 자란 사례 8에게 소극적이고 끼리끼리 모이는 ‘앞지대’ 학생들의 또래문화는 “영양가 없는 놀이”로 평가되기도 한다.

명절 때 되면은 다 모여서, 이런 아파트 단지 내에 보면 앞에 마당 같은게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증폭기 큰 거 하나 내다가 지나가는 사람들 싹 다 붙잡고 못 가게하고 춤 한 번 춰야 지나가게 하고. (중략) 앞지대는 그렇게 길에서 안 놀아요. 그냥 조금씩 집에서. 그리고 그렇게 자주 놀지도 않아요. (중략) [앞지대] 친구들은 되게 활발하지가 않은 거 같아요. 자기들끼리 속닥속닥만 많이 했어요.

가끔 논다 하면은 친한 친구들이기보단 그냥 어중이떠중이 “너도 올래? 너도 올래?” 해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만나서 놀고, 영양가 없는 놀이라고 해야 되나. (사례 8 구술녹취록, 11, 23)

여름에 한 번 날 잡아가지고, (중략) 해수욕장 있어요. 거기서, 학교에서 버스 같은 거 대여해가지고 가거든요. 학교 전체가 그냥, 대여비는 또 학부모들이 내야죠. 그렇게 해서 가죠. ○○시가 좋았던게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관광버스가 많거든요. (사례 22 구술녹취록, 67-68)

학생들의 놀이에는 간단한 간식이나 음식을 동반하는 식도락 문화가 나타난다. 이 역시 지역이나 화폐적 조건에 따라 그 경험이 달라지는데 북쪽 지역의 학생들은 강이나 산으로 나가거나 야외에서 음식 해먹기를 즐긴다. 바깥에서 고기를 구워먹는 문화가 일반적인 까닭은 우선 식당이 별로 없고 비용이 비싸기 때문이다. 또한 실내에서는 환기문제로 음식냄새가 잘 배출되지 않을 수 있어 야외로 나간다고 한다. 반면, 평양이나 내륙 대도시 학생들 중 친구들과의 놀이 중에 직접 음식을 해먹었다는 경험은 찾기 드물다. 평양의 상류층 학생들의 경우 길거리 음식을 사먹지 않고 식당 음식이나 엄마가 해주는 것만 먹었다는 사례도 있다.

많지도 않았지만은 식당가면 일단 집에서 먹는 것보다 엄청 많이 나오고, (중략) 평민 같은 경우 못 가죠. 1년에 한 번도 식당 못 가는 사람도... [고기는] 시장에 가서 사는 경우도 있고, 집에서 고기를 파는 그런 집도 있거든요. 기르던 돼지 그런거 잡아서 파는 집들 있거든요. 뭘 집에서 먹기도 하고, 불 피워서 먹고, 가마 밥솥 들고, 집 앞 마당에서 뭐 먹는다든가, 집에 냄새가 배고 그러니까, 냄새가 나고 하니까 밖에서 먹는 게 좋죠. 멀리 갈려면 운송 그런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집에서 다 해결하려고 하죠. (사례 4 구술녹취록, 22-23)

오히려 잘사는 애들이 길거리 음식을 아예 안 먹어요. 식당에서 받아오는 거 아니면 엄마가 해주는 거, 그런 것만 먹어가지고. (중략) 저는 아파트에 아줌마가 파는 거만 사 먹고. 건물에서 파는 아줌마, 집에서 자체로 하는 분 있었어요. (사례 6 구술녹취록, 24)

또한 집단적 놀이문화에는 음주가무가 동반된다. 공식적으로는 학생의 음주가 허용되지 않지만 부모, 교원, 사회 전반적으로 맥주를 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데다가 학생의 음주도 크게 문제삼지 않는 분위기이다. 일부 식당에서는 노래방을 함께 운영하여 음료수, 술, 음식을 종합적으로 판매하면서 흡연과 음주가 가능한 놀이공간을 제공한다. 일부 고급중학교 학생은 컴퓨터 게임보다 친구와의 소통, 노래방 출입 등을 선호하기도 하며, 이때부터 음주와 흡연 문화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경향도 포착된다. 교원들 역시 음주나 학생들이 단체로 모여 음주가무를 즐기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젊은 교원은 경비활동이나 명절 등의 계기마다 학생들의 음주가무에 함께 참여하기도 한다.

이러한 집단적 음주가무 문화는 성인 세대의 것을 답습한 것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의 수행과 정치경제적 변화가 맞물려 구성된 측면도 있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외식문화 장려 등의 정책이 전개되고 음주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제가 낮은 상황에서 학생들의 음주가무 역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사례 25는 명절이나 친구 생일에 모여 노는 문화가 김정은 집권 이후 더 빈번해졌다고 하였다. 고급중학생 정도면 성인처럼 식사 비용을 모아서 노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술과 음식을 사먹는다고 해서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등학교 올라오면서는 별로 게임을 안 하고, 다 이렇게 소통이라든가 아니면 뭐 노래방이라든가 그런 데에 좀 다녔었고. (중략) 식당을 하면서 노래방이 있다 보니까, 그 요리도 되면서 술도 되면서 다. 뭐 단속은 없으니까 담배도 다 피우고. (사례 5 구술녹취록, 34-35)

집에 모인 애들이 몇 만씩 돈을 모아가지고 고기도 구워먹고, 그리고 1중학교 여기는 넉넉한 애들이 오니까 같이 모여서 먹고, 술도 먹고 맥주도 먹고, 북한에는 전통적으로 고등학교 조금 1학년만 벗어나면 거의 술 담배를 거의 허용해요. (중략) 이렇게 막 사고만 안 치면 되니까. (사례 18-1 구술녹취록, 19-20)

집단 놀이문화의 또 다른 특징은 평시에 사교육 등을 통해 장기자랑을 연습한다는 점이다. 함께 놀 때 다른 친구들의 “정감이 떨어지지 않게” 춤을 배우거나 음악을 배우는 것인데, 진로나 먹고 사는 문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부모는 자녀의 자존심, 즉 “위신” 문제라는 점에서 사교육 비용을 지불하고, 학생들 역시 시간을 들여 춤과 노래를 배운다. 놀이를 위한 사교육이 유행하면서 학부모가 자녀에게 먼저 교육을 권유하기도 한다. 집단적 놀이문화 자체가 노동동원, 군사훈련 등 주로 집체행사에서의 놀이 기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집단 속에서 춤, 노래 등을 보여주거나 자랑하고 싶어한다는 의견도 있다(사례 13). 또한 선전대에 선발될 경우 돌격대에서 힘든 육체노동을 하지 않고 비교적 수월한 노래나 춤으로 대신할 수 있는 북한 특유의 정치문화적 특성도 간과할 수 없다. 비록 놀이 시간을 위한 것이지만, 북한에서 노래와 춤은 단순한 개인의 취미가 아니라 정치경제적 기회로 연결될 수 있는 기량이기 때문이다.

돌격대 일이 엄청 힘들지. 산에 가서 눈 이렇게 빠지는데 가 나무를 찍어서 그거 끌어내려야 되는데, 그 선전대를 가면 다 뽑아요. 너무 좋지. 편안히 놓고. (중략) 기타 바람 불어가지고 악기를 모두, 기타를. 조금 산다 하는 집이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못 사는 집들도 아이들이 짝지지 않게 하느라고. 아이 남자아이들이랑 “배우겠다.” 이러면은 부모들이 강냉이밥 진짜 쌀 세어 먹으면서도 또 배워 주거든요. (중략) 놀 때 기타를 치면서 그렇게 하면, 그게 사람이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위신이 올라가고. (사례 21 구술녹취록, 2; 15-16)

## 다. 이성교제

### 1) 학생문화 및 유행으로서의 이성교제

이성교제는 북한 학생 문화의 한 축이자 학생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율 권력이기도 하다. 먼저 10대 후반의 고급중학교 학령기는 생애주기 특성상 이성에 대한 생각이 바뀌거나 관심이 많아지고 젠더 사회화가 활발한 시기라는 특성이 있다. 가령, 사례 7은 고급중학교에 입학한 뒤 ‘여성스러운’ 언니를 보면서 평소 커트머리에 바지만 입던 자신을 돌아보며 “나도 좀 여성다운 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음악을 배우고자 했다. 사례 15는 고급중학교 1학년이 되자 어릴 때 여학생을 “함부로 막 차고 이런 것이 “조금 유치한” 것이라 반성하면서 연애까지는 아니어도 힘든 일이 있다면 여학생을 도와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고급중학교 교과과정 상 학생들에 대한 집체 동원 및 숙식을 동반한 훈련이 초급중학교에 비해 증가하고 하교시간 역시 늦어지면서 남녀학생이 밤길을 함께 걷을 기회도 많아진다. 이처럼 이성교제의 시공간이 조성되고 사회생물학적 조건들이 함께 작용하면서, 고급중학교 1-2학년부터 이성교제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연구 참여자들은 고급중학교 2-3학년 정도가 되면 체감상 한 학급의 1/3에서 절반 가량이 이성교제를 하며, 졸업과 군입대를 앞둔 시점에서는 학급 내 연애 인구가 급증한다고 말한다. 물론 졸업 때까지 연애를 한 번도 안하는 학생도 있고 여럿을 동시에 만나는 학생도 있다.

2000년이 지나면서, 내가 학급을 맡아 봤는데, [중학교] 4학년 부터 농촌동원 있잖아요. 농촌동원에 가보면 그때 당시 시내 학생들이 이 남녀관계가 막 활발하게 벌어져요, 연애가. (중략) 학급이 50명이라면 거기서 그저 연애질하는 아들 기껏 꼽아야 10명, 그 정도 됐는데, 김정은 시기에 들어와서는 그 정도 아니지요. 좀 더 활발해졌죠. (사례 25-1 구술녹취록, 48-49)

문어발보다 더하면 더할 거예요. 여러 친구를 만났거든요. 전화로 만나는 친구 따로 있고, 그리고 서로 관계하는 친구가 따로 있고, 그 진짜로 만나는 친구가 따로 있고. (중략) 그런 친구들이 따로 있어요. (사례 2 구술녹취록, 101)

드라마와 영화 등을 통해 외부문화 유입이 확산되면서, 그 영향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이성 간 상호작용이나 연애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이성교제가 학생 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학생들의 교제 시작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스킨십이나 연애에 대한 개방성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학생들에 따르면, 한두 살 정도 밖에 나이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하급 학년과 상급 학년 사이에서 이성교제를 공개하는 양상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난다. 지역적으로도 차이가 있는데, 북쪽 지역은 대체로 적극적이고 공론화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지만 평양, 평성 등의 소위 '앞지대'는 보다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놀이문화나 외부 콘텐츠 시청과 마찬가지로 연애에 있어서도 지역 간 차이를 볼 수 있다. 물론 "연애라는 건 못하게" 된 것이고 "걸리면 망신스러운 거"라 해도 평양에서조차 몰래몰래 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사례 12).

선배 세대는... (중략) 밖에 나가서 연애 애정행각을 하는 걸 보지 못했었는데, 저때 당시에는 어디서나 좀 그런 키스도 하고 손도 잡고. (중략) 함북도 친구들은 조금 더 적극적이고. 특히 남자애들이 이렇게 고백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고백한 이야기가 떠돌면서 재밌거리가 되고 이러는데, 그런 고백 이야기, 그런 스토리 같은게 좀 적어요. 그거에 대해서. 앞지대 친구들은 되게 소극적이어서 (중략) 굳이 얘기하는 친구들도 적고. (사례 8 구술녹취록, 8, 31)

드라마가 크긴 큰데 (중략) 시내 중심 애들은 다 고등학교 때 연애를 해요. (중략) [연애가] 하나의 문화죠. 시기가 가면서 애들이 연애를 하는 시기가 더 빨라져요. 저희가 5학년에 시작을 했다면 4학년에 시작하고, 3학년에 시작을 하고. (사례 3 구술녹취록, 48-50)

학생들끼리는 연애를 선망하고 익숙해하는 경향이 크고, 성인 세대에서도 사고의 변화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학생의 연애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도 여전히 많다. 다만 담임교원이 젊을수록 학생들의 이성교제를 규제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나이가 든 교원들은 혹시나 모를 ‘사고’가 발생하면 자신이 징계를 받을 수 있기에 이에 대비하여 예의주시하지만 졸업반 정도에는 눈감아주기도 한다.

못 막지. (중략) 6학년 말 때쯤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그래라. 사랑인데 만나라.” 근데 하나는 무엇인가. 혹시, 아이들에게 무슨, 아이나 배거나. 무슨 아를 뺏다 이게 무서운 거야. 그 선생이 통제를 못했다는, 그걸 엄청 꺼렸거든. (사례 13 구술녹취록, 69)

따라서 학생들은 담임교원에게 걸릴 수 있는 학급 내 연애를 지양하고 동네 근처보다는 동네가 아닌 곳에서 데이트를 하기도 한다. 데이트 장소는 주로 골목이나 등하교길이 많고 집이나 대도시 식당, 유휴지 등이 있다. 한 학급에서 연애하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담임교원에 적발되기도 쉽지만 입학하면 졸업 때까지 같은 반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혹시 모를 연애 결렬 후의 어색함이나 불편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도 있다. 여학생들은 사례 1처럼 “너무 발랑 까졌다.”는 사회적 평판 때문에 이성교제 중에도 손 잡고 다니기를 꺼리거나 조용히 연애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같은 시기 같은 지역 혹은 인근 지역에 거주했던 남학생(사례 4, 사례 16)은

과시를 목적으로 손을 잡고 다니고 널리 자랑했다고 회고하면서, 교원에게 단속될까봐 손을 안잡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연구자의 말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사례 16)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처럼 학생의 이성교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성에게 훨씬 불리하게 작용한다.

알리쵸, 조용히 사귀는 거는 안 해요. 왜냐면 허세가 좀 많아가지고 저쪽 사람들은, 내가 여자친구 있는거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여자친구 얻고, 그런 거니까 저쪽에도 마찬가지로요, 여자친구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 능력 있다. 잘났다.” 그런 게 있어갖고 알려지길 원하죠, 본인들이 떠들고 다니고. (사례 4 구술녹취록, 25-26)

학생들끼리 서로의 연애를 응원해주고 도와주는 분위기도 있다. 흥미로운 것은, 직접 의사전달을 하기보다는 연애 당사자들이 아니라 교섭력이나 사교력이 좋은 동성 친구들이 먼저 당사자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이다. 이는 외부 드라마 등의 영향으로 연애 연령이 빨라지고 연애가 잦아졌다는 것과 별개로, 학생세대에서도 성인 세대처럼 여전히 남녀유별의 사회 분위기가 크게 사라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앞서 리더십을 언급할 때도 사례 23이 이성과 잘 이야기하는 학생이 “인싸”로서 리더였다고 증언한 것과도 상통한다. 같은 연령이라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연애하는 인구가 더 많은데, 이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연하의 여성과 연상의 남성’이라는 연애 조합이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야, 나 누구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면 소문이 그냥 다 나요. 애들끼리 어떻게든 이어주려고 그러거든요. (중략) 보통 반에서 연애를 많이 안 해요. (중략) 애들이 연애를 하려고 막 그러다가 담임선생님한테 말이 들리고..., 못하게 하죠. 들키고 그러면 또 부모님한테 전화하고. 혼나고. (사례 22 구술녹취록, 34-36)



괜찮은 친구들은 그냥 다 하는 걸로 기억... 몇 명 빼고 다. 남자들은 아닌데 여자들은 거의 다. 많이 소심하다든가 친화력이 좀 부족한 애들 [제외하고] ... 그래도 웬만하면 다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많이 하는 건 고등학교인데, 중학교 때부터 서로 주고받고 이런 게 있었던 거 같아요. (중략) 여자 중에서 비서가 한 명 있고, 남자 중에서 학급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둘이 좀... 여자들 중에서 “누가 재를 좋아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전해주고. (사례 23 구술녹취록, 42-43)

## 2) 학생 연애의 정치경제학과 젠더

학생의 이성교제는 하나의 문화일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과 능력을 갖추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다양한 놀이문화와 외국 콘텐츠를 향유함으로써 문화적 감각을 기를 수 있고 이성에게 다가갈 수 있는 춤과 노래 실력을 갖출 수도 있다. 친구들에게 음식을 사주거나 선물할 때에도 큰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좋은 식사를 하고 잘 자며 별다른 노동을 하지 않으므로 피부, 키 등의 영양상태도 좋고 신체 발달도 빠르다. 이런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주축이 되어 연애를 시작하고, 다른 친구들도 부러워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이성교제는 일종의 자기과시적 유행이 되기도 한다. 사례 23은 “인싸 같은 사람”과 사귀다는 사실이 “(궁지감 같은) 그런 것”을 느끼게 한다고도 말하였다.

애인이 없는 아이들은 좀 빈곤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런 빈곤이 인물에도 연관되는지 그런게 좀 있고. (중략) 돈 많은 애들은 피지컬도 좋고. 잘 먹어서 그런가, 웬지 모르겠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돈도 많으니까 웃도 되게 뼈까번쩍하게 입을 테고. (사례 8 구술녹취록, 7)

다만 부모들은 이러한 현실 인식에서 다소 동떨어진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하다. 제1중학교 학부모는 제1중학교의 '학풍' 자체가 연애와 거리가 멀고 "애들이 딱 각이 서" 있다고 주장하며(사례 11), 일반 고급중학교의 학부모는 자기 자녀가 이성애 관심이 없다고 단언한다(사례 18). 그러나 학생들은 학부모들과는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한다. 부모의 성향과 생각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부모에게만 말하지 않을 뿐 이성과 이성교제는 학생들에게 그 무엇보다 흥미진진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슬슬 눈치를 주는 거예요. 부모들 나가라고. 부모들이 음식을 만들어주고 준비해 줄 때만 필요하고 싹 내쫓아요. 그때는 자기들끼리 어떻게 놀든 노는거죠. 거기서 심하게 노는 애들 있어요. 그거까지 말해드리기는 좀 그렇고, 자기끼리 남녀 들어가서 노는건데, 뭐 그러고 싶으면 그런. 좀 개방적인, 개방적인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생겨먹은 애들이 있고. 많아요. (중략) 남자에 배우하면 학교 수업하는데 뛰쳐나가가지고 물수건 주고, 물병 들고 응원하고 해서. 저 애는 대체 뭐가 될까 생각한 여자애도 있고. (중략) 1중학교에도 그러는데. (사례 18-1 구술녹취록, 21)

좀 크면 노는 건데, 뭔가 이런 로맨스영화에서 남자랑 여자 주인공이 하는 행동을 이렇게 게임을 해서 걸리면 여기 술 게임하는 것처럼. 뭔가 게임해서 걸리면 그런 걸 따라 하게 만드는. (중략) 부모님이 알면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안 말하고. (중략) 부모님들이 알면 뭔가 욕할 거 같은. 그런데 다들 그렇게 놀고. (사례 9 구술녹취록, 13)

다만 이성교제의 유행속도에 비해 도덕적 지연이 심각하다. 윤리적 담론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성교제의 양식이 빠르게 전개되어 폭력/괴롭힘 문제가 빈번한다. 특히 '10번 째 안넘어

가는 나무가 없다’는 성인 사회의 인식이 학생문화에도 스며있어, 여학생들은 일방적 고백을 받고 유사스토킹에 노출되기도 한다. 그래서 적지 않은 여학생이 그러한 사고 예방을 위해 마음이 없더라도 일단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남학생이 고백하면 연애편호를 유지한다. 흔치 않은 일이지만, 남학생 역시 여학생의 고백을 거절한 뒤 여학생의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거나, 자신이 고백한 여학생의 남성 지인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사례 18은 “급이 맞는 애들끼리” 만나야 그나마 ‘안전’하게 연애편호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남자친구가 있다. 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떤 남자가 괴롭혔을 때 나서줄 사람이 있다. 그냥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쉽게 말을 걸고, 지나가면서도 좀 마음에 든다 이러면은 “서라.”(중략) 남자친구의 친구라도 보면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사례 23 구술녹취록, 57)

스토커 느낌으로 남자들이 따라다니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그게 스토키다. 법적으로 제한이 안 되니까 가끔 무서울 때도 있고, 좀 과격한 친구들은 무력을 행사할 때도 있으니까 그런 걸 피하려면 “아, 재는 남자친구가 있다”라는 걸 조금 공공연하게 저는 알리고 싶어서, 그래서 남자친구를 사귀었던 적도 있기는 해요. 북한 남자들 중에 그게 있어요. “10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사례 1 구술녹취록, 20)

학생의 이성교제 역시 여성의 외모자본과 남성의 권력자본(싸움 능력, 경제력) 교환, 성별분업, 남성 주도적 관계 등 성인 사회의 연애가 갖는 특성을 공유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젠더 폭력에 대비해서 여학생들이 자신을 어떤 남학생의 여자친구로 친구들 앞에서 정체화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당번인 여자친구를 대신하여 남자친구는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담배를 받거나 농촌활동을 갔을

때 여학생이 남학생의 빨래를 대신 해주는 방식으로 성역할을 분담하기도 한다. 남녀 학생 간의 성역할 분담은 “혁명역사” 같은 과목에서 남성은 힘을 쓰고 여성은 그를 위해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작식대원’으로 설정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남성이 먼저 구애하고 여성이 이에 동의/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는 일종의 ‘의례’ 역시 그 반대 사례보다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다.

잘생기고 집도 잘살고. (중략) 예쁜 여자들 있으면 뭔가 좀 챙겨 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챙겨주는데 애랑 애가 똑같은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애가 좀 더 키도 크고 뭔가 좀 잘한다 하면 호감은 가지 않을까. 서로 “우리 사귄래?” 하면 어느 정도는 그게 되더라고요. (사례 3 구술녹취록, 49-50)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이성교제를 통해 인격적 성숙과 성장에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특히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원과 지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또래 이성친구의 격려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경험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엄마가 부재하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역할을 해주지 못할 경우에 이성친구의 도움이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도 한다. 특히 이들이 급격한 사회변화가 집중되었던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났다는 점에서, 당시 그 여파가 학부모의 자녀양육 방식과 가족 관계에 전방위적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위로를 좀 많이 받기는 했죠. (중략) 엄마랑도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었으니까, 남자친구랑 얘기를 좀 하고, 놀러 갔을 때도 그래도 자기 여자 친구는 좀 챙겨준다는 그런... 보호받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받아보고, 네, 행복한 건 좀 있었던 거 같아요. (사례 23 구술녹취록, 45)

어머니께서 빨리 돌아가시다 보니까, 뭐랄까 옆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말해주는 분이 없었거든요. 할머니도 그냥 뭐 “잘 못한다.”고 하고, 아빠도 “너는 그렇게 하나만 쪽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만 한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이렇게 여자친구 만나면서 되게 괜찮다고 하고 이런 면이 좋다고 하고, 이렇게 더 새로운 그제 들었던 거 같아요. “이런 것도 잘하네” 이렇게. (사례 5 구술녹취록, 44)

## 라. 경제문화적 기표·사물이 매개하는 학생들의 인간관계와 또래문화

### 1) ICT 기기와 콘텐츠들

#### 가) 휴대전화

빠른 경우 학생들은 고급중학교 1학년 때부터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먼저 보유한 친구들을 보고 부모에게 구매를 요청하기도 한다. 다만 학생의 휴대전화 보유가 보편적인 일은 아니기 때문에, 탈북한 가족이 있거나 북한당국의 감시를 받는 경우 부모들은 돈이 있어도 자녀에게 휴대전화를 사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학급 내 휴대전화 보유비율은 경험자마다 시기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구술에 따르면, 2012-2018년경 평양과 지방 대도시에서 고급중학교 학생의 20-30%가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었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급 내 휴대전화 보유 인원이 증가하는데 평양에서 학교를 다녔던 사례 12의 경우 1학년 때 학급에서 4-5명 정도였다가 매년 1-2명씩 증가했다고 한다. 접경지역 도시 중심부 학교에 다녔던 학생들은 고급중학교 3학년 기준으로 최소 1/3에서 90%에 이르기까지 휴대전화를 보유했다고 말한다.

핸드폰이 없는 친구들은 거의 없을 정도로 이미... 그러니까 저희 15살 때랑 그 친구들 15살 때 비교해보면은 저희 15살 때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학급에서 한 10명 정도였다면은 지금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없는 애가 한 손가락 안팎으로 없었어요. 고3 때는 거의 다 가지고 있었고. 옛날에는 집 전화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잘산다고 했었는데, 집 전화는 기본이고 이제는 한 명당 하나씩 그렇게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례 1 구술 녹취록, 71)

휴대전화를 보유한 학생 인구가 많지는 않으나 그래도 평균적으로 한 반에서 20-30% 정도는 보유한 만큼 또래 간 관계맺기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참여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휴대전화 유무가 친구들끼리의 패를 구성하는 핵심 요인은 아니다. 그러나 한 패 내에서 휴대전화를 가진 학생이 많고 휴대전화가 없는 학생이 소수라면 소외감을 느낄 확률도 높다. 휴대전화가 있는 친구들끼리 먼저 연락해서 약속을 잡기 때문에 친밀도나 의사결정에 있어서 뒤쳐질 수 있다.

그러나 평양을 제외하고는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이나 집에서 통신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휴대전화가 있는 친구끼리 관계가 더 깊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또한 휴대전화 감청과 단속, 요금 제한 등의 규율 통제도 분명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무조건 휴대전화로 친구와 연락하려 하기보다는, 연락이 안 되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친구와는 다음날 직접 만나서 소통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휴대전화를 가진 학생과 갖지 않은 학생 사이에 의견이 다소 다른데, 휴대전화가 없었던 학생은 소외를 경계하며, 휴대전화를 가졌던 학생은 휴대전화가 없어도 친구 사이가 소원해지지 않았고 친구 사귀는 데 문제가 없었다고 이야기한다.

[휴대전화기]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약속을 잡을 수도 있고, 제일 필요할 때 연락을 바로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게 없으면은 진짜 만나야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어찌면 좀 소외되는 느낌이 많이 있죠. (사례 1 구술녹취록, 82)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애들 전체적으로 다 있는건 아니고 그냥 학년 별로 가지고 있는 애들 몇 명 정도. [고급중학교 3학년 때에는] 반에서 그냥 3분의 1은 있었던 거 같아요. (중략) 휴대폰이 친구 사이에서 큰 작용은 안 했던 거 같아요. 그냥 있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막 의미도 없었던 거 같아요. (중략) 휴대폰 있는 애가 “야, 어디서 논다.”고 하면 연락을 받아서 가는 길에 그 친구 집에 들러서 같이 온다거나. (사례 22 구술녹취록, 45-46)

한편 경제적 지위가 유사한 친구들끼리 한 패를 이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가진 학생이 많은 패와 적은 패가 자연스럽게 구분되기도 한다. 특히 중심패들은 휴대전화를 보유한 학생이 많은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휴대전화는 학교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패와 아닌 패 사이의 위계를 명확하게 만들고, 패별 의사소통이나 놀이문화 방식 역시 계층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가능성이 있다.

## 나) 외부 콘텐츠

초급중학교와 달리 고급중학교 학생들은 컴퓨터를 보유하기 시작하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지는 시기라는 점에서 또래 간 외부문화 콘텐츠 공유가 활발하다. 외부 콘텐츠를 공유한다는 것은 친구 사이에 말이 잘 통하며 단속에 걸려도 친구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선에서 끝낼, 믿을만하고 똑똑한 친구임을 의미한다.

또한 콘텐츠 공유의 기본은 등가 거래(교환)로, “미국 영화 봤는데 북한 드라마하고 바꿔 볼 수는 없는”(사례 15) 무언의 규칙이 적용된

다. 기술적 조건도 작용하는데, 콘텐츠를 보려면 노트텔로도 가능하지만 파일을 많이 보유하고 있거나 친구에게 공유해주려면 컴퓨터나 노트북을 보유하고 잘 다룰 수 있는 기술도 있어야 한다. 때문에 한국이나 미국 콘텐츠의 경우 경제적 여유가 있는 등 소위 '잘나가는' 학생들이 주로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일부 학생은 혼자만 외부 콘텐츠를 보고 공유하지 않는 친구를 따돌리기도 한다. 사례 3은 친구들과끼리 모여서 외부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만큼 재미있기 때문에 때로 "싸나이"들의 의리를 확인하면서 열심히 즐겼다고 하였다.

잘나가는 애들이 많이 보고, 그리고 또 컴퓨터 있는 애들이 보고, (중략) 친구들한테서 물리는 이유는 속이 좁아가지고 나누질 않는다는, 자기만 보고, 먹는 것도 혼자만 이렇게, (중략) 따를 당하게끔 애가 놀죠. (사례 2 구술녹취록, 36-37)

교환을 하는데, 내가 이거를 뭘 주면, 나 필요한 걸 무조건 받아야 된다. (중략) 컴퓨터 있는 애들이 좀 인기가 좀 있었죠. (중략) 영화 하나 줌. USB에 옮겨 달라고 빌붙으면서리 막, 그래서리 간식도 갖다 주면서. (사례 14 구술녹취록, 24, 28)

대다수 부모들이 낮시간에는 직장이나 시장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부모가 부재중인 친구 집에 모여 외부 콘텐츠를 함께 시청하기도 한다. 이때에도 밖에 나가서 누구와 무엇을 보았다고 말하지 않아야 하며, 걸렸다고 하더라도 한 패 혹은 함께 본 친구를 언급하지 않는 것이 '의리'로 여겨진다. 실제로 외부 콘텐츠를 보다가 단속에 걸렸을 때 타인과 공유했다는 점이 밝혀지면 자신 또한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관련자 없는 단독행동이라 주장하고 혼자 처벌을 받는 것이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는 의견도 있다.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거의 다 친하니까요. 다 같이 보고. (중략)  
애들이 좀 의리가 있는 거 같아서. 그렇게 놓고 진짜 부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진짜 가끔가다 한 명씩. 그것도 다른 무리에서  
있으면 있었지. (사례 23 구술녹취록, 38)

메모리 USB 주웠고 난 모른다. 그 다음에 뭐 디젤유인가 10킬로  
인지 내고 빠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거 불잖아요. 개가 나를  
분다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더 복잡해지거든요. 내가 있는데 내가  
만약 걸렸잖아요. 개가 디젤유 줘서 나갔잖아요. 나는... “저사람 나  
갔는데 나는 뭐냐?” 이렇게 되니까 서로 이게 더 복잡해지니까 없  
어지는 게 한 명이라도 축소되고. (사례 2 구술녹취록, 20)

문제는 검열의 최종심급인 109 단속반에 단속될 경우이다. 사례  
22는 북한에서 흔치 않은 미국 판타지 영화를 본 뒤 친구들에게 자  
랑을 했는데, 한 친구의 지속적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 처음에는 자  
기 집에서 보고 가라고 했다가 영화를 복사해주었다. 결국 친구가  
109 단속반에 걸려 사례 22를 언급했고, 조사과정에서의 위압적 분  
위기와 협박은 10대 중반인 고급중학교 학생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  
이었다. 이는 학생들이 단속에 걸렸을 경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  
는 사례 3의 앞선 증언과도 일맥상통한다. 다만, 조심성이 많거나  
숨기기를 잘하거나 여학생이라면 대체로 남학생이나 조심성이 없는  
학생보다 단속에 덜 걸린다는 의견도 있다. 규율 수행의 젠더 차이  
는 북한 사회 전반에서 남성보다 여성에게 ‘조심성’을 더 강조하고,  
여성들은 졸업 후 입대가 아닌 생활전선에 바로 진입하는 경우다 많다  
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생각된다.

안 볼면 거의 막 당장 처넣을 듯이 그래가지고. 그때 조사를 어  
떻게 받았냐면요, 오전 수업 끝나고 오후 2시까지 그 조사 받는 데

가서 밤 12시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살벌하고. (중략) 남자가 많이 걸리죠. 여자애들이 은근히 은밀해요. 잘 숨겨요. 남자애들은 와 막 다혈질이고 이러니까 그냥... (사례 22 구술녹취록, 28-29)

중요한 것은, 외부 콘텐츠가 매개하는 학생 간의 또래 관계가 물질이나 경제적 요소, 언어적 측면 그 이상을 넘어서는 기술적, 비언어적, 복합적 조건들에 의해 구성된다는 점이다. 이처럼 학생들이 외부 콘텐츠를 매개하여 빚어내는 인간관계는 시장(화폐), 안면관계, 연줄, 권력, 신뢰 등 기존 성인 세대의 인간 관계를 구성했던 요소들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지점을 지닌다. 상세한 추적이 필요하겠지만, 향후 북한의 기술-사회적 변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 새로운 관계맺기 방식이 화폐/연줄 중심의 기존 인간관계들을 새롭게 재편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 2) 화폐를 전제한 놀이문화와 또래관계

친구들에게 인기 있고 학교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학생들은 화려한 옷차림, 리더십, 좋은 외모, 활달한 성격, 원만한 교우관계, 부유한 가정 환경, 학업 능력 및 예체능 능력 등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인기 요인의 배경에는 대체로 부모의 정치경제적 지위(잘 사는 집, 간부 자녀)가 작용한다. 이런 중심패 학생들은 “다른 애들은 약간 우리보다 못하다.”(사례 1)는 구별짓기 의식을 갖고 다른 친구들은 이들을 부러워하고 친하고 싶어한다. 이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권력을 지닌 간부를 선호하는 성인 사회의 문화와 유사한 것으로, 성인 사회 혹은 부모 세대의 계층 선호가 학교 사회 혹은 자녀 세대로 재생산되는 하나의 기제를 보여준다. 가령, 금전적으로 여유

가 있는 친구는 파배기 등의 간식을 다른 친구들에게 잘 사주고 부모도 그러한 비용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큰 인기를 얻기도 한다(사례 8). 이는 성인 사회에서 돈주 주변에 도움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몰리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이치다.

성격 좋고... 좀 잘사는 집 애들이 인기가 많은 거 같아요. 그런데 인기가 많은 거는... 아무데나 다 똑같은 거 같아요. 인성이 좋아야 인기가 많죠. 그냥 사회적 분위기가 뭐가 돈 많은 애들한테 없는 사람이 가서 좀 빌붙는 그런 느낌인 거 같아요. 어른들 사이에도 있어요. (사례 9 구술녹취록, 11)

친구의 부모가 지닌 사회경제적 지위 역시 또래관계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 학생들은 이 요소가 친구들의 품행 수준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사례 11). 또한 부모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식도 당연히 좀 값이 되는” 일이 빈번하다(사례 9). 부모 역시 자녀의 교우관계에 신경쓰면서 가능하면 좋은 정치경제적 배경을 지닌 친구와 어울리기를 바란다. 동시에, 학생들이 나가서 놀 마땅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집에 친구를 데려올 수밖에 없는 데,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져 자녀가 집에 친구를 데려오지 못하는 점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기도 한다. 사례 21은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학교에 잘 가지 못하는 친구와 어울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자녀가 경제적 부족함 때문에 교우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나아가 졸업 후 사회생활 하는데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하였다.

이처럼 고급중학교 학생들의 또래관계와 놀이 문화는 화폐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가 준 돈을 모아두거나 스스로 돈을 버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용 화폐가 풍부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반면, 또래 간 관계맺기나 놀이문화가 시장과 연계되면서, 경제적 형

편상 놀이 비용 마련이 어려운 학생은 위축되기 쉽다. 같은 패 내의 친구들과 경제적 지위 격차가 크다고 해서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지만, 패의 모임에 제한적으로 참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친구들의 눈치를 보면서 어느 정도 패에서 분리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존재한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학생들이 부모의 정치경제적 “권세를 티 내는” 일이 잦아졌는데, 이런 이유로 학생들의 기가 죽기도 하고 반대로 학교생활이나 교우관계에서 자신감을 갖기도 한다. 이런 경향은 여학생 또래에게서 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데, 옷차림에서 경제적 지위가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 특히 고급중학교 여학생은 젠더·세대적으로 ‘정품/가공’ 여부, 가격, 유행 등에 가장 민감한 집단이므로 옷차림이 학교생활 및 또래관계에서의 자신감/열등감과도 연결된다는 것이다.

“엄마 집에 있어 모른다. 엄마, 애들이 얼마나 잘 싸오는지 아니? 학교 가면은 얼마나 축 잡히는지 아니?” 이러면서... (중략) 부모 권세 돈 권세를 아이들도 완전 엄청 학교에 가서 그 티를 내니까. 최근예요. 지금 시기에. (중략) 니거는 정품이니 니거는 가품이니, 니거는 얼마짜리고, 그 얼마짜리로 똑같은 모양 가려보기도 힘들어도 북한에 정품 가품 그계 있어가지고, 첫물에는 모르는데 몇 번 빨면은 딱 알리고, 그저 알리긴 알리지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여자 아이들이 이게 엄청... 그리고 또 없는 아이들은 왜 자꾸 그렇게 열등감이. 그런 게 엄청 심해요. (사례 21 구술녹취록, 9-10)

학생들의 관계맺기나 놀이문화가 화폐를 전제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부모의 부담도 커졌다. 누군가의 집에 가서 놀더라도 먹을 것을 사가거나 최소한 재료를 사다가 만들어 먹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한다. 대체로 학부모들은 자녀를 부족함 없이 키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부담스럽더라도 이런 비용을 마련해주려고 한다. 특히 다수 친구

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 하거나 생일잔치에 갈 때, 사례 19처럼 이성교제를 하는 경우 유행에 따른 선물 비용이 적지 않게 소모된다. 이성교제 상대가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선물이나 유행하는 물건을 받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상대방은 그 기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부모에게 돈을 받아서라도 선물과 꽃다발을 마련하는 것이다. 때로는 용돈이 필요한 학생이 부모가 교원에게 전달하는 돈을 중간에서 빼돌리기도 나중에 “들통나기도” 한다(사례 22).

학교에다 내는 돈이 힘든 게 아니라, 엄마는 그냥 제가 쓰는 돈이 좀 부담스러웠죠. 거의 매일 매일 돈 쓰는데... (중략)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 생일에 꽃을 선물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중국드라마랑 보면 한국드라마랑 보면 생일선물 꽃다발 이렇게 주니까. 그런거 보고 유행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어느 순간 그게 유행이 되어가지고 남자친구는 당연히 여자친구 생일에 꽃이랑 다른 선물을 가져오겠지 이런 게... 그런데 꽃이 너무 비쌌으니까. (사례 19 구술녹취록, 23-24)

화폐가 또래들의 모임과 놀이문화의 전제가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구 관계를 전적으로 화폐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은 경제적 지위보다 똑똑함, 신뢰도를 우선시 한다. 물론 똑똑하고 신뢰할 수 있더라도 화폐지불능력이 다른 친구들보다 약하면 패 속에서 다소의 거리감 혹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이때는 형편이 어려운 친구의 비용을 패 리더나 주변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대신 지불해주고 때로 친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챙겨주기도 한다. 이러한 양상은 시장화 이후 화폐 중심의 북한 사회에서 “그나마 남은 사회주의 미덕”(사례 8)으로 자평되기도 한다. 그러나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돈을 빌리거나 마련하려 노력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비용이 발생하는 식사가 끝날 때 짬 친구들과 합류하거나

친구들과의 만남에 가끔 나가지 않는 방식으로 대처하기도 한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친구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양심 없이 받는 거는 또 안 되다보니”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겨울철 장작패기 등을 도와주기도 한다(사례 23). 그러나 친구들이 챙겨줘도 돈이 많이 드는 자리에는 점차 형편이 어려운 친구를 부르지 않게 되고 그렇게 ‘은근한 소외’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부유하지만 똑똑하지 못하면 친구들이 같이 놀긴 하지만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고도 한다(사례 19).

자연스럽게 밀려나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못가는 횟수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그 아이한테 이제는 재는 어차피 안갈 거니까 안 묻는. (중략) 너무 못산다 싶으면 자기네 집에서 옷도 가져다가, 쌀도 가져다가 이렇게... 사회주의미덕이랄까요. 그나마. 그나마 미덕이 아마 그거일 거 같아요. (사례 8 구술녹취록, 14)

학교생활과 학교 친구들과의 놀이문화 모두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적 환경이 좋지 않았던 학생들은 아예 학교 밖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한다. 부모가 제대로 경제적 돌봄을 제공하지 못했던 사례 23은 결석이 잦았고 자신보다 대체로 형편이 나은 학급 친구들과 거의 어울리지 못했다. 오히려 자신처럼 경제적 사유로 학교에 잘 나가지 않는 친구들이 훨씬 성숙하고 잘 통하는 면이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사례 23뿐만 아니라 사례 2 역시 고급중학교 재학 중에 가정형편이 어려웠다. 두 사람 모두 고등중학교 2-3학년 때부터 학교에 성실하게 출석하는 대신, 시장경제 활동을 통해 돈을 벌어 부모에게 주는 실질적 가장 역할을 하였다. 이들도 학교에 다녔던 학생들처럼 친구 관계가 학교 생활의 유일무이한 즐거움이라고 말했으나, “돈을 쓰면서 놀아야겠냐 싶어서”(사례 2) 기회를 충분히 누릴 수 없었다.

저같이 학교를 좀 잘 안 다니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사이가 안 좋은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 집이 어려워서 (중략) 학교만 다녔던 친구들은 그 학교 안에서 그 친구들이랑 놀고 웬만하면 행복하게 자란 친구들이잖아요. 널 거를 다 내고 그래도 다녔던 친구들인데, 그 사회에서 안 다니면서 그런 친구들은 그래도 좀 더 고생을 해보고 뭔가 배려심 이해심 같은 게 좀 많고 이런 친구들이다 보니까, 좀 성숙한 면이 있었죠. (사례 23 구술녹취록, 30-31)

이 두 사례는 이 연구에 참여한 대다수 탈북학생들의 경험과 다소 다른 결을 보인다. 그러나 실제 북한의 고급중학교급 학생들에게서는 크게 예외적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 생계유지를 위해 학교에 제대로 출석하지 못하고 부모의 장사나 노동을 돕는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례 2나 사례 23처럼 화폐를 매개한 친구들과의 놀이문화에서 누락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현실에서는 보다 큰 비율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 3. 소결

북한이 지향하는 ‘사회주의 교육학’에 따르면, 교육에서 규율이란 “유일적 영도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율”을 의미한다(김운진 외 2008, 18). 학교 규율이란 ‘유일체계’ 존속에 궁극적 목적을 두면서 학생을 ‘상부권위·집단지서에 일사분란하게 순종하는 인민’으로 주조하려는 것이다. 학교 일상에는 극도의 세밀한 규율, 교사의 강력한 권위, 조직·학교의 이중통제 구조 등의 다양한 규

을 장치가 동원된다. 엄격하고 세세한 학교 규율은 일제강점기의 학교 규율의 잔재와 소련의 마카렌코식 교육 규율을 계승한 것으로, 학생들에게 학교 안팎 어디서든 일사분란하게 규율에 순종할 것을 요구한다.

고급중학교 학생들은 초급중학교 시절보다 더 강력하고 다양한 통제를 받는데, 수업시간과 학교일과가 길어지고 각종 노동동원, 군사훈련, 생활총화, 호상비판, 청년동맹원의 각종 의무 등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고급중학생 이상 연령 청년들의 외부문화 접근을 통제하고 사상교양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대거 시행되고 있다. 각종 법률의 신설과 제정, 청년동맹지도원과 109 단속반을 비롯한 각종 검열권력의 불시 검열, 긴급 조회 및 상시 방침 시달, 학생 대상 처벌 강화, 교원 및 학부모 책임 강화 및 연좌처벌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학교 일상에 개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규율 권력의 전개와 학생들의 규율 수행과정에서 '강철같은 규율'은 찾기 어렵다. 시장화 이후 많은 사회관계들이 화폐에 의해 매개되며, 규율 권력 역시 화폐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는 학교 현장에서 전개되는 규율 권력과 의도된 규율 권력 사이의 크고 작은 간극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교원, 청년동맹지도원, 109 단속반 등의 행위자들은 부여된 규율 권력을 각자의 업무적, 경제적 필요에 따라 적절히 소비하고 전유하며, 서로 이익이 충돌할 때마다 갈등을 드러낸다. 이들은 학생의 규율 위반을 무마·축소해주는 조건으로 학부모와 거래하는데, 규율 권력이 강압적일수록 학부모로부터 많은 돈을 받아낸다.

김정은 집권 이후 학교 규율 권력에서 포착되는 또 하나의 변화는 체벌 금지와 함께 교권이 재구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원의 강력한 권위는 오랜 기간 북한 학교 규율의 주축을 구성해왔고, 체벌은 교원이 가장 빈번하게 활용하는 규율 장치였다. 그러나 시장화 이후의



개인화, 소(少)자녀화, 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이 교원의 체벌을 당에 지속적으로 신소하였다. 결국 학생 체벌 금지 방침이 시달되고 해임, 좌천 등 교원 처벌도 이루어졌다. 이는 교원과 학부모 간의 권력충돌에서 북한당국이 학부모의 손을 들어준 것일 뿐만 아니라, 그간 의도해왔던 학교 규율의 교사주도성과 엄격성을 일부 흐려버리는 효과를 낳았다.

이런 상황에서 고급중학교 학생들에게 학교란 ‘규율의 형식을 지키면서 또 완전히 지키는 것도 아닌’ 사회생활의 전략들을 학습하고 실천하는 시공간이다. 학생들은 수업 규율이나 복장·두발 규율처럼 덜 위험하며 상세한 규율들을 자주 위반하며, 교원이나 청년동맹지도원 개인의 특성을 파악한 뒤 그에 따라 ‘맞춤형’ 규율 위반을 실천한다. 학생들은 규율의 형식은 지키되 규율에 의도된 내용을 내면화하거나 진솔하게 실천하지는 않음으로써 규율의 시공간을 전유한다. 억지로 등교는 하지만 학교가 주입하는 이데올로기에도 지식에도 귀를 닫은지 오래다.

학생들의 실천이 반복되면서, 규율이 학생을 강제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율이 학생들의 수행에 복속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규율 권력이 화폐, 학부모 등의 요인에 의해 재구성되는 과정을 목격하는데, 이 과정에서 안전하게 규율을 위반하고 자기 필요에 맞게 규율을 전유하는 방법들을 학습하고 또 창조해내기도 한다. 특히 시장화, 정보화, 외부문화 확산 등의 다각적 변화 속에서 자란 학생들은 성인보다 높은 수준의 ICT 접근성과 미디어 리터러시를 지니고 있어, 때로 규율 권력이 강제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기술적 방식으로 규율을 전유한다.

학생들의 세밀한 규율 수행 양상은 지역, 젠더, 계층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앞지대’ 보다 북쪽지역의 학생들이,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 학생들이 훨씬 적극적으로 규율을 위반하고 전유하며 다양한 전략을 전개한다.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대담하게 규율을 위반하는 경향이 있지만, 반대로 규율 전유를 보다 성공적으로 하는 쪽은 여학생이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으나, 북한의 통치와 사회가 상대적으로 여성에게 '조심성'의 항목을 더 강조한다는 점, 졸업 후 대부분 군대에 가는 남학생들과 달리 여학생들은 직장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소 빨리 사회생활 전략을 모색하는 점 등이 젠더 차이를 직조해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계층적 측면에서는 부모의 정치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연좌제에 걸리지 않도록 자녀에게 엄격한 규율 준수를 요구한다. 부모의 경제적 지위는 자녀의 규율 수행에 특정 지향을 보이지 않지만, 자녀에게 다양한 ICT 기기와 용돈을 지원해주고 자녀의 교원과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규율 수행의 진폭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해보인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규율 수행이 부모의 계층, 성인세대의 관행과 인식, 지역적 특성 등을 전수받되, 자신이 처한 시공간적 상황에 맞게 변형해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이다. 또한 단속을 피하는 데 성공하든 실패하든, 학생들은 규율 전유 경험을 일시적으로 감각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가용자원, 사회적 이익관계들과 화폐의 힘, 규율 권력의 구성성 등을 간파하고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확인하는 데 활용한다.

강압적인 공식 학교 규율과 달리, 시장화, 정보화, 외부문물 유입 등의 복합적 사회변화 속에서 부상한 새로운 규율 권력은 학생의 일상에 은근하게 개입하여 특정 실천을 유도하며 지역, 젠더, 계층 격차를 확대시킨다. 학생들은 경제적 지위·집단적 권력에 대한 선호, 물질적 기표(외모 및 옷차림)를 통해 기민하게 상대를 인식한다. 때, 단짝, 이성교제와 같은 또래관계들은 화폐(식비, 입장료)와 다양한

경제문화적 사물(선물, 꽃다발, 컨텐츠, ICT 기기 등)을 활용한 놀이문화에 의해 유지·강화된다.

이성교제에 대한 관심과 실천은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며 교제 시작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이성교제에 대한 개방성과 적극성은 북쪽 지역일수록, 남학생일수록 크게 나타난다. 한국 로맨스 드라마·영화의 영향 탓에 ‘낭만적 이성애’의 양식이 활발하게 소비된다. 다만 폭력을 동반한 남학생의 구애 문제 등과 같은 심각한 도덕적 지연도 포착된다. 남학생들의 대표적 “싸나이(반학교)문화”인 싸싸움은 잔혹성만 다소 약화되었을 뿐, 폭력성이 새로운 불균형의 공간으로 전이되면서 풍선효과를 낸다. 폭력을 동반한 집단따돌림, ‘정의’와 ‘문명’의 관점에서 폭력을 정당화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일부 학생들의 또래관계는 서로 다른 종류의 규율 권력이 충돌하는 장 안에서 위태롭게 형성되기도 한다. 이때 충돌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 패에 속한 학생 모두가 일정한 정치·경제·지능·기술의 복합적 능력을 지녀야 한다. 과학기술 중시 및 정보화 정책에 따라 학생들의 ICT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놀이문화에 노트북, 노트텔, 메모리 기기 등이 깊이 개입한다. 이런 놀이문화는 물질적, 기술적, 경제적 조건뿐만 아니라 정치적 위험성을 전제하는데, 재미있는 만큼 단속에 적발되면 치러야 할 비용도 크다. 때문에 규율 전유의 ‘지능적’ 능력·감각은 또래간 관계맺기의 전제조건으로 작용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학생들의 일상에는 새로운 규율 권력이 등장하고 있으며, 공식적 학교 규율 역시 다양한 행위자들의 수행 속에서 조금씩 재구성되고 있다. 일련의 규율 장치들 속에서 학생들은 괴로움과 허탈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새로운 삶의 전략을 발견하거나 소박한 즐거움을 느끼기도 한다. 제도, 규율, 시공간으로서의 고급 중학교는 통치이데올로기에 의해 기획되었지만, 현장에서 그 실질

적 의미와 기능을 가동시키는 것은 일상을 사는 학생들과 또 다른 행위자들이다. 북한 교육은 명령과 지시를 알아듣고 이행할 순종적 인민 만들기를 의도하였으나, 김정은 집권 이후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일방적 지식 주입을 멀리하며 명령과 지시를 지능적으로 전유하는 '새 세대'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분명하게 포착되고 있다.

---

# V. 결론: 평가와 전망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결론: 평가와 전망

이 연구에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학교 일상의 변화 양상과 특징을 교육의 시공간, 교육과정, 규율과 학생문화라는 세 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북한의 학교 일상에서는 근대적 학교의 특성과 북한식 사회주의의 특성이 나타났다. 또한 경제난과 시장화, 정보화라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학생들의 시간, 학교 공간, 교육과정 운영, 학생문화 등 공교육의 일상에 시장경제의 영향력이 침투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기본적인 학교 공간 구성과 교육과정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학교 교육환경과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학교의 지리적, 정치적, 교육적 위치성에 따른 변주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교육 정보화 시설 등 교육환경과 시설 측면에서 도농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의 교육정책, 공식적 교육과정, 학교 규율은 학교 일상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수행을 통해 변형되고 재구성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북한 중등교육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북한의 학교교육은 학생들에게 통치 이데올로기와 신념체계를 체화시키고 이들을 당과 수령에 충실한 인민으로 재생산하는 기능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감소하고 있다. 교육과정과 학교 일상 속의 각종 활동 및 의례를 통해 전달되고 재현되는 수령에 대한 충성심과 집단주의 등의 지배 이데

올로기는 학생들의 형식적 수행<sup>30/</sup>을 통해 끊임없이 재생산되며 재생산의 구조 또한 유지된다. 그와 동시에 형식은 갖추지만 내용이 텅 비어있는 행위자들의 수행은 이를 통해 재생산되는 이데올로기의 지배력을 내면으로부터 약화시킨다. 본문에서 살펴본 정치사상과목 수업 시간의 불성실한 수업 태도, '정성관리'에 대한 '102삼 뜨기' 식의 형식적 참여와 '정성관리' 시간의 전유, '최고사령관 동지'에 대한 농담 등은 형식적 수행과 내용의 괴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들이다.

학교교육의 효과가 감소하는 것은 또한 농촌학교를 비롯한 일부 학교에서 중등학교 학생들의 출석률이 낮기 때문이다. 출석률 저하는 가정 경제의 어려움, 학생들의 생계 노동, 잡부금 부담, 교육열과 진로 기대감 저하, 교육 행정 체계 미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고급중학교 고학년 시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장기결석자의 경우, 학업결손 뿐 아니라 정치사상교양과 조직생활에서의 이탈이 발생하고, 이는 학교교육의 이데올로기적 효과 저하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상황은 단순히 학교교육의 부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제난과 시장화 이후 국가의 신뢰 상실, 시장화 확산과 돈의 위력 증대, 외부문화의 유입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화의 복합적 작용에 의한 것이다. 북한당국은 향후에도 학생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육과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계속 시행하겠지만, 그것은 오히려 학생들의 내용 없는 '형식적' 수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둘째, 북한당국이 우려하고 있는 바와 같이, 평양과 지방, 대도시와 촌락, 도시 중심부와 주변부 학교 간의 교육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농촌학교에서 보편적 교육의 질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30/ '수행'은 단일한 '행위'나 사건이 아니라 규제의 힘, 금기와 금지의 힘 속에서 반복되어진 '행위들'로서 하나의 제식이자 제식화의 산물이다(J. Butler 1993, 조현순 2001, 189에서 재인용).



관리하는 문제에서 북한당국은 정책적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당국은 정책실현에 필요한 물적 자원을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책 방향을 세우고 본보기학교를 지정하여 학교가 도달해야 할 기준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열의를 이끌어내는 ‘따라배우기’ 운동 형태로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킴으로써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개별 학교는 국가의 예산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정책을 반영하여 교육의 개선을 이루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한다. 학교 입장에서 이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은 학부모들 뿐이다. 2000년대 이후 시장경제 활성화로 인해 주민들 간에 경제적 격차가 벌어졌고, 학교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 학부모들의 생활수준이 달라, 학교와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지원에서도 차이가 커지게 되었다. 최근 북한당국은 학교 간 교육격차 심화를 우려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교 운영을 학부모들의 경제적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 하에서 학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지원 정도에 따라 학교별 교육 환경과 시설의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농촌학교들은 북한당국이 2010년대 중반 이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교육 정보화 환경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학교들에서 국가 예산의 투입 없는 교육 정보화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학교의 교육환경과 지역의 전반적인 생활환경 문제는 역량있는 교사를 확보하는 문제와도 연관된다. 북한당국이 2021년에 「시, 군 발전법」을 제정하고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 동시발전’을 목표로 하는 장기계획을 추진할 정도로 도농격차가 심화된 상황에서 농촌학교들은 교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교사에게 지급되는 국가배급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고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제공하는 물질적 지

원이 교사들의 주요한 생계수단이 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학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농촌지역 학교들이 북한당국이 청년들에게 독려하고 있는 '탄원'을 통해 역량있는 교사들을 충분히 확보하기는 어렵다. 도농간 학교교육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농촌지역 학교에 대한 교육재정 투입인데, 현재는 그러한 재정 투입이 국가가 아닌 학부모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학부모는 대도시 중심지역의 경제력을 갖춘 학부모들뿐이다.

한국 역시 도시와 농촌지역의 학교 간에 격차가 있다. 문제는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이 아니라 지역이나 학교 간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교에서 보편교육으로서 최소한의 교육의 질이 보장되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농촌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 속에서 지역사회 인프라의 취약성에 기인한 도시-농촌 학교 간의 격차가 나타나지만, 학교 시설이나 교육자료 등의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농어촌 지역 학교 학생들에 대한 특별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 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에 의하면, 북한의 취약지역의 일부 학교들은 교육시설과 기자재, 교육 정보화 환경, 보건·위생 환경, 교사 역량, 학생 출석률, 교육과정 운영 등 다양한 측면에 걸쳐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는 환경에 처해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당국이 농촌으로의 탄원운동 추동, 교수방법 보급, 사회적 지원 확대 등 도농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취약지역 학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학교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에 드는 비용을 전적으로 학부모들에게 의존하는 구조 하에서는 도시와 농촌지역 학교 간의 격차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셋째, 제1중학교와 일반중학교, 일반중학교 중에도 대도시 중심 학교와 기타 학교의 서열화가 이루어진 가운데, 사회적 선발장치로서

중등교육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북한의 교육정책 변화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는 사회주의적 교육 원리가 지향하는 교육의 평등주의와 국가의 경제적 발전의 필요에 의한 인재 양성 및 교육의 수월성 추구 중 어느 측면에 중심을 두는가 하는 문제이다(조정아 2004b, 47). 해방 후 1980년대까지 북한 교육정책의 중심은 초중등 교육의 기회와 의무교육을 확대하며 교육의 평등을 실현하는 데 두어졌다. 1980년대 들어 교육의 수월성 문제가 재고되었고 그 결과 중등교육 수준에서 '제1중학교'로 대표되는 엘리트교육이 도입되었다. 당시 북한에서 이러한 엘리트교육은 사회적 투자 차원에서 교육의 평등주의적 지향과 공존하였다(조정아 2004b, 66-67).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시기를 경유하며, 국가발전 전략 차원에서 교육에서 수월성 추구의 중요성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당국은 1990년대 후반에 제1중학교를 200여개 이상 설립하고 중등교육체계를 평양제1중학교, 도제1중학교, 시·군·구역제1중학교, 일반중학교 순의 서열화된 구조로 구성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을 능력별로 세분화하여 선발하고 능력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체계를 갖추었다(조정아 2007, 127). 제1중학교 난립에 따라 일반중등학교의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자, 북한당국은 2008년경에 평양제1중학교, 도제1중학교 등 일부 제1중학교만 남기고 대부분의 시·군·구역 제1중학교를 일반학교로 전환하였다(김유연 2014, 2). 그러나 전민군사복무제가 시행되는 가운데,<sup>31/</sup> 대학 입학시험 자격을 제1중학교와 일부 대도시 중심학교에 집중적으로 배정하는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대학 진학을 통한 사회적 선발 기능을 공고히 하였다.

31/ 북한은 2003년 3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6차 회의에서 「군사복무법」을 제정하고 전민군사복무제를 시행하였다. 군 복무기간은 남성의 경우 10년, 여성은 7년으로 알려져 있다(국립통일교육원 2003, 116).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중등교육정책에는 교육의 수월성 추구하고 평등주의 추구의 양 측면이 모두 반영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수월성 추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이 작동되고 있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기치로 내걸고 모든 학교에서 교육의 질 향상과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역별, 학교별 교육격차를 인지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사회주의 교육이 표방하는 평등주의적 지향을 놓치지 않으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물질 자원과 능력있는 교사 배치 등 인적 자원 배분, 선진적 교육과정과 교수방법 도입 등이 제1중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제한된 교육 자원의 선택과 집중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보다 결정적인 것은 교육당국이 지역별, 학교별 대학 입학시험 자격 배분을 통해 인민을 등급화하고 선별하는 장치로서 중등교육의 기능을 유지·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평양의 중앙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는 제1중학교에 우선적으로 배분되고, 다음으로 대도시 시내 중심에 위치한 일반학교에 일부 배분된다. 농촌지역의 일반학교에는 도 대학 입학 기회도 극히 제한적으로 배분된다. 여기에 학교를 유지시키는 실질적인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욕구가 개입하면서 사회적 선발의 장치로서 중등교육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넷째, 시장화 이후 학교의 공간과 시설, 교육과정 운영, 교육행정, 학생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시장경제의 영향력이 공교육에 침투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제력이 있는 학부모들의 수행을 통해 학교교육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당국은 일반중등학교 교육재정이 취약한 가운데,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동원하여 학교 운영과 개선에 드는 비용을 충

당하도록 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국가는 일부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한 모범사례를 통해 도달해야 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추동하고 지역별, 학교별 경쟁을 유도하여 학교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낸다. 이는 해방 이후 북한이 각급학교를 건설하고 교육팽창을 이뤄나간 방식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책은 동일하지만, 시장화 이후 이러한 정책이 작동하는 방식은 이전 시기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해방 후 북한의 학교팽창 과정에서 학부모나 집단의 지원이 주요한 재원으로 작용했지만, 그것은 조직적으로 수합된 후 사용됨으로써 사적인 성격은 사라지고 공공성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이향규 2010, 128). 교육을 국가가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간의 개별적인 경쟁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국가가 학부모의 역할을 하게 되며, 개별 학부모의 지원은 집단적으로 수합되어 국가교육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이향규 2010, 127).

그러나 공교육에 대한 시장경제의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는 지금, 학부모들이 학교 운영을 물질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그들의 교육열이 지향하는 바와 지원의 기제가 완전히 변화하였다. 경제력이 있는 학부모들은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서, 또는 국가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의 교육 성취와 대학 진학, 나아가 사회적 성공을 위해 교육에 투자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한편으로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 운영을 위한 지원금을 내고 자녀를 담당할 담임교사의 생계를 지원하는 모습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사교육을 통해 자녀의 교육 수준 향상을 개별적으로 도모하고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었던 시기에 학부모의 교육열이 ‘집단주의적’ 경로를 통해 수합되었다면, 시장경제의 영향력이 증가한 현재, 학부모의 교육열은 ‘개인주의적’ 경로를 통해 작동한다. 그 결과는 한편으로는

국가 재정이 미치지 못하는 개별학교의 유지와 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별, 개인별 교육격차 확대로 귀결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경제난 이전 성분에 의해 제약되었던 학생들의 진로에 경제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치권력을 지닌 계층에서는 '간부'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자녀들의 대학 진학을 원하고, 성분은 좋지 않지만 경제력이 있는 계층에서는 자녀들에게 전문기술직 직업을 갖도록 하기 위해 자녀들의 대학 진학을 원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북한의 학력과 사회적 지위 획득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 바는 없지만,<sup>32/</sup> 경제적 중상위계층에서 대학 진학과 이를 통한 사회적 지위 획득을 선호한다는 점을 통해 교육이 사회적 지위 획득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성분제에 기초한 기존 사회재생산 체계의 균열이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계급재생산을 통한 지배체제의 강화라고 볼 것인지는 후속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한편, 경제적 능력을 지닌 학부모들과 달리, 농촌지역 거주자를 비롯한 경제적 하위계층의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교육은 사회적 지위 획득 수단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중등교육은 사회진출을 위해 거쳐야 하는 '의무'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이들은 교육에 대한 관심을 거둬들이고, 학교에 열심히 출석하여 학업성취를 이루는 대신 일찍부터 장사일을 배우거나 돈 벌 궁리를 하고, 때로는 의무교육망에서 이탈한다. 이러한 부류의 학부모와 학생들의

32/ 김화순·최봉대는 1980년대 지위성취 모델 연구를 통해 개인의 출신성분과 학력, 군경력, 직업경력 등 경력요인이 사회성분이라는 사회적 지위 획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바 있다. 이 연구 결과 기본군중은 사회적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개인의 경력요인이 이에 영향을 미치는데 비해, 복잡군중의 경우 출신성분과 토대가 사회성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022, 37-38). 1980년대 지위성취 모델이 현재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교육의 가치에 대한 동의 철회는 평등주의를 지향하는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 체계에 균열을 초래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북한의 중등교육은 사회주의적 교육평등을 강화하는 방향보다는 교육의 수월성과 선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공교육의 공공성은 후퇴하고 사적인 투자로서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움직임을 추동하는 힘은 시장경제관계가 확대된 가운데 사회 구조와 제도의 제약 하에서 개인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행위자들이 구성하는 교육일상의 수행성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교육분야의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 차원에서 북한의 교육 취약 지역 및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북한의 교육 상황이 주거지역과 경제적 계층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감안하여,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 교육환경 개선에 초점을 둔 지원 및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회적인 물품지원보다는 학생들의 전반적인 삶과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포괄적,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보건·의료 분야 교류협력이나 지원 시에도 학교교육 환경개선을 염두에 둔 다양한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교 급수 및 위생시설 점검 및 보수, 학교 내 화장실 시설 개선, 보건실 설치 및 의료용품 지원 등 청소년의 건강 및 교육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아동권, 학습권 관점에서 북한 교육 문제에 접근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은 2016-2017년 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심의를 받고, 2019년 제3차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관한

권고를 수용하는 등 아동인권 개선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국제사회를 통해 SDGs의 17대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 중 학교교육 전반과 학생들의 학습권과 관련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환기함으로써 SDGs 이행을 통한 북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여야 한다.

셋째, 남북관계 및 국제적 여건 조성 시 남북한 사회통합을 염두에 둔 교육 분야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자체적인 지속가능한 발전과 북한 청소년 및 주민들의 학습 및 경제활동 역량 강화, 지역 간 균형적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교류협력 사업 개발 시, 취약계층의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권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측면과 정보화 교육, 원격교육, 직업기술교육, 교원 자질향상 등 북한의 관심사를 반영하는 측면 간의 균형 확보가 중요하다. 교육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은 남북관계 진전과 우리 사회 내부의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남북한 통일과 사회통합을 염두에 둔 교육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연구 결과, 남북한 간에 상당한 교육격차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북한의 농촌지역은 통일 이후 가장 취약한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남북한 격차, 특히 북한 농촌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당국이 사회 전반적인 정보화 환경 구축과 교육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의 교육 정보화 수준은 남북한 간에 큰 차이가 있고, 북한 지역 내에서도 학교별 차이가 크다. 통일 후 보편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한의 중등교육 제도와 대학 입시제도에서 여러 가지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를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북한의 교육과 청소년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보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에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는 탈북민 중 최근 북한 학교교육을 경험하거나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탈북민, 신규 입국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북한 교육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부처와 학술기관을 중심으로 교육을 비롯한 북한 사회 각 분야의 양적, 질적 데이터를 수집·보관·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통일부 등 국가기관에서 탈북민 대상으로 수집한 시계열 데이터 중 공개 가능한 자료를 선별하여 연구자에게 개방하여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국가정보원. 2023. 『북한법령집 上, 下』. 서울: 국가정보원.
- 국립통일교육원. 2023. 『2023 북한 이해』. 서울: 국립통일교육원.
- 김병성. 2021. 『교육사회학(3판)』. 서울: 학지사.
- 김순. 2013. 『교수학(전공과용)』. 평양: 김형직사범대학출판사.
- 김신일. 2003. 『교육사회학』. 파주: 교육과학사.
- 김신일·강대중. 2023. 『교육사회학 6판』. 파주: 교육과학사.
- 김운진·김영철·유성철. 2008. 『사회주의교육학(2판)』. 평양: 김형직사범대학출판사.
- 김중두. 2023. 『교육사회학 3판』. 파주: 교육과학사.
- 김호권·이돈희·이홍우. 1977. 『현대교육과정론』. 서울: 교육출판사.
- 미셸 푸코 저·오생근 역. 2020. 『감시와 처벌』. 서울: 나남출판.
- 신영철. 2016. 『청년동맹 및 소년단사업방법(사범대학 청년동맹건설학과)』. 평양: 김형직사범대학출판사.
- 신효숙. 2003. 『소련군정기 북한의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앙리 르페브르 저·박정자 역. 2005. 『현대세계의 일상성』. 서울: 기파랑.
- 알렉세이 유르차프 저·김수환 역. 2019. 『모든 것은 영원했다, 사라지기 전까지는: 소비에트 마지막 세대』.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에드워드 렐프 저·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2005. 『장소와 장소상실』. 서울: 논형.
- 이향규. 2010. “학교교육의 팽창과 교육 개혁.” 이향규·조정아·김지수·김기석. 『북한 교육 60년: 형성과 발전, 전망』, 97-138. 서울: 교육과학사.

- 주디스 버틀러 저·조현준 역. 2008. 『젠더 트러블: 페미니즘과 정체성의 전복』. 서울: 문학동네.
- 조정아·이교덕·강호제·정채관. 2015.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과서』. 서울: 통일연구원.
- 조정아·이춘근·엄현숙. 2020. 『‘지식경제시대’ 북한의 대학과 고등교육』. 서울: 통일연구원.
- 조정아·조영주·조은희·최은영·홍민. 2013.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 경험과 특성』. 서울: 통일연구원.
- 조정아·최은영. 2017. 『평양과 혜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서울: 통일연구원.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위원회. 2013a. 제1차 전반적12년제의무 교육강령(초급중학교). 평양: 교육위원회.
- \_\_\_\_\_. 2013b. 제1차 전반적12년제의무 교육강령(고급중학교). 평양: 교육위원회.
- 진보교육연구소 비고츠키교육학실천연구모임. 2015. 『관계의 교육학, 비고츠키』. 서울: 살림터.
- 최규빈·박환보·이요한. 2021. 『북한의 사회불평등 연구: 건강 및 교육 불평등과 인권』. 서울: 통일연구원.
- 황진태·홍민·강채연·최용호. 2022. 『팬데믹 시대 정책 환경 변화와 북한의 대응』. 서울: 통일연구원.
- Feld, Steven & Keith H. Basso, eds. 1996. *Senses of Place*. NM: School of American Research Press.
- Willis, Paul. 1981. *Learning to Labor: How Working Class Kids Get Working Class Job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2. 논문

- 김영인. 2004. “선군시대에 수재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변을 가져오도록 하신 현명한 령도(2).” 『교원선전수첩2』. 평양: 교육신문사.
- 김유연. 2014. “북한 제1중학교 정책 실태 및 변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준. 2021. “수행성과 하비투스- 버틀러와 부르디외의 간 이론적 접점의 탐색.” 『문화연구』 9권 1호: 9-33.
- 김화순·최봉대. 2022. “1980년대 북한 정치신분제에서 세대 간 지위 세습과 성취기제.” 『현대북한연구』 25권 3호: 8-53.
- 맥닐. 1991. “방어적 수업과 학급 통제.” 이인호·이혜영·김정원·류방란·오성철 편역. 1991. 『교육과 사회』. 서울: 교육과학사.
- 문미라. 2021. “1950~1960년대 북한의 ‘혁명전통’ 확립과정과 역사인식의 변화.” 『역사와 현실』 119호: 237-271.
- 박명화·남상준. 2017. “일상공간에서의 어린이의 장소감: 정서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5권 2호: 41-57.
- 송현저·김병욱. 2005. “고등학생의 학교 공간 체험: 현상학적 접근.” 『청소년시설환경』 제3권 제3호: 3-12.
- 이동민. 2012. “학교에 대한 공간적 접근: 교육공간으로서의 학교.” 한국공간환경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3호: 73-78.
- 임을출. 2016. “북한 지역 간 빈부격차 양태와 결정요인 분석.” 『통일문제연구』 28권 2호: 91-126.
- \_\_\_\_\_. 2022. “북한의 지역균형발전전략과 ‘시군발전법’에 대한 고찰.” 『통일과법률』 50호: 3-31.
- 정규영. 2013. “미셸 푸코의 ‘규율 권력’과 근대 교육.” 『교육사학연구』 제23집 제2호: 157-201.
- 조정아. 2003. “북한의 학교 규율과 ‘사회주의적 노동자’ 만들기.” 『아시아교육연구』 4권 3호: 121-148.
- \_\_\_\_\_. 2004a. “북한 중등학교 규율과 ‘반학교문화’.” 『교육사회학연구』 14권 1호: 121-146.

- \_\_\_\_\_. 2004b. “김정일 시대 북한 교육 정책.” 『아시아교육연구』 5권 2호: 47-72.
- \_\_\_\_\_. 2007. “교육에서의 실리주의와 교육의 불균등발전: 2000년대 북한 교육의 변화.” 『교육사회학연구』 17권 4호: 109-131.
- 조현순. 2001.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정체성 이론-패러디, 수행성, 복종, 우울증을 중심으로.” 『영미문학페미니즘』 9권 1호: 179-207.
- 조현정. 2020. “북한 중등교사들의 교직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22. “북한의 계층구조에 따른 교육격차 요인과 실태.” 이화여자대학교 북한연구회 엮음. 『김정은체제 10년, 새로운 국가전략』, 183-220. 서울: 선인.
- 최영실. 2009. “북한의 조선소년단 조직생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진태. 2020. “‘평양의 강남’은 어디인가?”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6권 3호: 245-259.

### 3. 기타

- 『교육신문』. 2015.4.2.; 2015.5.14.; 2015.5.14.; 2017.4.20.; 2017.9.14.; 2018.10.25.; 2019.11.7.
- 『내나라』. 2016.7.16.
- 『로동신문』. 2012.9.26.; 2013.8.25.; 2014.4.1.; 2014.9.6.; 2019.8.9.; 2021.4.30.; 2022.3.6.; 2022.6.10.; 2022.6.22.; 2022.8.19.; 2022.8.22.; 2022.12.24.; 2023.1.12.; 2023.1.23.; 2023.4.4.; 2023.6.19.; 2023.7.20.; 2023.8.22.; 2023.11.5.
- 『조선중앙통신』. 2013.1.29; 2017.12.10.; 2017.12.19.; 2020.4.27.; 2022.2.25.; 2021.12.13.

-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the DPR Korea and UNICEF. 2018.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Survey Finding Report*. Pyongyang, DPR Korea: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and UNICEF.
-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21.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시설·설비기준령」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do?contId=1709682#1698820857786>;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3%A0%EB%93%B1%ED%95%99%EA%B5%90+%EC%9D%B4%ED%95%98+%EA%B0%81%EA%B8%89+%ED%95%99%EA%B5%90+%EC%84%A4%EB%A6%BD%EC%9A%B4%EC%98%81+%EA%B7%9C%EC%A0%95#undefined> (검색일: 2023.11.1.).
-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2021. “만경대소년학생궁전.” [https://nkinfo.unikorea.go.kr/nkp/knwldg/view/knwldg.do;jsessionid=70FdnforOcybaTF3bGSxnNIL2fMae9WmaEPco3p9.ins22?menuId=NK\\_KNWLDG\\_DICARY&knwldgNo=20](https://nkinfo.unikorea.go.kr/nkp/knwldg/view/knwldg.do;jsessionid=70FdnforOcybaTF3bGSxnNIL2fMae9WmaEPco3p9.ins22?menuId=NK_KNWLDG_DICARY&knwldgNo=20) (검색일: 2023.10.8.).
- SEVENTEEN MOMENTS IN SOVIET HISTORY. Rules for School Children. <https://soviethistory.msu.edu/1947-2/the-new-curriculum/the-new-curriculum-texts/rules-for-school-children> (검색일: 2023.11.1.).
-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UIS). “Other policy relevant indicators: Gross enrollment ratio by level of education.” <http://data.uis.unesco.org/#> (검색일: 2023.10.24.).
- UNICEF Data. <https://data.unicef.org/country/prk/#education> (검색일: 2023.10.31.).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보고서

### 2021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2021-01 남북 민생협력의 효율적 추진방안: 추진체계, 사업기획 및 성과관리	김석진·홍제한
2021-02 북한의 사회불평등 연구: 건강 및 교육 불평등과 인권	최규빈 외
2021-03 국가상징의 문화적 형상과 북한의 브랜드 전략	이지순 외
2021-04 남북 지식협력: 현황 및 추진방향	김수암 외
2021-05 유네스코 공동등재를 활용한 남북 문화유산협력	이우태 외
2021-06 미국의 평화정책과 전망: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한미관계	민태은 외
2021-07 평화·통일 공공외교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의 역할과 개선방안: 주변 4국을 중심으로	전병곤 외
2021-08 동아시아 평화·번영을 위한 비전통 안보 협력	이재영 외
2021-09 국제협력 성패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 연구	정성운
2021-10 북한의 정보화와 주민생활 변화	정은미 외
2021-11 김정은 지배체제 구축과 권력 안정화	오경섭 외
2021-12 김정은 정권의 핵 외교와 대외정책 변화	김진하 외
2021-13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경제정책, 대외무역, 주민생활	홍제한·김석진
2021-14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정책: 복지와 통제를 중심으로	정은미 외
2021-15 KINU 통일외식조사 2021: 통일·북한 인식의 새로운 접근	이상신 외
2021-16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의 SDGs 소개와 지표분석	황수환 외
2021-17 남북 재해재난 공동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추진방향	나용우 외
2021-18 남북 접경지역 재해·재난 대응력 제고를 위한 '방재전이공간(TSDP)' 조성방안 기본 연구	김형수 외
2021-19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I: 여성과 섹슈얼리티	박영자 외
2021-20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II: 모성과 양육	이윤진 외
2021-21 평화의 인권·발전 효과와 한반도	서보혁 외
2021-22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대응: 역사적 사례와 시사점	신종호 외
2021-23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주변국 협력 방안	이기태 외
2021-24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일본의 대한민국 협력 방안	최희식 외
2021-25 세계질서의 재편과 신한반도체제	박은주 외
2021-26 북한발전모델과 한반도 컨센서스	이재영 외

2021-27 한반도 군비경쟁과 평화정착	장철운 외
2021-28 한반도 생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협력 방향 모색	최지영 외
2021-29 북한 일상생활 공동체의 변화	최지영 외
2021-30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김갑식 외
2021-31-01 평화공동체 확산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박주화 외
2021-31-02 2021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외
2021-32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이무철 외
2021-33 한반도 신경제구상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정은이 외
2021-34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조한범 외

〈정책연구시리즈〉

2021-01 2020년 미 대선 이후 한미관계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	이상신 외
2021-02 북한의 효과적인 SDGs 이행을 위한 공간전략 탐색: 접경지역 산림특구안을 중심으로	황진태·백일순
2021-03 한중 보건 협력과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활성화 방안	황태연
2021-04 통일공공외교 수요조사	이상신·이재원

〈Study Series〉

2021-01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Suk-Jin Kim
2021-02 North Korea's Income-Population Puzzle	Jea Hwan Hong · Suk-Jin Kim
2021-03 North Korea's College and University and Higher Education System in an 'Era of Knowledge Economy'	Jeong-ah Cho · Choon Geun Lee · Hyun-suk Oum
2021-04 A Study on the Access to In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People	Soo-Am Kim et al.

2022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22-01 기후변화와 북한인권: 실태 및 협력방안 -SDGs 매개의 남북인권협력 관점에서-	이규창 외
2022-02 북한 국영기업 현대화를 위한 남북협력 방안	김석진·홍제환
2022-03 북한 게임의 문화융합: 게임산업, 콘텐츠, 경험	이지순·최선경
2022-04 북한의 SDGs 이행 현황 및 지표 분석	최규빈 외
2022-05 해외사례를 통해 본 남북 접경협력의 추진 방향과 전략	나용우 외
2022-06 2022 접경지역주민 인식조사	나용우·이우태
2022-07 남북 지역교류 활성화 방안: 북한의 새로운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정은이·이해정
2022-08 북한의 중산층	정은미 외



2022-09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정책: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민태은·박동준
2022-10 북한의 코로나19 대응과 국제사회의 대북협력	황수환·권재범
2022-11 체제전환국 국가·종교 관계와 북한에 대한 합의	현승수 외
2022-12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전략	조한범 외
2022-13 한반도 외교안보 환경 변화와 평화·비핵 체제 모색	김상기 외
2022-14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남북관계 인식과 협력 모색	이무철 외
2022-15 포스트-코로나 시대 동북아 군비경쟁과 한반도 안보 협력	장철운 외
2022-16 북핵 도전요인과 국제협력	정성윤 외
2022-17 비핵화 합의와 이행의 법·제도적 문제: 주요 비핵화 사례를 중심으로	도경옥 외
2022-18 시진핑 시대 중국의 핵심이익과 한반도 평화·번영	이재영 외
2022-19 발전의 평화·인권 효과와 한반도	서보혁 외
2022-20 KINU 통일익식조사 2022	박주하 외
2022-21 팬데믹 시대 정책 환경 변화와 북한의 대응	황진태 외
2022-22 동북아 정세 변화와 북한의 전략적 선택: 미중 경쟁구도의 전개와 북한의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김진하 외
2022-23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재정금융 제도 변화	최지영 외
2022-24 북한의 전략국가론과 핵무기 고도화	홍 민
2022-25 북한 미래세대를 위한 개발협력 구상: 해외 사례와 시사점	홍제환 외
2022-26 미중 전략경쟁시대 한국의 복합대응전략	김갑식 외
2022-27 북한 주민의 생활세계(life-world): 이론과 방법론	박영자 외
2022-28 2022 북한 공식시장 현황	홍 민 외

〈정책연구시리즈〉

2022-01 중국 20차 당대회 분석과 한반도에 주는 함의	전병곤 외
2022-02 동아시아 다중 안보 위기 속 북한의 비대칭전력 증강이 가지는 의미	박은주
2022-03 2022년 미국 중간선거와 정당별 정책 전망	민태은 외
2022-04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국정과제 추진방향	한동호 외
2022-05 북한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론과 대북안전보장 방안	홍 민 외

〈Study Series〉

2022-01 An Assessment of the Last Decade of the Kim Jong-un Regime	Hyeong-Jung Park et al.
2022-02 The Cultural Meaning of North Korea's National Symbols and Its Branding Strategy	Ji Sun Yee et al.
2022-03 The Restructuring of the World Order and a New Korean Peninsula System	Eun Joo Park et al.

2022-04 The Arms Race and Peac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Cheol-wun Jang et al.

2022-05 Exploring Inter-Korean Cooperation for the Formation of a Life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Ji Young Choi et al.

2023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23-01	김정은 정권의 도시공간 재편전략: 진지전 도시화의 관점에서	황진태
2023-02	국제기구의 국가진단 방법을 통해 본 북한 경제발전 전망과 과제	김석진
2023-03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와 한반도	서보혁 외
2023-04	북한 휴대전화 보급이 주민 삶의 질에 미친 영향 분석: 취약계층의 소득증대를 중심으로	정은이·이해정
2023-05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비전과 남북관계 운영전략	김갑식 외
2023-06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	장철운 외
2023-07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을 위한 SDGs 협력 방안	조한범 외
2023-08	남북 그린데탕트를 통한 한반도 기후·환경공동체 구축 방안	이무철 외
2023-09	한반도 비핵·평화·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방안	현승수 외
2023-10	KINU 통일외식조사 2023: 한국의 자체적 핵보유 가능성과 여론	이상신 외
2023-11	접경에서 시작하는 남북 그린데탕트 실현 방안	나용우 외
2023-12	2023 접경지역 남북협력 인식조사	나용우·이우태
2023-13	북한의 SDGs 이행을 위한 역량 접근과 공동 성과	최규빈 외
2023-14	김정은 시대 뉴미디어 대외선전 실태와 전략	이지순 외
2023-15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과 중러북 경제관계 변화 대응 전략	이재영 외
2023-16	북한 핵보유 협상전략: 이해와 전망	정성윤·김민성
2023-17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소비재 생산과 유통 실태	최지영 외
2023-18	김정은 정권의 농촌발전전략	정은미·박희진
2023-19	김정은 시대 북한의 청년들: 순응과 자립 사이, 국가와 시장을 횡단하기	조정아 외
2023-20	북한 주민의 직장 생활	박형중 외
2023-21	북한 주민의 학교 생활: '인민'의 재생산과 학교 일상의 수행성	조정아 외
2023-22	북한 주민의 가정 생활: 국가의 기획과 국가로부터 독립	박영자 외
2023-23	일본 기시다 정부의 대외전략	이기태 외
2023-24	미국의 경제 제재 정책: 2차 제재 방식을 중심으로	황수환 외
2023-25	중국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정책	황태연 외
2023-26	북한의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계획: 전략적 의도와 추진체계	홍민 외
2023-27	평양의 도시정치와 공간구조	홍민 외

〈정책연구시리즈〉

2023-01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전방향: 자유·평화·번영의 한반도 통일방안	오경섭 외
2023-02	담대한 구상의 여건 조성 방향	정성윤 외
2023-03	남북 체제비교와 성과 연구: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동호 외
2023-04	중·러·북 연대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전략	이재영 외

〈Study Series〉

2023-01	The Changes in North Korea's Fiscal and Financial System in the Kim Jong-Un Era Ji Young Choi et al.
2023-02	North Korea's Response to Its COVID-19 Outbreak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Support to North Korea Soohwan Hwang et al.
2023-03	The Challenges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ung-Yoon Chung et al.
2023-04	North Korea's Official Markets in 2022 Min Hong et al.
2023-05	Unification and North Korea Policy of the Yoon Suk Yeol Administration: Implementing Government Tasks Dong-ho Han

KINU Insight

2021-01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	홍 민 외
2021-02	김정은 시대 주요 전략·정책용어 분석	홍 민 외
2021-03	2014~2020년 북한시장의 소비자물가 및 환율 변동: 추세, 특징, 시사점	최지영
2022-01	김정은 시대의 북한: 10년 평가와 2022년도 전망	홍제환 외
2022-02	2022 북핵 도전요인 전문가 인식조사	정성윤 외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21	오경섭 외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1	오경섭 외
북한인권백서 2022	이우태 외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2	이우태 외
북한인권백서 2023	이우태 외

## 연례정세보고서

---

2021	2022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22	2023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23	2024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 정기간행물

---

- 통일정책연구, 제30권 1호 (2021)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0, No. 1 (2021)
- 통일정책연구, 제30권 2호 (2021)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0, No. 2 (2021)
- 통일정책연구, 제31권 1호 (2022)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1, No. 1 (2022)
- 통일정책연구, 제31권 2호 (2022)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1, No. 2 (2022)
- 통일정책연구, 제32권 1호 (2023)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2, No. 1 (2023)
- 통일정책연구, 제32권 2호 (2023)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2, No. 2 (2023)

## 기타

---

2021	국제 평화문서 번역집	서보혁·용혜민 엮음
2022	2022 KINU 북한도시포럼 발표집: 「육망의 모노리스,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도시변화」 홍 민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s://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회원 가입신청서

\* 표는 필수항목입니다.

신청자 성명* (입금자가 다를 경우 별도 표기)		소 속*	
간 행 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		
연 락 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메일 서비스	수신 (     )                     수신거부 (     )		
회 원 구 분*	학생회원 (     )	일반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일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위탁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도서회원 서비스 제공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금일로부터 1년 (회원자격 갱신 시 보유기간은 1년 연장)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5. 개인정보 취급업무 위탁 내역(고지사항)

위탁 받는 업체(수탁업체)	업무내용
(주) 코리아디엠	발간물 발송 업무 처리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도서 회원 가입 및 발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보내주세요.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앞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8, E-Mail: books@kinu.or.kr

※ 온라인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www.kinu.or.kr

북한 주민의 학교 생활:  
‘인민’의 재생산과 학교 일상의 수행성

 통일연구원

값 13500원  
93340



9 791165 891596

ISBN 979-11-6589-159-6